

제82차 한국어학회 전국학술대회

일시 : 2022년 2월 18일(금)

주최 : 한국어학회

■ 제82차 한국어학회 전국학술대회 ■

- 주 제: 한국어 관용 표현
- 일 시: 2022년 2월 18일(금) 9:20 ~ 18:50
- 일 정

09:20~09:30 (10분)	개회 개회사: 한정환(한국어학회장)	사회: 이영제(고려대)
개인 발표		사회: 김현주(공주교대)
09:30~10:00 (30분)	(1) 텍스트 장르에 따른 은유·환유 산체어 관용구의 계량언어학적 연구 '손'을 포함한 관용구를 중심으로 ▪ 발표: 제조현(연세대) ▪ 토론: 신희성(고려대)	
10:00~10:30 (30분)	(2) '투성이'의 의미 및 형태·통사적인 특징에 대하여 ▪ 발표: 홍정현(한국교원대)·이동석(한국교원대) ▪ 토론: 정경재(창원대)	
10:30~10:40(10분) 휴 식		
10:40~11:10 (30분)	(3) '발런'이라는 용어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고찰: 경멸 감정을 중심으로 ▪ 발표: 백준영(연세대) ▪ 토론: 오새내(계명대)	
11:10~11:40 (30분)	(4) 로마자 인명 표기의 실제: 언중의 입장에서 ▪ 발표: 심주희(연세대) ▪ 토론: 허인영(고려대)	
11:40~13:00(80분) 점심 식사		
13:00~13:10 (10분)	신진연구자상 시상식	사회: 이영제(고려대)
기획 발표		사회: 이동혁(부산교대)
13:10~13:50 (40분)	기조 강연: 관용표현 연구의 현황과 전망 ▪ 발표: 문금현(숙명여대)	
13:50~14:30 (40분)	(1) 의미-텍스트 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본 관용표현의 특성 ▪ 발표: 임근석(국민대)	
14:30~15:10 (40분)	(2) 구문적 속어와 관용표현 ▪ 발표: 최종원(서울대)	
15:10~15:20(10분) 휴 식		
15:20~16:00 (40분)	(3) 한국어 교육을 위한 관용 표현 연구 ▪ 발표: 유해준(상지대)	
16:00~16:40 (40분)	(4) 관용 표현의 사전 처리 방향 ▪ 발표: 김혜령(고려대)	
16:40~17:20 (40분)	(5) 데이터 기반 관용 표현 연구 ▪ 발표: 김한샘(연세대)	
17:20~17:30(10분) 휴 식		
17:30~18:30 (60분)	종합토론 ▪ 도재학(경기대), 전후민(연세대), 손다정(서울여대), 정유남(중앙대), 송상현(고려대 언어학과)	좌장: 최경봉(원광대)
18:30~18:50 (20분)	연구윤리교육 및 폐회 폐회사: 한정환(한국어학회장)	사회: 이영제(고려대)

제82차 한국어학회 전국학술대회

<개인 발표>

-
- ❶ 텍스트 장르에 따른 은유·환유 신체어 관용구의 계량언어학적 연구;
‘손’을 포함한 관용구를 중심으로

제조현(연세대)

- ❷ '투성이'의 의미 및 형태·통사적인 특징에 대하여

홍정현(한국교원대)·이동석(한국교원대)

- ❸ ‘발련’이라는 용어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고찰: 경멸 감정을 중심으로

백준영(연세대)

- ❹ 로마자 인명 표기의 실제: 연중의 입장에서

심주희(연세대)

텍스트 장르에 따른 은유·환유 신체어 관용구의 계량언어학적 연구 - ‘손’을 포함한 관용구를 중심으로 -

제조현(연세대 박사과정)

1. 서론

1.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본고는 현대국어 구어와 문어 말뭉치에서 추출한 은유·환유 신체어 관용구를 대상으로 이들의 의미 범주, 장르별 분포 특징과 의미빈도를 계량적으로 밝히는 데에 목적을 둔다.

관용구의 사용은 구어와 문어에서 구분 없이 사용되는 문맥이나 상황에 따라서 자유로운 변이 양상을 보이고(문금현, 1996:84-88) 주로 친근한 관계이거나 비격식적인 발화 환경에서 사용된다(유현경 외, 2015:248-251). 이에 대해 권경일(2009, 2010)에서 문어와 사전에서의 관용구의 변이 형태를 고찰하였고 김선영(2014)에서 구어에서의 관용구의 변이 형태를 다루었다. 즉 관용구는 주로 문어보다 구어에서 많이 사용되고 격식이 있는 구어에서보다 비격식 구어에서 많이 사용된다.

그리고 김홍수(1998:344)에 의하면 속어, 관용 표현은 의미 확대나 생성이 문맥으로부터 더 자유롭게, 그리고 화용·사회·문화적 요인과 관련되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역시 개념적 어휘 표현에 비해 다른 표현·문체 효과를 나타낸다고 한다. 따라서 구어 자료와 문어 자료에서 관용구의 사용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체·장르가 가지는 말뭉치를 활용하여 관용구의 장르별 분포 특징과 의미빈도를 조사하여 비교 분석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이런 필요성을 주목하여 김한샘(1999, 2004)에서 말뭉치에서 추출한 관용구를 대상으로 문자적 의미와 관용적 의미를 주석하여 이들의 의미빈도를 밝혔고 송현주(2015)에서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말뭉치에 나타난 의식주 관용구를 대상으로 이들의 동기화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한국어 관용구의 은유·환유의 본격적인 연구는 최지훈(2010)에서 시작되었는데(이동혁, 2003)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본 관용구 연구는 주로 비유적 의미(송현주, 2015)와 동기화 양상 분석(송현주, 2017)에 집중하여 탐구해 왔다. 즉 이는 은유·환유 관용구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의미 특성과 이들의 장르 분포 간의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가 드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한국어에서 약 54%의 관용구는 신체어를 포함한 관용구이다(문종선, 1995). 정수진(2018)에서 사전과 말뭉치에서의 관용구를 조사하여 선정된 관용구 목록(100위)을 살펴보면 신체어를 포함한 관용구가 50개 이상이였다. 즉 신체어 관용구는 실제 언어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신체어는 언어와 의미 연구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므로(임혜원, 2015) 언어생활에서 사용되는 신체어 관용구는 개념적 은유와 개념적 환유의 용법이 많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신체어에서 고빈도로 쓰인 손¹⁾을 선정하여 이를 포함한 은유와 환유를 작용한 관용구를 대상으로 재구성된 구어와 문어 말뭉치에서 이들을 추출하여 문자적 의미와 관용적 의미를 주석한 다음에 설정된 분석의 틀을 활용하여 이들의 의미빈도와 장르별 분포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1.2. 선행 연구와 논의의 구성

관용구는 사회·문화·화용적인 배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흥미로운 주제로 지금까지 이론적 측면에서만뿐만 아니라 응용언어학에서도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

첫째, 관용구의 종합적인 연구사의 검토는 문금현(1996), 임지룡(2021a, 2021b) 등이 있다. 둘째, 말뭉치언어학, 사전편찬, 기계번역에 관한 관용구의 연구로 강현화(1987), 김한샘(1999, 2003, 2004), 이희자 외(2007), 이동혁(2007), 안의정(2018) 등이 있다. 셋째, 국어교육, 한국어 교육, 대조언어학의 시각으로 본 관용구 연구는 문금현(1998), 정수진(2018), 송현주(2021) 등이 있다. 넷째, 문체학과 변이 양상을 검토한 관용구 연구로 김홍수(1998), 권경일(2004), 김선영(2014) 등이 있다. 다섯째, 의미론과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관용구의 의미 확장과 동기화 양상을 탐구한 연구로 김정아·송현주(2013), 송현주(2015, 2017) 등이 있다.

국어 관용구는 일찍이 盧壽連(1936)에서 고찰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金文昌, 1990: 543), 최현배(1937/1971)에서도 ‘특정한 뜻과 동일한 꼴을 가지고 흔히 쓰이는 것’을 ‘이은말(連語)의 하위 유형인 ‘문자(文字=熟語, 成句)²⁾’라는 단위로 설정하였고 기능에 따라 임자씨

1) 최현배·이승화(1955)를 참고하여 기본어휘인 신체어의 순위와 관련 정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이를 통해 ‘손’은 일상생활에서의 사용 빈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손을 포함한 관용구’를 선정하는 이유는 2가지가 있고 구체적으로 3.2를 참고.

<표 1> 『우리말에서 쓰인 글자의 찾기 조사』에서 기본어휘인 신체어의 사용 순위

기본어휘	사용 순위	순위	페이지 수(소리순)	페이지 수(찾기순)
눈	97위	1	565쪽	12쪽
손	140위	2	708쪽	12쪽
얼굴	191위	3	891쪽	12쪽
입	254위	4	846쪽	13쪽
머리	285위	5	609쪽	13쪽
고개	432위	6	495쪽	14쪽
발	493위	7	확인하지 않음	15쪽
귀	607위	8	531쪽	16쪽
목	794위	9	615쪽	17쪽
코	1069위	10	817쪽	20쪽
턱	2718위	11	822쪽	확인하지 않음

2) 최현배(1937/1971)에서 월의 밑감(文의 素材)을 그 짜힘(組成)으로 보아서, (1) 낱말, (2) 이은말(連語), (3) 마디(節, 句)의 세 가지로 나뉘었다. 이 가운데 이은말의 유형을 바달(性質)에 따라 임자 이은말(體言連語), 풀이 이은말(用言連語), 매김 이은말(冠形連語), 어찌 이은말(副詞連語) 네 가지로 나뉘었다. 그리고 이은말(連語)에서 문자(文字=熟語, 成句)라는 단위도 설정하였고 문자란 ‘특정한 뜻과 동일한 꼴을 가지고 흔히 쓰이는 것’이다. 예는 다음과 같다.

(ㄱ) 임자씨 같은 문자: 그림의 떡, 누워 떡 먹기, 염소 물통 누기, 아니 땀 굴뚝에 내(煙氣), 부유(蜉蝣) 같은 인

같은 문자, 어찌씨 같은 문자, 풀이씨 같은 문자로 분류하였다.

우선 연구사적인 논의인 문금현(1996), 임지룡(2021a, 2021b)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금현(1996)에서 시기별로 관용 표현³⁾의 개념을 설정하여 이의 연구사(제1기~제6기)를 정리하였고 기존 논의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통시적인 자료에 나타난 관용 표현을 시기별로 계량적으로 통계하고 어휘·의미론, 화용론, 통사론과 사전편찬학의 시각으로 분석하였다.

최근에는 임지룡(2021)에서 1980년을 전환점으로 삼고 전통적인 관점과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관용 표현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관용 표현의 동기화, 변이 형태, 사용 동기와 사회문화적 관련성 등 이론 언어학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관용 표현의 선정, 말뭉치를 기반으로 한 계량적인 분석, 사전편찬과 국어교육·한국어 교육 등 응용언어학의 측면에서 앞으로의 탐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전산언어학, 사용 빈도와 분포 특징, 동기화 양상 분석과 국어교육 등 말뭉치언어학이나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관용구를 연구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한샘(2004)에서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 큰사전』, 『연세 한국어사전』, 『관용어 사전』, 『한국어 기본 속어 사전』, 『21세기 세종계획 전자 사전(98-03)』에 실린 표제어 중 은유성, 중의성, 합성성을 만족하는 관용 표현 항목을 뽑아내어 언어정보처리와 전자 사전 구축의 시각으로 분석하였다. 안의정(2016)에서 『연세 한국어사전』의 부표제어와 연어 목록, 『한국어 기본어휘 의미빈도 사전』과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4단계) 최종보고서(한송화(2015))」를 통해 어휘 풍요도 측정을 위한 관용 표현 목록을 확정하여 이들의 다양한 텍스트 유형에서의 사용 빈도와 분포 특징을 밝혔다. 송현주(2017)에서 의식주와 관련 관용 표현의 동기화 양상을 밝히기 위해 세종계획과 『표준국어대사전』에서의 관용 표현의 목록을 대상으로 Trend 21 코퍼스에서 관용 표현의 핵심어(식 범주, 의 범주, 주 범주)를 추출하여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이들의 동기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정수진(2018)에서 한국어 교육용 관용 표현 목록을 확정하기 위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 1-4』, 『속담 100, 관용어 100』과 『우리말 관용어 사전』에서 3회 이상 출현한 관용 표현을 목록화하고, 이 가운데 실제 활용도가 높은 관용 표현을 선정하기 위해 한국어 화자의 사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관용구의 정의와 범위가 다양하게 설정되었고(김문창, 1990; 임지룡, 2021) 심지어 이를 어휘적 언어와 헛갈리는 경우도 종종 있기에(김진해, 2000; 임근

생...

(ㄴ) 어찌씨 같은 문자: 조선 천하에, 십상 팔구로, 세상 없어도, 어느 덧에, 어느 새에, 아닌 밤중에, 마지 못해(서), 하다 못해...

(ㄷ) 풀이씨 같은 문자: 보잘것없다, 말할 것 없다, 철석같이 굳다, 날빛보다 더 밝다...

위의 분류와 용례를 보면 ‘그림의 떡’, ‘세상 없어도’, ‘철석같이 굳다’와 같은 덩어리가 월(문장)에서 각각 명사(임자씨), 부사(어찌씨), 동사(풀이씨)처럼 쓰일 수 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우리말본』(1937/1971)에서부터 속어, 관용 표현과 관련 기술이 있었다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다.

3) 본고는 선행 연구를 검토할 때 원래의 용어(예: 관용 표현, 속어)를 사용하였다. 나머지 경우에 ‘관용구’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석, 2002; 남길임, 2004) 본고는 위에 제시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관용구의 용어와 정의를 규정하고 말뭉치에서 추출한 신체어 관용구의 문자적 의미와 관용적 의미를 판별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둘째, 관용구 사전의 기술에 따라 손을 포함한 은유와 환유가 작용한 관용구는 주로 어떤 의미 범주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한다.

셋째, 말뭉치에서 추출한 연구 대상을 은유가 작용한 관용구, 환유가 작용한 관용구, 은유와 환유가 모두 작용한 관용구로 나눠서 장르별 의미빈도와 분포 특징을 밝히고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이런 분포 특징을 해석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과 제3장에서 관용구의 개념, ‘어휘적 언어’와의 판별 기준, 연구용 말뭉치의 장르 구성, 연구 대상인 은유·환유 신체어 관용구 목록의 선정 과정, 그리고 ‘분석의 틀’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어서 제4장과 제5장에서 ‘분석의 틀’을 활용하여 은유·환유 신체어 관용구 사전적 의미 범주(의미상의 특징)와 말뭉치에서의 장르별 분포 특징(문체상의 특징)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결론을 요약하고 미진한 점과 후속 연구를 제시한다.

2. 관용구의 개념, 언어와의 판별 기준

1.2에서 언급하였듯이 관용구의 선행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쟁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관용구의 용어와 정의는 다양하게 설정하였다. 다시 말하면 연구자들이 속어, 관용어, 관용 표현, 이디엄, 익힘말, 협의 관용어 등 용어들을 사용해 왔다.

둘째, 관용구와 언어의 판별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대규모 코퍼스에서 추출한 관용구를 분석할 때 관용적 의미도 있고 문자적 의미도 있다. 즉 관용구의 투명성이 다르기 때문에 문맥을 벗어나면 중의성이 있다.

셋째, 연구 목적(한국어 교육, 사전편찬, 기계번역 등)에 따라 다양한 관용구 목록을 확정하여 연구를 진행해 왔다.

따라서 제2장에서 앞 2개의 쟁점을 해결하고 세 번째 쟁점은 3.2에서 다루고자 한다.

본고에서 다루는 관용구의 개념은 임지룡(1992, 2021)의 ‘구 층위의 관용 표현’이라는 개념과 같고 ‘관용구’와 ‘어휘적 언어’의 판별은 임근석(2005)을 따랐다.

임지룡(1992, 2021:4)에 따르면 관용구는 둘 이상의 구성 요소가 결합체를 이루면서 (1) 내용적으로 의미가 특수화되어 있고, (2) 형식적으로 구성 방식이 고정되어 있는 결합 관계를 말한다. 마찬가지로 문금현(1999: 53-77)에서도 관용 표현을 (1) 형식적 차원에서 관용 표현을 관용어, 관용구, 관용절, 관용문으로 나눴고 (2) 의미의 투명성에 따라 불투명한 유형, 반불투명한 유형과 반투명한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즉 관용구는 ‘구 단위의 관용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형식적 차원에서 본 관용 표현의 유형 분류

- ┌ 순수 관용어: 관용적 합성어, 의사 합성어
- └ 관용구: 체언형 관용구, 용언형 관용구, 부사형 관용구, 기타 관용구
- └ 관용절: 서술형 관용절, 부사형 관용절, 관형형 관용절
- └ 관용문: 단문, 복문

첫째, 의미적인 측면에서 관용구는 구성 요소의 의미 총합이 아닌 제3의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된다(임지룡, 2021:4). 예를 들면, ‘손을 대다’는 ‘일을 시작하다’라는 ‘관용적 의미(idiomatic meaning)’와 ‘손으로 만지거나 건드리다’라는 ‘문자적(literal meaning)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문장에서 관용적인 의미를 나타낼 때 그 의미는 ‘손’이라는 명사와 ‘대다’라는 동사 그대로의 의미의 합성을 넘어선다.

둘째, 형식적인 측면에서 관용구의 구성은 대체로 고정된 형식을 지니게 된다. 예를 들면, ‘손을 떼다’는 ‘하던 일을 그만두다’라는 ‘관용적 의미’를 나타낼 때 ‘손’이라는 명사와 ‘떼다’라는 동사의 통합관계는 고정되어 통사적 변형이 자유롭지 않다.

이런 통합관계⁴⁾에서의 어휘소들이 자유롭게 결합할 수도 있고 비자유결합의 경우도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통합관계에 있는 어휘 관계의 유형은 관용구(idiom), 연어(collocation), 속어(proverb), 격언(maxim) 등이 있다. 2000년 이후에 대규모 말뭉치가 구축되면서 관용구, 연어⁵⁾, 속어에 관련 계량적인 연구가 많아졌다. 아울러 말뭉치를 기반으로 한 성구론 연구⁶⁾의 발전에 따라 어휘꾸러미(어휘다발, lexical bundle), 우언적 구성(periphrastic construction)⁷⁾, 정형표현(정형화된 표현, formulaic expressions)⁸⁾, N-그램(N-gram), 확장된 어휘 단위(extended lexical unit)와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해 왔다.

이와 관련해서 김한샘(2003)에서 다언절변환단위(Multi-Word Translation Unit)라는 단위를 설정하여 자연언어처리의 관점에서 관용 표현의 변별을 위한 정보를 논의하였고 특히 관용

-
- 4) 현대 언어학 이론의 창시자인 소쉬르(Saussure)는 언어 내부에서 통합적인 관계(syntagmatic relations)와 계열적인 관계(paradigmatic relations)라는 중요한 쌍을 설정하였다. 이 가운데 통합적인 관계는 요소들이 결합하여 좀 더 큰 형태나 문장 등의 단위로 늘어나는 방식을 명시해 주고, 계열적 관계는 언어의 특정 체계 내의 요소들 사이의 관계로서 주어진 문맥에서 서로 대체될 수 있는 요소들의 집합으로 나타난다(남기심·이정민·이홍배, 1997:21-22). 소쉬르가 계열이론과 결합이론을 제안한 후부터 언어학자들은 언어의 계열 관계와 결합 관계를 효율적으로 연구해 왔다(필옥덕, 2004:30).
- 5) 한국어의 연어에 대해서는 이동혁(1998, 2003, 2004), 김진해(1999, 2002, 2019), 강범모·최호철·홍종선(2000), 홍종선(2001), 한영균(2002, 2016), 서상규(2002), 임홍빈(2002), 노마 히데키(2002), 임근석(2002, 2005, 2006/2010, 2007, 2008, 2011/2016), 강현화(2003), 여춘연(2010) 등이 있다.
- 6) 전통적인 성구론(Cowie:1998, 2001)에 따르면 단어의 조합은 통사적으로 기능하는 합성구(composites)와 화용적으로 기능하는 정형어구(formulate)로 나뉜다. 말뭉치언어학에서 성구론이 활발히 수행되면서 ‘다양한 추출 절차를 고려한 성구론 단위’들의 분류 체계를 나타낸다. 최준(2015)에 따르면 분포적 범주는 N-그램(어휘꾸러미, Skip-gram, Conc-gram 등)과 연어로 나뉜다. 이 가운데 정형표현에 관한 용어들은 multi word unites(다중 어휘 단위, Moon:1997), formulaic expressions(정형화된 표현, Wray:2000), lexical bundles(어휘꾸러미, Biber et al:1999), prefabricated sequences(고정된 연속, Wray & Prekins:2000) 등이 있다.
- 7) 한국어의 우언적 구성에 대해서는 도재학(2010), 김선휘(2018) 등이 있다.
- 8) 한국어의 정형표현에 대해서는 장석배(2014), 최준·송현주·남길임(2010), 남길임(2012, 2013), 남길임·최준(2014, 2019), 김정아·최준(2019), 손상미(2020) 등이 있다.

적 의미와 문자적 의미의 판별, ‘임시결합, 선택 제약, 연어, 속어와 속담’의 기계적인 판별 방법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김한샘(2003:50)의 기술을 바탕으로 ‘인접 형태’라는 용어를 설정하여 ‘구 단위의 인접 형태’와 ‘문장 단위의 인접 형태’로 나눠서 정리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인접 형태’의 유형과 예시

유형				예시	
구 단위의 ‘인 접 형태’	자유 결합 (어휘소 결합 제약이 없음)			떡을 먹다 ⁹⁾	
	비자유결합 (어휘소 결합 제 약이 있음)	관용구		떡국을 먹다	
		연어	어휘적 연어		더위를 먹다
			문법적 연어(우연적 구성 포함)		~기 때문에
					~기 때문이~
문장 단위의 ‘인접 형태’	상투 표현			처음 뵈겠습니다.	
	속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격언			시간은 금이다.	
	호응 관계			결코 ~ 아니다.	
	문장 패턴			~려면 ~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관용 표현’과 ‘어휘적 연어’ 간 경계상의 모호성을 주목하여 임근석(2005)에서 이들의 기본적 특성¹⁰⁾을 바탕으로 세밀한 판별 기준을 세우고 검토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김한샘(2003)과 임근석(2005)에서 제시한 판별 기준을 참조하고 말뭉치에서 추출한 신체어 관용구를 대상으로 이들이 문맥에서 관용적인 의미(관용구)나 문자적 의미(연어)를 나타내는지를 판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고 <그림 1>은 ‘손’을 중심으로 동사 ‘달다’가 ‘span=3’의 경우 추출한 용례, 앞 문맥과 뒤 문맥의 일부이다.

첫째, ‘손’을 중심어(node)로 문맥색인(KWIC)¹¹⁾할 때 ‘범위(span)=3’으로 설정하여 용례를 추출한다. 둘째, 관용구를 포함한 용례만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관용적 의미와 문자적 의미를 판단하기 위해 용례의 앞 문맥과 뒤 문맥도 같이 추출한다. 셋째, ‘관용구 말뭉치의 태그 세트(tagset)’를 설정하여 관용적 의미나 문자적 의미를 주석한다.

9) 임근석(2005:981)의 예(1)을 참고. 그리고 표를 작성할 때 이희자(1995), 김진해(2000), 임홍빈(2002) 임근석(2002), 서상규(2002), 남길임(2004), 이희자·유현경·김한샘·천미애(2007), 장석배(2014) 등을 참고하였다.

10) 임근석(2005:994)에 따르면 관용 표현과 어휘적 연어의 기본적 특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관용 표현과 어휘적 연어의 기본적 특징

	비교 기준	관용 표현	어휘적 연어
1	구성 요소	분석 불가	이항관계
2	공기성	중립적	높음
3	분포	고정적	제약적
4	의미의 투명성	불투명	불투명하지 않음
5	구성 요소로의 분리 가능성	불가능	가능

11) 한영균(2002)을 참고.

	A	B	C	D	E	G	H	I	J	K	L	M
1	출처(장르)	출처(장르=파일 이름)	관용구(약호)	관용구	(총용례수_2차 앞 문맥 앞 어절 중심어 뒤 어절 뒤 문맥)	(2)관용구가 아닌 (2)가 발생의 이유 중 2차 주석 문						
2	구어 방송	utterance_form_s_gzdh_pangsong1.txt.tag	손_1.1	손(이) 당다	1	아~ 네. 그 차 그 손을 ____ 달는 순간에 보면은 만약에 문 도어록이 오른쪽에 있었다 하면은 오른쪽에 있						
3			손_1.1	손(이) 당다	2	그래깁고 일 초의 차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음 아~ 그까 이 여성분이 다행히 왼쪽에 있었으니까						
4			손_1.1	손(이) 당다	3	그래깁고 일 초의 차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음 아~ 그까 이 여성분이 다행히 왼쪽에 있었으니까						
5			손_1.1	손(이) 당다	4	그러라도 사용하시면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항상 바로 앞에 음~ ____ 손 ____ 달을 수 있는						
6			손_1.1	손(이) 당다	5	저는 그래서 조금 아쉬워요 지금 어~ ____ 손 ____ 달는 김에 아예 그냥 뱉을 뻔하버리는 그럴습니다. 음 그						
7			손_1.1	손(이) 당다	6	예. ____ 손이 ____ 달는 거리라는 게 참 새롭네요. 그리고 얘기가 이렇게 풍부하게 좀 나와줘야 돼요.						
8			손_1.1	손(이) 당다	7	이런 것들이 뭐 어 즐겁게 살자 뭐 행복하게 살자 뭐 이럴 수 있는데 음~ 그런데 불행 심 년 사실 굉장히 우울한						
9			손_1.1	손(이) 당다	8	그저 좋아 자꾸 콧노래가 난다요. 손가락 건네주다 ____ 손만 ____ 한번 달아도 온몸이 다 파르르해요. 잘 있는						
10			손_1.1	손(이) 당다	9	그 어 전쟁이 끝나서 돌아오신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이 돌아오지 못했어요. 역시 객에남 할머니도 중국 지역이						
11			손_1.1	손(이) 당다	10	그거 하면 안되겠네요. 보통 모르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머리맡에 ____ 손에 ____ 달기 쉽도록 해서 맞아요. 충						
12			손_1.1	손(이) 당다	11	공간만 차지하고 있으면 지금 여름 티 같은 경은 지금 다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까 계절을 완전히						
13			손_1.1	손(이) 당다	12	그러니까 일단은 책자 자체가 바깥으로 나가서 책을 수납한다는 거는 잘못된 수납 방법이구요. 배란대에 나가						
14			손_1.1	손(이) 당다	13	맨 위에 아빠가 아무래도 키가 크니까 예예. 위쪽에 ____ 손 ____ 달으니까 예. 위쪽으로 하시구요.						
15			손_1.1	손(이) 당다	14	예예. 주부들은 ____ 손에 ____ 달는 느낌 그래서 여기는 첫술을 이용하지 않고 예. 이 목장간을 이용해서 한번						
16			손_1.1	손(이) 당다	15	그러니까 여기에도 넣어주시고 잘 풀어주시는데요. 뭐 ____ 손이 ____ 달아도 상관은 없는 거니까 잘 풀어준 다						
17			손_1.1	손(이) 당다	16	제가 사신 대 중반에 아이콘으로 한 번 제가 아~ 나 깜짝 놀랐어요. 지금 자자자 김한석 씨가 아니 여기 여기						
18			손_1.1	손(이) 당다	17	지금 자자자 김한석 씨가 아니 여기 여기 자 일단 손이 닿는지 한 번 해보세요. 제가 김한석 씨보다 약간 어린						
19			손_1.1	손(이) 당다	18	예. 그래서 이 자세에서 이제 좌우로 움직이시면서 이 다리가 밑으로 안 내려가게 수건으로 받쳐주고 좌우로						
20			손_1.1	손(이) 당다	19	예. 좌우로 이쪽으로 ____ 손이 ____ 달을 때까지 움직이셨다가 표정이 왜 저래 이쪽으로 움직이셨다가 어~ 이						
21			손_1.1	손(이) 당다	20	여기에 그 그렇조. 근데 여기에 ____ 손이 ____ 잘 안 닿잖아요. 네.						

<그림 1> ‘손’을 중심어(node)로 문맥색인(KWIC) 결과의 화면캡처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제3장에서 우선 ‘연구용 말뭉치’와 ‘용례 분석 프로그램’을 간단히 소개하고 ‘연구 대상인 은유·환유 신체어 관용구 목록의 선정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어서 ‘분석의 틀’을 살펴보고자 한다.

3.1. 연구 대상 말뭉치의 구성

은유·환유 신체어 관용구가 구어에서의 실제적인 사용 양상과 의미빈도를 추출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에서 2021년 12월 공개한 ‘모두의 말뭉치_구어 말뭉치(버전 1.2)’¹²⁾와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의 ‘새 연세말뭉치’¹³⁾를 활용하였다. ‘모두의 말뭉치’는 웹이나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JSON’ 형식의 파일로 키(Key)와 값(Value)이 쌍을 이루고 UTF-8으로 인코딩된 ‘원시 말뭉치’이다. 따라서 용례를 추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1) 1단계: Python(버전 3.9)을 활용하여 구어 말뭉치(버전 1.2)의 파일을 대상으로 장르별로 ‘JSON’ 형식의 파일들이 포함된 ‘utterance(공적 대화든 공적 독백이든 구어의 경우)’을 추출하여¹⁴⁾ ‘.txt’ 형식으로 저장한다.

12) 자세한 내용은 국립국어원 누리집 > 자료 > 연구·조사 > ‘2018년 국어 말뭉치 연구 및 구축’, ‘구어 자료 수집 및 원시 말뭉치 구축’ 사업 보고서 참고. 국립국어원(2021), 국립국어원 구어 말뭉치(버전 1.2). URL: <https://corpus.korean.go.kr/>

13)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말뭉치 용례검색시스템. URL: <https://ilis.yonsei.ac.kr/corpus/#/>

14) Python(버전 3.9)을 통해 구어 말뭉치에서 ‘utterance’ 부분을 추출하는 소스 코드는 [부록 1]을 참고.

2단계: UTagger(버전 2.2.1)를 활용하여 문법 형태를 주석한다.

3단계: 일반명사 ‘손’을 키워드로 ‘정규 표현식(regular expression)’을 통해 언어 관계가 3개 어절 이내(span=3)의 용례, 그리고 용례의 앞뒤 문맥을 추출한다.

4단계: 장르별로 Excel에서 추출한 용례와 앞뒤 문맥을 정리하여 관용적 의미나 문자적 의미를 태그 세트를 참고하여 수동적으로 하나씩 판별하여 주석한다.

5단계: 관용적 의미가 있는 관용구를 대상으로 이들의 장르별의 분포 특성과 의미빈도를 분석한다.

그리고 Python을 통해 ‘utterance’ 부분을 추출하여 재구성된 원시 말뭉치는 다음과 같다.

<표 5> 국립국어원 구어 말뭉치(버전 1.2)의 구성

장르	어절 수 (비율)	파일 수 (비율)	하위 장르	하위 장르의 어절 수	하위 장르 어절 비율	파일 수	누적 종류
01 구어 01 공적 독백 (SARW)	2, 303, 339 (1.98%)	2490건 (9.72%)	01 강의 02 낭독 03 뉴스	1, 398, 616 594, 247 310, 476	60.72% 25.80% 23.48%	273건 911건 1306건	273건 1184건 2490건
01 구어 02 공적 대화 (SBRW)	104, 383, 706 (89.55%)	19104건 (74.61%)	01 방송 02 토론	104, 169, 103 214, 603	99.79% 0.21%	19082건 22건	19082건 19104건
01 구어 03 준구어 (SERW)	9, 875, 042 (8.47%)	4012건 (15.67%)	01 드라마 대본	9, 875, 042	100%	4102건	4102건
합계	116, 562, 087	25606건	-	116, 562, 087	-	25696건	-

<표 5>에서 보이듯이 국립국어원에서 공개된 구어 말뭉치의 장르는 크게 공적 독백, 공적 대화, 준구어-드라마 대본으로 나뉘고 어절 수를 비교해 보면 ‘방송 > 드라마 대본 > 강의 > 낭독, 뉴스 > 토론’의 순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2가지가 있다.

첫째, 방송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많고 <그림 1>에서 보이는 것처럼 하나의 용례가 중복적으로 출현하는 경우가 있다. 방송 규정에 따라 같은 내용을 중복적으로 방송했기 때문이다.

둘째, 구어 말뭉치(버전 1.2)에서 공적 대화와 공적 독백은 있지만 사적 독백¹⁵⁾과 사적 대화의 내용은 없다.

따라서 본고는 사적 대화와 사적 독백, 그리고 문어에서 사용된 은유·환유 관용구를 공적 대화와 공적 독백에서의 사용 현황과 함께 고찰하기 위해 ‘새 연세말뭉치4’를 연구용 말뭉치로 추가하였다. ‘새 연세말뭉치4¹⁶⁾’는 135만 마디(어절) 규모로 연세대학교 서상규 교수가 ‘연세 말뭉치’와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를 바탕으로 구축된 9개 장르별 균형 말뭉치이다. 문어에서는 ‘신문, 잡지, 소설, 학술 교양, 준구어’ 등 5개 장르의 194개 표본이 포함되고 구어에서는 ‘공적 대화, 공적 독백, 사적 대화, 사적 독백’ 등 4개 장르의 196개 표본이 포함된다.

15) ‘구어 말뭉치 설명 자료’에 따르면 ‘버전 1.1’부터 사적 대화는 정제를 거쳐 ‘국립국어원 일상 대화 말뭉치 2019’로 따로 공개할 예정임을 밝혔다.

16) ‘새 연세말뭉치’의 구성은 서상규(2020)를 참고.

그리고 손을 포함한 관용구를 추출하기 위해 ‘말씀 2017’¹⁷⁾을 사용하였다.

3.2. 연구 대상의 선정 및 분석의 틀

‘손’을 포함한 신체어 관용구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손’을 포함한 관용구가 수량적으로 많다. 김한샘(2004:28)에서 속어 구성 어휘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 속어를 구성하는 어휘의 종류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를 보면 1636개 어휘가 구성된 속어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인 명사는 신체어인 ‘손’이고 대표적으로 ‘손에 쥐다, 손을 대다, 손이 묶이다’ 등이 있다. 또한 장동은(2009:31-36, 104)에서 『표준국어대사전』의 관용구 표제어 3770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어 관용구를 구성하는 명사 중에는 사람 및 신체 관련 명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279개로 전체 1947개 명사 중 15%를 차지하였다. 이 가운데 ‘손’은 61개로 제2위를 차지하였다.

둘째, ‘손’을 포함한 관용구의 의미 갈래는 다른 신체어를 포함한 관용구의 의미 갈래보다 상대적으로 많고 환유가 작용한 관용구 목록에서 ‘손’을 포함한 관용구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최경봉(2014)¹⁸⁾에서 의미 범주에 따라 관용구를 대분류, 중분류와 소분류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최지훈(2010)에서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한국어 관용구의 은유와 환유를 밝히기 위해 홍재성(1999-2004), 세종계획 전사 사전, 안경화(1987), 강현화(1997), 문금현(1999), 김향숙(2003), 김한샘(2005), 권경일(2005)에서 목록화된 관용구들을 대상으로 재구성하고 2200여개 은유, 환유를 나타내는 관용구를 뽑아내었다. 이 가운데 환유가 작용한 관용구 목록에서 ‘손’을 포함한 관용구도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최지훈(2010)에서 제시한 ‘손’을 포함한 은유·환유 관용구 55개를 연구 대상(‘1차 연구 대상 목록’)으로 선정하고 Excel에서 정리하였다. 이어서 최경봉(2014)에서 등재되지 않은 관용구 12개를 ‘1차 연구 대상 목록’에서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표 6>에서 제시한 것처럼 ‘손’을 포함한 은유·환유 관용구 43개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표 6> ‘손’을 포함한 은유·환유 신체어 관용구 목록 (총 43개)

유형	관용구	개수	총수
은유	손(이) ¹⁹⁾ 달다(1), 손(이) 달다(2)	1개	43개
환유	손(에) 꺾다, 손에[으로] 꺾다[헤아리다], 손(을) 꺾다, 손(에) 꺾이다, 손에 땀을 쥐다, 손에 손(을) 잡다, 손(을) 거치다, 손(을) 내밀다(1), 손(을) 내밀다(2), 손(을) (내)젓다, 손(을) 놓다(1), 손(을) 놓다(2). 손을 늦추다, 손(을) 들다, 손(을) 들어 주다, 손(을) 떼다, 손(을) (맞)잡다, 손(을) 벌리다, 손(을) 보다(1). 손(을) 보다(2), 손(을) 비비다(1). 손(을) 비비다, 손(을) 빼다, 손(을) 쓰다(1), 손(을) 쓰다(2). 손(을) 씻다, 손(을) 적시다, 손(을) 털다(1), 손(을) 털다(2), 손(을) 흔들다, 손(이) 가다, 손(이) 근질거리다, 손(이) 근질근질하다, 손(이) 맞다	26개	

17) 미국 밴더빌트(Vanderbilt) 대학교의 장석배 교수가 개발하는 용례 프로그램이다.

18) 최경봉(2014), 『(의미 따라 갈래지은) 우리말 관용어 사전』, 일조각.

은유·환유	손에[으로] 넘어가다, 손(안)에 넣다, 손에 들어가다, 손에 들어오다, 손에 떨어지다, 손에 잡히지 않다, 손에 쥐다, 손에서 벗어나다, 손(을) 대다(1), 손(을) 대다(2), 손(을) 대다(3), 손(을) 대다(4), 손(을) 뻗(치)다(1), 손(을) 뻗(치)다(2), 손(이) 묶이다, 손이 마치다, 손(이) 작다, 손이 잡기다, 손이 재다, 손(이) 크다	16개	
-------	---	-----	--

심재기 외(2016: 222-230)에 따르면 언어 내적인 조건과 외적인 조건을 갖춘 협의의 관용구절들은 형식상, 의미상, 문체상의 특징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본고에서의 분석의 틀은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손을 포함한 은유·환유 관용구를 분석하는 틀

번호	분석의 틀	하위 유형
1	형식상 분석의 틀	(1) 체언형 관용구 (2) 용언형 관용구 (3) 부사형 관용구
2	의미상 분석의 틀	(1) 상태와 가치 (2) 동작과 행위 (3) 성격과 태도 (4) 문화 및 사회생활 (5) 감정과 심리
3	장르상 분석의 틀	(1) 구어에서 관용구의 사용 (공적 대화, 공적 독백, 사적 대화, 사적 독백) (2) 문어에서 관용구의 사용 (신문, 잡지, 소설, 학술 교양) (3) 준구어에서 관용구의 사용

첫째, 최현배(1937/1971)와 문금현(1999: 53-77)에서 분류하는 것처럼 관용구는 형식에 따라서 체언형 관용구(임자씨 같은 문자), 용언형 관용구(풀이씨 같은 문자)와 부사형 관용구(어찌씨 같은 문자)로 나뉜다.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관용구(<표 6>을 참고)들이 모두 용언형 관용구이어서 연구 결과에서 다시 다루지 않기로 한다.

둘째, 최경봉(2014)²⁰⁾에서 관용구의 사용 맥락과 의미 갈래 항목의 개념에 따라 이를 대분류, 중분류와 소분류로 나눠서 기술하였다. 즉 관용구의 의미는 크게 ‘상태와 가치’, ‘동작과 행위’, ‘성격과 태도’, ‘문화 및 사회생활’, ‘감정과 심리’ 다섯 종류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한 신체어 관용구의 (1) 의미 범주 분포 분석과 (2) 유의 관계 분석은 제4장에서 논의할 것이다.

셋째, 강범모(1999:4-7, 2000:17-19), 남길임·차지현(2010:92-93), 안의정(2014:111-113) 등 일련의 연구들이 Ferguson(1994), Biber(1998, 2005), Biber & Conrad(2009)에서 사용된 ‘장르’, ‘사용역’, ‘문체’, ‘텍스트의 유형’이라는 학술용어의 사용 경향을 ‘대상 텍스트의 범위’, ‘언어학적 특성’, ‘언어학적 특성의 분포’라는 기준으로 정리하여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최근에 이관규(2021), 신희성(2021) 등 연구자를 대표로 Haliday의 체계기능

19) 구어에서의 변이 형태를 고찰하기 위해 <표 6>에서 최경봉(2014), 노용규(2002)를 참고하여 이를 추가하였다.

20) 『의미 따라 갈래지은 우리말 관용어 사전』(2014) 일러두기(15-23쪽)를 참고.

언어학(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을 이론적인 기초로 ‘장르’, ‘사용역’과 ‘언어의 관계’를 설명하여 다양한 텍스트를 분석하였다. 본고에서는 국어정보학의 관점에서 남길임·차지현(2010), 서상규(2013)와 국립국어원(2021)에서 제시한 장르의 개념, 하위 유형을 따랐다. 그리고 이에 관한 연구 결과는 제5장에서 논의하겠다.

4. ‘손’을 포함한 은유·환유 신체어 관용구 사전적 의미 범주 분포(의미상의 분석 결과)

제4장에서 우선 의미상 분석의 틀을 기준으로 연구용 관용구들이 나타내는 의미 범주를 분류하여 각 유형(은유의 관용구, 환유의 관용구, 은유·환유의 관용구)에서 관용구의 의미 범주 분포 특징을 살펴본다. 이어서 유형별로 유의 관계가 있는 관용구를 대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그림 2> ‘손’을 포함한 은유·환유가 작용한 관용구의 의미 범주 분포

<그림 2>는 최경봉(2014)을 참고하여 ‘손’을 포함한 은유, 환유, 은유·환유의 신체어 관용구의 의미 유형을 비교하여 제시한 것이다.

첫째, <표 6>에서 제시한 ‘손’을 포함한 은유의 관용구는 ‘손(이) 달다’만²¹⁾ 있다. 최경봉(2014)에 따르면 ‘손(이) 달다’는 ‘힘이나 능력이 미치다’와 ‘연결이 되거나 관계가 맺어지다’라는 뜻풀이가 있다. 실제적인 구어에서 관용구 의미빈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의 관용구가 2개 혹은 2개 이상의 의미 유형이 있다면 <그림 2>에서 보이는 것처럼 각기 다른 의미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손(이) 달다’는 ‘동작과 행위’, ‘문화 및 사회생활’이라는 2개의 의미 범주에 속한다.

둘째, <표 6>에서 제시한 ‘손’을 포함한 환유의 관용구(26개)는 총 34개 의미 유형이 있고

21) 사람이 은유적 표현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불투명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실제 언어생활에서 은유만 작용한 관용구의 유형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주로 ‘감정과 심리’, ‘동작과 행위’ 그리고 ‘상태와 가치’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 가운데 ‘상태와 가치’(대분류²²⁾)를 뜻하는 관용구에서 ‘손(을) 놓다’, ‘손(을) 떼다’, ‘손(을) 빼다’, ‘손(을) 털다’, ‘손(을) 씻다’는 유의 관계가 있는 관용구로 모두 ‘끝, 종결’(소분류)을 의미한다.

(2) ㄱ. 그 후로 저는 아주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손을 좀 뺐었습니다. (구어_공적 독백_강의)

ㄴ.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이 열변을 토할 때 유럽의회 의원들은 시리아에서 손 떼라는 문구를 들어 시리아 공습을 반대했는데요. (구어_공적 독백_뉴스)

ㄷ. 그래서 미국과 유럽 같은 나라는 삼십 년 전부터 원전에서 손 빼고 있었던 거예요. (구어_공적 대화_방송)

ㄹ. 결혼도 결국은 비즈니스야! 지금 손 털고 나가면 너 손실 무지 난다? (준구어_대라마 대본)

(2)에서의 ‘손(을) 놓다’, ‘손(을) 떼다’, ‘손(을) 빼다’, ‘손(을) 털다’는 유의 관계가 있는 관용구이고 (2ㄱ)은 강의(공적 독백), (2ㄴ)은 뉴스(공적 독백), (2ㄷ)은 뉴스(공적 대화), (2ㄹ)은 드라마 대본에서 추출한 용례이다. 국립국어원 구어 말뭉치(버전 1.2)의 용례를 분석해 보면 (2ㄱ, 2ㄴ, 2ㄷ)에서의 ‘손(을) 놓다’, ‘손(을) 떼다’, ‘손(을) 빼다’, ‘손(을) 털다’, ‘손(을) 씻다’는 주로 ‘정치 주제’의 장면에서 많이 출현하였고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냥 있다’ 혹은 ‘하던 일을 그만두고 물러나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또한 (2ㄹ)을 통해 이들이 ‘일상생활 주제’의 장면에서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표 6>에서 ‘손’을 포함한 은유·환유의 관용구(16개)는 총 20개의 의미 유형이 있다. ‘상태와 가치’를 나타내는 의미 유형이 9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작과 행위’를 나타내는 의미 유형이 5개로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성격과 태도’, ‘문화 및 사회생활’, ‘감정과 심리’의 의미를 나타내는 관용구도 있다.

이 가운데 ‘동작과 행위’(대분류)를 나타내는 ‘손에[으로] 넘어가다’, ‘손(안)에 넣다’, ‘손에 들어가다’, ‘손에 들어오다’, ‘손에 떨어지다’는 유의 관계가 있는 관용구로 모두 ‘소유, 지배’(소분류)라는 의미를 뜻한다.

(3) ㄱ. 이해해주자면 법조 기자들은 일단 이제 검찰 손에 넘어가면 검찰에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잖아요. (구어_공적 대화_방송)

ㄴ. 한 기부사이트에 도움으로 제작비가 모아져 틈틈이 작업을 해서 사 개월 만에 시제품을 손에 넣었는데요. (구어_공적 독백_낭독)

ㄷ. 그런데 어느 날 아내와 함께 어머니가 계신 집에 찾아갔을 때 아내와 어머니가 나누는 대화를 들으면서 자기가 그 망했던 옛집 남의 집에 남의 손에 들어간 그 옛집에 찾아

22) <부록 2>를 통해 관용구의 상세한 의미 분류(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확인할 수 있다.

갔던 마지막 날을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구어-공적 독백-강의)

ㄹ. 아~ 그리고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일단 내 손에 딱 들어오자마자 우리가 왜 아 이런 얘기 있잖아요? (구어-공적 대화-방송)

ㅁ. 아~ 따라서 경제 성장률이 이든 삼이든 간에 거기 사실상 절반 정도는 그게 외국인 손에 떨어지는 거다. (구어-공적 대화-방송)

(3)에서의 관용구는 유의 관계가 있는 관용구로 모두 ‘누군가의 차지가 된다’를 나타낸다. 이들이 구어에서 공적 독백보다 공적 대화에서 더 많이 사용되고, 그리고 공적 대화의 하위 장르를 분석해 보면, 토론 자료에 비해 방송 장르에서 더 많이 사용된다.

한편 (3ㄱ, 3ㄷ, 3ㄴ, 3ㅁ)에서처럼 이들이 문장에서 주로 ‘누구(의) 손에[으로] + 동사(넘어 가다, 넣다, 들어가다, 들어오다, 떨어지다)’의 문형으로 쓰인다.

5. ‘손’을 포함한 은유·환유 신체어 관용구의 장르별 분포(문체상의 분석 결과)

제5장에서 말뭉치에서 추출한 은유·환유 관용구를 대상으로 (1) 이들이 주로 어느 장르에서 많이 사용되는가? 즉 장르에 따른 사용 경향성이 있는가? (2) 특정 장르(예: 뉴스, 토론, 드라마 대본)에서 쓰인 관용구들이 주로 어떤 의미 범주를 나타내는가? (3)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은유, 환유, 은유·환유 관용구를 나눠서 장르별 사용 경향성을 해석할 수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본고는 ‘국립국어원 구어 말뭉치(버전 1.2)’와 ‘균형 말뭉치인 새 연세말뭉치4’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우선 5.1에서는 ‘구어 내부’에서 은유·환유 관용구의 장르별 분포 특징의 분석해 본다. N-gram을 통해 구어 말뭉치에서 추출한 연어 관계(span=3)가 있는 관용구가 관용적 의미, 혹은 문자적 의미를 판별하는 방법을 제출하기로 한다. 이어서 5.2에서는 ‘구어와 문어’에서 은유·환유 관용구의 빈도(상대 빈도, 정규화된 빈도)를 비교 분석해 보고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장르에 따른 관용구의 사용 빈도와 의미 범주를 분석하겠다.

5.1. ‘구어 내부’ 은유·환유 관용구의 장르별 분포 특징

‘국립국어원 구어 말뭉치(버전 1.2)’에서 ‘손’을 중심으로 연어 관계(span=3)가 있는 용례는 총 15599개²³⁾이다. 아래의 <표 8>을 통해 구어 말뭉치에서 관용구의 장르별 출현 빈도를 확인할 수 있다.

23) <표 8>을 살펴보는 것처럼 이 가운데 ‘관용적 의미가 있는 관용구’와 ‘문자적 의미가 있는 연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연어 관계가 없는 자유 결합’도 있어서 관용구의 출현 빈도(절대 빈도)를 통계하기 위해 하나씩 판별하여 주석하였다.

<표 8> '구어 말뭉치(버전 1.2)'에서 신체어 '손'을 포함한 관용구의 빈도(절대 빈도)

장르	하위 장르	언어 관계(span=3)가 있는 총 용례 수	관용적 의미 (관용구)	문자적 의미 (언어)	관용구의 비율
01 구어	01 강의	287	~24)	-	-
01 공적 독백 (SARW)	02 낭독	211	-	-	-
	03 뉴스	32	20	4	59.38%
01 구어	01 방송	11385	-	-	-
02 공적 대화 (SBRW)	02 토론	8	5	3	62.50%
01 구어					
03 준구어 (SERW)	01 드라마 대본	3226	-	-	-
합계	-	15599	-	-	-

5.1.1. 구어에서 관용구와 어휘적 언어의 판별 방법: N-gram을 통해

앞서 살펴보는 것처럼 김한샘(2003)과 임근석(2005)에서 관용구와 언어를 판별하기 위해서 특정한 판별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절은 규칙성이 있는 관용구를 대상으로 'N-gram을 통한 판정 방법'을 제시하기로 한다.

<표 9> 관용구 3-gram과 언어 3-gram의 비교

번호	관용구_3-gram	빈도	언어_3-gram	빈도
1	뭐 손에 꼽을	7	꼽을 수 있는	4
2	손에 꼽을 정도로	7	손 꼽아 기다리셨을까요	3
3	꼽을 수 있는	5	첫 손에 꼽는	3
4	손에 꼽을 수	4	주를 손 꼽아	2
5	손에 꼽을 만한	4	타타 그룹을 꼽습니다	1
6	손가락에 꼽을 정도	4	손가락을 한번 꼽아보시면	1
7	손에 꼽을 정도밖에	3	손에 꼽는 몇몇	1
8	손에 꼽을 만큼	2	손 꼽은 음식들이	1
9	손에 꼽을 정도에	2	꼽아 기다리는 민생	1
10	손 꼽을 정도로	2	꼽아 기다리고서는 즉시	1

위의 <표 9>는 구어 말뭉치에서 추출한 '손(에/으로) 꼽다'를 포함한 문장을 대상으로 '관용구_3-gram'과 '언어 3-gram'을 계산하고 빈도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관용구_3-gram'을 보면 동사 '꼽다'는 '~을 정도(로)', '~을 정도(밖에)', '~을 만큼', '~을 만한' 등 형태와 결합하거나 공기하는 확률이 높다는 것으로 보이고 문장에서 '여럿 가운데 뛰어난 것으로 여기다', '수가 매우 적고 드물다'를 나타낸다. 이와 달리 '언어_3-gram'의 경우, 동사 '기다리다', 일반명사 '음식, 그룹', 명사 수식어 '몇몇, 한번' 등 어휘와 공기하여 '수를 세다'라는 의미를 뜻한다.

24) 이 부분을 추후 보완하겠다.

따라서 N-gram을 추출하여 동사 ‘꼭다’가 결합하거나 공기는 양상을 관찰함으로써 관용구와 연어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5.1.2. 뉴스 자료에서 신체어 관용구 사용 경향 분석

구어 말뭉치(버전 1.2)의 뉴스 자료에서 추출한 관용구를 은유·환유의 유형에 따라 재분류하여 최경봉(2014)의 의미 범주(대분류와 소분류) 정보를 추가하면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 ‘뉴스’ 자료에서 신체어 ‘손’을 포함한 관용구의 빈도와 의미 범주

분류(개수)	관용구	총 용례 개수	관용구 용례 개수	의미 범주 (대분류)	의미 범주 (소분류)
은유 관용구 (0개)	(없음)	0	0	-	-
환유 관용구 (11개)	손(을) 꼭다	5	5	상태, 가치	탁월, 우월
	손에 땀을 쥐다	1	1	감정, 심리	걱정, 불안, 초조
	손에 손(을) 잡다	1	1	동작, 행위	협동
	손(을) 거치다	2	2	성격, 태도	관여, 참여
	손(을) 내밀다	1	1	성격, 태도	참여, 참견
	손(을) 놓다	3	3	상태, 가치	끝, 종결
	손(을) 들다	6	0	-	굴복, 항복
	손(을) 들어 주다	3	3	성격, 태도	칭찬, 격려, 인정
	손(을) 떼다	3	3	상태, 가치	끝, 종결
	손(을) 쓰다	2	0	동작, 행위	조치, 해결, 수습
	손(을) 흔들다	1	1	성격, 태도	반대, 부인, 거절
은유·환유 관용구 (1개)	손에 쥐다	4	0	-	-
합계	-	32	20	-	-

<표 10>을 보면 ‘뉴스’ 자료에서 ‘손’을 포함한 환유가 작용한 관용구가 11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사용된다. 반면에 은유와 은유·환유가 작용한 관용구는 없다. 두 사물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형성된 은유 표현과 달리, 환유 표현은 두 사물의 인접성을 바탕으로 형성되고 객관적인 관련성과 투명성이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환유 표현의 사용 빈도가 은유 표현의 사용 빈도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구어 자료에서 ‘손’을 포함한 환유가 작용한 관용구가 나타내는 뜻을 종합해 보면 주로 ‘상태와 가치’, ‘성격과 태도’의 의미 범주에 속한다.

5.2. ‘구어와 문어’에서 은유·환유 관용구 장르별 분포 특징

5.2.1. 균형 말뭉치에서 ‘손’의 장르별 분포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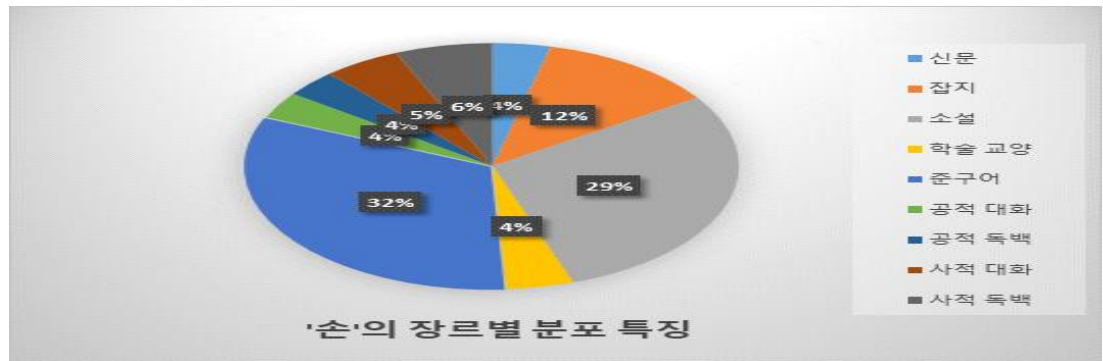
우선 균형 말뭉치인 ‘새 연세말뭉치4’에서 신체어 ‘손’을 포함한 용례를 추출하여 이들의 장

르별 분포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11> ‘새 연세말뭉치4’에서 ‘손’의 장르별 분포 특징

	전체 빈도수	‘손’의 빈도수 합	정규화된 빈도수	비율
신문	150, 231	34	23	3.8%
잡지	150, 457	109	72	11.8%(3위)
소설	150, 010	265	177	29.1%(2위)
학술 교양	150, 795	40	27	4.4%
준구어	150, 419	297	197	32.4%(1위)
공적 대화	150, 548	32	21	3.5%
공적 독백	150, 269	32	21	3.5%
사적 대화	150, 148	46	31	5.1%
사적 독백	150, 235	59	39	6.4%
합계			608	100%

<표 11>에서는 말뭉치에서 추출한 신체어 ‘손’의 빈도수를 10만 어절로 정규화 환산하였다. 그리고 장르별로 신체어의 빈도를 비교하기 위해 <표 11>에서 정규화된 빈도수와 비율을 바탕으로 <그림 3>을 작성하였다.



<그림 3> ‘새 연세말뭉치4’에서 ‘손’의 장르별 특징

<그림 3>에서 신체어 ‘손’의 장르별 사용 백분율을 제시하였다. 가장 많이 쓰이는 장르는 ‘준구어 > 소설 > 잡지’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신체어 ‘손’은 주로 ‘준구어, 소설, 잡지’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규화된 수치를 보면 ‘공적 구어(공적 대화, 공적 독백)’나 ‘사적 구어(사적 대화, 사적 독백)’에서 신체어 ‘손’의 사용 경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2.2. ‘구어와 문어’에서 ‘손’을 포함한 은유·환유 관용구의 비교 분석

본 절은 ‘새 연세말뭉치4’에서 출현한 ‘손’을 포함한 은유·환유 관용구가 장르별 출현 빈도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2>와 같다.

<표 12> '균형 말뭉치'에서 '손'을 포함한 은유·환유 관용구 장르별 출현 빈도 (절대 빈도)²⁵⁾

번호	관용구	문어				준구어	구어				합계
		신문	잡지	소설	학술	대본	공대	공독	사대	사독	
1_1	손(이) 땀다	0	1	9	1	0	2	0	0	0	13
2_1	손(에) 꼽다	2	0	0	0	0	0	0	0	0	2
2_2	손(에) 꼽이다	0	0	0	0	0	0	0	0	0	0
2_3	손에 땀을 쥐다	1	0	1	0	0	0	0	0	0	2
2_4	손에 손(을) 잡다	0	0	2	0	0	1	0	0	2	5
2_5	손(을) 거치다	0	0	0	0	0	0	0	0	0	3
2_6	손(을) 내밀다	0	2	12	0	10	0	2	0	1	27
2_7	손을 (내)젓다	0	1	0	1	0	0	0	0	0	2
2_8	손(을) 놓다	1	1	4	1	8	3	5	0	0	23
2_9	손을 늦추다	0	0	0	0	0	0	0	0	0	0
2_10	손(을) 들다	0	1	0	0	1	0	0	2	0	4
2_11	손(을) 들어 주다	1	1	2	2	0	1	0	1	0	8
2_12	손(을) 떼다	1	0	3	0	2	0	0	0	0	6
2_13	손(을) (맞)잡다	0	1	1	0	3	0	0	0	0	5
2_14	손(을) 벌리다	0	1	1	0	3	0	0	0	0	5
2_15	손(을) 보다	0	1	3	0	5	1	0	1	0	11
2_16	손(을) 비비다	0	1	2	0	0	0	0	0	0	3
2_17	손(을) 빼다	3	0	0	0	0	1	0	0	0	4
2_18	손(을) 쓰다	0	3	6	0	1	0	2	1	3	16
2_19	손(을) 씻다	0	0	3	1	4	2	1	0	1	12
2_20	손(을) 적시다	0	0	0	0	0	0	0	0	0	0
2_21	손(을) 털다	0	0	0	0	2	2	0	1	0	5
2_22	손(을) 흔들다	0	2	6	0	13	0	0	1	0	22
2_23	손(이) 가다	0	2	3	0	1	0	1	0	2	9
2_24	손(이) 근질거리다	0	0	0	0	0	0	0	0	0	0
2_25	손(이) 근질근질하다	0	0	0	0	0	0	0	0	0	0
2_26	손(이) 맞다	0	0	0	0	0	0	0	0	0	0
3_1	손에[으로] 넘어가다	0	2	0	0	0	0	0	0	0	2
3_2	손(안)에 넣다	0	3	4	1	2	0	0	0	0	10
3_3	손에 들어가다	0	1	0	0	1	0	0	0	1	3
3_4	손에 들어오다	0	0	0	0	2	0	0	0	0	2
3_5	손에 떨어지다	0	2	0	0	1	0	0	0	0	3
3_6	손에 잡히지 않다	0	5	9	1	1	0	1	0	0	17
3_7	손에 쥐다	2	8	11	2	6	0	2	0	0	31
3_8	손에서 벗어나다	0	0	0	0	1	0	0	0	0	1
3_9	손(을) 대다	3	4	5	0	6	3	3	0	4	28
3_10	손(을) 뺨(치)다	0	1	0	0	0	0	0	0	0	1
3_11	손(이) 뭉이다	0	0	0	0	0	0	0	0	0	0
3_12	손이 마치다	1	1	0	0	0	0	0	0	0	2
3_13	손(이) 작다	0	1	0	0	0	0	0	0	0	1
3_14	손이 잠기다	0	0	0	0	0	0	0	0	0	0
3_15	손이 재다	0	0	0	0	0	0	0	0	0	0
3_16	손(이) 크다	0	0	0	2	0	0	0	0	0	0

25) <표 11>을 통해 장르별의 어절 수를 확인할 수 있다. 신문, 잡지, 소설, 학술, 공적 대화, 공적 독배, 사적 대화, 사적 독백의 어절 수는 모두 15만 어절이라서 '구어와 문어'를 비교하려면 상대 빈도로 변환하여 비교할 필요가 없지만 '구어, 문어와 준구어'를 비교할 때 상대 빈도로 변환해야 한다. <표 12>에서 지면을 고려하여 장르별의 절대 빈도만 제시하였다.

합계_수량	15	46	87	12	73	16	17	7	14	-
합계_유형	10	23	15	9	20	9	8	6	7	-

<표 12>를 보면 ‘문어’와 ‘준구어’에서보다 ‘구어’에서 ‘손’을 포함한 은유·환유 관용구의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구어의 하위 장르를 보면 ‘공적 대화’와 ‘공적 독백’에서 관용구의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본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문어의 경우, ‘신문과 학술’에서보다 ‘소설’과 ‘잡지’에서 ‘손’을 포함한 은유·환유 관용구가 많이 쓰인다. 이를 통해 ‘소설과 잡지’의 ‘구어성’이 ‘다른 문어체’의 ‘구어성’보다 높다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5.2.2.1. 은유가 작용한 신체어 관용구의 장르별 사용 양상

임지룡(2006)에서 ‘손’을 포함한 관용구의 종류가 많이 있으나 ‘은유 의미의 빈도수’가 ‘환유 의미의 빈도수’보다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최지훈(2010)의 관용구 목록에서 은유가 작용한 관용구가 ‘손(이) 달다’ 하나만 제시하였다.

따라서 5.2.2.1에서 우선 장르에 따른 ‘손(이) 달다’의 사용 빈도를 살펴보고 이의 은유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표 13> ‘손(이) 달다’의 장르별 사용 빈도 분포

장르 범주 1	장르 범주 2	빈도수	정규화된 빈도수	순위
문어	신문	0	0	
	잡지	1	0.92	4
	소설	9	3.40	2
	학술 교양	1	2.50	3
준구어		0	0	
구어	공적 대화	2	6.25	1
	공적 독백	0	0	
	사적 대화	0	0	
	사적 독백	0	0	
합계		13		

<표 13>을 보면, ‘손(이) 달다’의 경우, ‘공적 대화 > 소설 > 학술 교양’의 순으로 나타나고, 이를 통해 은유가 작용한 관용구는 문어 자료에서보다 구어 자료에서의 사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구어의 하위 장르를 보면 이를 공적 대화에서만 사용된다. 그 이유를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주 2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람이 은유적 표현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불투명하게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구어, 특히 사적 대화와 사적 독백에서 ‘손(이) 달다’와 같은 은유 관용구가 사용되지 않는다. 둘째, 사람이 의사소통의 효율성과 간편성을 고려하여 실제 언어생활에서 ‘손(이) 달다’의 유의어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손이 닿지 않다’는 ‘할 수 없다’ 혹은 ‘어쩔 수 없다’와 비슷한 의미가 있다.

한편, 문어의 하위 장르인 ‘소설’에서 ‘손(이) 달다’를 상대적으로 많이 쓰인다. 이를 통해

소설의 구어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지훈(2010:81-180)에서 Lakoff & Johnson(1980), Ruiz de Mendoza(1996, 1997)의 은유 체계의 분류 기준을 참고하되 한국어에서 은유의 성격을 반영하기 위해 이를 ‘영상 도식 은유’와 ‘존재의 대연쇄 은유’로 나누고, ‘영상 도식 은유’는 다시 ‘그릇 은유’, ‘이동 은유’, ‘방향 은유’와 ‘연결 은유’를 나누어 분류하였다.

(4) 한영덕 씨가 자칭 외과 의사인 박 씨와 손이 달게 된 인연은 고향에서 2대에 걸쳐 치과 병원을 개업했던 이 씨를 통해서였다. [은유 유형: 영상 도식 은유-연결 은유]

출처: 황석영, 한 씨 연대기

사회관계 및 대인 관계는 흔히 ‘연결’이라는 개념에 입각해서 이해된다(최지훈, 2010:127). 위의 예(4)에서의 손(이) 달다’는 ‘연결이 되거나 관계가 맺어지다’의 뜻을 나타내는 관용구이고 ‘한영덕 씨와 박 씨의 인연을 맺는 사실’을 ‘신체(손)의 행동(달다)’과 같은 영상 도식을 통해 실현된다.

5.2.2.2. 환유가 작용한 신체어 관용구의 장르별 사용 양상

<표 12>를 보면 환유와 관련 관용구 가운데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은 ‘손(을) 내밀다’, ‘손(을) 벌리다’, ‘손(을) 씻다’, ‘손(을) 보다’ 등이 있다. 본 절은 우선 ‘손(을) 내밀다’의 장르별 사용 빈도를 살펴보고 ‘손(을) 내밀다’와 ‘손(을) 벌리다’의 환유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표 14> ‘손(을) 내밀다’의 장르별 사용 빈도 분포

장르 범주 1	장르 범주 2	빈도수	정규화된 빈도수	순위
문어	신문	0	0	
	잡지	2	1.83	4
	소설	12	4.25	2
	학술 교양	0	0	
준구어		10	3.37	3
구어	공적 대화	0	0	
	공적 독백	2	6.25	1
	사적 대화	0	0	
	사적 독백	1	1.69	5
합계		27		

위의 <표 14>를 보면, ‘손(을) 내밀다’의 경우, ‘공적 독백 > 소설 > 준구어’의 순으로 나타나고, 주로 구어와 구어성이 높은 장르인 소설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지훈(2010:181-237)에서 환유를 ‘사건 환유’와 ‘상태 환유’로 분류하였고 한국어 관용구에는 주로 부분-전체 환유와 전체-부분 환유가 나타나므로 Kövecses(2002)에서의 ICM²⁶⁾ 모형을 이용하여 환유 양상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하였다.

26) ICM(internalized cognitive model)을 임지룡(1997:118, 126)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5) 지하철 입구 계단에 걸인이 있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죄인처럼 손을 내민 채 그저 그렇게 있다. 시커먼 자루에 담긴 무슨 물건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환유 유형: 사건 환유]

출처: 강의-교양 국어

(6) 안개시를 떠나 집으로 돌아갈 버스비가 내가 가진 돈 전부였다. 돈을 빌릴 곳은 모두 빌렸고 손을 빌릴 데도 모두 빌린 처지라 더이상 부탁할 데도 없었다. 그렇지만 그녀에게 저녁을 한번 내 식으로 사고 싶었다. [환유 유형: 사건 환유]

출처: 소설-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위의 예(5), (6)의 ‘손(을) 내밀다’와 ‘손(을) 벌리다’는 ‘구걸’과 관련 ICM으로 모두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구걸하다’의 의미를 뜻한다. (5)에서의 ‘걸인’과 (6)에서의 ‘나’는 상대방으로 손을 내밀거나 벌리는 방법을 통해 구걸이라는 사건을 표현하였다. 즉 이들은 사건 환유이다.

5.2.2.3. 은유와 환유가 함께 작용한 신체어 관용구의 장르별 사용 양상

<표 12>를 보면 은유와 환유가 모두 작용한 관용구 가운데 사용 빈도가 높은 관용구는 ‘손(을) 대다’, ‘손(안)에 넣다’ 등이 있다. 본 절은 우선 ‘손(을) 대다’의 장르별 사용 빈도를 살펴보고 이의 은유·환유 양상을 분석하겠다.

<표 15> ‘손(을) 대다’의 장르별 사용 빈도 분포

장르 범주 1	장르 범주 2	빈도수	정규화된 빈도수	순위
문어	신문	3	8.82	3
	잡지	4	3.67	5
	소설	5	1.89	6
	학술 교양	0	0	
준구어		6	1.51	7
구어	공적 대화	3	9.38	1
	공적 독백	3	9.38	1
	사적 대화	0	0	
	사적 독백	4	6.78	4
합계		28		

<표 15>를 보면, ‘손(을) 대다’의 경우, ‘공적 구어(공적 대화, 공적 독백) > 신문 > 사적 독백’의 순으로 나타나고, <표 15>와 <표 16>의 관용구의 사용 경향성과 같이 모두 구어에서 많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최경봉(2014)에 따르면 ‘손을 대다’는 ‘관여하거나 시도하다’, ‘고치다’, ‘때리다’와 ‘성관계를 갖다’라는 4가지의 뜻이 있다. 그리고 이를 ‘관여하거나 시도하다’를 나타낼 때 신문 장르에서

자주 사용된다,

(7) 반신불수의 금융제도를 혁파하는 작업은 살을 베는 아픔이 뒤따르겠지만 지금 손을 안 대면 전 경제 시스템이 붕괴될지 모른다. [환유 유형: 사건 환유] [은유 유형: 이동 은유]

출처: 신문_사설-중앙일보(96-09)

예문(7)의 ‘손(을) 대다’는 환유가 작용한 관용구로 볼 수 있고 은유가 작용한 관용구로 볼 수도 있다. 첫째, 환유에 기반을 두고 손으로 금융제도를 혁파하는 행동을 ‘사건 환유’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금융제도를 혁파하는 일을 시작함’과 ‘금융제도를 혁파하는 일을 끝남’을 각각 ‘혁파의 출발점’과 ‘혁파의 목표’로 인정되면 이는 ‘이동 은유’로 해석할 수도 있다.

6. 결론

본고는 ‘국립국어원 구어 말뭉치(버전 1.2)’와 ‘새 연세말뭉치 4’에서 추출한 ‘손’을 포함한 관용구를 대상으로 이들의 의미 범주와 유의 관계, 장르별의 분포 특징과 은유·환유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관용구의 개념, ‘관용구’와 ‘어휘적 언어’의 판별 기준을 정리하여 연구 대상용 말뭉치의 재구성 과정, 은유·환유 관용구 목록(43개)의 선정 과정과 결과, 분석의 틀(3개 층위)의 선정을 설명하였다.

첫째, 관용구의 개념은 임지룡(1992, 2021:4)을 따랐고 ‘관용구’와 ‘어휘적 언어’를 판별하기 위해 문금현(1999:53-77), 김한샘(2003)을 바탕으로 ‘인접 형태’라는 용어를 설정하였다. 인접 형태는 크게 ‘구 단위의 인접 형태’와 ‘문장 단위의 인접 형태’로 나누고, ‘구 단위의 인접 형태’는 자유 결합, 비 자유결합(관용구, 어휘적 언어, 문법적 언어)로, ‘문장 단위의 인접 형태’는 상투 표현, 속담, 격언, 호응 관계, 문장 패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관용구의 본질은 ‘구 층위의 관용 표현’이다.

둘째, ‘손’을 포함한 관용구가 수량적으로 많고(김한샘, 2004; 장동은, 2009) 은유·환유가 작용한 관용구의 의미 갈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최지훈(2010)에서 제시한 관용구 목록과 최경봉(2014)의 의미 분류를 참고하여 ‘손’을 포함한 은유·환유 관용구 43개를 선정하여 범주화를 하였다.

셋째, 구어 말뭉치(국립국어원, 버전 1.2)와 균형 말뭉치(새 연세말뭉치4)에서 추출한 ‘손’을 중심어(node)로 언어 관계(span=3)가 있는 용례를 분석을 위해 심재기 외(2016)를 참고하여 분석의 틀을 설정하였다. 연구용 은유·환유 관용구가 모두 용어형 관용구이어서 ‘형식상의 분석’을 생략하고 ‘의미상 분석의 틀’과 ‘장르상 분석의 틀’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제4장에서 의미상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첫째, ‘손’을 포함한 은유의 관용구는 ‘손(이) 닿다’만 있고 의미상 ‘동작과 행위’, ‘문화 및 사회생활’이라는 범주에 속한다. 둘째,

‘손’을 포함한 환유의 관용구(26개)는 총 34개 의미 유형이 있고 주로 ‘감정과 심리’, ‘동작과 행위’ 그리고 ‘상태와 가치’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 가운데 ‘상태와 가치’를 뜻하는 관용구에서 ‘손(을) 놓다’, ‘손(을) 떼다’, ‘손(을) 빼다’, ‘손(을) 털다’, ‘손(을) 씻다’는 유의 관계가 있는 관용구로 모두 ‘끝, 종결’을 의미하고 ‘정치 주제’의 자료에서 많이 출현한다. 셋째, ‘손’을 포함한 은유·환유의 관용구(16개)는 총 20개의 의미 유형이 있다. ‘상태와 가치’를 나타내는 관용구는 9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작과 행위’를 나타내는 관용구는 5개로 그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동작과 행위’(대분류)를 나타내는 ‘손에[으로] 넘어가다’, ‘손(안)에 넣다’, ‘손에 들어가다’, ‘손에 들어오다’, ‘손에 떨어지다’는 유의 관계가 있는 관용구로 모두 ‘소유, 지배’(소분류)라는 의미를 뜻하고 주로 ‘누구(의) 손에[으로] + 동사(넘어가다, 넣다, 들어가다, 들어오다, 떨어지다)’의 문형으로 쓰인다.

이어서 제5장에서 문체상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구어 내부’ 은유·환유 관용구의 장르별 분포 특징과 ‘구어와 문어’에서 은유·환유 관용구의 장르별 분포 특징으로 나눠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어 내부’의 분포 특징을 분석할 때 ‘국립국어원 구어 말뭉치(버전 1.2)’를 활용하였다. 우선 N-gram을 통해 ‘관용구와 어휘적 연어의 판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방법의 유효성을 설명하기 위해 ‘손(에/으로) 꼽다’의 용례를 대상으로 ‘관용구_3-gram’과 ‘연어 3-gram’을 계산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관용구_3-gram’을 보면 동사 ‘꼽다’는 ‘~을 정도(로)’, ‘~을 정도(밖에)’, ‘~을 만큼’, ‘~을 만한’ 등 형태와 결합하거나 공기하는 확률이 높다는 것으로 보이고 ‘연어_3-gram’의 경우, 동사 ‘기다리다’, 일반명사 ‘음식, 그룹’, 명사 수식어 ‘몇몇, 한번’ 등 어휘와 공기한다. 둘째, 구어의 하위 장르인 신문 자료에서 사용된 관용구의 경향성과 의미 범주도 밝혔다. 즉 N-gram을 ‘관용구와 어휘적 연어’를 판정할 수 있다고 본다.

‘구어와 문어’에서의 분포 특징을 비교하기 위해 균형 말뭉치인 ‘새 연세말뭉치4’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문어’와 ‘준구어’에서보다 ‘구어’에서 ‘손’을 포함한 은유·환유 관용구의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손(이) 닿다’의 영상 도식 은유, ‘손(을) 내밀다’와 ‘손(을) 벌리다’의 사건 환유, 그리고 ‘손(을) 대다’의 이동 은유와 사건 환유를 분석하였다.

본고에서 사용된 ‘장르’, ‘문체’의 개념과 하위 유형은 주로 국어정보학의 관점에서 Biber(1998, 2005) 등의 기술에 따랐다. 2020년부터 한국어학계에서 Haliday의 체계기능언어학(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을 이론적인 기초로 한 연구가 많아졌다. 기능주의 관점에서 관용구의 사용 빈도와 경향성을 분석하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는 것을 믿고 후속 연구로 남긴다.

또한 관용구의 사용은 문어보다 구어에서 많이 사용되고 격식이 있는 구어에서보다 비격식 구어에서 많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주지하지만, 본고에서 사용된 ‘국립국어원 구어 말뭉치(버전 1.2)’의 크기는 여전히 문어 말뭉치(버전 1.0)보다 10배 이상 정도의 작다. 구어 말뭉치에서 추출한 관용구의 절대 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z점수,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셰페의 사후분석(Scheffe’s post-hoc test) 등 통계적인 방법으로 계량적인 연구를

진행하지 않았다. 앞으로 대규모 구어 말뭉치나 균형 말뭉치를 구축하고 활용하여 다양한 통계 방법으로 이들의 장르별 분포 특징을 연구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말뭉치 및 사전]

국립국어원(2020), 국립국어원 문어 말뭉치(버전 1.0). URL: <https://corpus.korean.go.kr/>
국립국어원(2021), 국립국어원 구어 말뭉치(버전 1.2). URL: <https://corpus.korean.go.kr/>
김하수·유현경·김해옥·정희정·강현화·고석주·한송화·조민정·김현강(2007),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연어 사전』, 커뮤니케이션북스.
노용규(2002), 『한국어 기본 속어 사전』, 한국문화사.
서상규(2014/2019), 『한국어 기본어휘 의미빈도 사전』, 한국문화사.
신현숙·김미형·임소영·임혜원(2000), 『(의미로 분류한) 현대 한국어 학습 사전』, 한국문화사.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1998), 『연세 한국어 사전』, 두산동아.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말뭉치 용례검색시스템.
URL: <https://ilis.yonsei.ac.kr/corpus/#/>
최경봉(2014), 『(의미 따라 갈래지은) 우리말 관용어 사전』, 일조각.
한영균(2016), 『학습용 기본 명사 연어 빈도 사전』, 한국문화사.

[논문]

강범모(1999), 『한국어의 텍스트 장르와 언어 특성』, 고려대학교 출판부.
강범모(2000), 『한국어의 텍스트 장르, 문체, 유형』, 태학사.
강범모(2003/2011), 『언어, 컴퓨터, 코퍼스 언어학』, 고려대학교 출판부.
강현화(1987), 「국어 속어표현에 대한 고찰」,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강현화(1997), 「[체언+용언] 꼴의 연어 구성에 대한 연구」, 『언어 사실과 관점』 제8호, 191-224쪽, 언어정보연구원.
권경일(2004a), 「국어 관용구 연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권경일(2004b), 「관용구의 어법 설명에 관하여」, 『한국사전학』 제4호, 323-348쪽, 한국사전학회.
권경일(2009), 「한국어 관용구의 어휘적 변이형에 관한 연구」, 『돈암어문학』 제22호, 231-256쪽, 돈암어문학회.
권경일(2010a), 「관용구의 변이형과 사전 표제어 설정에 대한 연구」, 『한국사전학』 제15호, 102-127쪽, 한국사전학회.
권경일(2010b), 「감정표현 관용구의 의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문법 교육』 제11호, 119-140쪽, 한국문법교육학회.

金文昌(1990), 「慣用語」, 『國語研究 어디까지 왔나』, 543-553쪽. 서울대학교 大學院 國語研究會 編, 東亞出版社.

김선영(2014), 「한국어 관용 표현의 화용적 특징 연구: 변이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제11권 제3호, 23-46쪽,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김숙정·도원영·최경봉(2019), 「은유의 범주와 유형: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관점에서」, 『겨레어문학』 제62권, 221-249쪽, 겨레어문학회.

김정아·송현주(2013), 「친족어 관용 표현의 개념화 양상」, 『언어과학 연구』 제64호, 71-90쪽, 언어과학회.

김정아(2017), 「관용표현의 유의관계와 대립관계」, 임지룡 외(2017), 『의미관계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제5장, 120-146쪽, 한국문화사.

김진해(2002), 「한국어 연어의 개념과 그 통사·의미적 성격」, 『국어학』 제39호, 279-315쪽, 국어학회.

김한샘(1999), 「현대 국어 관용구의 계량언어학적 연구」, 연세대학교 국어정보학 협동과정 석사학위 논문.

김한샘(2003), 「자연언어처리를 위한 관용 표현 연구」, 『한국어 의미학』 13호, 43-67쪽, 한국어의미학회.

김한샘(2011), 『한국어 속어 연구』, 한국문화사.

김한샘(2013), 「한국어 속어 항목 정보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한민족문화연구』 제44호, 45-73쪽, 한민족문화학회.

김향숙(2003), 『한국어 감정표현 관용어 연구』, 한국문화사.

남길임(2012), 「어휘의 공기 경향성과 의미적 운율」, 『한글』 298호, 235-164쪽, 한글학회.

남길임(2007), 「부표제어의 범위와 유형: 속담·관용 표현·언어·패턴·상투표현·자유 표현의 기술」, 『한국사전학』 제4호, 143-161쪽, 한국사전학회.

노마 히데키(2002), 「한국어 단어결합론의 심화를 위하여」, 『국어학』 제39호, 361-396쪽, 국어학회.

문금현(1999), 『국어의 관용 표현 연구』, 태학사.

문금현(2013), 「색채어 관련 관용 표현에 나타난 인지의미 양상」, 『국어국문학』 제163호, 73-102쪽, 국어국문학회.

박재연(2014), 「한국어 연결어미 의미 확장에서의 환유와 은유」, 『국어학』 제70호, 117-155쪽, 국어학회.

서상규(2002), 『한국어 정보 처리와 언어 정보』, 『국어학』 제39호, 321-355쪽, 국어학회.

서상규·한영균(1999), 『국어정보학 입문: 인문학과 컴퓨터』, 태학사.

서상규·안의정·봉미경·최정도·박종후·백해파·송재영·김선휘(2013), 『한국어 구어 말뭉치 연구』, 한국문화사.

서상규(2020), 「<우리말 말수 사용의 찾기 조사>의 계량적 연구」, 『언어사실과 관점』 제51호, 59-102쪽,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송현주(2015a), 「관용 표현의 인지언어학적 접근: 의식주 관련 표현을 중심으로」, 『國際言語文學』 제31호, 71-95쪽, 國際言語文學會.

송현주(2015b), 「인지언어학적 어휘 연구를 위한 말뭉치 기반 접근: ‘시간’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제58호, 171-198쪽, 국어교육학회.

송현주(2015c), 『국어 동기화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송현주(2017a), 「신체어의 비유적 의미에 대한 말뭉치 기반 접근」, 『어문론총』 제74호, 77-105쪽, 한국문학언어학회.

송현주(2017b), 「의식주 관련 한국어 관용 표현의 동기화 양상」, 『한국어 의미학』 제58호, 185-209쪽, 한국어의미학회.

신명선(2015), 「문법 교육에서 어휘적 언어 수용의 한 방향」, 『한국어 의미학』 제47호, 55-82쪽, 한국어의미학회.

신희성(2021), 「체계기능언어학을 활용한텍스트 분석의 양상과 쟁점」, 『한국어학』 제93호, 1-42쪽, 한국어학회.

안의정(2014), 「구어 어휘의 의미 연구 방법론 -말뭉치 기반 사용역 변이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제43호, 107-132쪽, 한국어의미학회.

안의정(2018), 「어휘 풍요도 측정을 위한 관용 표현의 빈도와 분포 연구」, 『언어사실과 관점』 제44호, 399-417쪽,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유석훈·김유영 옮김(2015), 『(바이버의) 코퍼스 언어학: 언어구조와 용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Biber, Douglas(1995), *Corpus linguistics: investigating language structure and u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이관규·김서경·노하늘·성수진·신희성·유상미·이현주·정여란·정지현·정혜현(2021), 『체계기능언어학 개관』, 사회평론 아카데미.

이동혁(2007), 『한국어 관용 표현의 정보화와 전산 처리』, 역락.

이두행(2011), 「통계에 기반한 한국어 언어 결합 측정의 평가」,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희자·유현경·김한샘·천미애(2007), 「학습용 한국어 관용 표현 사전편찬 연구」, 『한국어사전학』 제9호, 99-122쪽, 한국사전학회.

임근석(2005), 「언어와 관용 표현의 판별 기준에 대한 고찰」, 『우리말 연구: 서른아홉 마당』, 981~1006쪽, 태학사.

임근석(2011), 「한국어 언어 연구의 전개와 쟁점에 대하여」, 『국어학』 제61호, 359-387쪽, 국어학회.

임지룡(2010), 「감정의 그릇 영상 도식적 양상과 의미특성」, 『국어학』 제57호, 31-74쪽, 국어학회.

임지룡(2017), 『한국어 의미 특성의 인지언어학적 연구』, 한국문화사.

임지룡(2021a), 『관용표현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임지룡(2021b), 『의미탐구의 인지언어학적 새 지평』, 한국문화사.

장석배(2014), 「한국어 정형표현 연구: 대규모 말뭉치 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언어정보학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

최경봉(2013), 「어휘 의미와 의미 관계 정보의 구성과 작용」, 『한국어 의미학』 제42호, 27-55쪽, 한국어의미학회.

최경봉·도원영·황화상·김일환·이지영(2020), 『한국어 어휘론』, 한국문화사.

최재웅 옮김(2018), 『코퍼스 언어학: 방법·이론·실제』,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McEnery, Tony and Andrew Hardie(2011), *Corpus Linguistics: Method, Theory and Practice*, Cambridge.]

최준(2016), 「한국어 확장된 어휘 단위의 층위 연구」, 『어문연구』 제87호, 35-57쪽, 어문연구학회.

최지훈(2010), 『한국어 관용구의 은유·한유 연구: 인지의미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혜안.

최현배(1937/1971),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한승화(2015),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4단계) 최종보고서』, 국립국어원.

한영균(2002), 「어휘 기술을 위한 언어정보의 추출 및 활용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국어학』 제39호, 137-173쪽, 국어학회.

한영균(2017), 「현대 한국어의 한자·한자어의 빈도 및 분포에 대한 계량적 분석과 그 활용」, 『언어와 문화』 제13호 제2권, 167-194쪽,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한영균·이두행(2014), 「웹 문서와 인터넷을 이용한 현대 한국어 참조 코퍼스의 구축」, 『어문학』 제124호, 129-166쪽, 한국어문학회.

金亨貞(2006), 「韓国語における<ワ(wa)>格補足語の分布及び特性」, 『朝鮮語研究会発表文』, 大阪.

M Koprowski(2005), Investigating the usefulness of lexical phrases in contemporary coursebooks, Mark Koprowski, *ELT Journal*, Volume 59, Issue 4, October 2005, Pages 322-332.

Mike Scott & Christopher Tribble(2006), *Textual Pattern: keywords and corpus*, Benjamins.

Biber, Douglas(1991), *Variation across speech and writ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Biber, Douglas(2009), *Register, genre, and sty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부록 1] Python(버전 3.9)을 통해 구어 말뭉치에서 'utterance' 부분을 추출하는 소스 코드

```

1 import os
2 import json
3
4 files = os.listdir('./s_gzdb_구어_강의')
5 for file in files:
6     with open('./s_gzdb_구어_강의/' + file, 'rb') as f:
7         data = f.read().decode()
8         dict_data = json.loads(data)
9
10        metadata_cat = dict_data["metadata"]["category"]
11        metadata_tit = dict_data["metadata"]["title"]
12
13        for document in dict_data["document"]:
14            for utterance in document["utterance"]:
15                utterance_form_s_gzdb_구어_강의 = utterance["form"]
16                print(utterance_form_s_gzdb_구어_강의)
17
18                with open("./utterance_form_s_gzdb_구어_강의.txt", "a") as f:
19                    f.write(utterance_form_s_gzdb_구어_강의)
20                    if utterance_form_s_gzdb_구어_강의[-1:] == ".":
21                        f.write("\n")
22                    else:
23                        f.write(" ")

```

[부록 2] '손'을 포함한 은유·환유 신체어 관용구 목록 (총 43개)

영역	유형	관용구	해석	의미 영역1	의미 영역2	의미 영역3
구어	1_1	손(이) 달다	영향력이나 힘이 미치다	영향을 미침	영향, 흔적, 해	상태, 가치
	1_1	손(이) 닿다	관계가 맺어지다	관계, 소통	교체	문화 및 사회 생활
유화	1_1	손(에) 꼽다	여럿 가운데 뛰어난 것으로 여 기다.	탁월, 우월	능력, 성장, 수 준	상태, 가치
	1_1	손에[으로] 꼽다[해 아리다]	수가 매우 적고 드물다.	적다, 드물다	빈도, 정도, 분 량	상태, 가치
	1_1	손(을) 꼽다	수를 세다.	시험, 계산, 평가	정신적 행위	동작, 행위
	2	손(에) 꼽이다	몇째 안 가는 높은 수준에 속 하다	탁월, 우월	능력, 성장, 수 준	상태, 가치
	3	손에 땀을 쥐다	조마조마하고 초조하다	걱정, 불안, 초조	공포감, 불안 감	감정, 심리
	4	손에 손(을) 잡다	서로 힘을 합하여 돕다	협동	전략적 행위	동작, 행위
	5	손(을) 거치다	관여하다. 어떤 사람을 경유하 여 일이 처리된다는 뜻으로 누구의 손을 '거치다'와 같이 쓰인다	관여, 참견	참여 태도	성격, 태도
	6_1	손(을) 내밀다	간섭하다	참여, 참견	참여 태도	성격, 태도
	6_2	손(을) 내밀다	(금전적으로) 도움을 청하거나 요구하다	신호, 요구	표현 행위	동작, 행위
	7	손을 (내)젓다	거절하거나 부인하다	반대, 부인, 거절	수용 태도	성격, 태도
	8_1	손(을) 놓다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냥 있다	소극적	참여 태도	성격, 태도
	8_2	손(을) 놓다	하던 일을 그만두다	끝, 종결	일의 진행	상태, 가치
	9	손을 늦추다	일을 더디게 하거나 느슨하게 하다	여유, 휴식	생활 태도	성격, 태도
	10	손(을) 들다	항복하다	굴복, 항복	승부, 싸움	동작, 행위
	11	손(을) 들어 주다	어떤 사람을 인정해 주거나 그 의 판을 들다	칭찬, 격려, 인정	평가	성격, 태도
	12	손(을) 떼다	하던 일을 그만두고 물러나다	끝, 종결	일의 진행	상태, 가치
	13	손(을) (맞)잡다	서로 도와 가며 일하다	협동	전략적 행위	동작, 행위
	14	손(을) 벌리다	(금전적으로) 도움을 청하거나 요구하다	신호, 요구	표현 행위	동작, 행위
	15_1	손(을) 보다	고치다	치료, 관리, 제작	이상적 몸동작 행동,	동작, 행위

	15_2	손(을) 보다	버릇을 고친다는 뜻으로 때리다	맞고 때림	승부, 싸움	동작, 행위
	16_1	손(을) 비비다	아부하다	하침, 배려	사람을 대는 태도	성격, 태도
	16_2	손(을) 비비다	용서를 구하다	사죄	엄치, 죄의식	성격, 태도
	17	손(을) 빼다	하던 일을 그만두고 물러나다	끝, 종결	일의 진행	상태, 가치
	18_1	손(을) 쓰다	대책을 세워 행하다. 조치를 취하다	조치, 해결, 수습	전략적 행위	동작, 해위
	18_2	손(을) 쓰다	제 것으로 인심을 끄거나 한턱을 내다	배품, 선처	능력, 성장, 수훈	상태, 가치
	19	손(을) 씻다	하던 일을 그만두고 물러나다	끝, 종결	일의 진행	상태, 가치
	20	손(을) 적시다	관여하다	관여, 참견	참여 태도	성격, 태도
	21_1	손(을) 털다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잃어 남는 것이 없게 된다	소멸, 소진	빈량, 정도, 분량	상태, 가치
	21_2	손(을) 털다	하던일을 그만두다	끝, 종결	일의 진행	상태, 가치
	22	손(을) 흔들다	거절하거나 부인하다	반대, 부인, 거절	수용 태도	성격, 태도
	23	손(이) 가다	손질하거나 보살피다	치료, 관리, 제작	일상적 행동	동작, 행위
	24	손(이) 근질거리다	어떤 일이나 활동을 하고 싶어 하다	재촉, 독려, 안달	생활 태도	성격, 태도
	25	손(이) 근질근질하다	어떤 일이나 활동을 하고 싶어 하다	재촉, 독려, 안달	생활 태도	성격, 태도
	26	손(이) 맞다	(일을 할 때) 생각이나 행동이 일치하다	일치, 동조	일치, 조화	성격, 태도
	있다, 하다	1	손에[으로] 넘어가다	수유권을 바꾸다	소유, 지배	소유, 지배, 이용
2		손(안)에 넣다	차지하여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다	소유, 지배	소유, 지배, 이용	동작, 행위
3		손에 들어가다	누군가의 차지가 되다. 주로 '누구의 손에 들어가다'와 같이 쓰인다	소유, 지배	소유, 지배, 이용	동작, 행위
4		손에 들어오다	소유하게 되다	소유, 지배	소유, 지배, 이용	동작, 행위
5		손에 떨어지다	누군가의 차지가 되다. 주로 '누구의 손에 떨어지다'와 같이 쓰인다	소유, 지배	소유, 지배, 이용	동작, 행위
6		손에 잡히지 않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무엇이 손에 잡히지 않다'와 같이 쓰인다.	걱정, 불안, 초조	공포감, 불안감	감정, 심리
7		손에 쥐다	차지하여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만들다	소유, 지배	소유, 지배, 이용	동작, 행위
8		손에서 벗어나다	다른 사람의 지배이나 영향권에서 벗어나다	자유	조건, 처지	상태, 가치
9_1		손(을) 대다	관여하거나 시도하다.	관여, 참견	참여 태도	성격, 태도
9_2		손(을) 대다	고치다. 또는 성형 수술을 하다.	치료, 관리, 제작	일상적 행동, 틈틈이	동작, 행위
9_3		손(을) 대다	때리다.	맞고 때림	승부, 싸움	동작, 행위
9_4		손(을) 대다	성관계를 갖다	이성 경험	남녀 관계	문화 및 사회 생활
10_1		손(을) 뻗(치)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거나 요구하다	신호, 요구	표현 행위	동작, 행위
10_2		손(을) 뻗(치)다	(영향을 미치거나 세력을 넓힐 목적으로) 어떤 분야나 대상에 접근하다	영향을 미침	영향, 흔적, 해	상태, 가치
11		손(이) 뻐이다	어떤 일을 할 수 없게 만들다	속박, 고립	조건, 처지	상태, 가치
12		손이 미치다	영향력이나 힘이 미치다	영향을 미침	영향, 흔적, 해	상태, 가치
13	손(이) 작다	쌔쌔이가 깐깐하고 웅졸하다	쌔쌔이	생활 태도	성격, 태도	
14	손이 잠기다	일에 매여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속박, 고립	조건, 처지	상태, 가치	
15	손이 재다	손놀림이 몹시 빠르다	일손, 일숨씨	노동, 생활	문화 및 사회 생활	
16	손(이) 크다	쌔쌔이 넉넉하다	쌔쌔이	생활 태도	성격, 태도	

“텍스트 장르에 따른 은유·환유 신체어 관용구의 계량언어학적 연구”에 대한 토론문

신희성(고려대)

신체어 관용구에 대해 인지언어학적인 관점, 그리고 계량언어학적인 접근으로 다양한 논의를 보인 발표문을 읽으면서 좋은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양의 언어 자료를 분석하고 분류하여 기술하는 작업의 어려움을 알기에 부족한 공부로 토론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 또 발표자 선생님의 연구 진행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아래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연구 목적에 대해

발표문에서는 ‘관용구’와 관련된 여러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면서 다양한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모두 유의미한 것들이겠으나 이 연구가 소논문으로 발전된다고 가정했을 때, 문제의식을 초점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제목에 기대어 보자면 독자로서 이 연구에 기대하는 바는 신체어 관용구가 텍스트 장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더 나아가한다면 그 원인에 대한 추론-일 것입니다. 그러나 발표문 전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논의는 관용구의 정의나 판별 기준, 의미 범주 등에 대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들에 대해서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논박하거나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새 기준이나 범주를 제시하는 과정이 없어 이 연구의 독창적인 성과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결국 손 포함 관용구 출현의 장르 차이를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할 텐데 주로 분석된 것은 ‘새 연세말뭉치4’뿐이고 발표자께서도 기술하고 있듯 여기서 손 포함 관용구의 출현은 그 절대 빈도 자체가 적어 차이의 유의성에 대한 통계적 검증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용례들에 기반해 관용구의 정의 및 판별 기준이나 범주 혹은 인지언어학적 해석에 쟁점을 도출하고 나름의 논증을 거쳐 새로운 소결에 도달하거나, 혹은 계량 연구에 걸맞게 표본을 늘려서 유의미한 차이들을 논하는 것 중 어느 하나를 택해서 집중하는 것이 이 연구의 가치를 더 부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혹은 두 연구로 나누어 각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둘 모두 쉽지 않은 작업일 것을 알기에 말로만 쉽게 제안을 드리는 듯해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2. 세부적인 논의에 대해

1) <표 12> 아래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의 전개를 보이고 있습니다. 논리적 흐름이 맞으면 신문과 학술의 구어성이 높다는 기술이 되어야 하지 않지요?

문어, 준구어, 구어 중 구어에서 손 포함 관용구 빈도가 낮다 - 신문, 잡지, 소설, 학술 중 신문과 학술에서 손 포함 관용구 빈도가 낮다 - 소설과 잡지의 구어성이 높다

사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신문과 학술’ 장르의 구어성과 ‘소설과 잡지’ 장르의 구어성을 비교

하는 지표로 손 포함 관용구의 빈도가 핵심적인 지표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혹은 구어성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손’ 포함 관용구를 특정하여 살핍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의미한 소결이 될지요?

2) <표 13> 아래 논의에서 ‘손(이) 달다’가 구어 중 공적 대화에서만 출현하는 현상의 원인에 대해 의미적 불투명성 및 비효율성 때문에 사적 대화나 독백에서 해당 관용구가 선택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 대화에서 수많은 은유적 표현들을 사용함을 상기해 보면 이러한 해석이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또 이어서 소설에서는 ‘손(이) 달다’가 많이 출현하는 것을 두고 구어성이 높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소설은 구어인 사적 대화보다 구어성이 높은 문어가 되는 것인데 이 역시 기술의 정합성을 재고해 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3) 최지훈(2010)은 박사논문인 최지훈(2007)의 출판본인 듯합니다. 제가 해당 책을 구하지 못해 박사논문을 참고한 바에 의하면 최지훈(2007)에서는 은유가 작용한 관용구 목록에 ‘손이 달다’를 넣고 있지 않습니다. 최지훈(2010)에 추가된 것일지요? 무엇보다 이를 연결 은유로 분류했는데 최지훈(2007)에서는 연결 은유가 작용한 관용구의 은유 도식을 ‘관계는 줄’로 보고 ‘선이 달다, 선을 대다, ... 줄을 잡다, ... 끈을 잡다’ 등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손이 달다’에 동일한 은유 도식이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상대 신체와 접촉한 손에 연결된 팔이 다시 줄로 은유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보다는 사건 환유로 해석하는 것이 간명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3. 기타 사소한 기술들에 대해

1) <표 9>에서 ‘손(에) 꼽다’를 포함한 문장을 형태(특히 관형사형 어미 ‘-을’과 결합)적 특징에 따라 관용구와 연어로 구분하고 전자에 대해서는 ‘여럿 가운데 뛰어난 것으로 여기다’나 ‘수가 매우 적고 드물다’의 의미를 후자에 대해서는 ‘수를 세다’의 의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전체 맥락을 봐야 하겠으나) ‘첫 손에 꼽는, 손 꼽은 음식들이’의 예도 전자의 의미로 보여 판별 기준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2) <표 10>에 기반해 뉴스 자료에서 11가지의 손 포함 환유 관용구가 출현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손(을) 들다’는 총 용례가 6개이지만 관용구 용례가 0개이므로 10가지가 맞지 않나요?

3) <표 11>의 두 번째 열은 ‘전체 빈도수’가 아니라 ‘전체 어절 수’ 아닌지요? 또 <표 11>에서 ‘손’을 포함한 관용구가 아닌 ‘손’의 출현 빈도를 제시한 이유가 있는지요?

4) 각주 25번을 참고하면 구어, 문어, 준구어로 비교할 때 구어, 문어는 각각 약 60만 어절이지만 준구어는 약 15만 어절이기에 상대 빈도로 변환해야 한다고 했고 <표 11>에 대해서도 ‘정규화된 빈도수’에 대해 10만 어절로의 환산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표 15, 16> 등에서는 문어, 구어를 통합해서 보고 있지 않음에도 ‘신문, 잡지’ 등의 하위 범주에 대해서 정규화된 빈도 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잡지는 거의 수치 차이가 없으면서 소설은 대략 3분의 1, 학술 교양은 2.5배, 공적 대화는 대략 3배로 변환되고 있어 어떤 기준으로 정규화된

빈도수가 나왔는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5) “균형 말뭉치인 ‘새 연세말뭉치4’”에 대해 연구 내에서 ‘균형 말뭉치’로 지칭하거나 ‘새 연세말뭉치4’ 중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장 14쪽에서는 <표 14>를 설명하는 기술에서는 ‘새 연세말뭉치로’ <표 14>의 제목에서는 ‘균형 말뭉치’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투성이’의 의미 및 형태·통사적인 특징에 대하여

홍정현(한국교원대)·이동석(한국교원대)

1. 서론

접미사를 흔히 문법 형태소로 분류하지만, 접미사 중에는 어휘적인 의미를 더해 주는 경우도 많아 문법 형태소와 어휘 형태소라는 이분법의 체계 속에서 접미사의 자리를 정확하게 지정하기가 쉽지 않다.

접미사 중에서도 ‘투성이’는 국어사전의 설명과는 달리 실생활에서의 의미 및 용법이 훨씬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데, 이 때문에 ‘투성이’를 접미사가 아닌 의존 명사로 보는 견해도 있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성이’의 의미와 형태·통사적인 특징에 대한 연구가 아직까지 전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다. 송원용(2016)에서 ‘투성이’를 단독 주제로 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투성이’의 전모(全貌)를 다 밝혔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에 본고는 ‘투성이’의 특징을 의미와 형태·통사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투성이’의 전반적인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2. ‘투성이’의 의미적인 특징

‘투성이’는 국어사전에서 공통적으로 접미사로 분류되지만, 구체적인 의미 기술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 (1) ㄱ. -투성이 [투] 일부 이름씨에 붙어, 그 이름씨가 가리키는 ‘어떤 사물이 지저분할 만큼 몹시 많은 상태’의 뜻. ㉠ 네 말은 거짓말~다. 작업복은 기름~가 되었다. 먼지~의 방바닥. 주근깨~인 얼굴. <우리말 큰사전>
- ㄴ. -투성이 [접미]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별로 좋지 않은 것이 여기저기 많이 있음’의 뜻을 나타냄. ㉡ 먼지투성이/상처투성이/주름살투성이. <연세한국어대사전>
- ㄷ. -투성이 [접사]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것이 너무 많은 상태’ 또는 ‘그런 상태의 사물,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흙투성이. 피투성이. <표준국어대사전>

1) 사전의 처리대로라면 ‘-투성이’와 같이 하이픈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에 맞겠지만, 논의 과정에서 이를 명사로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언급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표기의 일관성을 위해 사전이나 논저를 직접 인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하이픈을 사용하지 않고 ‘투성이’로 표기하도록 하겠다.

ㄱ. -투성이[-투성이] ㉠

- ①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온통 그것을 뒤집어쓴 상태임’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 먼지투성이 / 흙투성이 / 피투성이 / 모래투성이.
- ② 일부 구체적인 명사 뒤에 붙어, ‘그것을 매우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임’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 자갈투성이 / 주름살투성이 / 한문투성이 / 여드름투성이 / 털투성이.
- ③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일부 추상적인 명사 뒤에 붙어, ‘그것이 매우 많이 드러나 있는 상태임’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 문제투성이 / 신경질투성이 / 실수투성이 / 불만투성이. <고려대한국어대사전>

(1ㄱ)은 『우리말 큰사전』(한글학회, 1992), (1ㄴ)은 『연세한국어사전』(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1998), (1ㄷ)은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 1999), (1ㄹ)은 『고려대한국어대사전』(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9)의 뜻풀이로, 사전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이들 사전의 뜻풀이를 기준으로 ‘투성이’의 의미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투성이’의 주체로 사물에 한정되는가 하는 점이다. (1ㄱ)은 ‘투성이’의 의미를 ‘어떤 사물이 지저분할 만큼 몹시 많은 상태’로 풀이하여, ‘투성이’의 주체가 ‘사물’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사물의 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투성이’를 사용하는 예가 있기 때문에 ‘투성이’의 주체를 ‘사물’로 한정하기는 어렵다.

(2) 하반기 첫 달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는 마이너스 투성이였다. <연합뉴스, 2016. 08. 31>

그의 설명은 함정 투성이였고 <톱스타뉴스, 2016. 09. 10>

주무부처인 국민안전처의 대응은 늑장 투성이였다 <더피알, 2016. 09. 13>

노명희(2013)는 ‘의혹투성이, 허방투성이, 실패투성이, 의문투성이’ 등 ‘투성이’가 추상 명사를 어기로 취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대개 사물이 주어가 아닌 경우가 많다. 실제로 『우리말 큰사전』을 제외한 다른 사전에서는 ‘투성이’의 주체를 ‘사물’로 한정하지 않아 ‘투성이’가 나타내는 의미를 제한하지 않았다.

둘째, ‘투성이’의 의미를 단일하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1ㄱ~ㄷ)은 ‘투성이’의 의미를 단일하게 보았으나, (1ㄹ)은 ‘투성이’의 의미를 다층적으로 보았다. 이 중 (1ㄱ~ㄷ)은 ‘투성이’가 공통적으로 어떠한 것이 많은 상태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1ㄱ)은 지저분할 정도로 많은 상태로 보았고 (1ㄴ)은 별로 좋지 않은 것이 많은 상태로 보아, 기본적으로 ‘투성이’가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반면 (3ㄷ)은 ‘투성이’에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다른 사전과는 달리 ‘투성이’가 사물이나 사람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보았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투성이’가 사람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본 것은 다음과 같은 예들을 염두에 둔 설명이라고 생각된다. 아래의 예들은 『표준

국어대사전』에서 ‘투성이’가 결합한 단어의 의미를 ‘사람’으로 본 것들이다.

(3) ㄱ. 갯벌투성이: 갯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낚잡아 이르는 말.

ㄴ. 농투성이: ‘농부01’를 낚잡아 이르는 말.

ㄷ. 모래투성이: 모래가 많이 묻은 상태. 또는 그런 상태의 사물이나 사람.

ㄹ. 불만투성이: 어떤 일에도 만족할 줄을 모르는 사람.

ㅁ. 상처투성이: 온통 상처가 난 상태. 또는 그런 상태의 사람.

ㅂ. 실수투성이: ‘1’ 온통 잘못된 일. ‘2’ 무슨 일이든 제대로 못 하는 사람.

(3ㄱ, ㄴ)의 ‘투성이’가 (3ㄷ~ㅂ)의 ‘투성이’와 동일한 것인지는 불확실하지만, 후자의 예만으로도 ‘투성이’가 사람을 의미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²⁾. 다만, ‘투성이’가 상태를 나타내지 않고 사물이나 사람만을 의미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투성이’가 나타내는 ‘사물’이나 ‘사람’의 의미는 ‘상태’로부터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3ㄹ)과 같이 ‘불만투성이’가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지만, 다음과 같이 상태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역시 ‘투성이’의 의미가 ‘상태’에서 ‘사람’으로 확장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투성이’가 ‘상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사람’을 의미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그런데도 이처럼 국내주요가전제품들의 품질이 불만투성이란 말까지 전해들으니 씁쓸한 감회와 함께 실망감을 감출 길이 없다. <동아일보 1992. 02. 26.>

재계 개혁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은 불만 투성이다. <경향신문 1998 03. 25.>

이처럼 ‘투성이’는 기본적으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1ㄱ~ㄷ)의 ‘상태’에 대한 설명에서 공통적으로 추출되는 의미 자질은 [많음]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1ㄱ)에서는 ‘지저분할 정도로 많은 상태’로 보았고, (1ㄴ)에서는 ‘여기저기 많은 상태’로 보았다. 이러한 구체적인 의미 설명은 ‘피투성이, 진흙투성이, 먼지투성이’와 같이 ‘투성이’의 선행어가 물질에 해당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투성이’의 선행어가 추상 명사일 때는 사정이 다르다. 노명희(2013)은 ‘의혹투성이, 혼동감투성이’와 같이 ‘투성이’가 추상 명사에 결합할 경우에는 그 의미가 단순히 ‘여기저기 많이 있음’으로 해석되지 않고 ‘실수가 많은 상태, 의혹이 많은 상태’ 등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역시 ‘투성이’가 추상 명사와 결합할 때는 (1ㄱ)처럼 ‘지저분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1ㄱ)과 (1ㄴ)의 의미 기술은 ‘투성이’의 포괄적인 의미로는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반해 (1ㄹ)의 뜻풀이는 ‘투성이’의 의미를 다층적으로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미 기술

2) 송원용(2016)은 『우리말 큰사전』의 뜻풀이를 참고하여 ‘농투성이’의 ‘농’을 ‘농사, 농업, 농민, 농민, 농가’ 등의 ‘농’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 단위, 즉 비활성어근으로 규정하고, 이 예로 인하여 ‘투성이’의 결합 단위를 명사로 보는 기존 사전의 기술을 수정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의미상 ‘농투성이’의 ‘투성이’가 ‘모래투성이’의 ‘투성이’와 동일한 요소인지가 불분명하다.

이 훨씬 정교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투성이’가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1ㄴ)은 ‘투성이’의 뜻풀이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부각시켰다. (1ㄴ)은 ‘먼지투성이/상처투성이/주름살투성이’와 같이 ‘투성이’가 구체 명사에 결합한 예를 들며 ‘투성이’가 ‘별로 좋지 않은 것이 여기저기 많이 있음’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김창섭(2008:175)은 ‘별로 좋지 않은 것’이 본질적으로 ‘투성이’의 보충어 명사의 고유한 성질이 아니라 언어 사용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고물투성이, 밀가루투성이, 밥풀투성이, 설탕투성이, 양념투성이, 콧물투성이, 화장품투성이’ 등에서는 보충어 명사가 ‘별로 좋지 않은 것’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러한 쓰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³⁾.

그러나 노명희(2013)은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하며 이들 단어에서는 ‘투성이’의 의미론적인 제약이 약해졌다고 보았다.

(5) 난 이 세상에서 처음 만나요. 그리고 보면 선생님은 처음투성이예요.

자리에서 일어날 때 팔을 얼마쯤 구부리면서 하품하는가를 보는 재미. 모조리 재미투성이다.

위의 예들은 ‘처음’이나 ‘재미’와 같은 단어 자체의 의미에서도, 이들이 ‘투성이’와 결합하여 쓰인 문장의 상황적인 맥락에서도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노명희(2013)은 이러한 예를 ‘투성이’의 용법이 확대된 것으로 보았다.

(6) 바지속에도 돈! 모자속에도 돈! 데천서에 붓잡어 노은 돈투성이 도적 한 명 <중외일보, 1928. 11. 13.>

우승기와 우승컵 투성이 상승의 강군 리화 선수들 <매일신보, 1930. 10. 05.>

우리가 심은 사구라 나무도 저러게 피엿으려니……동네가 온통 꽃투성이려니……』 <소포 (김안서) 178, 1933년>

同様に 빠어루트와 그의 閣僚는 나와의 豫備交渉에 있어서는 溫情과 親切투성이였다 <동아일보, 1947. 08. 12.>

이 記者會見은 이모저모로 새로운 點투성이였다 <동아일보, 1961. 01. 26.>

그런데 이러한 용법은 최근의 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이미 1920년대부터 모습을 보인다. 뒤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투성이’는 19세기 후반의 문헌에서 처음 모습을 보이는데, 드물게나마 20세기 초에 이미 ‘투성이’가 부정적이지 않은 의미로 사용된 예가 발견되므로 이러한 용법이 최근에 만들어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⁴⁾.

3) 이 중 ‘고물’과 ‘콧물’은 ‘별로 좋지 않은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김창섭(2008:175)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

4) ‘돈투성이’의 경우에는 도적이 여기저기 돈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낸

물론 (5)의 예가 (6)과 같이 20세기 초기에 보이는 긍정적인 용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럴 가능성도 있고, 이후 부정적인 의미로 용법이 확립된 후에 다시 긍정적인 의미의 용법이 새로 출현한 것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지만, ‘투성이’의 긍정적인 용법이 최근에야 발견되는 것으로 보는 기존의 연구 결과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명확하다. (6)과 (7)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투성이’의 기본 의미 및 의미 변화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7) ㄱ. 텃하의 마츄니 이러흔 인물이 이시니 이제 나를 보건디 마츄니 진흙투성이흔 도야지와 도랑이 올은 기 곳도다 (天下竟有這等的人物 如今看來我 竟成了泥猪癩狗了) <홍루몽 7:59>

ㄴ. 흙투성이하다 s. To be covered with mud ; to be besmeared with mud. <한영사전 146>

위의 예는 ‘투성이’가 19세기 말에 사용된 예이다. (7ㄱ)은 『홍루몽』(낙선재본)의 예이고, (7ㄴ)은 『한영사전』의 예이다. 『홍루몽』(낙선재본)은 간기가 없는 필사본 자료라 기록된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필사 시기를 1884년 전후로 추정한다(최용철, 2007:76). (7ㄴ)의 『한영사전』은 1897년에 간행된 것으로, 이 두 예가 19세기 문헌에서 발견되는 ‘투성이’의 가장 이른 시기의 용례이다⁵⁾.

20세기 들어서는 대개 다음과 같이 ‘투성이’가 주로 ‘(진)흙, 피, 먹’ 등을 선행어로 취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들은 점도가 높은 액체 상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8) 위 신문 검열노 구속이 태심히미 신문 전폭이 모다 먹투성이뿐이니 <대한매일신보, 1908. 04. 10.>

대개 이 신문은 일인의 검열에 구속이 되야 먹투성이가 만흔 고로 <대한매일신보, 1908. 04. 26.>

진흙투성이흔 길목버선을 췌지도 못하고 수순스길을 마주잡고 대청아리 셔셔 <치악산(하), 37, 1911년>

소위 배항으로 오는 사람은 진흙투성이를 째앗게흔 무명 훗단 두루막이에 착착 접어 두엇다가 <치악산(하), 114, 1911년>

전신에 피투성이를 하고 꿈에 두 번이나 뵈이면서 살녀 달나 하니 <목단화, 40, 1911년>
못츄니 벽장의 신건으로 혼 흰 널-문스작 안이 원통 피투성으로 싹싹것게 물이든 것을 보고 <죽서루, 8, 1911년>

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5)의 나머지 예들은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다.
5) 송원용(2016)은 ‘투성이’가 「대한매일신보」(1908년 4월 10일)에 ‘먹투성이’의 형태로 문헌에 처음 출현한다고 보고 ‘투성이’의 최초 출현 시기를 20세기라고 하였으나, 이미 19세기 말에 문헌에 출현한 예가 있으므로 ‘투성이’가 적어도 19세기 말에는 사용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7ㄴ)의 ‘흙’은 액체 상태가 아닌 것 같지만, 대응되는 영어 단어가 ‘mud’인 점을 통해 가루 상태의 ‘흙’이 아니라 점도가 높은 ‘진흙’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흙투성이’가 사용된 글의 전후 문맥을 보면 비가 오는 상황이거나 비가 오다가 그친 직후의 상황인 경우가 많은데, 이를 통해서도 이때의 흙이 알갱이로 된 흙이 아니라 물기를 머금은 진흙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투성이’는 점성이 강한 물질이 표면에 묻은 모양이나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9) ㄱ. 투성이 名 多多塗附된 貌. <조선어사전 원고본, 1917년>

ㄴ. 투성이 ㉠ 塗(まこ)るるこそ. ㉡ 「흙투성이」[土塗れ] <조선총독부 편 조선어사전, 1920년>

ㄷ. 투성이 ㉢ 묻쳐서 더럽게 된것. <문세영 조선어사전(수정증보), 1940년>

ㄹ. -투성이 【발】 온몸에 묻치어 더럽게 됨. [피-. 흙-](-투게비. -투구리). <한글학회 큰사전>

초기의 국어사전에서는 ‘투성이’의 의미를 위와 같이 단순히 설명하였지만, ‘투성이’는 원래 앞서 언급한 대로 점성이 강한 물질이 표면에 덮인 모양이나 상태를 의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1920년대를 전후로 하여 ‘피투성이, 먹투성이, 흙투성이’에 국한되었던 ‘투성이’의 쓰임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그 방향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는 다음과 같이 ‘투성이’가 추상 명사에 결합하는 예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10) 晉州에서는 道長官以下 감끄투성이다 <매일신보, 1918. 11. 13.>

걱정투성이 <매일신보, 1920. 07. 06.>

女子는 缺點투성이 <조선일보 1921. 01. 01. 7면>

그러나 區區種種한 것을 다 들고 보면 神聖한 朝鮮民族을 아조 迷信투성이를 맨드는 嫌疑를 빚겠기로 쓰다 그만 끈치고 말았다. <개벽 7:31, 迷信의 감투를 벗으라, 1921. 01. 01.>

아아 험투성이 말성쪽에 이 해가 또 저물고 <개벽 18:90, 社會諷刺 銀파리, 1921. 12. 01.>

전부가 번민투성이의 조선 살어나갈 도리는 무엇인가 <동아일보, 1923. 01. 07. 3면>

過料투성이 <조선일보 1924. 04. 19. 3면>

所謂『財政緊縮』 矛盾撞着투성이 <시대일보, 1924. 10. 07. 3면>

둘째는 ‘투성이’가 점성이 없는 물질을 선행어로 취하는 예가 보인다는 점이다.

(11) 우리들을 딸이고 간다난 사람은 얼굴이 혓속하고 주름살투성이가 된 쏘그랑 늙은이였다

<동아일보, 1920. 08. 14. 4면 (부평초 96)>

방안에도 (붉은실) 몇달이나 쓰레질을 아니하였는지 문지투성이가 되였다 <동아일보, 1921.07.15. 4면>

建物家具가 石炭투성 <매일신보, 1925. 12. 23일.>

무슨 물건이든지 모다 검정투성이가 되며 <매일신보, 1925. 12. 23.>

장야 일대는 재투성이 <시대일보, 1925. 06. 29.>

원몸에 췌투성이! <중외일보 1930. 07. 31.>

癰腫투성이 京城府 <매일신보, 1930. 09. 05.>

머리에서부터 원몸이 거미줄 투성이 되며 <동아일보, 1931. 02. 07. 7면>

全身이 털투성이 <매일신보, 1931. 07. 21.>

위의 ‘주름살, 문지, 석탄(石炭), 검정, 재, 췌, 암종(癰腫), 거미줄, 털’ 등은 모두 점성이 없는 물질이다⁶⁾. 그러나 ‘문지, 석탄(石炭), 검정, 재, 거미줄’ 등은 가벼운 가루 형태나 가느다란 실 형태로 물체의 표면을 덮을 수 있고, ‘주름살, 췌, 악성 종양, 털’ 등은 생명체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생명체의 표면이나 내부에 존재하는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투성이’의 단어 결합이 ‘구체 명사 → 추상 명사’로 확대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20세기 초의 문헌 자료를 분석해 보면 ‘점성이 있는 구체 명사 → 점성이 없는 구체 명사’로의 의미 확대와 ‘점성이 있는 구체 명사 → 추상 명사’로의 의미 확대가 거의 동시에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동안 표면을 덮은 상태나 추상적인 속성을 갖는다는 의미를 담당하던 ‘투성이’는 이후 다음과 같이 물리적으로 어떠한 것이 많다는 의미를 담당하기 시작한다.

(12) 병에 들어서도 나는 데 없이 파먹기만 하는 건 망쪼라 하여 조석마다 치릅씩이나 잡곡을 섞도록 분부하여 조투성을 만들었고 혹은 죽을 쑤게 하였다. <형(김유정), 360, 1934년>

공문서는 한짜투성이 <대중일보, 1949. 10. 09일.>

빨리 그곳으로 가보니 울상을 한 수남이 발밑은 온통 콩자반 투성이였다. <조선일보, 1963. 02. 07. 6면>

『참 도처에 애국자 투성이군. 이러니 이 나라가 앞으로 잘되지 않을 수 없지』 <경향신문, 1972. 04. 12. 4면, 莊園속의 人形들(138)>

여름 가축축사를 지으면서 그 언덕은 구덩이 투성이였다. <조선일보, 1972. 08. 13. 4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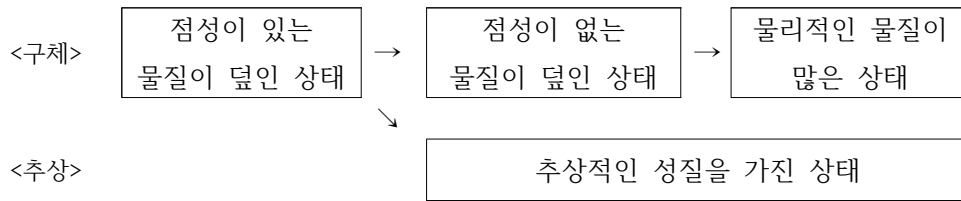
방에 들어서니 온토 푸른 줄무늬 투성이였다. <조선일보, 1973. 06. 12. 4면>

“무슨 말인가?”, “그럼 부처님 투성이게요...” <동아일보, 1974. 04. 04. 6면. 洪吉童(630)>

지금까지 살펴본 ‘투성이’의 의미 변화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의 ‘투성이’는 이

6) 위의 예 중 ‘石炭’은 ‘석탄가루’를, ‘검정’은 ‘검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검댕’을 ‘검정’이라고 한다.

와 같이 몇 단계를 거치면서 지금과 같은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투성이’의 의미 변화

‘투성이’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투성이’의 어원을 분석해 볼 필요도 있다. 그런데 ‘투성이’의 어원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말에 3음절짜리 단일어가 극히 드물다는 점을 감안하면 ‘투성이’는 복합어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투성이’를 둘로 나눈다면 후부 요소는 아마도 ‘-이’나 ‘-engi’가 될 것이다. ‘-이’는 워낙 흔한 접미사이므로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분리하고 남은 ‘*투성’의 정체가 불분명하다. ‘-engi’는 ‘고양이, 꼬랑이, 구덩이, 깍정이, 가랑이, 지팡이’ 등에서 분리되는 접미사이지만, 역시 ‘-engi’를 분리하고 남은 ‘*툷’의 정체가 불분명하다.

그런데 ‘투성이’가 처음부터 자립적으로 쓰이지 못한 것을 보면 어근으로 생각되는 ‘*투성’이나 ‘*툷’ 역시 자립적인 성격이 약한 요소였을 가능성이 높다. 애초에 어근이 명사나 동사, 형용사에서 기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복숭이’를 참고할 만하다. ‘복숭이’는 ‘털’과 결합하여 ‘털복숭이’ 형태로 주로 쓰이는데, ‘털복숭이’는 ‘털이 많이 난 사람이나 동물, 물건’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털이 많이 난 강아지나 사람을 ‘털복숭이’라고 한다⁷⁾.

특히 털이 많이 난 강아지를 ‘복슬강아지’ 또는 ‘복슬강아지’라고 하며, ‘살이 찌고 털이 많아서 귀엽고 탐스러운 모양’을 ‘복슬복슬’ 또는 ‘복슬복슬’이라고 하는데, 이 ‘복슬’과 ‘복숭이’가 형태와 의미 면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투성이’가 ‘복숭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복숭이’가 ‘복슬’이나 ‘복슬부슬’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투성이’는 ‘투실’ 또는 ‘투실투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투실투실’은 ‘보기 좋을 정도로 살이 통통하게 찐 모양’을 의미한다.

이처럼 ‘투실투실’은 일반적으로 통통한 모양을 의미하지만, 전남 방언에서는 도톨도톨한 모양을 의미한다. ‘도톨도톨’은 ‘물체의 겉에 볼록한 작은 것들이 솟아 나오거나 붙어 있어 고르지 않은 모양’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는 물체의 표면에 진흙과 같이 점성이 강한 물질이 묻어 있는 상태와 통하는 면이 있다. 아직 의미적인 연관성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투성이’가 처음부터 자립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것을 보면 이 단어가 ‘투실투실’과 같은 음성 상징어에서 유래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⁸⁾.

7) 구어에서는 ‘털복숭이’의 형태도 흔히 사용하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는 ‘털복숭이’만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다. 반면에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는 ‘털복숭이’와 ‘털복숭이’가 모두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는데, ‘복슬복슬’과 ‘복슬복슬’, ‘복슬강아지’와 ‘복슬강아지’가 모두 존재하는 것을 보면 ‘털복숭이’와 함께 ‘털복숭이’도 표준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음성 상징어는 주로 구어에서 사용되어 판본 자료에 잘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19세기까지의 문헌에서 ‘투실투실’을 찾기 어려운 점도 바로 이 때문일 가능성이 높으며, ‘투성이’가 19세기 말에 소설과 사전에 갑자기 등장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즉, 이들 단어가 20세기 무렵에 갑자기 만들어졌다고 보다는, 그 이전부터 사용되었더라도 구어적인 성격이 강해 문헌에서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3. ‘투성이’의 형태·통사적인 특징

앞서 언급했듯이 최근의 국어사전들은 ‘투성이’를 접미사로 분류한다. 그러나 20세기 초기의 사전들은 다음과 같이 ‘투성이’를 접미사가 아닌 명사로 보았다.

(13) ㄱ. 투성이 名 多多塗附된 貌. <조선어사전 원고본, 1917년>

ㄴ. 투성이 ㉠ 塗(마こ)るるこそ. ㉡ 「흙투성이」[土塗れ] <조선총독부 편 조선어사전, 1920년>

ㄷ. 투성이 ㉢ 묻쳐서 더럽게 된것. <문세영 조선어사전(수정증보), 1940년>

남한에서는 1947년에 한글학회의 『큰사전』이 ‘투성이’를 처음으로 접미사로 분류하면서 이후의 국어사전들에서 이러한 분류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북한에서는 『조선말 사전』(1962,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과학원 출판사), 『현대조선말사전』(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편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제2판)까지는 ‘투성이’를 불완전 명사로 분류하다가, 『조선말대사전』(북한 사회과학원언어학연구소, 1992)에 와서야 ‘투성이’를 접미사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투성이’는 19세기 말의 문헌에서 첫선을 보일 때부터 항상 선행어를 갖춘 상태로만 쓰였기 때문에 접미사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의 국어사전에서 ‘투성이’를 명사로 분류한 것은 당시에 분류 기준이 정밀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당시 사람들에게는 ‘투성이’가 접미사보다는 명사에 가깝게 인식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이지만, 김계곤(1969)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면서 ‘투성이’를 독립성을 가진 낱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4) 피가 투성으로 쏟아졌어!

투성으로 쏟아지는 피,

옷에 이가 투성이야 투성이!

8)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복숭이’를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명사로 보았으나 현실에서는 ‘털복숭이’와 같이 항상 ‘털’과 결합하여 쓰이는 양상을 보인다. ‘복숭이’의 이러한 의존성은 ‘복숭이’가 음성상징어인 ‘복슬복슬’에서 기원했다고 볼 때 쉽게 설명된다. ‘복슬복슬’이 털이 많은 모양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털’에 대한 의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투성이’가 초기에 주로 ‘피’나 ‘흙’ 등과 결합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 역시 음성상징어 ‘투실투실’과의 형태론적인 관련성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투성이’와 ‘투실투실’의 의미적 관련성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남는다.

이를 근거로 김계곤(1969)는 사전에 수록된 ‘먹-투성이, 문자(文字)-투성이, 이-투성이, 흙-투성이’의 네 낱말을 합성어로 다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고영근(1973a)는 (9)와 같은 예를 예외적인 것으로 보았고, 고영근(1973b)는 의존 형식이 자립 형식화하는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13)과 같은 예가 ‘투성이’의 본래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후 김창섭(2008:176), 이광호(2009:127), 노명희(2013), 송원용(2016) 등은 ‘투성이’를 명사로 보는 입장을 취하였다. 공통된 근거는 ‘투성이’가 구와 결합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노명희(2013)은 ‘도처에 [과거로 들어가는 문들] 투성이다’와 같이 ‘투성이’의 선행 성분 뒤에 ‘들’이 삽입되는 현상을 근거로, 송원용(2016)은 ‘구멍과 상처투성이’, ‘꺾자와 오자투성이’와 같이 ‘투성이’가 대등 병렬 구성 전체에 결합한다는 점을 근거로 ‘투성이’의 품사를 명사로 보았다.

그런데 고영근(1973a)을 포함한 최근의 연구들은 ‘투성이’의 독립적인 쓰임이 근래에 일어난 변화인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20세기 전반의 문헌들을 검토해 보면 1920년대를 전후로 하여 이미 ‘투성이’를 명사로 분류할 만한 근거가 다양하게 발견된다.

첫째, 아래와 같이 20세기 초의 자료에서 대등 병렬 구성에 ‘투성이’가 결합한 예들이 발견된다.

(15) ㄱ. 그 업헤는 얼굴과 머리에 뵈 틈이 업시 고약과 가루약 투성이를 호고 정신 업시 누어 <현미경, 211, 1912년>

ㄴ. 大邱驛까지 오는 사이도 自働車 우에서 걱정과 근심 투성이 되야 世上이고 무엇이고 모도 貴치 안한 생각뿐이다 <조선일보, 1924. 02. 18. 1면>

ㄷ. 矛盾과不合理투성이로 된 온갖 時代의 病弊와 싸우고 <조선일보, 1924. 11. 01. 1면>

ㄹ. 그대지 禁止解散투성이로 지낼 것이 아니오 <조선일보, 1927. 06. 24. 1면>

ㅁ. 『간사』 『요사』 『호사』투성이의 世上에, 『독사』 洗禮를 주는 것은 그럴 뜻한 일 <조선일보, 1929. 04. 30. 1면>

ㅂ. 京龍勞組懇談會, 주의중지투성이 <중외일보, 1929. 05. 24. 3면>

ㅅ. 남자란 사실 겁쟁이면서도 과장과 자존심투성이니까요 <동아일보, 1939. 09. 19. 7면>

ㅇ. 實踐없는約束 一貫된 蘇態度 / 同樣으로 뻘어루트와 그의 閣僚는 나와의 豫備交渉에 있어서는 溫情과 親切투성이었다. <동아일보, 1947. 08. 12. 1면>

송원용(2016)은 (15ㄱ)을 제외하면 ‘투성이’가 독립적으로 쓰인 예가 1970년대에 나타난다고 지적하면서, 이 사례 하나만으로는 당시에 우리말에서 ‘투성이’가 접미사와는 다른 문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15ㄱ)은 소설가 개인이 가진 언어적 특이성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

노명희(2013)은 (15ㄱ)의 예를 언급하며 ‘투성이’가 이 당시에 의존 명사적 용법을 보였다면 접미사로 변하는 문법화 과정을 거쳐 다시 접미사에서 의존 명사적 용법을 보이는 탈문법화의 과정을 겪는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1912년 이전의 자료에서는 ‘흙(진흙) 투성이, 먹투성이, 피투성이’와 같은 예만 발견되므로 ‘투성이’가 의존 명사에서 접미사로 변하는 문법화 과정을 거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15ㄱ) 외에도 1920년대에 (15ㄴ~ㄷ)과 같이 ‘투성이’가 대등 병렬 구성에 결합한 예들이 보이므로 이 시기에 이미 ‘투성이’가 자립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예들은 모두 기사문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체의 특징으로 치부하기도 어렵다.

(15ㄴ, ㄷ, ㄱ, ㄴ)은 각각 비슷한 의미를 가진 ‘걱정’과 ‘근심’, ‘모순’과 ‘불합리’, ‘과장’과 ‘자존심’, ‘온정’과 ‘친절’이 대등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투성이’가 뒤의 단어에만 결합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15ㄷ, ㄴ)은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금지해산’과 ‘주의중지’가 한 단어가 아니라 각각 ‘금지’와 ‘해산’, ‘주의’와 ‘중지’가 별개의 행위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5ㄴ)의 ‘간사, 요사, 호사’가 모두 ‘투성이’의 영향을 받은 말일 것도 없다.

1920년을 전후하여 아래와 같이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명사에 ‘투성이’가 결합한 예들도 발견된다.

(16) ㄱ. 진주 경니는 도당관으로부터 막버리군까지 감곡들닌사람투성이오 <매일신보, 1918.

11. 13. 3면>

그 소녀는 머리가 깨여지고 다리가 부러지며 붉은피 투성이가 되야 비참한 최후를 이루었는데 <동아일보, 1924. 04. 08. 2면>

그 다음 또 기다란가시투성이로 생긴 그 나무뚝과 썩덕이를 불에 살려 바렸다 <조선일보, 1925. 02. 05. 2면>

남의負債투성이인 宋鍾憲家の 悲運, 각종 서류를 봉입해 두었다 <동아일보, 1926. 02. 11. 2면.>

檢査 規定 그것이 元來 크게 改善하여야 될 專制的 缺陷 투성인데다가 <동아일보, 1928. 01. 28. 4면>

어느 틈에 (校正紙)는 붉은잉크투성이가 되어 <동아일보, 1928. 03. 06. 3면>

ㄴ. 走馬燈같이 지내가는 世上에 어찌 그리도 보기싫흔일, 듣기싫흔일 투성인지 알 수 없다. <동아일보, 1935. 07. 05. 3면>

(16ㄱ)은 명사가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구 구성에 ‘투성이’가 결합한 예이고, (16ㄴ)은 이러한 구 구성의 연쇄에 ‘투성이’가 결합한 예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비교적 최근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미 1920년대에 이러한 예들이 발견되므로 이 시기의 ‘투성이’를 접미사로 한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도 1920년대부터 꾸준히 ‘투성이’가 다음과 같이 단독으로 사용된 예들이 발견되

므로 이 시기에 ‘투성이’가 이미 명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 (17) 이 현실과 잘 타협(妥協)하라고 더러운 재(垢)란 재로 투성이한 양심(良心)을 루비(紅寶石)빛 가튼 피로 써서 주갯다 <조선일보, 1924. 12. 14. 2면>
- 과연 최악의 투성이가 안니고 무엇이리 <동아일보, 1925. 09. 27. 3면>
- 내 저고리가 이 모양으로 구멍이 투성이가 되어 버렸서 누가 너희더러 둥아 달나는 부탁을 하드냐? <동아일보, 1926. 01. 03. 4면>
- 「코쿠라」의 얼굴은 눈물로 투성이가 되었다 <조선일보, 1926. 04. 06. 3면>
- 괴만(欺瞞)으로 투성이를 한 세상에서 사려 간다는 일이 도리혀 괴로운 생각이 낫습니다 <조선일보, 1926. 07. 24. 3면>
- 상은 재(灰)로 덮히었다. 그들이 어제스밤에 정하게 쓸고 드러간 썬이며 마루며 집웅 장스독 길 할 것 업시 모도 알게 한 투성이 재로 덮히어 잇섯다. <동아일보, 1931. 09. 04. 3면>
- 그러나 그러타고 하여서 넘어 분을 회스되박을 쓴다거나 『베니』도 아조 투성이를 하여서는 재미업습니다. <조선일보, 1936. 08. 07. 4면>
- 今朝도 每節出來不申의 투성이다 <동아일보, 1939. 04. 18. 4면>
- 렌즈에 빛인 것은 노일환 김옥주 이문원 세 사람인데 모다 수염이 투성으로 조금 여윈 얼굴에 눈만 날카로웠다 <경향신문, 1949. 07. 13. 2면>
- 그 農民들의 하루하루의 悽慘한 生活의 記錄은 生에 對한 苦悶과厭症과失望의투성이다. <동아일보, 1954. 08. 16. 1면>
- 또 이것들은 到底히 初步轉調理論으로서는 想像조차 할 수 없는 臨時 記號의 투성이라는 것을 아는가? <경향신문, 1955. 03. 17. 4면>

1920년대의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선행어와 ‘투성이’ 사이에 사이시옷이 표기된 예들이 보이는데, 이를 통해서도 당시 사람들이 ‘투성이’를 접미사가 아닌 명사로 인식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 (18) 여러 군데의 머리가 깨여져 흰 의복에 피스투성이를 하고 <동아일보, 1926. 04. 23. 2면>
- 건너편 언덕에서 피스투성이가 된 불란서 군조(軍曹)가 잇섯습니다 <동아일보, 1926. 11. 16. 3면>
- 그 군도는 원-몸에 피스투성이가 되어 목이 말나 최후로 『물 좀 주시요 물 좀 주시요』하고 부르지음을 드드여 깨달엇습니다 <동아일보, 1926. 11. 17. 3면>
- 어렸을 때부터 피스투성이가 된 이 몸과 마음을 한번 깨끗이 써서 불가 하고 <조선일보, 1927. 04. 03. 3면>
- 피해자는 전신이 피스투성이가 되어 보는 사람으로 하야금 소름을 끼치게 한다더라 <조

선일보, 1927. 12. 22. 5면>

또한 2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1920년대에 고정되지 않은 단발적인 표현이 많이 사용되었다는 점, 일부 문장에서 선행어와 ‘투성이’를 띄어 쓴 예가 발견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세기 초기의 국어사전에서 ‘투성이’를 명사로 분류한 것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학회의 『큰사전』에서 ‘투성이’를 접미사로 분류한 것은 ‘피투성이, 흙투성이’와 같이 이미 한 단어처럼 굳어진 일부 표현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1920년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투성이’가 다양한 단어와 구에 결합하기 때문에 ‘투성이’를 접미사로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언급이 없었지만, 사실 ‘투성이’의 형태론적인 변화로 더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할 내용은 마지막 음절이 생략되는 현상이다.

(19) 建物家具가 石炭투성 <매일신보, 1925. 12. 23.>

婦人公民權과 勞働者扶助案 / 山本氏 本案은 政府提出의 唯一한 社會立法임에 欺瞞투성으로 勞働者는 이것으로는 救濟되지 안는다 <동아일보, 1929. 02. 07. 1면>

병에 들어서도 나는 데 없이 파먹기만 하는 건 망쪼라 하여 조석마다 치름씩이나 잡곡을 섞도록 분부하여 조투성을 만들었고 혹은 죽을 쑤게 하였다. <형(김유정), 360, 1934년>

‘투성이’의 마지막 음절 ‘이’가 탈락하여 ‘투성’으로 실현되는 예가 위와 같이 1920~1930년대의 기록에서 아주 드물게 발견된다. 1960년대 들어서는 ‘투성’의 출현 횟수가 더 증가하는데, 이 중 몇몇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0) 事件直前까지 周邊에 警宣투성 <경향신문, 1959. 01. 11. 3면>

눈길에 事故투성 <경향신문, 1961. 01. 17. 3면>

낡은 市內 電話線-비만 오면 不通·雜音투성 <동아일보, 1963. 05. 30. 8면>

비뚤어진 入試制度-갓가지「缺陷투성」<조선일보, 1964. 01. 28. 7면>

어제도 7萬 學生 示威 靑瓦臺 가는 길은 “武裝투성” <조선일보, 1964.03.27. 7면>

나이속이고記載「미스」투성 <동아일보, 1966. 03. 03. 8면>

事故투성 週末 暴行 등 2百 67件 <동아일보, 1966.10.24. 4면>

큰길 한복판에 危險한 陷穽 / 밤마다 事故투성. <조선일보, 1967.04.06. 7면>

教科書에 誤字투성 <조선일보, 1968.05.12. 7면>

警察保安업무에 非行투성 <동아일보, 1968.07.12. 3면>

市民의 公敵 大氣의 汚染 - 大腸菌투성 漢江 <경향신문, 1969.01.06. 8면>

흥미로운 점은 위의 예에서 보듯이 ‘투성’이 주로 기사 제목에 등장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절단 현상은 ‘투성이’와 서술격 조사 ‘-이-’의 결합형을 오분석한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21) 옷과 손은 온통 뽕가루 투성이었는데 <경향신문, 1960. 11. 20. 4면>

휴일마다 놀이터에서는 유희극 투성이었다 <조선일보, 1961. 04. 02. 5면>

온통 빗물 투성이었다. <동아일보, 1964. 05. 06. 3면>

엄청난 赤字투성이었다. <경향신문, 1966. 04. 03. 1면>

20세기 초에는 ‘○○투성이’가 서술어 외에도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사용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서술어로 사용되는 양상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위의 예처럼 ‘투성이’가 서술어로 사용되는 쓰임이 증가하면서 ‘투성이다’의 ‘이’를 서술격 조사로 오분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신문 기사의 제목은 ‘집값 떨어져도 못 사는 이유’, ‘지도자다운 모습’, ‘의미있는 행보’와 같이 서술격 조사 ‘-이-’를 생략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 과정에서 오분석이 일어나 (20)과 같은 절단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투성이’에 서술격 조사가 결합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문장 부호를 사용하여 그 형태를 ‘투성이’가 아닌 ‘투성’으로 인지했음을 보여 주는 예가 발견된다.

(22) 『이 聲明은 越南에서 外國軍隊를 철수할 用意가 있음을 闡明했지만 그저 條件투성』이라고 「타스」통신은 주장했다. <동아일보, 1966. 10. 26. 2면>

演劇大賞의 『自由劇場』/ 國劇에서 오페라에 이르기까지 4百여 개를 헤아리는 多作 속에서 『그래도 아직은 不滿스러운것투성』이어서 『새해부터 좋은 무대를 내겠다』고 왕성한 창작 의욕을 보이는 씨는 日本美術學校 出身. <동아일보, 1967. 01. 14. 5면>

다음의 예를 통해서도 ‘투성이’에 서술격 조사가 결합한 구성을 통해 오분석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을 잘 파악할 수 있다.

(23) 크게 改善하여야 될 專制的缺陷투성인데다가 <동아일보, 1928. 01. 28. 4면>

이것이 없다 저것이 矛盾이라 해서 隘路투성이던 것과 性質은 다르나 <조선일보, 1946. 09. 04. 1면>

지난 겨울에는 너도 나도 예도 제도 반대떡 富者떡집 투성이더니 <경향신문, 1949. 08. 26. 2면>

서로 물어뜯고 多數의 橫暴와 少數 權力的 對決 傷處투성인 채로 殞命 <조선일보, 1962. 12. 27. 4면>

거짓투성인 李博士의 得票率 중 <동아일보, 1963. 10. 15. 1면>

더러는 汚物투성인 채 <동아일보, 1968. 12. 17. 5면>

위의 예들은 구어에서는 서술격 조사 ‘-이-’가 생략되기도 하지만 글에서는 서술격 조사 ‘-이-’가 잘 생략되지 않는 표현들이다. 아래와 같은 두 쌍의 표현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다.

(24) 민수는 개구쟁이인 데다가 / 민수는 개구쟁인 데다가

개구쟁이이던 것을 / 개구쟁이던 것을

개구쟁이이더니 / 개구쟁이더니

개구쟁이인 채로 / 개구쟁인 채로

개구쟁이인 민수는 / 개구쟁인 민수는

문어에서는 잘 생략되지 않는 ‘이’가 (23)과 같은 기사문에서 생략되었다는 것은 역시 ‘투성이’가 서술격 조사와 결합한 구성에서 오분석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잘 말해 준다. 이러한 절단 현상의 효과는 지금까지도 유효하여, 최근의 기사문에서도 다음과 같이 ‘투성’형이 빈번하게 사용되는 모습을 보인다.

(25) 삶이 온통 질문투성이라며 ‘투성’이란 별명으로 자신을 소개한 김아무개(45)씨는 노숙 생활 6년차다. <한겨레, 2020.07.24.>

“약값 폭리에 오진 투성” 한의사 혈투는 40대 벌금 1천만원 <연합뉴스, 2020. 12. 27.>

“...앞뒤가 맞지 않는 것 투성”이라고 꼬집었다. <아시아경제, 2021. 01. 18.>

도덕성이 파탄 난 무법 투성 후보는 부산의 망신 <YTN, 2021. 04. 06.>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 둘 투성 땅이라 물이 쉽게 빠져나가는 문제를 해결하고 <문화일보, 2021. 04. 22.>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절단 현상의 주된 원인은 ‘투성이’가 서술어로 쓰이는 현상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초기 문헌에서는 ‘투성이’가 서술어로 사용될 때 다음과 같이 접미사 ‘-하다(ㅎ다)’와 결합하는 양상을 보인다.

(26) ㄱ. 텃하의 마츄니 이러흔 인물이 이시니 이제 나를 보건디 마츄니 진흙투성이흔 도야지와 도랑이 올은 기 곳도다 (天下竟有這等的人物 如今看來我 竟成了泥猪癩狗了) <홍루몽 7:59>

흙투성이ㅎ다 s. To be covered with mud ; to be besmeared with mud. <한영사전 146>

ㄴ. 진흙투성이흔 길목버선을 켜지도 못ㅎ고 <치악산 하:37, 1911년>

草堂 속에는 高 七尺 胸 四尺 餘의 粉투성이한 一位 『石佛』이 安坐하고 <동아일보, 1928. 07. 23. 4면>

(26ㄱ)처럼 19세기 말의 두 예는 모두 ‘하다’와 결합한 형용사의 형태로 사용되었고, 이러한 용법은 (26ㄴ)과 같이 20세기 초에도 두 번 정도 출현한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투성이하다’와 같은 표현이 사라지고 다음과 같이 ‘○○투성이를 하다’나, 예를 적지는 않았지만 ‘○○투성이가 되다’와 같이 ‘투성이’가 목적어나 주어 역할을 하는 구문으로 바뀌게 된다.

- (27) 전신에 피투성이를 하고 숨에 두 번이나 뵈이면서 살녀 달나 하니 <목단화, 40, 1911년>
소위 배항으로 오는 사람은 진흑투성이를 뽀얏게 하고 무명 훗단 두루막이에 착착 접어 두엇
다가 <치악산(하), 114, 1911년>
그 업헤는 얼굴과 머리에 뵈 틈이 업시 고약과 가루약 투성이를 하고 정신 업시 누어
<현미경, 211, 1912년>
열 손가락과 입 가장자리에는 밥알투성이를 하여가지고 <옛날꿈은창백하더이다(나도향),
3, 1922년>
극도로 분개한 차상찬 씨는 요리상을 드러 최제우라는 로인에게 부다쳐 자칭 최제우라는
로인은 온몸에 음식투성이를 하얏고 <동아일보, 1923. 05. 31. 3면>
엇더한 남자 한 명이 윈 전신에 피투성이를 하고 신을 중에 잇다는 <매일신보, 1927년
10월 29일.>

이렇게 주어나 목적어로 쓰이던 ‘투성이’가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주로 서술어로 쓰이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투성이’의 서술어 표현이 ‘○○투성이하다’에서 ‘○○투성이다’로 바뀌게 된다. 즉, 초기의 형용사 구문이 서술격 조사 구문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서술격 조사 구문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는데, 이는 바로 ‘투성이’가 서술격 조사와 결합하여 무주어문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 (28) 두 사람은 대화를 할수록 다른 것 투성이였다. <티브이데일리, 2018. 04. 07.>
식당엔 재료가 없어서 만들 수 없는 메뉴 투성이였다. <연합뉴스, 2019. 11. 15.>
온통 ‘난생 처음’ 배우는 것들 투성이였다. <오마이뉴스, 2019. 12. 29.>
여기저기 나무에는 온통 화려하고 맛있는 것들 투성이였다. <매일신문, 2020. 02. 05.>

위의 문장에서는 서술어인 ‘투성이였다’에 호응하는 정확한 주어를 찾기가 힘들다. 임홍빈(1985), 임동훈(2005), 남기심(2001) 등에서 ‘-이다’ 구문이 주로 무주어문을 이룬다는 점을 언급했지만, ‘투성이’ 구문이 무주어문을 이룬다는 점은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다. 물론 ‘투성이’ 구문이 무주어문을 이루는 것도 ‘-이다’ 구문의 일종으로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다른 무주어문과는 달리 이 경우에는 ‘투성이’라는 특정 요소가 무주어문 형성에 기여를 한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투성이’가 무주어문을 형성하는 기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도 별도의 후속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4. 결론

지금까지 ‘투성이’의 의미적인 특성과 형태·통사적인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투성이’는 본래 점성이 강한 물질이 표면에 덮인 모양이나 상태를 의미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 점성이 없는 물질이 덮인 경우와 추상적인 성질을 가진 상태를 나타내다가 물리적인 물질이 많은 상태까지 담당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형태·통사적으로는 ‘투성이’가 구와 결합하거나 선행어 없이 단독으로 쓰이기도 하는 점 등을 통해 국어사전의 분류와는 달리 ‘투성이’가 접미사보다는 명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투성이’와 서술격 조사의 결합형을 오분석한 결과 절단 현상이 일어나 ‘투성이’의 형태가 ‘투성’으로 바뀌기도 하며, ‘투성이’와 서술격 조사의 결합이 무주어문을 형성하기도 한다는 점을 밝혔다.

참고문헌

- 고석주(2011). 「한국어 무주어문 유형 연구」, 『담화와 인지』 18-2, 담화·인지언어학회, 1-22.
- 고영근(1973a), 「현대국어의 접미사에 대한 구조적 연구(Ⅰ) -확립기준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논문집』, 18, 서울대학교, 71-101. <고영근(1989)에 재수록>
- 고영근(1973b), 「현대국어의 접미사에 대한 구조적 연구(Ⅳ) -동요상황을 중심으로-」, 『학술원 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12, 대한민국의학술원, 117-176. <고영근(1989)에 재수록>
- 고영근(1989), 『국어형태론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계곤(1969), 「현대국어의 「뒷가지(접미사, Suffix)」 처리에 대한 관견(管見) -두 가지 국어사전(한글학회 : 한글 소사전, 이 희승 : 국어 대사전)을 중심으로-」, 『한글』 144, 한글학회, 391-435.
- 김계곤(1996), 『현대 국어의 조어법 연구』, 박이정.
- 김명광(2014), 「초등학생 4학년 고유어 명사 파생 접미사의 생산성 연구」, 『새국어교육』 98, 한국국어교육학회, 325-356.
- 김창섭(2008), 『한국어 형태론 연구』, 태학사.
- 남기심(2001), 『현대 국어 통사론』, 태학사.
- 노명희(2013), 「접미사 부류의 탈문법화 양상」, 『泮橋語文研究』 35, 반교어문학회, 129-164.
- 박재연(1993), 「朝鮮時代 中國 通俗小說 翻譯本の 研究」, 한국외대 박사학위논문.
- 송원용(2016), 「‘투성이’의 문법적 지위 변화에 대하여」, 『한국학연구』 43,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427-461.
- 이광호(2009), 『국어 파생 접사의 생산성과 저지에 대한 계량적 연구』, 태학사.
- 이승욱(1969), 「주어의 통사에 관한 고찰」, 『국문학논집』 3, 단국대 문리과학대 국어국문학연구부, 25-37. <이승욱(1973)에 재수록>

이승욱(1973), 『국어문법체계의 사적연구』, 일조각.

임동훈(2005). 「‘이다’ 구문의 제시문적 성격」, 『국어학』 45, 국어학회, 119-147.

임흥빈(1985), 「국어의 ‘통사적인’ 공범주에 대하여」, 『어학연구』 21-3, 서울대 어학연구소, 331-384.

최용철(2007), 『흥루몽의 전파와 번역』, 도서출판 신서원. 33쪽

호정은(2002), 「의존명사(依存名詞)의 결합관계(結合關係) 연구 - 의존명사(依存名詞)와 접미사(接尾辭)의 구별을 중심으로 -」, 『어문연구』 30-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09-125.

“투성이’의 의미 및 형태·통사적인 특징에 대하여”에 대한 토론문

정경재(창원대)

이 논문은 19세기 말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투성이’가 문헌에 출현한 예 전반을 검토하고, ‘투성이’가 지닌 의미 및 형태·통사적인 특징과 그것의 변화에 대해 정밀하게 정리한 연구이다. 그간의 연구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예들을 광범위하게 살핌으로써, ‘투성이’가 문헌에 출현하는 시기를 19세기 말로 앞당기고, ‘투성이’의 의미 변화 경로를 정밀화하였으며, ‘투성이’가 단어 이상의 단위와 결합하는 예가 20세기 초부터 꾸준히 등장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투성이’가 쓰인 구문이 ‘X투성이하다’에서 ‘X투성을 하다’나 ‘X투성이가 되다’로 바뀌었다가 ‘X투성이(이)다’로 변화해 감을 확인하고, 그 결과 형태상으로는 ‘투성이 > 투성’으로의 변화를 겪고 있으며 통사적으로는 무주어문을 빈번하게 형성하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토론자는 이 연구의 논지 전반에 동의하며, 몇 가지 의문과 제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토론을 갈음하고자 한다.

1. 논문의 제목

이 논문은 19세기 말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투성이’가 보인 의미와 형태·통사적인 특징 및 그 변화에 대해 정리하고 있으나, 논문의 제목 및 각 장의 제목에서는 그러한 점이 잘 드러나지 않아 오늘날 한국어에서의 공시적인 특징을 살피는 연구로 오해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논문과 각 장의 제목에서 ‘통시적인 검토’ 혹은 ‘19세기 말 이후, 문헌상에서 확인되는 특징’을 살피고 있다는 정보가 명시적으로 드러나도록 수정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2. ‘투성이’의 의미 변화

그간의 연구에서는 ‘투성이’가 구체물과 결합하는 것에서 ‘추상물’과 결합하는 것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나갔다는 정도로 의미 변화를 거칠게 정리하여 왔으나, 이 논문에서는 문헌 자료에 기반하여 ‘투성이’의 의미 변화 경로를 정밀화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 연구에서는 (1)에 제시한 현대국어 사전들과 (9)에 제시한 초기 국어사전들의 의미 기술 차이에 대해 크게 주목하지 않았으나, 현대국어 사전들이 ‘투성이’의 의미에 대해 공통적으로 “(무엇이) 많은 상태”의 의미를 지닌다고 기술한 반면, 초기 국어사전들은 공통적으로 “(무엇이) 묻은 상태, (무엇으로) 뒤덮인 상태”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기술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¹⁾ 즉 국어사전들의 의미 기술 변화는(품사 변화도 동반되나 여기에서는 논외로 함),

‘투성이’의 의미가 “(무엇으로) 뒤덮인 상태”에서 “(무엇이) 많은 상태”로 확장되었다는 이 논문의 주장을 지지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상적인 성질을 가진 상태”라는 의미가 “점성이 있는 물질이 덮인 상태”에서 직접 파생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문헌에 출현하는 시기를 보면, 해당 의미가 “점성이 없는 물질이 덮인 상태”로의 의미 파생과 거의 동시기에 확인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투성이’가 “구어적인 성격이 강해 문헌에서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8쪽)”면 ‘점성’과 무관하게 “(무엇으로) 뒤덮인 상태”라는 의미로 발전한 뒤에, 더 일반화된 의미에서 추상적인 의미로의 파생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2장의 <그림 1>에서는 ‘투성이’의 의미 변화에 대한 관찰이 ‘투성이’와 결합하는 요소의 의미적 특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3)에 제시한 것처럼 오늘날 ‘투성이’는 ‘사람’이나 ‘사물’을 지시하기도 하므로, ‘상태’의 의미에서 ‘사람’이나 ‘사물’을 지시하는 의미로 확장되는 시기에 대한 확인과 과정에 대한 설명도 추가될 필요가 있다.

3. ‘투성이’의 형태·통사적인 특징과 그 변화

이 논문의 3장에서는 ‘투성이’의 형태·통사적인 특징과 그 변화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그 기술이 “서술어 외에도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사용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서술어로 사용되는 양상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정도로만 되어 있어 ‘투성이’가 사용되는 구문의 변화를 한눈에 들여다보기 어렵다. ‘투성이’가 어떠한 문장 성분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포함하여 ‘투성이’가 사용되는 구문을 유형화하고 각각의 빈도 변화를 정리하여 보여 준다면, 송원용(2016)에서 정리한 “한정된 통사적 맥락의 고정 성분으로 사용되는 비중”의 증가가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보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후속 연구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아울러 3장에서는 ‘투성이’가 20세기 초부터 단어 이상의 단위와 결합할 수 있는, 접사보다는 자립성을 지닌 요소였음을 다양한 예를 통해 보여 주었다. 그런데 그러한 예를 통해 ‘투성이’를 어떠한 언어 요소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은 미처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간의 연구에서는 ‘투성이’가 단어 이상의 단위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을 역사적인 변화의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 논문에서는 ‘투성이’가 보이는 통사적인 독립성을 통시적인 변화 과정 중의 임시성으로 보지 않고, 본래 한국어에 존재하는 어휘 유형의 하나로 인정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1) (9ㄴ)과 (13ㄴ)에 제시된, 조선총독부 편 <조선어사전>의 ‘투성이’ 뜻풀이는 “塗(まぶ)るること”로 수정되어야 한다. 이 뜻풀이는 “(무엇으로) 뒤덮이는 것. 또는 일.”로 직역할 수 있다. ‘塗(まぶ)す’는 ‘가루’ 따위를 대상으로 하여, “(가루 따위를) 온통 쳐바르다, 묻히다”의 의미를 지닌다. 뜻풀이에 사용된 ‘塗(まぶ)れる’는 오늘날 잘 쓰이지 않으나 ‘塗(まみ)れる’와 같은 뜻을 지닌 것으로 <日本國語大辭典(第2版)>(2003, 小学館)에 풀이되어 있다. ‘塗(まみ)れる’는 한국어의 ‘투성이’와 같이 ‘가루’와 ‘진흙, 땀, 피’뿐 아니라 추상물과도 결합이 가능하다.

4. 기타

- ① 2쪽. ‘투성이’와 결합하는 명사나 명사구를 ‘주체’로 표현하고 있는데(예: ‘투성이’의 주체가 사물로 한정되는가 등), 적절한 용어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 ② 9쪽. 김창섭(2008), 이광호(2009), 노명희(2013), 송원용(2016) 등에서 ‘투성이’를 명사로 보았다고 하였으나, 이 연구들에서는 부접명사, 의존명사, 형식명사 등으로 보고 있으므로 더 섬세한 인용이 필요하다.
- ③ 14쪽. ‘투성이다’가 쓰인 무주어문의 예 (28) 중 첫 번째 예문, ‘두 사람은 대화를 할수록 다른 것 투성이였다.’는 ‘두 사람’을 문장의 주어로 볼 수 있다.

‘빌런’이라는 용어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고찰

- 경멸 감정을 중심으로 -

백준영(연세대 박사과정)

1. 서론

만화나 영화에서 주인공과 함께 반드시 등장하는 인물이 있다. 바로 ‘악당’이다. ‘악당’은 주인공의 반동 인물로 극의 긴장감을 더하고 갈등을 심화시킨다. ‘악당’이라는 존재를 통해 주인공은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자신의 영웅성을 드러내고 서사의 행복한 결말을 이끌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따라서 주인공의 성격을 부각하고 그 권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채희주·민경원(2020)은 영웅물에서의 악당은 필연적인 존재로, 악당을 통해 영웅의 존재 가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 ‘악당’이 어느 순간부터 ‘빌런’이라는 용어로 대체 사용되며 그 역할에도 조금의 변화가 생겼다. 근래 매체에서 등장하는 ‘빌런’은 피도 눈물도 없이, 이전의 ‘악당’이 지니고 있던 서사 없이, 혹은 악행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이유 없이, 그저 자신의 이익이나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인물로 그려지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1,123만 명이라는 관객 수를 동원한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 등장하는 타노스¹⁾라는 역할이 있다.

그렇게 만화나 영화에서 그려지던 ‘빌런’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인 언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지하철 2호선 빌런’, ‘햄버거 가게 빌런’ 등 일종의 진상이라 일컬을 수 있는 과한 잘못된 행동을 한 이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용어로 우리가 속한 실제 사회와 개인의 삶에 등장하는 부정적인 인물에 대해 ‘빌런’이라 칭하기 시작했다. 특히 그러한 장면은 평균 시청률 13%²⁾가 넘는 인기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 생활’ 시즌 2의 장면 중에서 의사답지 않은 행동을 하는 의사를 등장인물 간의 사적 대화에서 ‘빌런’이라 칭하는 모습이 담겨 있기도 했다. ‘빌런’은 아직 정식 사전에 등재되진 않았지만, 국립국어원 우리말샘³⁾에서 특정한 취미나 사물 따위에 집착하여 독특한 행동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로 정의되어 있다.

이처럼 처음엔 극의 등장인물로 표현되던 ‘악당’이 ‘빌런’으로 변모하며 일상적 ‘빌런’으로 일반 언어 사용자들이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관해 사회언어학적 접근을 통해 언어 사용자들의 심리와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이때 사회적 심리 중 혐오 시대에서의 경멸에 대해 관찰하고, 그러한 감정과 ‘빌런’ 용어 사용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1) <http://www.newsculture.press/news/articleView.html?idxno=310063>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역대 최강 빌런 타노스에 맞서다[영화북], newsculture, 2020.05.05.

2)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918900> '슬기로운 의사생활' 평균 시청률 13% 돌파...적수 없는 독주, 스포츠서울, 2020.05.22.

3) 우리말샘 <https://opendict.korean.go.kr/main>, 검색어 ‘빌런’

2. 선행연구

이 연구에서는 일상 속의 ‘빌런’을 고찰하기에 앞서 두 가지 큰 방향의 선행연구를 확인하고자 한다. 우선 ‘악당’과 ‘빌런’의 각기 다른 연구 성과를 정리하며 예술 매체에서 다뤄지는 두 연구 대상들의 예술적 의미와 나아가 사회적 의의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 다른 방향의 살펴볼 선행연구로는 사회적 감정 중에서 혐오와 경멸에 대한 것이다. 예술 분야에서 다뤄지는 ‘빌런’이라는 용어가 일상이라는 삶 속에 침투하기 시작하게 한 계기는 사회적·개인적 감정 중 하나인 경멸이라 생각한다. 그렇기에 현재 시점에서 부정적인 타인을 인식하는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2.1. ‘악당’과 ‘빌런’

기존 영화와 드라마에서 ‘악당’은 성장 과정과 가정환경 혹은 다양한 고난과 핍박의 환경을 통해 악인으로 거듭나며 극의 ‘영웅’과 대적하는 인물로 등장했다. 이러한 ‘악당’에 대한 탄생을 채희주·민경원(2020)은 토드 필립스의 <조커>의 ‘악당’을 중심으로, 그 ‘악당’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탄생의 기원을 사회적인 구조와 연결하여 말한다. ‘악당’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개인적인 고난을 넘어 사회 이데올로기와 구조가 원인으로 작용하며 그들이 악당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적 맥락을 말한다. 이처럼 ‘악당’은 그의 악행을 이해할 기회를 지닌 서사가 존재하는 인물이다.

이와 다르게 ‘빌런’은 이해할 수 없는 계기, 한 목표에 집착하는 광기 어린 모습을 지니고 등장하게 되었다. 김혜연(2017)은 이러한 ‘빌런’에 대해 기존의 악에서 강화된 수준의 사악함 그리고 악마적 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이때의 ‘빌런’은 선과 대립하는 존재가 아닌, 선이 부재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렇기에 진정한 악은 존재론적으로 선이 결핍된 상태이기에 그 자체로의 원인을 알 수도 없고, 해석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 한다. 이러한 ‘빌런’은 특히 세계적인 만화사인 DC 코믹스와 마블 코믹스에서 큰 역할로 다뤄지게 되며 전 세계적인 유행을 이끌게 되었다. ‘빌런’에 대해 권도경(2014)은 영웅들이 만들거나 지켜내려고 하는 세계질서의 이념에 반하는 인물들이라 말한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이념체계를 구축하며 극에서 영웅과 대등한 입지를 굳힌 역할을 한다. 서동수(2021)은 이러한 ‘빌런’들이 스크린을 압도하며 영웅을 압도하는 서사를 지니고 있는데, 이때의 서사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를 담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기에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접하게 되는 ‘빌런’들은 그 극에서의 서사로만 만나는 것이 아닌 우리 삶과 연결하여 사유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영화와 드라마에 등장하던 ‘악당’과 다르게 ‘빌런’은 절대적인 악을 의미하며, 그들만의 이념체계를 세워가는 존재로 그들이 끼치는 문제는 영화와 드라마에서만 한정된 것이 아닌, 우리가 사는 실제 삶과 연결하여 사유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2.2. 혐오 시대 속 경멸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수없이 많은 사회갈등을 동시다발적으로 경험해 가는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구성원들은 부정적인 사회적·개인적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게 된다. 김용희·한창근(2021)은 특히 현재 한국 사회에 대해서 특수한 역사적인 발전과정에서 누적되어 온 전통적인 사회갈등인 경제적 갈등, 정치적 갈등, 지역 갈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말한다. 그러한 혼란 속에서 코로나 19라는 새로운 위험 요소가 발생하게 되며 급격하게 증가한 사회갈등으로, 사회 구성원들은 안전과 경제, 일상생활 조건이 악화하여 생존 위협을 느끼는 사회가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시기에 대해 이재준(2021)은 ‘혐오 시대’라는 표현이 현재 우리 사회를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표현이라 하며, 혐오의 감정은 우리 안에 정동으로 자리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박승익(2021)은 이러한 혐오의 감정은 우리 사회 내에서 사회적 차별을 유발하거나 조장하고 심지어 증오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감정이라 한다. 그런데 이때의 혐오는 사회적 행위인 동시에 개인의 자연스러운 심리적 현상이라 민주주의 국가 안에서는 제재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특징도 있다.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혐오의 대상은 우리 사회 내에서 ‘위험한’ 사람 혹은 ‘건강한’ 질서를 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기에 합리적인 혐오는 정당해 보이기까지 한다. 그렇기에 특히 경제 위기나 감염병 위기와 같이 사회적 위기감이 고조될 때, 혐오는 더욱 증폭되고 그 위험성까지 커지기에 혐오에 대한 사회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사회문제 중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혐오에 대해 철학적인 분석을 한 최현철(2017)은 혐오는 공포, 역겨움 그리고 증오로 존재한다고 말한다. 이때 증오는 경멸이나 적대로 표출이 되는데, 자신보다 높은 대상에게 표출되는 분노와 다르게 이때의 경멸은 자신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대상을 향해 표현된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우리의 사회는 혐오의 감정이 팽배한 사회이다. 이 연구에서는 혐오의 시대에서 경멸의 표현으로 ‘빌런’이 영화와 만화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중심으로 주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3. 일상적 ‘빌런’ 용어 고찰과 경멸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경멸 용어로서의 ‘빌런’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매체 중 인터넷 기사와 유튜브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때의 선정 기준은 대중성과 공공성 그리고 개인의 자율성을 두루 확인할 수 있는 매체의 성격을 각각 인터넷 기사와 트위터가 지니고 있다고 고려한 것이다.

3.1. 인터넷 기사 속 ‘빌런’

인터넷 기사는 신문사의 인터넷 기사를 포함하여 인터넷 신문사의 기사를 두루 살펴 ‘빌

런'을 다른 제목을 찾아 정리하였다. 제목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내용으로 언급된 경우의 기사는 포함하지 않았다. 종합 검색 포털인 네이버를 통해 '빌런', 뉴스 항목으로 검색을 했고, 이때 기사는 최신순으로 확인을 하였다. 2022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의 기사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신문사	기사 날짜	제목
1	인사이트	2022.02.02.	덜 익은 치킨 환불해주려 찾아온 사장님에게 각서 쓰고 현피 뜨자한 빌런 의 최후
2	서울경제	2022.02.01.	'두 칸 주차' 빌런 혼내려주다...“역고소 당하게 생겼네요”
3	인사이트	2022.02.01.	“마포구 먹자골목서 번호판 없는 채로 난폭운전하는 'BMW 빌런 ' 조심하세요”
4	데일리안	2022.01.30.	“주차장 두 칸 빌런 女, 참교육 시켰다가 오히려 고소당 했습니다”
5	뉴시스	2022.01.29.	빌런 에서 영웅으로, 페루 축구 새역사 쓰는 가레카 '알자지라' 제작진 “형제복지원 이대로 묻히면 한국에 더 부끄러운 일”
6	일요신문	2022.01.25.	시사 프로그램에서 '공포의 수용소' 다큐 제작...“카메라 피해 도망가는 임 목사 모습 마치 빌런 같았다”
7	머니투데이	2022.01.25.	“마스크 쓰라”고 했더니 폭행... 여전한 '노 마스크' 빌 런 들
8	위키트리	2022.01.24.	“스파링 한 번 할까”...‘나는 솔로’ 국민 빌런 영철 도발 에 격투기 선수도 뿔났다
9	하트이슈	2022.01.24.	도서관서 빌런 수업 참고도서에 ‘거짓 요약’ 적어 시험 앞둔 학우들 농락한 ‘스포 빌런 ’
10	머니S	2022.01.23.	'서프라이즈 여자 개' 김하영, 비매너 주차 빌런 에 분노
11	텐아시아	2022.01.16.	김하영, 무개념 '주차 빌런 '에 분노...“너무하네”
12	엔터테인먼트	2022.01.16.	'서프라이즈 여자 개' 김하영, 두 자리 차지한 무개념 '주차 빌런 ' 박제하며 분노
13	하트이슈	2022.01.15.	할인매장서 13500원에 산 '나이기 반바지' 정가 4만원 에 되파는 당근마켓 빌런
14	국제뉴스	2022.01.14.	'궁금한 이야기Y' 음식점에 상습 별점 테러·환불 협박하 는 '1점 빌런 '
15	인사이트	2022.01.14.	택시기사가 '택시비 먹튀' 빌런 이 쓰는 환불 방법이라며 경고한 약질 수법
16	매일경제	2022.01.11.	“이거 실화? 목숨 걸고 건넌다”... 폭300m 강 건너는 자전거 빌런 화제
17	하트이슈	2022.01.11.	“현실판 아오키지” ...물 퐁퐁 열었다고 목숨 걸고 강 건너는 자전거 빌런
18	위키트리	2022.01.05.	“야, 똑바로 해라” ... ‘나는 솔로’ 국민 빌런 영철, 이번 에는 뺑가 저격했다
19	OSEN	2022.01.04.	국민 빌런 ‘나는솔로’ 영철.. 저기 김연아x지드래곤이랑 친해요?

인터넷 기사 제목으로 ‘빌런’이 사용된 예시를 정리할 때 우선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범죄자의 행위와 같이 범법이라 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는 대상에게 사용되는 표현이라는 것이었다. 이때의 대상들은 누구든지 실제 삶에서 만날 수 있는 이들이었다. 그들은 일상적인 삶에서, 사회 여러 곳곳에서 사회갈등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확인할 수 있었던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는 1, 2, 3, 4, 9, 10, 11, 12, 13, 16, 17번의 예시와 같이 실제 기사가 취재하여 작성된 기사보다 특정 SNS를 통해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가 직접 남긴 글을 토대로 기사가 주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해를 보게 된 당사자가 피해를 준 대상에 대한 경멸의 감정적 표현으로 ‘빌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개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를 인터넷 기사에서도 옮겨 와 기사로 다뤄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더불어 6번과 14번 그리고 18번과 19번의 경우는 매체에서 부정적으로 수차례 언급되었던 대상에 대해서 ‘빌런’이라 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트위터 속 ‘빌런’

트위터는 SNS 중에서도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으로 작용하는 소통 매개이다. 그렇기에 수없이 많은 발화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특징을 고려하여 ‘빌런’ 사용 실제 예시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빌런’과 함께 최근에 사회문제로 거론이 되는 마스크, 층간소음, 대중교통, 주차로 키워드를 한정하여 확인했다.

마스크 빌런

- (1) 친구들이랑 조조로 킹메 봤는데 역대급 **빌런** 만남... 시작부터 전화하더니 밝기 최대로 폰하고 고골면서 자고 마스크도 안 쓰고 자꾸 기침하고... 하아... 진짜 한 대치고 싶은 거 꼭꼭 참았다
- (2) 근데 여기에도 마스크**빌런** ㅈㄴ 많음
- (3) 이제 없으면 섭섭한 노마스크**빌런**도 있음♥
- (4) 맞아여.. 저 지난번에 마스크 **빌런**땀에 두 번 경찰불렀던거 생각하면.. 한동안 일나가기 싫을정도였어요 ㅠ

층간소음 빌런

- (1) 가랏! 층간소음 **빌런** 퇴치 부탁해!!
- (2) 싸강근황: 층간소음 **빌런**
- (3) 층간소음 **빌런**의 최후
- (4) 사탄도 울고갈 층간소음 **빌런**

- (5) 개념 없는 층간소음 **빌런** 윗집이 3일동안 없어서 편하게 살았는데 방금 들어온 것 같다 들고 나는 게 다 티나게 요란함 들어왔나 싶자마자 바로 뛰기 시작함 3일동안 제일 행복했던 게 윗집 비었던 거라는 걸 깨달음
- (6) 지금 제일 중요한건 매장운영이 아니고 윗집에 사는 층간소음**빌런**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수면시간과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긴 합니다...
- (7) 드디어 진짜zzzzz 나이트메어한테서 벗어나시네요zzzzz 다음 집엔 층간소음**빌런**이 없기를...

대중교통 빌런- 버스, 지하철

- (1) 어제 연휴 마치고 출근하면서 깜빡하고 노이즈캔슬링 헤드폰을 두고 출근 했는데 물랐는데 지하철 버스에 **빌런** 투성이 ㅠㅡㅡㅠ 그 좁은 지하철에서 큰소리 통화는 기본 유튜브 음악 서라운드가 ㅠㅡㅡㅠ 오늘은 노이즈캔슬링 헤드폰을 착용하니 천국이네
- (2) 버스 앞사람 완전 **빌런**새끼야 개빡쳐
- (3) 버스에 **빌런**있어...갑자기 대통령 얘기해..
- (4) 나 버스인데 옆자리에 빌런있어..... 가방으로 어깨빵 엉덩이빵 콤보로 내 몸뚱아리 안쪽으로 밀어넣더니 몸 계속 움직이시고 팔 계속 움직이셔서 나 구석에 찌부뚱어 지금
- (5) 미친... 지하철 4호선 역대급 **빌런** 등장함
- (6) 하루하루 새로운 **빌런**이 나오는 지하철 1호선
- (7) ㅋㅋㅋㅋㅋㅋ지하철 임신부석 아저씨를 물리치는 아저씨**빌런**나타나서 다들 뽀음 임신부석앗지말라고~~~!!!당신같은 사람들때때 남자망신이야~~~~x10000
임신한거 아니면 자리도많은데 한칸땡기라꼬오~~~~~하면서 임신부석앗은 아저씨밀어넣고 다음 타켓을찾으려 다음칸으로사라짐ㅋㅋㅋ

주차, 주차장 빌런

- (1) 방금 어의없는 주차**빌런**
- (2) 주차장 고성방가**빌런** 퇴근주차 세리머니 와 자리잇다리 태연노래 나오길래 따라부르기
- (3) 아파트 지하주차장 **빌런**
- (4) 오늘자 주차**빌런**
 - 주차장 2칸
 - 옆아파트 주차증
 - 장애인 차량

트위터에서 '빌런'을 확인했을 때는 인터넷 기사와 다르게 생생하게 트윗을 남긴 사람의 목

소리가 더욱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다. 본인이 겪은 피해 상황을 겪은 즉시 실시간으로 표현하는 글들이 주가 되었다. 특히 주차 관련한 트윗은 별다른 설명을 길게 하지 않고, 실제 주차된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며 자신이 분노하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보여 주고, 공유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였다. 다른 키워드와 관련된 트윗 역시 글을 남기는 이들이 자신의 트윗을 읽는 이가 누구든지 자신이 경험하게 된 부정적 상황과 감정 그리고 그 피해를 준 이에 대한 경멸의 감정을 극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인터넷 기사와 트위터를 통해 실제 ‘빌런’이 언급되는 사례를 확인했다. 이때 일상적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한 ‘빌런’에 함유된 경멸의 감정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선 함께 사용하는 단어와 함께 비난의 대상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함께 사용하는 단어의 경우 비속어를 중심으로 더욱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인터넷 기사의 경우 공공성과 신뢰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매체의 특성으로 인해 비속어 사용 예시를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내용은 언어 규범과 비속어와 은어 사용에서의 제한을 받지 않는 트위터를 중심으로 확인했다. 실제 트위터를 확인했을 때 이 연구에서 제시된 비속어의 사용 외에 연구 지면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비속어를 사용하며 ‘빌런’이라 표현한 경멸의 대상을 거세게 비난하는 목소리의 실제 예시가 많았다. 또한 ‘빌런’이라 칭해지는 비난의 대상들이 엄청난 악행을 저지른 범죄자나 악인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수없이 마주칠 수 있는 일상 갈등의 대상들이 되었다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그렇기에 일상적인 용어로 ‘빌런’을 사용하며 삶에서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 상황과 그것을 제공하는 대상에 대한 감정을 언어 사용자들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빌런’에 대한 언어 사용자 인식 조사 설계

실제 ‘빌런’이라는 용어를 언어 사용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표현하는지, 혹은 그 용어를 접했을 때 어떠한 사회적 감정과 개인적 감정이 드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언어 사용자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설문 조사를 설계하여 시행하고자 한다. 이때 ‘빌런’이라는 용어를 확인할 때 함께 살폈던 경멸의 감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 안에 담겨 있고 전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는 설문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설문 문항으로 객관식과 주관식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 설문지의 중심 질문은 아래와 같다.

- ① 일상 속에서 ‘빌런’이라는 단어를 들어 본 적이 있는가?
- ② ‘빌런’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있는가?
- ③ ‘악당’과 ‘빌런’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④ ‘빌런’이라는 단어를 주로 확인할 수 있는 매체는 무엇인가?
(1) 영화, (2) 드라마, (3) 인터넷 뉴스, (4) 유튜브,
(5) 트위터, (6) 인스타그램, (7) 기타

- ⑤ ‘빌런’이라는 단어를 볼 때 주로 드는 감정은 무엇인가?
- ⑥ ‘빌런’이라는 단어가 누군가를 가리킬 때 사용된다면 어떤 대상으로 연상되는가?
- ⑦ 현대사회에서의 ‘빌런’이 어떤 감정이랑 연결된다고 생각되는가?
- ⑧ 영화나 드라마에서 접한 ‘빌런’과 일상 속에서 접한 ‘빌런’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이라 생각되는가?

언어 사용자들에게 ‘빌런’이라는 단어를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매체 외 실제 삶에서 접한 경험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을 한다. 또한, 실제 ‘빌런’의 의미를 알고 그 단어를 접했을 때 사용되는 상황에서 느껴지는 경멸의 감정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 내용을 구성하였다. 해당 설문 조사는 코로나 상황으로 대면할 수 없는 것을 고려하여 여러 SNS를 통해서 다양한 세대와 직업군에서 설문 조사 참여자를 모집하여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 5. 설문 조사 시행과 조사 결과 분석(예정)
- 6. 결론 및 제언(예정)

참고문헌

- 권도경(2014), 한국고전영웅서사원형의 재생산과 코리안 슈퍼 히어로물의 탄생, 그리고 헐리우드 슈퍼히어로물과의 서사코드적 차이, 비교한국학 22, 139-172, 국제비교한국학회.
- 김용화·한창근(2021), COVID-19 확산 이후 한국사회 사회갈등 이슈와 미래신호 탐색: 국내 뉴스 기사 키워드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52(1), 5-37,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김혜연(2017), 슈퍼 빌런과 사탄: 영화<원더 우먼>과 <스파이더맨:홈 커밍>에 나타나는 슈퍼 빌런의 악마성 연구, 영미문학연구 33, 71-95, 영미문학연구회.
- 박승억(2021), 혐오의 이중성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 철학·사상·문화 36, 59-79,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 서동수(2021), 히어로와 빌런의 변증법과 질문의 윤리학, 스토리&이미지텔링 22, 121-153, 건국대학교 스토리앤이미지텔링연구소.
- 이재준(2021), 혐오의 정동, 현상과 인식 45(4), 37-62, 한국인문사회과학회.
- 채희주·민경원(2020), 악당 탄생의 구조적 접근 방법 연구: 토드 필립스의 <조커>를 중심으로, 영화연구 85, 257-292, 한국영화학회.
- 최현철(2017), 혐오, 그 분석과 철학적 소고, 철학탐구 46, 175-199,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인터넷 기사

인사이트, <덜 익은 치킨 환불해주려 찾아온 사장님에게 각서 쓰고 현피 뜨자한 빌런의 최후>, <https://www.insight.co.kr/news/380507>, 2022년 2월 6일 검색.

서울경제, <‘두 칸 주차’ 빌런 혼내려주다…“역고소 당하게 생겼네요”>, <https://www.sedaily.com/NewsView/261Z1W2TSF>, 2022년 2월 6일 검색.

인사이트, <“마포구 먹자골목서 번호판 없는 채로 난폭운전하는 ‘BMW 빌런’ 조심하세요”>, <https://www.insight.co.kr/news/380345>, 2022년 2월 6일 검색.

데일리안, <“주차장 두 칸 빌런女, 참교육 시켰다가 오히려 고소당했습니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78906/?sc=Naver>, 2022년 2월 6일 검색.

뉴시스, <빌런에서 영웅으로, 페루 축구 새역사 쓰는 가레카>,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129_0001742594&cID=10523&pID=10500, 2022년 2월 6일 검색.

일요신문, <‘알자지라’ 제작진 “형제복지원 이대로 묻히면 한국에 더 부끄러운 일” 시사 프로그램에서 ‘공포의 수용소’ 다뤄 제작…“카메라 피해 도망가는 임 목사 모습 마치 빌런 같았다”>,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21676, 2022년 2월 6일 검색.

머니투데이, <“마스크 쓰라”고 했더니 폭행... 여전한 ‘노 마스크’ 빌런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12414065848221>, 2022년 2월 6일 검색.

위키트리, <“스파링 한 번 할까”...‘나는 솔로’ 국민 빌런 영철 도발에 격투기 선수도 뿔났다>, <https://www.wikitree.co.kr/articles/726915>, 2022년 2월 6일 검색.

핫이슈, <도서관서 빌런 수업 참고도서 ‘거짓 요약’ 적어 시험 앞둔 학우들 농락한 ‘스포 빌런’>, <https://www.insight.co.kr/news/379175>, 2022년 2월 6일 검색.

머니S, <‘서프라이즈 여자 개’ 김하영, 비매너 주차 빌런에 분노>,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012313058053142>, 2022년 2월 6일 검색.

텐아시아, <김하영, 무개념 ‘주차 빌런’에 분노…“너무하네”>, <https://tenasia.hankyung.com/topic/article/2022011616964>, 2022년 2월 6일 검색.

인사이트, <할인매장서 13500원에 산 ‘나이키 반바지’ 정가 4만원에 되파는 당근마켓 빌런>, <https://www.insight.co.kr/news/377861>, 2022년 2월 6일 검색.

국제뉴스, <‘궁금한 이야기Y’ 음식점에 상습 별점 테러·환불 협박하는 ‘1점 빌런’>,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89606>, 2022년 2월 6일 검색.

인사이트, <택시기사가 ‘택시비 먹튀’ 빌런이 쓰는 환불 방법이라며 경고한 악질 수법>, <https://www.insight.co.kr/news/377707>, 2022년 2월 6일 검색.

매일경제, <“이거 실화? 목숨 걸고 건넌다”... 폭300m 강 건너는 자전거 빌런 화제>.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1/31785/>, 2022년 2월 6일 검색.
하이슈, <“현실판 아오키지” ...물 뽕뽕 얼었다고 목숨 걸고 강 건너는 자전거 빌런>,
<https://www.insight.co.kr/news/377188>, 2022년 2월 6일 검색.
위키트리, <“야, 똑바로 해라” ... ‘나는 솔로’ 국민 빌런 영철, 이번에는 뽕거 저격했다>,
<https://www.wikitree.co.kr/articles/721955>, 2022년 2월 6일 검색.
OSEN, <국민 빌런 ‘나는솔로’ 영철..저기 김연아x지드래곤이랑 친해요?>,
<http://osen.mt.co.kr/article/G1111733770>, 2022년 2월 6일 검색.

인터넷 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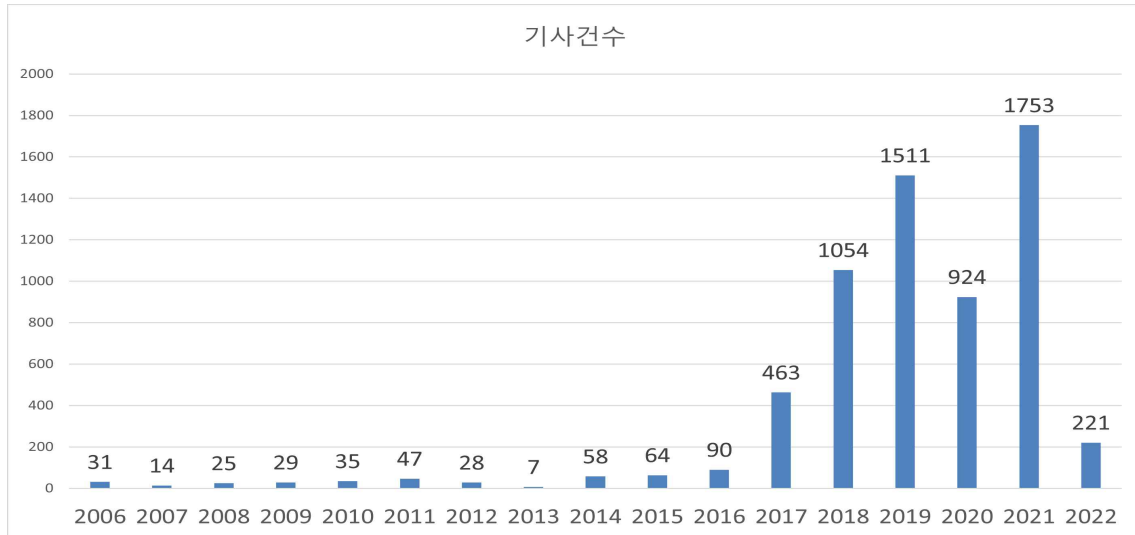
우리말샘 <https://opendict.korean.go.kr/main>

트위터 <https://twitter.com/home>

“‘빌런’이라는 용어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고찰 - 경멸 감정을 중심으로”의 토론문

오새내(계명대)

1. 이 발표문은 2020년대 한국 언어 사회에서 사용빈도가 증가한 외국어 단어와 이 단어가 사용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의미를 파악하고, 해당 단어의 ‘어감’과 이 단어에 반영된 언어 사용자의 감정, 그리고 이 단어가 사용되는 현대 한국 사회의 부정적 감정을 살펴본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입니다. 저는 이 주제에 대한 발표자의 이론적 탐색, 정밀한 자료 분석과 신중한 숙고의 결과물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으로 토론문을 작성하였습니다.
2. ‘빌런’에 대한 어휘의미론적 접근을 추가할 필요성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발표문의 서론을 보면 한국 사회에서 ‘빌런’의 사용 양상에 대한 연구자의 배경 설명이 나옵니다. 서론의 내용은 ‘빌런’이라는 외국어 단어가 현대 한국인의 어휘체계에 편입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외국어 어휘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외국어와 한국어에 대응하는 어휘는 중복관계입니다. ‘bottle=보틀=병’처럼 의미가 매우 유사한 유의어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문은 ‘villain=빌런=악당’에서 ‘villain=빌런≠악당’이 된 과정과 배경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간결하게 설명하는 데는 어휘의미론적 접근이나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논문의 이론적 배경과 관련하여 ‘빌런’의 사용빈도와 의미 변화의 관계를 보고 싶습니다. 언론 기사에서 ‘빌런’의 사용빈도가 증가하는 시기와 의미 변화가 확산되는 시기를 추정하기 위해 신문기사 아카이브인 빅카인즈에서 ‘빌런’의 연도별 사용빈도를 찾아 그래프를 만들면 다음과 같습니다.(언론사 총 45종/방송 5종 +신문 40종, 기사건수 6354건/2022년 2월 13일 기준)



빅카인즈는 1990년 신문부터 탐색이 가능하지만 2006년 이전에는 ‘빌런’이 언론 기사에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기에 이전 데이터는 절단했습니다.

2006년 ‘빌런’은 엔씨소프트의 게임 ‘시티오브히어로’와 ‘시티오브빌런’ 게임의 통합판 출시 기사로 빈도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2012년까지 ‘빌런’은 언론에서 온라인 게임의 고 유명사로 사용되다가 2014년부터 마블 영화사의 영화 기사에서 ‘히어로’의 반대말로 악당을 가리키는 말로 나오면서 사용빈도가 조금씩 증가합니다. 2017년 6월 9일 아시아경제 문화면에 “[신조어사전] 빌런 - 어수룩한 악당의 시대”라는 기사에 인터넷 상에서 빌런의 쓰임에 대한 보도가 처음 나옵니다.

최근 네티즌은 해괴한 짓을 하거나 쓸데없는 데에 집착하다가 낭패를 보는 이들을 빌런이라고 부른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사용자들이 지난해 말부터 빌런을 이같은 의미로 쓰기 시작했다.해충 화형식을 한다며 나무젓가락으로 만든 십자가에 말벌을 동여맨 후 가스레인지에 태워 죽이는 '화형 빌런', 5만원 지폐를 분쇄기로 갈았다가 수백개의 지폐 조각을 다시 하나씩 붙이는 '조각모음 빌런' 등이 대표적이다.네티즌은 망측한 행위를 고백하는 빌런들에게 열광하고, 또 그에 보답하듯이 하루에도 수십명씩 황당한 빌런이 새로 생겨난다. 이들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정도로 나쁜 짓을 한 것은 아니지만 기괴한 행태로 주위에 유·무형의 소소한 피해를 안기는 조무래기 악당들이다.

2018년부터는 영화 기사에는 ‘빌런’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발표문 2.1의 분석 내용이 적용되는 시기로 보입니다. 조선일보 2018년 5월 19일자 신조어 ‘빌런’을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무언가에 집착하거나 특이한 행동을 하는 이들에게 이 말을 붙인다. 히어로 영화에서는 평범한 인물이 과한 집착이나 이상한 계기 탓에 빌런이 되는데 이를 빗댄 것이다. 쓰임새는 어떤 사람이 집착하는 명사 뒤에 빌런이라는 말을 붙이는 식이다. 매일 갈비탕만 먹자는 상사는 '갈비탕 빌런'이고, 초조해지면 볼펜 뚜껑을 넣었다 뺐다 하는 옆 사람은 '볼펜 빌런'인 셈이다.

그러면 발표문 2.2의 ‘혐오 시대 속 경멸’의 의미로 ‘빌런’이 언론기사에 나타난 시기를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2018년 6월 22일자 기사입니다.

편의점이나 카페 등지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요즘 현금, 그것도 동전은 공포의 대상이다. 동전을 가져와 계산하는 손님은 ‘동전 빌런(악당을 뜻하는 영어)’이라고 불린다. 미국 슈퍼히어로 영화에 나오는 악당을 빗대 일하기 귀찮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비꼬는 것이다.

발표문에서는 2022년 언론 기사에 한해 ‘빌런’의 용례를 보았지만 어휘의 의미 관계는 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른 시기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발표문 3.2를 보면 트위터의 ‘빌런’ 용례 분석이 나옵니다. 트위터 분석에서 통합적 접근을 고려해보기를 제안합니다. 2022년 1월 14일부터 2월 13일까지 트위터에 한정하여 ‘빌런’의 부정적 연관어를 소셜분석서비스 썸트렌드에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부정 ? 워드맵 표 차트수정 분석데이터

단어	금부정 ▼	건수
나쁘다	부정	1,708
욕먹다	부정	1,666
위험	부정	1,559
짜증	부정	1,534
불편하다	부정	1,524
긴장하다	부정	1,199
공포	부정	831
울다	부정	356
도망치다	부정	348
욕하다	부정	337

썸트렌드는 트위터 외에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를 대상으로 연관어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시기 인스타그램과 블로그에서 ‘빌런’의 부정적 연관어를 표로 제시한 결과입니다.

금·부정 ?

워드맵

표

차트수정

분석데이터

단어	금·부정 ▼	건수
범죄	부정	25
방해하다	부정	18
위기	부정	17
힘들다	부정	16
최악	부정	14
짜증나다	부정	13
짜증	부정	12
괴롭히다	부정	10
갈등	부정	10

위의 결과를 보면 경멸의 의미에서 ‘빌런’의 연관어로 ‘짜증’, ‘불편하다, 욕먹다’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순위의 단어들과 용례로도 ‘빌런’의 의미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빌런’의 의미 분석을 위해서 우선 현재 이용할 수 있는 공개 데이터를 통해 통합적으로 의미를 상징하고 ‘빌런’의 다의성을 규명한 다음, 사용맥락별 ‘빌런’의 의미들을 범주화하고, 이중 혐오와 경멸의 의미를 분석하는 단계에서 개별 용례나 비속어 사용 사례를 살펴보는 방향으로 구조화하는 것이 논의의 설득력을 높이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5. 설문지 설계와 적용하고자 하는 분석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로마자 인명 표기의 실제

- 언중의 입장에서 -

심주희(연세대)

1. 서론

로마자 인명 표기가 통일되지 않는 데 대하여 기존 논의들은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홍보나 수시 개정, 공교육에서의 부재 등을 언급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에 더해 로마자 표기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이유를 언중의 시선에서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고는 인명과 관련한 로마자 표기법의 규정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며 로마자 표기법의 수정을 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정책과 교육 측면에서만 다뤄졌던 로마자 인명 표기의 실태의 원인을 언중으로부터 찾아내고자 한다.

사실 로마자로 인명을 표기하는 일은 얼핏 사소해 보이지만 자신의 고유한 이름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다. 물론 어떤 이에게는 있는 규범을 따르면 그만인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규범으로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 만족하는 이들도 있겠다. 규범을 둘러싼 언중의 다양한 견해를 전제하는 바이며 다만 본 연구에서는 규범과의 간극을 보이는 이들에게 집중하고자 한다.

사실 규범을 따를 것인지의 여부는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언중의 인명 표기가 로마자 표기법과 다르게 쓰이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에서는 로마자 표기의 실태와 그 구체적인 양상을 서술해 왔지만 관련하여 언중의 입장을 비중있게 다루지는 않았다. 규범과 언중의 관계를 담아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고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이뤄진다. 2장에서는 로마자 인명 표기의 실태를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고 표기의 문제로 지적된 것들의 한계를 논의한다. 3장은 면담 방법과 질문 항목 등 본고의 연구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겠다. 4장은 면담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로마자 인명 표기 결정에서의 언중의 동기를 논의하며 결론인 5장에서는 로마자 인명 표기와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제시하며 마무리한다.

2. 이론적 논의

로마자 인명 표기는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에게 한국인의 인명을 제대로 식별하고 읽히기 위한 것이다. 로마자 표기에서의 기준을 한글로의 환원성으로 보는 이들도 있지만(전홍식 2004),

사실 한국어 학습자를 제외하고 외국인이 로마자 표기를 한글로 복원할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 로마자로 나타내는 중국인의 인명을 중국어 학습자가 아니고서는 한자로 복원할 일이 없다는 것과 비슷한 일이다. 로마자 표기가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을 위한다는 것을 상기해보면 환원성의 기준은 다소 무의미하다. 결국 로마자 표기는 외국인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장 유사한 한국어 발음을 구현해내는 데 목적이 있다(정경일 2011ㄱ).

언중들이 인명 표기 과정에서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지 않은 채 다양한 표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다수의 연구를 통해 확인된다(김성원·김정우 2012; 김혜숙 1998, 2001, 2002, 2005; 양병선 2002, 2003, 2005, 2009, 2014; 정경일 1997, 2001, 2004, 2005, 2011ㄴ). 철자부터 이름 간 띄어쓰기, 붙임표 작성, 대문자나 소문자 작성 등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오고 있는데 관련하여 다음에서 몇 가지 논의들을 살펴본다.

양병선(2005)은 국제대회를 출마하는 국내 국가대표 선수들의 로마자 인명 표기 현황을 조사하고 성씨와 이름 모두를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경우가 5.3%의 적은 수에 그치고 있음을 보였다. 이 연구는 로마자 표기법 준수 수준에 따라 성과 이름을 분류하고 각 사례를 제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분석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국회의원의 인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정경일(1997)은 표기법에 완전히 부합하는 성씨 표기는 35%, 성과 이름의 표기 양상을 그나마 가까이 지킨 경우는 5.7%에 그쳤음을 보였다. 이 연구 역시 표기의 유형을 분류하고 사례를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로마자 표기법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으며 추후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 연구들은 언중이 로마자 표기법을 준수하지 않는 원인으로 자주 바뀌는 규범, 정부의 소극적 홍보, 명확하지 않은 규범, 공교육에서의 부재 등을 꼽는다. 양병선(2005)은 정부에서 로마자 인명 표기와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았는데, 정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이 표기법을 따르지 않는 이유가 되는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명확한 규정이 있어도 언중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¹⁾

초등학교 교과서의 로마자 표기의 실태를 확인한 연구인 김혜숙(2005)은 공교육에서 로마자 표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이 일관성 없는 로마자 표기에 일조한다고 언급했다.²⁾ 그러나 실제로 로마자 표기법을 알고 있음에도 부모의 성과 동일하게 표기하기 위해서 혹은 오랫동안 써왔다는 이유로 표기법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는 로마자 표기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교육이나 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 정체성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³⁾

또한, 로마자 표기법의 잦은 개정을 문제로 지적하는 이도 있다(정경일 2001, 2010). 물론

1) 필자는 ‘바람’이라는 한글 맞춤법에 따른 표기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언중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바램’을 사용한다. 다수와 다른 표기를 선택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오히려 ‘바람’으로 표기했을 때, 상대방에게 틀린 표기로 인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비단 필자에 국한된 사례이지만 이는 로마자 표기가 준수되지 않는 이유를 규정의 명확성만으로 설명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2) 정경일(2001) 역시 로마자 표기법이 공교육에서 전혀 포함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반드시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함을 강조했다.

3)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915010001&wlog_tag3=naver(검색일 : 2022.01.31.)

로마자 표기법이 김혜숙(2001)의 언급처럼 “널뛰기 식으로 왔다 갔다”하지 않았다고는 말하기 어려운데 전자법과 전사법, 발음 기호의 삽입, 유성음과 무성음의 구분 등이 4번⁴⁾의 표기과정에서 바뀌었기 때문이다.⁵⁾ 이 과정에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개정 전에 로마자 표기법을 따른 사람은 개정 후에는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되어 버린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 이전에는 언중들의 로마자 인명 표기가 어느 시점에라도 로마자 표기법을 따랐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299명의 대학생을 상대로 로마자 표기법 인식 조사를 한 정경일(2001)을 보면 자신의 로마자 인명 표기가 현행 규정에 맞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정확히 맞는다’라는 응답이 7.9%의 적은 수였고 실제 인명 표기를 조사했을 때, 조사 시점에서 개정 전(1984년)의 규정이나 개정 후(2000년)의 규정에 모두 정확히 부합하는 표기를 사용하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는 로마자 표기법의 잦은 개정과 일관성 없는 표기가 특별한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와 같은 규범적, 교육적인 문제 외에 현행 로마자 표기법이 외국인이 발음하기 어렵다거나 로마자로 나타냈을 때 부정적인 의미가 발생해 난처하다는 언급도 일부 찾아볼 수 있다(김혜숙 2000). 그러나 이러한 연구를 포함한 기존 연구들은 언중으로부터 로마자 표기법의 문제를 담아내지 않았다.⁶⁾

본고가 정책의 홍보 부족이나 잦은 개정 등의 원인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부분이 현재 로마자 인명 표기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데 일조했다는 데 분명히 동의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규범의 수용자는 언중이라는 점에서 규범을 다루는 과정에서 언중의 삶을 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으며 로마자 표기법을 둘러싼 언중의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4) 1948년, 1959년, 1984년, 2000년, 2014년의 총 5번의 개정을 거쳤으나 2000년에서 2014년의 개정은 구개음화와 관련한 항목에서 예시 하나를 바꾼 것뿐이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개정은 4번뿐이라 할 수 있겠다. 큰 변화는 1984년에서 2000년으로의 개정인데 인명 표기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변화를 보였다.

1984	2000
제3장 표기상의 유의점-제4항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쓰되 띄어 쓰고, 이름 사이에는 '-'(짧은줄표)를 넣는다. 다만, 한자식의 이름이 아닌 경우에는 '-'를 생략할 수 있다.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 1.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2.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한다.
제3장 표기상의 유의점-제7항	
고유명사의 표기는 국제 관계 및 종래의 관습적 표기를 고려해서 갑자기 변경할 수 없는 것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적는 것을 허용한다.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

5) 역대 로마자 표기법의 구체적인 비교는 김혜숙(2001)을 참조.

6)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인지도, 교육과 홍보 정도를 조사하는 연구가 있었다(정경일 2011). 그러나 로마자 표기법을 알고 있는지, 로마자 표기를 읽어본 경험이 있는지 등을 묻은 것으로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언중의 생각을 엿볼 수는 없었다.

3. 연구 절차

본고는 면담을 통해 로마자 인명 표기 과정에서 언중이 겪는 문제를 보이하고자 한다. 질적 접근은 양적 연구로는 미처 파악할 수 없는 개인의 구체적인 경험과 고민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됐다.

면담을 위한 제보자들은 의도적 표본추출을 통해 5명을 선정하였는데 그 기준은 첫째, 한글 인명의 발음이 비교적 어려운 경우로 이들은 이름과 관련하여, 즉 로마자 인명 표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판단됐다. 둘째,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고정된 성씨 표기 없이 몇 가지 표기가 비등한 비율로 사용되는 성씨를 가진 사람이다. 이들의 경우, 압도적으로 특정 표기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에 보다 개인적인 문제를 드러내 줄 것으로 예상됐다. 셋째, 대다수가 고정된 로마자 표기를 따르는 성씨를 가진 사람이다. 이미 고정된 표기가 있는 상황은 한 개인이 표기를 선택하는 데 고충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했다. 면담에 참여한 제보자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1> 제보자의 정보

번호	인명 ⁷⁾			연령
	한글 ⁸⁾	사용 중인 로마자 표기 ⁹⁾	규범에 따른 표기	
1	이율리	YI YOUL-Y	I Yulri	20대
2	김상민	KIM SANGMIN	Gim Sangmin	20대
3	정정욱	CHUNG JUNG WOOK	Jeong Jeonguk	20대
4	박수정	PARK SUJUNG	Bak Sujeong	20대
5	안화영	AHN HWA YOUNG	An Hwayeong	20대

면담은 2021년 6월 2일~6월 17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추후 면담이 필요한 제보자에게 다시 연락을 취하여 2차 면담(2021년 6월 19일)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일부 제보자들은 오프라인으로(제보자 1, 2), 일부는 줌(zoom)을 통한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제보자 3, 4, 5). 그 중 1차 면담에서 미처 질문하지 못했거나 불확실한 부분은 2차 면담을 통해 보완하고자 했다. 2차 면담을 진행한 제보자 1과 제보자 4는 각각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면대면과 줌(zoom)을 통해 면담이 이루어졌다. 면담을 위해 대략적인 질문지를 아래와 같이 구성했으며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질문을 하는 등 융통성 있게 면담을 진행했다.

7) 본고에서 이름이라 하는 것은 인명에서 성을 뺀 부분을 말하며 인명은 성과 이름을 한데 지칭한다. 예를 들어, ‘홍길동’은 인명이며 ‘홍’은 성, ‘길동’은 이름에 해당한다.

8) 본고의 연구가 ‘인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성씨 표기를 비롯해 이름에 대한 노출이 불가피했다. 연구 주제를 ‘성씨’로 제한할 수 있었지만 보다 다양한 논의를 위해서 이름과 관련한 면담 내용도 제시했다. 인명에 대한 노출은 면담 전, 연구 안내 과정을 통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동의서에 해당 부분을 명시하였다. 제보자의 동의를 얻어 이름을 노출한다는 사실을 밝힌다. 이 자리를 빌려 인명 노출을 기꺼이 허락해준 제보자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9) 해당 로마자 인명 표기는 여권상에 기재된 것만으로 따라서 모든 표기는 대문자로 제시됐다.

<표 2> 면담지 구성

상위 범주	하위 범주
임명업	1. 인사 2. 연구 목적 안내 ¹⁰⁾
로마자 인명 표기 방식	1. 로마자 인명 표기 수기 작성 요청 2. 해당 표기로 로마자 인명을 결정한 이유 3. 로마자 인명 표기 과정에서 고민 및 경험
로마자 표기법의 인식	1. 로마자 표기법의 인지 여부 및 인지 경로 2. 인명 표기를 로마자 표기법과 다르게 쓰는 이유
로마자 인명 표기의 통일	1. 로마자 인명 표기 통일에 대한 견해 2. 로마자 표기법 준수 의향 여부
기타 및 마무리	감상 공유 및 면담 종결

면담은 네이버 클로바 노트를 이용하여 녹음 및 자동 전사하였으며 연구자가 녹음을 다시 듣고 수정하기를 반복했다. 전사본을 읽으면서 주목할 만한 답변이나 제보자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부분을 추리며 이를 세 가지의 범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4. 로마자 인명 표기 결정의 동기

제보자들은 로마자 표기법을 공교육에서 학습하기도 했고 여권을 만드는 과정이나 특정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접하는 등 경로는 다르지만 모두가 로마자 표기법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 (1) 근데 이거 중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나 (···) 자기 이름을 쓰는 건 아니어도, 그 로마자 표기법을 이렇게 한글이랑 매칭해 가지고, 그런 거 배웠던 것 같은데. 그걸로 배워서 나는 이미 알고 있는 했거든 (제보자1, YI YOUL-Y/이율리)
- (2) 음 학교 다닐 때 배워 가지고, 그때 평소에 로마자 표기라는 말을 쓰진 않으니까 되게 오랜만에 들었는데 알긴 알지. (제보자5, AHN WHA YOUNG/안화영)
- (3) 그 왜 여권 신청하는 데 가면은 참고하는 거 해 가지고 로마자 표기법 적혀 있는 것 같더라고. (제보자4, PARK SUJUNG/박수정)
- (4) 한국어 능력 시험 준비하면서 그 시험에 있어. 강원도 이런 거. 영어로 어떻게 쓰는지(제보자3, CHUNG JUNG WOOK/정정욱)

이러한 사실은 기존에 언급되었던 정책이나 교육의 문제 외에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지 않

10) 본고는 제보자들이 사회적 선망 편향이나 묵낙 편향(Acquiescence bias)에 영향을 받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 연구 시작에서 제보자들에게 편하고 자유롭게 응답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연구자가 특정한 응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며 제보자의 특정 대답이 연구자에게 이로운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편향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어려우나 연구 시작 전에 이를 환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는 다른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¹¹⁾ 본 장에서는 제보자들이 로마자 인명 표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4.1. 미적 가치

제보자4는 표기가 가지는 미적 가치에 기반하여 로마자 인명 표기를 결정했다.

- (5) 나는 그때 뭔가 뭔가 U 발음이 어떤 사람은 우 할 때도 쓰고 어 할 때도 쓰고 하는 게 너무 신기하고 약간 그게 좀 재밌게 느껴져 가지고. 같은 표인데 다르게 발음할 수 있다는 게 좀 재밌고 신기해서 계속 일부러 그렇게. 그냥 수정 한국어는 수정인데. 발음은 수우어 이렇게 되는데, 영어는 똑같이 U로 쓰고 있어. 그게 조금 더 뭔가 더 예뻐 보이고 뭔가 마음에 들기도 해서 그래서 그냥 뭔가 기준이 있다기 보다는 내가 그냥 그렇게 쓰고 싶어서 쓴 거 같애.
- (6) 나는 되게 다양하게 발음했으면 좋겠어. (···) 재밌잖아. (제보자4, PARK SUJUNG/박수정)

(5)는 제보자4가 자신의 로마자 인명 표기를 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다. 어릴 적에는 ‘수정’에 해당하는 표기로 ‘Sujeong’을 사용했지만 ‘u’가 다양하게 발음될 수 있음을 인지한 이후로는 여권을 포함하여 모든 표기를 ‘Sujung’으로 바꾸었다.

김세중(2000:53)은 하나의 인명에서 ‘u’를 ‘ㄴ’과 ‘ㅌ’로 적는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언종의 표기는 일정한 원칙이 없고 이는 한글로 무엇을 표기했는지를 알 수 없게 하며 동시에 발음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오히려 제보자 4는 발음이 다양하게 나는 것을 의도하고 있었다. 자신의 로마자 인명 표기가 다양하게 발음되는 것을 매력적인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 (7) 그럼 어떤 사람은 외국인들은 수중 짱? 이렇게 하기도 하고, (···) 외국인들은 수 막 수중? 이런 식으로 일었던 것 같아. (···) 아니 그래서 나는 그렇게 말하면, 나 내 이름은 난 수정 박. 수정 박이라고 말해줘.(제보자4, PARK SUJUNG/박수정)

‘Sujung’ 표기로 인해 외국인들이 [수정]이 아닌 [수중]으로 발음하는 일이 빈번했지만, 불편함보다는 그때마다 정확한 발음을 알려주면 그만이었다. 2차 면담에서 불편함이 없는지 재차 물었을 때, 오히려 무엇이 불편한 것인지 반문했다.

성씨 표기를 ‘Park’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는 표기는 ‘Bak’임을 알려 주었을 때, 제보자 4는 뜻밖의 답변을 내놓았다.

- (8) 난 차라리 아까 Bak 보니까 Bac가 좋은 것 같아. (···) ABC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더 마음에 들어. 그게 더 예쁘네. (···) 이미지적인 거.(제보자4, PARK SUJUNG/박수정)

11) 다만 일부 제보자들이 로마자 표기법에 맞는 본인의 인명 표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것이라기보다는 로마자 표기법을 한글 맞춤법처럼 찾아서 확인할 필요가 없었고 규범보다는 기존 표기를 고수하려는 경향이 컸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이는 이름이 어떻게 보일지, 다시 말해서 이름이 어떠한 이미지를 나타내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즉 이름이 어떻게 불릴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발음은 부르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어’에 해당하는 표기를 ‘eo’가 아닌 ‘u’로 쓰며 다양한 발음을 추구했던 것과 연결된다. 제보자4의 견해는 표기 방식이 상대방에게 특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경험에서 일부 비롯된 것으로도 보인다.

(9) 인상 깊었던 이름이 유미라는 이름을 쓴 사람이 있었는데 (...) 그 사람 자기 이름을 표기를 할 때, you me 유 미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너와 나.(제보자4, PARK SUJUNG/박수정)

다른 사람의 로마자 표기를 통해서 표기가 야기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인식했던 것이다. 이때 긍정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특별한 로마자 표기가 그 사람을 오랫동안 기억 남게 한다는 것이다.

제보자4는 다른 제보자들 중 표기의 몫이 개인에게 달려있음을 강하게 피력했는데 이는 로마자 표기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생각과 연결됐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결정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정체성이 발현됐다.

(10) 뭔가 내가 지은 이름을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뭔가, 뭔가 고유함? 뭔가 자기가 나름대로 지은 규칙에서 정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좀 흥미로운 것 같아. 재밌어.

(11) 그게 표기가 뭐 방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떠나 가지고 어쨌든 자기가 뭔가 의미를 부여한 대로 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 (제보자4, PARK SUJUNG/박수정)

제보자4는 계속된 면담에서 표기가 ‘예뻐’ 것을 언급해왔다. 이때 예쁘다는 지속된 면담 속에서 비로소 파악될 수 있었다. 표기에 부여하는 자신만의 의미,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나타내는 내가 결정한 나의 이름이, 즉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표현하는 그 표기가 제보자에게는 예뻐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¹²⁾

(12) 어쨌든 나의 이름이고 응. 나한테 중요한 요소잖아. 내 정체성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얘기처럼, (...) 예를 들어 명함이나 뭐 여권이나 이런 데에 있다는 건 되게 중요한 의미인 거잖아. 그런 걸 사용하는 순간만큼은.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의미를 드러낸다고보다는 그냥 그게, 나한테 없어서는 안 되는 거고, (...) 설명하기는 모호한데 어쨌든 정체성의 일부긴 하다.(제보자5, AHN WHA YOUNG/안화영)

(13) 아이덴티티. 정체성. 그래서 약간 이름을 좀 다른 것 같아. 그냥 일반적인 뭐 로마자 표기법

12) 미적 가치를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로마자 표기법과 다르게 쓰이는 경우는 꽤 흔하다. 언론인 손석희의 경우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면 ‘Son Seokhui’와 같이 써야 하는데 이와 같은 표기는 “부르는 모든 사람의 아들이” 되어 버리고 “발음상 그냥 석희로 하면 굉장히 안 좋은 뜻”으로 “국제적으로는 불리한 이름”이기에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075007, (검색일: 2021.06.25.)

이랑 이름에 대해서는 (…)그냥 나는 ‘내가 이렇게 정했다’라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
내 자유고 의지고. 그리고 그리고 내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제보자
 4, PARK SUJUNG/박수정)

여타의 제보자들이 이름을 ‘쓴다’라고 말했던 것과 달리 제보자4는 이름을 ‘만든다’¹³⁾라고 언급했
 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로마자로 이름을 나타낸다는 것은 사실 대단한 정체성은 아닐 수 있다. 그
 러나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인 영역으로서, 스스로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정체
 성이 획득되기도 했다.

4.2. 한국어 발음과의 일치

현행 로마자 표기법이 한국어 발음을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기존 연구에서 언급
 된 바 있다. 그러나 다른 문자를 통해 우리나라의 소리를 정확하게 낸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
 다. 그럼에도 자신의 로마자 인명 표기가 한국어 발음과 아주 비슷하게나마 볼릴 수 있도록 집중하는
 이도 있다.

- (14) 나는 이게 좀 더 직관적인 거 같아 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읽을 때 딱 내 이름같이 발음이
 되니까(제보자1, YI YOUL-Y/이율리)
 (15) 편의성이 떨어지고 좀 직관적이지가 않으니/이게 훨씬 더 직관적으로 발음되니까 (제보자1,
 YI YOUL-Y/이율리)
 (16)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어서. (…)누가 봐도 영으로 읽을 수 있게끔. 특히 외국인들이 봤을
 때.(제보자5, AHN WHA YOUNG/안화영)

위 제보자들은 표기가 발음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직관적인 표기를 중요하게 여겼다. 제보자5는 성
 과 달리 자신의 이름에서만은 한국어 발음과 일치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¹⁴⁾ 반면, 제보자1은
 이름을 포함한 성씨 표기에서도 한국어와 유사한 발음을 나타낼 수 있는 표기를 사용했다. 이는 다른
 제보자들이 성씨에서만은 비교적 보수적인 입장을 가졌던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그렇지만 다수를
 따르지 않는 성씨 표기에 대해 전혀 부담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 (17) 내 주변 사람들은 보통 Lee를 쓰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읽어야 하나, 약간, 왜 이렇게 쓰
 지?’¹⁵⁾라고 하는 거는 조금 있기는 한데 (…)Lee하고 율을 Yul 한 다음에 Li 아니면 Ri 이
 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외국인이 읽었을 때는 이렇게 딱 안 읽어지잖아. 리 율

13) “(아이에게) 만약에 권유할 수 있다고 하면은, 나는 뭔가 예시 같은 걸 안주고, 나처럼 Park 이걸 딱 주는 게
 아니라, 네가 만들어보라 할 것 같아. (…)사실 난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아.”(제보자4, PARK SUJUNG/박수
 정)

14) 성씨 표기와 관련하여서는 다음 절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15) 제보자1의 ‘이걸 이제 어떻게 읽어야 하나, 약간, 왜 이렇게 쓰지?’는 대화 맥락상 LEE로 표기한 것에 대한 언
 급이 아니라 자신의 성씨 표기인 ‘YI’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다.

리 이렇게 읽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이름이 율리라고 조금 자연스럽게 그 연음 처리가 돼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써 놓으면은, 바로 이제 율리라고 발음을 쉽게 하니까. (제보자1, YI YOUL-Y/이율리)

‘이’씨 성을 가진 다수가 표기하는 ‘Lee’ 대신¹⁶⁾ ‘Yi’를 쓰는 것에 대한 우려가 분명 있었으나 [이]와 비슷한 발음을 위해서는 [리]로 발음이 나는 ‘Lee’가 아닌 ‘Yi’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마찬가지로 이름 표기에서도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 정확한 표기를 알고 있지만 발음을 고려하여 ‘Yulri’가 아닌 ‘Youl-y’를 사용하고 있었다. 붙임표를 써서 음절을 구분하고 자연스러운 연음 처리를 위해 마지막 음절에는 자음 없이 모음으로만 표기했다.¹⁷⁾ 연음처리까지 고민했다는 점은 제보자가 정확히 자신의 이름을 불리는 데 상당히 신경을 쓴다는 것을 보여준다.

(18) 내 이름은 그냥 영자인데, 어떤 ‘어리다’ ‘젊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는 것 자체는 마음에 안 들지. 왜냐면 나는 그냥 그런 의미를 의도 하거나 아니면은 은연 중에라도 느끼게 하고 싶은 건 아닌데. (…) 그냥 나도 익숙하고 바로 읽을 수 있는 걸로 쓰고 싶었고(제보자5, AHN WHA YOUNG/안화영)

제보자 5는 ‘young’이 부차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외국인에게 [영]으로 정확히 읽히기 위해서는 해당 표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¹⁸⁾ 로마자 표기법이 법적으로 강요하지 않는 이상 ‘영’의 표기는 바꿀 여지가 없다는 그의 말에서 그가 얼마나 정확히 불리는 것을 신경 쓰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처럼 발음을 중요한 것으로 인지하게 된 배경에는 두 제보자에게 공통되는 부분이 있었다.

(19) 왜냐면 그니까 성이랑 같이 읽으면, 안화영 이러면은 안와영 뭐 이렇게 읽히기도 하고. 안 나영으로 읽히기도 하고. 그니까 안화영이라는 게 좀 혼하지 않은 이름이기도 하고. 연음처리 되면 한 번에 이해하기 힘들어. 그래서 성하고 끊어서 발음한단 말이야. 안 화영 이렇게. 그런 식으로 했었어. 처음에는 그냥 붙여서 읽다가. 아무도 모르니까.(제보자5, AHN WHA YOUNG/안화영)

(20) 내가 이율리라고 하면 사람들이 항상 이유리? 이윤리? 이렇게 물어봐. 한 번에 내 이름을 알아들은 사람이 없었어. 그럴 때마다 이! 율! 리! 이렇게 말해줘야 돼.(제보자1, YI YOUL-Y/이율리)

한국어로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름을 되묻곤 하는 경험이 많았던 것이다. 단 한 번에 자신의 이름을 정확히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사소한 오해를 야기하자

16)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면 ‘이’씨 성은 ‘I’로 표기해야 한다.

17) 로마자 표기법 제 3장 4항은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발음을 정확하게 불리는 게 중요했던 제보자1에게는 이름에 음운 변화를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8) 그러나 기업이나 대학에서는 젊고 미래 지향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해 전략적으로 ‘영’을 ‘young’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전홍식 2004).

나 발음을 몇 번 더 반복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로마자 인명 표기 결정에서 발음나는 대로 표기하게 된, 즉, 한국어와 동일하게 발음날 수 있는 표기를 결정하게 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앞서 보았던 제보자4가 표기를 이미지로 추구하며 발음을 문제 삼지 않았던 것과 다른 양상이다.

4.3. 다수의 선택

당연한 말이지만 무언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늘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다. 인명 표기에서도 다수의 선택을 따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특히, 성씨의 경우는 동일한 성씨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다수의 표기를 따라가는 경향이 크다.

(21) 내가 뭔가 처음에 이렇게 인지하기 시작할 때부터 ‘영어 이름은 이렇게 써야 한다’ 할 때 그냥 Park라고 나는 그냥 인식을 했던 것 같고. 그게 정확히 언제 때부터인지 모르겠고 사실.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맨 처음 여권 받았을 때도 Park 이렇게 써 져 있던 것 같아. 내가 많은 사람들, 수많은 한국인들 박 씨 가진 사람들 많은데. 전부 전부다 내가 대부분 뭔가 혼하게 봤을 때는 다 Park를 써가지고, 그거는 너무 보편적인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제보자4, PARK SUJUNG/박수정)

(22) 근데 안은, 일단 이거 말고 쓸 게 별로 없어. 안 자를 대체하려면 이걸 써야 돼. 누구나 다 이걸 쓰고(제보자5, AHN WHA YOUNG/안화영)

제보자들은 자신의 성씨 표기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의 표기를 따라 결정했다. 다수가 사용하는 표기이기에 의구심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그 외에 선택할 수 있는 다른 표기가 없다고 생각했다. (21)에서 알 수 있듯이 로마자 인명 표기에 대한 이해 전부터 부모나 다른 이에 의해 자신의 표기가 정해지는 경우도 흔하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표기에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다.

(23) Park? 그것도 사실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뭔가 영어로 했을 때는 팔크 이렇게 되잖아? 뭔가 공원이고? 그것도 내 마음대로 바꾸고 싶은데, 그거는 너무 약간, 좀 너무 좀, 약간, 너무 튀거나 약간 작위적이거나 인위적인 그런 느낌일 것 같아 가지고, 그냥 수정만 그렇게 내 마음대로 u u이렇게 쓰구, Park는 그냥 사람들이 쓰는 대로? 쓰고 있어.(제보자4, PARK SUJUNG/박수정)

영어에서 특정한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성씨 표기를 바꾸고 싶었음에도 다수의 표기를 따르고 있었다. 압도적으로 많은 이들이 ‘Park’를 쓰는 상황에서 다른 성씨를 선택하는 것이 제보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원하지 않는 표기더라도 다수를 따르는 편이 훨씬 안전한 선택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안전한 선택은 이름보다는 비교적 성씨 표기에서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앞서 보았듯이 제보자4는 이름의 경우 ‘Sujung’로 표기하며 자신이 원하는 표기를 고수했다. 즉,

성씨는 다수의 표기를 따르고 이름은 개인적인 표기를 쓰는 이중적인 잣대를 취하고 있었다. 이는 ‘이름’은 자신의 고유 영역이지만 ‘성’은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다. 성씨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현상은 제보자4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었다.

(24) 그냥 나 혼자 그럴 거 같지는 않아. 그냥 남들도 GIM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 나도 그럴 것 같아. (….) 다른 사람이 쓰는 대로 쓰는 게 많지 않을까? (제보자2, KIM SANGMIN/김상민)

‘김’씨 성의 제보자2는 다른 사람도 로마자 표기법에 맞춰 ‘GIM’으로 썼을 때, 본인도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성씨 표기는 다수의 선택에 좌지우지되는 것으로서 개인이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영역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인에게만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은 아닌데, 미국에서도 성씨는 공공재로 여겨져 다소 보편적인 철자 표기를 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름은 규범으로부터 벗어나 개인적인 표기를 사용하는 경향이 높았다(Sebba 2007: 44-45).¹⁹⁾

그들이 쓰는 표기가 현행 로마자 표기와 다른 표기임을 알려줬을 때, 유사한 반응을 보였다.

(25) 근데 저게 원래 저랬어? 바뀐 거 아니야?²⁰⁾(제보자2, KIM SANGMIN/김상민)

(26) 원래는 Park였겠지? 그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썼겠지.²¹⁾ 왜냐면 나는 여태까지 한 번도 Bak를 쓴 적을 거의 본 적 없어. (제보자4, PARK SUJUNG/박수정)

상당수가 사용하는 표기가 규범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규범을 따를 것이고 그렇기에 자신 역시도 규범을 따르고 있다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이 로마자 표기법을 의도적으로 따르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단지 그들이 규범이라고 믿는 것을 규범으로서 따르고 있었을 뿐이었다.

규범이라고 하면 성문화된 규범을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규범은 이처럼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기도 한다. 바로 ‘관습’에 의한 규범이다. 로마자 인명 표기 과정에서 자신의 성씨 표기를 관습에 따라 결정하였고 이 과정에서 전혀 의구심을 가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보편적’으로 그와 같이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관습을 따르든 따르지 않든, 관습이라는 규범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다.

(17) 내 주변 사람들은 보통 LEE를 쓰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읽어야 하나, 약간 왜 이렇게 쓰지?’라고 하는 거는 조금 있기는 한데(제보자1, YI YOUL-Y/이율리)

(27) 수정을 쓸 때 항상 Sujung로 쓰면서도 약간 ‘이렇게 써도 되나?’ 약간 하는 그런 고민이

19) 예를 들어, 제보자 3은 ‘정’이란 글자를 성씨에서는 ‘chung’으로 이름에서는 ‘jung’으로 표기하고 있었다. 동일한 자음/모음을 성과 이름에서 달리 쓰고 있는 것에서도 이름과 성의 영역을 구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 특정한 규범이 없는 시기인 독립신문에 나타난 인명을 보면 ‘김’씨 성은 ‘Kim’으로, ‘ㄱ’의 표기에는 모든 환경에서 ‘k’가 쓰이고 있었다(정경일 1999). 이는 ‘Kim’의 표기가 꽤 오랜 시간 동안의 관습임을 알 수 있다.

21) ‘김’씨 성을 ‘Kim’으로 쓸 수 있게 한 규범은 ‘매큐-라이샤워 안(1939)’, ‘한글을 로마자로 적는 법(1948. 문교부 고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1984. 문교부 고시)’이었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2000. 문화관광부 고시)’ 이후로는 ‘ㄱ’은 모음 앞에서 ‘g’로 쓰도록 규정되어 있다. 반면, ‘박’의 경우 역대 규범상에서는 ‘Park’로 쓰도록 한 적은 없었다.

들 때가 살짝 조금, 그런 생각을 하긴 해. 뭔가 하지. 맨 처음에 내가 그 여권 처음 신청했을 때는, Sujeong 그거를 약간 나는 정석처럼 알고 있었거든. 내 영어로 표기를 할 때는. 나는 그렇게 표기하기가 싫어 가지고 뭔가 기준이 있어서 바꾼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선뜻 개인적으로 바꾼 표기여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지 맞나’ 하는 고민(제보자4, PARK SUJUNG/박 수정)

관습을 따르지 않은 채 그들이 원하는 표기를 고수하고 있었지만 ‘이래도 되나’ 하는 부담은 항상 있었다. 이는 관습이 언중 사이에 하나의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언어 규범은 관습에 의해서 형성되기도 하는데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Bartsch 1987: 110-111) 성문화된 규범보다 강력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관습이란 규범을 따랐을 때, 언중은 공동체와 동일한 것을 공유하는 데서 오는 소속감과 안정감을 얻을 수 있었다.

로마자 표기법 제4항과 제7항에서는 각각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한다”,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실상 여러 논의에서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지 않는 세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다. 로마자 인명 표기에 대해 언중의 지식과 직관이 영성하다고 비판하지만(김세중 2000) 앞선 면담은 제보자들이 나름의 지식과 직관을 통해 특정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표기를 선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5. 결론

본고는 로마자 표기법을 따라 인명 표기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를 언중의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5명의 제보자들을 만나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미적 가치’, ‘한국어 발음과의 일치’, ‘다수의 선택’이라는 이유를 발견하였다.

일련의 연구 과정에서 필자는 다양한 논의거리에 봉착하였는데 모든 문제들은 ‘로마자 표기법과 언중의 삶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뤄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되었다. 로마자 표기법은 사실상 강제력이 매우 낮은 규범에 속한다. 한글 맞춤법이 법령의 수준과 유사하다면 로마자 표기법은 거의 관습의 수준에 머무른다고 할 수 있다. 제보자들은 로마자 표기와 관련하여 어떤 제재도 없었기에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부분이라고 여겼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둘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하는지의 문제에 마주한다. 다시 말하면, 강제력이 매우 낮은 규범이 언중의 삶의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고찰하는 일을 의미한다.

또한 로마자 인명 표기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의 의문도 지속되었다. 이는 로마자 표기법의 본래 목적을 상기시키는데 로마자 표기법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지명이나 인명들을 쉽게 읽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전사법이나 전자법이나 하는 논쟁은 차치하고 결국 로마자 표기는 외국인들과의 상호작용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은 반박의 여지가 없다.

본고가 만난 제보자들도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통일성 있는 표기가 외국인들과의 상호작용에 유용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본인의 이름에서는 다른 잣대가 적용되었다. 사실 지명의 로마자 표기

를 통일하는 것처럼 인명의 로마자 표기를 통일하면 읽는 이로 하여금 편한 것은 사실이다. 제보자들이 보이는 이러한 모순에서 로마자 인명 표기가 쓰는 사람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읽는 사람을 위한 것이냐라는 딜레마에 다다른다. 이는 로마자 표기법이 인명이라는 매우 특수한 범주에 대해서만 다른 관점을 취해야 하는 것인지, 더 나아가 어떤 방식으로 로마자 표기법은 효율성을 획득할 수 있는지의 고민으로 이어진다. 분명한 것은 규범이 언중과 상생하려면 규범은 언중의 삶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전히 본고에서 다루고 해결해야 할 논의가 남아있음을 인정하며 본고는 로마자 인명 표기와 관련하여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에 의문을 던지고 싶었다. 소수의 제보자들의 이야기로 논의를 전개했다는 점에서 본고의 논의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정체성 문제나 미적 가치의 문제 등 양적 연구로는 파악될 수 없는 구체적인 개인의 고민과 경험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김성원·김정우. 2012. “한국인명의 로마자표기 형식에 대한 연구”, 『정보관리연구』43(2). 199-222.
- 김세중. 1997. “국어의 로마자 표기 실태”. 『새국어생활』(국립국어원) 7(2). 45-58.
- 김혜숙. 2000. “주요 로마자 표기법에 입각한 한국인의 성 표기 문제점: 영어에 근거한 발음 및 의미”. 『사회언어학회』(사회언어학회) 8(1). 415-443.
- 김혜숙. 2001. “한국인의 로마자 인명 표기의 통일성과 일관성”. 『영어학』 (한국영어학회). 1(3). 417-435.
- 김혜숙. 2005. “초등 학교의 로마자 표기 교육: 영어 교과서와 지도서를 중심으로”. 『사회언어학회』(사회언어학회) 13(2). 127-148.
- 양병선. 2002. “성씨의 로마자 표기에 관한 제언”. 『인문과학연구』7. 157-195.
- 양병선. 2003. “우리말 한자 인명 로마자표기에 관한 연구”. 『언어학』 (대한언어학회) 11(4). 101-122.
- 양병선. 2005. “인명로마자 표기 실태 및 분석 : 국가대표선수를 중심으로”. 『언어학』 (대한언어학회) 13(1). 133-157.
- 양병선. 2006. “한글이름 로마자 표기에 관한 제언”. 『현대문법연구』 (현대문법학회) 43. 201-224.
- 이익섭. 1997. “로마자 표기법의 성격”. 『새국어생활』(국립국어원) 7(2). 5-26.
- 전홍식. 2004. “국어 로마자 표기 원칙의 언어 어문적 문제점과 사용 실태 연구”. 『언어과학』(한국언어과학회) 11(2). 219-236.
- 정경일. 1997. “한국인명의 로마자 표기 양상에 대하여”. 『한국언어문학』 (한국언어문화학회) 39. 171-186.
- 정경일. 1999. “독립신문의 로마자 표기방식”. 『한국어학』 (한국어학회) 9. 259-284.
- 정경일. 2001.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의 인식과 교육 실태”. 『이중언어학』 (이중언어학회) 18. 303-322.

- 정경일. 2010. “로마자표기의 규범과 현실 -회사명 표기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한국학연구소) 33. 63-91.
- 정경일. 2011ㄱ. “번역표기의 일관성과 로마자표기”. 「어문논집」(민족어문학회) 63. 49-75.
- 정경일. 2011ㄴ. “로마자표기법의 연구 성과와 대중화의 과제”. 「어문학」(한국어문학회) 114. 175-206.
- Bartsch, R. (1987), Norms of Language: Theoretical and practical aspects. London & New York: Longman.
- Sebba, M. (2009), Spelling and Socie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로마자 인명 표기의 실제: 언중의 입장에서”(심주희)에 대한 토론문

허인영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이 글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가운데 특히 인명에 초점을 맞추고, 한국인의 인명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데 있어 규범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면담조사를 통하여 언중의 입장에서 제시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제까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정부를 주체로 하여 만들어지고 홍보·교육되는 규범으로만 연구되어 왔다는 점에서, 실제로 여러 가지 표기가 가능한 인명을 지닌 개인을 인터뷰한 이 글은 새로운 관점과 방법론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읽으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글은 인명의 로마자 표기에서 규범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인터뷰를 통하여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분명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미적 가치’, ‘한국어 발음과의 일치’, ‘다수의 선택’이라는 ‘이유의 발견’을 제시하는 데 그친 것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글의 결론에서 제시한 질문들(강제력이 낮은 규범과 언중의 삶의 관계, 로마자 인명 표기의 주체 등)이 사실은 본문에서 더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었던(또는 논의되어야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발표자께서는 이 글 안에서는 거기까지 논의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신 것인지, 그리고 결론에서 제시한 문제들, 예컨대 인명의 로마자 표기법이 효율성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특히 고유명사의) 로마자 표기가 “외국인들과의 상호작용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은 반박의 여지가 없다”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만, ‘외국인’, ‘외국 사람’이 가리키는 대상이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컨대 (17)에서는 ‘율리’를 ‘Youl-y’로 적는 사례를 ‘연음 처리’라고 하며 음운 변화를 언급하였으나, 이것은 음운 변화의 반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국어에서 모음 간 ‘ㄹ’은 [r]로 실현되고 ‘ㄹㄹ’은 [ll] 내지 [l:]로 실현되는 반면, 영어에서는 [l]과 [r]이 음소 차원에서 구별되기 때문에 한국인은 영어의 모음 간 [l]을 ‘ㄹㄹ’로 적거나 발음합니다. 이러한 인식이 반대로 작용해서 ‘율리’의 ‘ㄹㄹ’을 ‘lr’이 아닌 ‘l’로 적게 된 것입니다. 일본어처럼 [l]과 [r]의 구별이 없는 언어에서는 ‘Youl-y’라는 표기를 보아도 [juri]로 발음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 글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외국인’은 은연중에 영어 모어 화자나 영어 사용자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외국인=영어 사용자’라는 인식은 또 다른 편향을 낳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져 왔습니다.

문교부에서 지정한 대로朴씨를 BAG이라 하면 「자루」나 「푸대」가 되어 美學上 좋지 않다니 PARK이라고 하면 「공원」이 되어 이 또한 좋을 것이 없다. PACK으로 하면 「짐」이나 「꾸러미」가 되고 BACK으로 하면 「등」 아니면 「뒤」 기껏해야 「후퇴」라는 뜻이 될 터이니

어떻게 해야 「미학상」에 좋은 것인가, 신(申, 辛)씨도 SHIN으로 하면 「넓적다리」고 SIN으로 하면 「죄」밖에는 안 되니 어찌할 것이며 심지어 「미우만」까지 MIWOOMAN으로 하면 「마이 워우만」으로 「나의 여자」가 된다니 [...] 무식한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동아일보』 1964.1.17. 「야릇한 로마字」)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된 지는 오래인 만큼 영어에서의 발음이나 어감을 감안해서 표기를 정하는 것이 문제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으나, 이러한 영어 편향이 옳은 방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어 화자의 인식에 맞춰 표기를 정하는 것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취지는 아닐 것 이기 때문입니다. 발표자께서는 로마자 고유명사 표기의 대상인 ‘외국인’이 곧 영어 사용자로 등치되는 전반적인 경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는 아이덴티티나 미적 가치, 발음의 표상은 이름 표기에서 두드러지는 반면, 전통 및 관습을 따르는 경향은 성씨 표기에서 강하게 나타난다는 지적이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성씨 표기에서 나타나는 관습은 앞서 이야기한 영어 편향과도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안-Ahn’은 영어의 모음자 ‘a, e, i, o, u’는 다른 자음자가 없으면 음가가 달라지므로 뒤에 ‘h’를 붙이는 것이고(‘서-Suh’도 마찬가지), ‘박-Park’은 ‘김-Kim’과 같이 오래된 표기인데²²⁾ 이는 ‘r’이 발음되지 않는 영국 영어의 반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²³⁾ 따라서 성씨 표기에서의 이른바 ‘관습’은 과거에 존재했던 현실 발음의 반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화-wha’의 대응이었습니다. ‘wh’는 본래 /hw/ 발음을 나타내는 표기였으나 지금은 ‘who-’로 시작하는 대명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영어 방언에서 [w]로 합류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화’는 발음을 반영하려면 (규범적인 표기인) ‘hwa’가 좋을 듯한데 오히려 ‘wha’로 적고 있습니다. 글에는 그 이유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발표자께서 면담 과정에서 이유를 들었다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적은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 과정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제보자 선정의 기준으로 ①인명의 발음이 어려움 ②복수의 표기가 존재하는 성씨 ③고정된 로마자 표기를 따르는 성씨의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든 제보자마다 한꺼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보자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좋을 듯합니다.
- 각주 12)의 내용만 보면 그래서 결국 손석희는 자기 이름을 로마자로 어떻게 표기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Sohn Sukhee’라는 것을 언급해 주면 더 친절할 듯합니다.
- 10쪽: 선택할 수 부분이라고 →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22) 『동아일보』 1928.3.14. 「世界와 運動: 歐羅巴列國의 運動界印象 (五)」 “그 屬한 俱樂部에서 報酬를 바드면 그 저 Park이라 하여 이름을 쓰지 아니하고 職業이 아니면 S.Y.Park이라 하여 반드시 『이니셜(이름의 首字)』를 넣는다”

23) 따라서 제보자4가 자신의 성씨 표기인 ‘박-Park’에 대해 “영어로 했을 때는 팔크 이렇게 되잖아?”라고 했을 때 ‘영어’는 미국 영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82차 한국어학회 전국학술대회

<기획 발표>

❶ [기조강연] 관용표현 연구의 현황과 전망

문금현(숙명여대)

❷ 의미-텍스트 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본 관용표현의 특성

임근석(국민대)

❸ 구문적 속어와 관용표현

최종원(서울대)

❹ 한국어 교육을 위한 관용표현 연구

유태준(상지대)

❺ 관용표현의 사전 처리 방향

김혜령(고려대)

❻ 데이터 기반 관용표현 연구

김한샘(연세대)

관용표현 연구의 현황과 전망

문금현(숙명여대)

1. 머리말

관용표현은 지금까지 국어학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꾸준히 연구해 온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국어의 관용표현 연구(1996)’를 발표할 때에 박사학위 논문은 강위규(1990) 한 편이었지만 석사학위 논문은 수십 편에 달했다. 그 때까지의 관용표현 연구사를 보면 1기는 최초의 연구인 초은옹(1911)을 시작으로 자료 수집 차원의 연구가 이루어진 1960년대, 2기는 체계적인 최초 연구인 김종택(1971)을 기점으로 기초적 이론 구축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진 1970년대, 3, 4기는 이론 심화 차원의 연구와 의미·화용론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1980년대, 5기는 체계적인 이론 정립을 한 강위규(1990) 등의 연구가 이루어진 1990년대 전반, 6기는 이론의 재정립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진 1990년대 후반으로 나눌 수 있다(문금현 1996a:1-7).

이후 김문창(2003)에서 한국어 관용표현 연구 약사를 다루었고, 심지연(2005)에서는 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관용어의 개념 규정, 의미론적 분류, 어휘 의미론 관련 연구, 개별 관용어 의미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1975년부터 2005년까지의 연구를 총정리하였다. 1기(~1989)는 개념 규정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 관용어 의미 연구의 여명기, 2기(1990~1999)는 관용어에 대한 의미론적 연구가 다양하고 활발하게 시도된 시기, 3기(2000~2005)는 관용어에 대한 의미론적 연구가 새로운 방향에서 모색된 시기라고 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2000년 전후부터 최근에 이르는 20년 동안 관용표현 연구에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관용표현에 대한 국어어미론에서의 연구도 계속 이어졌지만 국어교육, 특히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에서 많은 연구가 있었으며, 사전학적인 관점과 자연언어 처리 관점에서의 관용표현 연구가 새롭게 이루어졌다. 주로 응용언어학적인 차원에서 관용표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관용표현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먼저 관용표현 전반에 대한 개관을 하고 나서 연구 현황을 살펴보겠다. 관용표현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로 관용표현의 용어와 개념 및 요건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관용표현의 유형을 형식 단위, 의미 내용, 의미의 투명도에 따라서 분류하며, 관용표현의 판별 기준을 경계선 상에서 비교되는 다른 개념들과 함께 논의한다. 통시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관용표현의 생성과 소멸도 다루고, 통사적 제약, 화용적 양상, 사전적 처리 문제도 제시한다.

그리고 관용표현의 연구 현황에 대해서는 먼저 국어어미론에서 이루어진 관용표현 연구를 용어와 개념, 범주 문제, 의미적 특징과 통사적 제약, 그리고 혼동되는 다른 개념들과의 구분,

화용적 사용 양상, 다른 언어와의 대조 연구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다음으로 관용표현 교육에 대한 연구는 국어교육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사전학적 관점과 자연언어 처리 관점에서는 관용표현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 현황을 통해서 앞으로 관용표현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남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관용표현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

2.1. 관용표현의 용어, 개념과 요건

관용표현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는 그간 논의가 많았지만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금현(1996a:17)에서는 기존 용어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는데 이후 ‘관용표현’으로 정착하였다고 본다.

관용구 - 노수련(1936), 이훈종(1961), 김민수(1964) 등

관용어 - 김종택(1971), 임경순(1979) 등

숙어 - 김문창(1974), 심재기(1986) 등

익힘말 - 황희영(1978)

관용표현 - 강위규(1990)

익은말 - 김혜숙(1993)

‘관용표현’은 넓은 의미로는 속담, 격언, 고사성어, 금기담 등을 포함하고, 좁은 의미로는 순수 관용표현에 국한된다. 순수 관용표현은 형식 단위로 관용어, 관용구, 관용절, 관용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관용구절’이 대표성을 띤다. ‘관용구절(慣用句節, idiomatic phrase)’은 습관적으로 굳어져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들을 말한다.

관용표현이 되기 위한 조건은 상당히 까다롭다. 언어 내외적인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되는데 언어 내적인 조건으로는 구성 요소의 합이 아닌 제3의 의미를 가져야 하고,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가진 대응 쌍이 있어야 하며, 수사법상 비유표현이되 죽은 은유표현으로 유연성(有緣性)이 없어야 한다. 그리하여 의미가 비합성적(非合成的)이고, 같은 표현이 두 의미를 가지기에 중의적(重義的)이며, 글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기에 불투명(不透明)한 특징을 가진다. ‘눈을 감다’의 예를 보면, ‘눈을’과 ‘감다’가 합쳐진 의미가 아닌 [죽다]의 관용의미가 생겼으므로 비합성적이고, 같은 표현 ‘눈을 감다’가 [신체의 눈을 감다]와 [죽다]의 두 의미를 가지기에 중의적이며, 글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닌 [죽다]를 가지기에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언어 외적인 조건으로는 넓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2.2. 관용표현의 유형 분류

관용표현은 언어 형식 단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단어 차원 -> 관용어; 놀부심보, 들은풍월, 억지춘향

구 차원 -> 관용구 - 체언형 관용구; 그림의 떡, 누워서 떡 먹기, 우물 안 개구리, 하늘의 별 따기

- 용언형 관용구; 등을 돌리다, 뒤통수를 치다, 손을 떼다, 불난 데 부채질하다

- 부사형 관용구; 강 건너 불 보듯, 눈 깜빡할 사이에, 쏜 살 같이

절 차원 -> 관용절 - 서술형 관용절; 간덩이가 붓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 부사형 관용절;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귀에 못이 박히게

- 관형형 관용절;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옆드리면 코 닿을 데

문장 차원 -> 관용문; 빈대도 낮 짝이 있다, 코빼기를 볼 수가 없다, 내 코가 석자다

의미 내용에 따라서는 다음 네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감정 및 심리 표현 관용구절이 많고 사용빈도도 높아서 자주 쓰이는데 특히 부정적인 감정표현의 사용빈도가 높다.

감정 및 심리 표현; 눈에 들다, 사족을 못 쓰다, 애가 타다, 열을 받다,

행위 표현; 고춧가루를 뿌리다, 입이 무겁다, 한 우물을 파다

상황 표현; 뻘도 박도 못 하다, 음지가 양지되다, 흙런을 치다

일이나 존재 표현; 땡 대신 닭, 황금 알을 낳는 거위

의미의 투명도(透明性)에 따라서는 다음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불투명한 유형; 산통을 깨다, 시치미를 떼다

반불투명한 유형; 개밥에 도토리, 수박 겉핥기, 우물 안 개구리

반투명한 유형; 무릎을 꿇다, 불난 데 부채질하기, 시집을 가다, 이미 옆질러진 물

불투명한 유형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사건이나 이야기 속에서 나온 예들이 많아서 설명을 듣지 않고서는 의미 생성 과정을 유추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들이다. 예를 들어 ‘산통을 깨다’는 [일이 처음부터 잘못 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여기서 ‘산통(算筒)’은 옛날에 맹인이 점을 칠 때 산가지를 넣는 통으로 여기에 산가지를 넣어서 흔들다가 산가지를 뽑아서 점을 치는데 산통이 깨져 버리면 그날 점을 칠 수가 없게 되므로 일을 시작하지도 못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이러한 옛날이야기를 모르면 관용의미를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불투명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시치미를 떼다’도 마찬가지이다. ‘시치미’는 매의 주인을 밝히기 위하여 주소를 적

어 매의 꿈지 속에다 매어 둔 네모꼴의 뿔을 말하는데 남의 매를 훔쳐서 시치미를 떼 후에 자기 매인 것처럼 하는 행위에서 나온 말이다. 이런 배경 이야기를 모르면 관용의미 [자기가 하고도 하지 아니한 체하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체하다]를 이해하기 힘들다.

반면에 반투명한 유형은 관용의미를 유추하기가 비교적 쉽다. ‘무릎을 꿇다’는 [항복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다. 누구나 무릎을 꿇고 비는 행동을 보면 잘못을 시인하고 항복하는 것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관용의미를 이해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이미 엎질러진 물’도 물을 엎지르면 주워 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상황을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관용의미를 쉽게 떠올릴 수 있다.

반불투명한 유형은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수박 겉핥기’가 수박 겉을 아무리 핥아 봐야 안에 있는 것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을 말하고, ‘우물 안 개구리’가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처한 답답하고 세상을 모르는 상황을 말해주기에 의미의 유추가 쉽지는 않지만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 투명성의 정도를 누가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유형 분류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라면 ‘산통, 시치미’뿐만 아니라 ‘우물’도 고어(古語) 수준으로 모르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물 안 개구리’도 불투명 유형에 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연처리에 있어서는 불투명성이 강한 관용표현이 중의성이 약하고 불투명성이 약한 관용표현이 중의성이 강하여 후자가 번역 처리에 있어서는 오류가 덜 나타난다.

관용표현이 전반적으로 구어적인 특징을 띠고 있지만 사용 상황에 따라서 구어적인 관용표현과 문어적인 관용표현으로 나눌 수 있다.

구어적 관용표현: 속을 썩이다, 속이 타다, 열불 나다, 속이 터지다, 열 받다

문어적 관용표현: 검은 돈 세탁, 뜨거운 감자, 빨간불이 켜지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구어적 관용표현은 부정적인 감정표현을 한 것이 많다. 구성 단어로 비속 접미사 결합 파생어를 선호하고, 조사 생략형으로 많이 사용되며, 비속어, 은어, 유행어적 성격이 강하고, 화용적인 표현 양상이 다양하다. 문어적 관용표현은 어떤 현상을 대표하는 표현이 많아서 기사의 소재목으로 자주 나오는데 풍자성이 있어서 정치면에 많이 쓰이고, 함축성과 상징성이 있어서 생략형으로 많이 쓰인다.

2.3. 관용표현의 판별 기준

관용표현과 경계선상에서 비교되는 개념을 보면, 관용어와 합성어, 관용구절과 연어, 관용구절과 상용구절, 관용문과 속담문을 들 수 있다.

먼저 단어 차원에서 보면, 관용어와 합성어의 구분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관용어 ‘놀부심보, 들은풍월, 억지춘향’은 합성어라 할 수 있고, 관용구절 ‘애가 타다, 기가 막히다’에서 조사를 생략한 ‘애타다, 기막히다’도 합성어라 할 수 있으며, 관용구에서 구성 요소 일부가 생략되

어 단어만 남은 ‘오리발’같은 예들도 있다(애초에 융합합성어로 생성된 것들은 관용어에서 제외한다).

구절 차원에서 보면, 관용구절과 연어의 구분 문제가 있다. 단어와 단어가 결합되어 구절을 이루면서 의미가 결합되는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두 단어가 단순 결합된 ‘일반구절’이 있고, 특별하게 긴밀한 구성 관계를 가지는 ‘연어(連語)’가 있으며, 긴밀한 구성 관계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는 ‘관용구절(慣用句節)’이 있다. 연어와 관용구절 중간에 한 단어(밑줄 친 단어)만 의미가 다의화된 ‘상용구절’이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일반구절: 기차를 타다, 밥을 먹다, 옷을 입다, 학교에 가다

연어: 기대를 걸다, 기지개를 켜다, 떼를 쓰다, 머리를 감다, 코를 풀다

상용구절: 손이 크다, 속이 없다, 더위를 먹다, 마음을 놓다

관용구절: 눈을 감다, 미역국을 먹다, 바가지를 굶다, 시치미를 떼다

일반구절은 단어의 결합관계가 느슨하게 열려 있어서 다른 단어들과의 결합이 자유롭다. 예를 들어 ‘기차를 타다’에서 ‘기차’대신 ‘버스, 자전거, 택시, 비행기’가 자유롭게 결합될 수 있고, ‘밥을 먹다’에서 ‘밥’대신 ‘떡, 빵, 죽’이 자유롭게 결합되며, 반대로 ‘먹다’대신 ‘만들다, 버리다, 사다, 주다, 하다’등이 자유롭게 결합된다.

그런데 연어나 관용구절은 이와 달리 결합관계가 제한되어 있어서 다른 단어와 결합하면 의미가 어색하거나 본래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특징을 가진다. 예를 들어 한국인들은 ‘머리를 감다’라고 하지 ‘머리를 빨다, 머리를 씻다’라고 하지 않는다. 또한 ‘기지개를 켜다, 떼를 쓰다, 코를 풀다’라고 하지 ‘켜다, 쓰다, 풀다’대신 ‘하다’ 등 다른 동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일반구절과 연어는 $A+B=AB$ 의 의미를 가지는데 연어는 특정 어휘 A가 다른 어휘 B를 요구한다거나 특정 어휘 B가 다른 어휘 A를 요구함으로써 제한적인 공기관계를 갖는 반면 일반구절은 자유로운 대치를 보이는 점이 다르다. 연어는 둘 이상의 단어가 축자(逐字)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긴밀한 결합관계를 형성하는 어군으로 출현 빈도가 높고 심리적인 현저성(顯著性)이 높다. 그런데 관용구절은 $A+B=C$ 가 되어 C라는 관용의미를 갖는다. 즉 두 구성 요소가 의미의 전이를 겪어 제3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연어를 일반구절과 관용구절의 중간자로 간주할 수 있다(문법적 연어는 제외하고 어휘적 연어만 다룬다).

또한 결합구성 단어 중 한쪽만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상용구절(常用句節)이라 하여 구분한다. 밑줄 친 단어의 의미만 달라진 것이다. ‘손이 크다’는 [썸썸이가 크다]는 의미이다. 구성 단어 중 ‘손’은 [hand]의 의미에서 [scale]의 의미로 달라졌지만 ‘크다’는 의미가 그대로 유지된다. ‘속이 없다’도 [철이 없다]는 의미인데 구성 단어 중 ‘속’은 [내면, inside]의 의미에서 [분별력, discretion]의 의미로 달라졌지만 ‘없다’는 의미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런 점에서 상용구절은 관용구절과 다르며, 연어와 관용구절의 중간자로 간주할 수 있다. 구절들의 차이점을 다음 표로 정리할 수 있다.

	관용구절	상용구절	언어	일반구절
의미 구조	A+B=C(제3의 의미) 미역국을+먹다=시험에 떨어지다	Aa+B=AaB=A'B, A+Bb=ABb=AB' 손이+크다=썸썸이가 크다 마음을+놓다=마음을 편안하게 하다	A+B=AB 머리를+감다=머리를 감다	A+B=AB 밥을+먹다=밥을 먹다
의미의 투명성 (유추 가능성)	불투명	반투명	투명	투명
비유성여부	有	有無	無	無
분석가능성	불가능	가능	가능	가능
구성요소 대치	제약	반제약	반제약	자유 대치
통사적 제약 (대치/생략/도 치/첨가 등)	強 ->불가능한 경우 -그림의 떡/*인절미 -바가지/*세숫대야를 굶다 ->가능한 경우 -바가지를(박박) 굶다 -내 코가 석자(다섯자)다 -불 난 데에 부채질하나/ 불 난 데에 선풍기 불리나	弱 -어색하지만 가능함 -손이 크다/손이(엄청)크다 -마음을 놓다/마음을(턱) 놓 고 있다	無 -늘 가능함 -머리를(날마다)감다/ 머리를(깨끗하게)감다/ 머리를(미장원에 가서) 감다	無 -늘 가능함 -밥을(많이)먹다/ 밥을(안)먹다/ 밥을(깨작거리 면서)먹다

문장 차원에서 보면, 관용문과 속담문의 구분 문제가 있다. 관용문은 순수관용문과 속담적 관용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어떤 사실에 대한 비유만 있지만 후자는 풍자성을 띠고 있어서 사용 화맥에 따라서 속담문과 뚜렷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속담적 관용문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다’의 경우 화맥에 따라서 풍자성이 강하게 쓰이기도 하지만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과 마주쳤다]는 비유의미만 가지기도 한다. 그런데 속담문 ‘등잔 밑이 어둡다’는 화맥에 따라서 풍자성이 약해지기도 하지만 속담적 관용문처럼 비유의미만 남지는 않는다는 것이 다르다.

A: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하필이면 거기서 그 사람을 만난 거 있지.

A': 나 아침에 엘리베이터에서 철수를 만났어. B': 그래?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네.

A: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범인을 코앞에 두고 헤매고 다녔어.

A': (동료 경찰관에게) 그 여자를 살해한 범인은 남편이었는데 난 그동안 헛다리만 짚었어.

B': 자네가 등잔 밑이 어두웠구만.

2.4. 관용표현의 생성과 소멸

관용표현의 생성 배경을 보면, 자신의 감정을 과장 및 강조해서 언어 심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강조표현이나 완곡표현, 신선한 표현들이 있고(애가 타다, 눈을 감다),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생성된 것들이 있으며(감투를 쓰다, 시치미를 떼다),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와의 교류에 의한 새로운 문명의 유입으로 생기기도 하고(비행기를 태우다), 다른 나라 것을 차용해 오기도 한다(티끌 모아 태산).

생성 유래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자생된 관용표현은 역사적 사건 및 고사(故事), 고기록, 문학 작품에서 유래된 것, 특수용어나 대중매체에서 유래된 것들이고, 차용된 관용표현은 중국 고사성어의 영향을 받은 것이 가장 많으며(새옹지마, 그림의 떡), 일본어 관용표현의 영향도

많고(귀에 못이 박히다), 서구외래어의 영향을 받아서 생성된 것들도 있다(뜨거운 감자, 히트를 치다).

관용표현의 변화 과정을 보면, 형식상으로는 축소 현상이 많이 일어나 관용구절이 조사 생략으로 합성동사화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기(가)막히다, 애(가)타다), 관용문이 관용구절이 되거나(닭 잡아 먹고 오리발 내민다 => 오리발 내밀다) 관용구절이 단어가 되는 경우도 있다(오리발 내밀다 => 오리발)

관용표현이 소멸되는 원인으로는 첫째, 유의 경쟁에서 패배한 경우를 들 수 있다. 16세기 연간 자료를 보면,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고유어 관용구‘몸 브리다’가 여러 번 나오다가 17세기 이후의 자료에는 전혀 나오지 않고 대신‘몸 풀다’와 ‘해산하다’가 나온다.‘몸 브리다’가 언제 사어화(死語化)되었는지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만,‘해산(解産)하다’라는 한자어와의 유의 경쟁에서 졌기 때문에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는 구성 단어에 고어 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단어가 포함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관용표현들은 언중들이 축자의미와 관용의미 사이에서 유연성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여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므로 점차 사용하지 않거나(변죽을 울리다, 암생이 치다) 다른 단어로 대체되기도 한다(눈에 침개가 썩다 → 눈에 콩깍지가 썩다). 또한 언중의 호응을 얻지 못하면 정착하지 못한다(배 찌고 등 따).

2.5. 통사적 제약

흔히 관용구절은 통사적 제약이 심하다고 하는데 관용구절의 유형에 따라서 제약 양상에 차이를 보인다. 대표적으로 대체와 삽입 현상을 예로 들어 그 제약의 정도를 비교하겠다. 먼저 대체 현상을 보면, 관용구절은 구성 단어의 대체 결합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시치미를 떼다’에서 구성 단어인‘떼다’ 대신 유의어 ‘뜯다’를 사용하더라도 의미가 전혀 달라지면서 관용의미가 사라진다.‘우물 안 개구리’도 이 형식 그대로 사용이 굳어져서‘안’과 의미가 같은 유의어‘속’을 대신해‘*우물 속 개구리’라고 하면 관용의미가 없어진다.‘그림의 떡’도 ‘떡’대신 떡의 일종인‘인절미’를 대체하여‘*그림의 인절미’라고 하면 가지고 있던 관용의미를 잃게 된다. 그런데 다음 예들은 통사적 제약을 심하게 받지 않아서 다른 단어를 대체해서 사용하는 화용적 양상을 볼 수 있다.

불 난 데 부채질하다 -> 불 난 데 선풍기 돌리다

내 코가 썩 자다. -> 내 코가 다섯 자다

삽입 현상도 마찬가지다.‘그림의 떡’에서 두 단어 사이에‘찰’을 넣어서‘*그림의 찰떡’이라고 하면 관용의미가 사라지게 된다. 그런데 다음 예들은 통사적 제약을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쓰인다.

바가지를 굶다 -> 바가지를 (또/날마다/박박) 굶다

애가 타다 -> 애가 (너무/조금) 탔어.

열을 받다 -> 열 (많이) 받았겠네. 열을 (너무) 받아서 머리가 지끈지끈하다.

대치나 삽입의 경우 대체로 체언형 관용구절은 제약이 가장 심한 편이고, 용언형 관용구절은 상대적으로 제약이 덜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체언형과 용언형의 유형에 따라서 제약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통사적 기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인다.

2.6. 화용적 양상

관용표현은 담화상 실현되는 표현 양상과 의미 양상이 다양하여 실제 담화상 의미 양상이 어떻게 실현되고, 화자의 여건이나 발화 상황에 따라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에 특히 주목한다. 속담은 인용 형식이 있어서 사전 등재형이 그대로 쓰이기도 하지만, 관용구절은 실제 담화에 이용될 때에는 어느 정도 변개되어 쓰인다. 가장 일반적인 현상은 관용표현의 구성 요소 일부를 적절한 유의어로 대체해서 쓰는 경우이고, 구성 요소를 생략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일정한 문맥만 주어지면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관용표현이 실제 언어생활에서 사용될 때, 화자의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관용표현은 문어체보다는 구어체에서, 격식체보다는 비격식체에서, 공적인 대화보다는 사적인 대화에서 많이 쓰이는 경향이 있다. 세대차, 남녀차, 직업차 등과 같은 화자의 여건에 따라서도 사용상의 차이를 보인다.

2.7 사전학적 고찰

사전의 거시 구조적 측면과 미시 구조적 측면으로 나누어 제공해야 할 정보를 살펴보겠다. 거시 구조에서 먼저 배열의 문제를 보면, 표제항을 사전에 한글 자모순으로 배열하는 방식과 구성 요소 중 핵심적 의미를 가진 단어의 밑에다 넣는 재배열 방식이 있는데 후자는 관용표현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그 핵심 단어를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일반 사전에 실을 때는 한글 자모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찾기 쉽게 첫 단어의 뜻풀이 다음에 행을 바꾸어 배열하는 것이 실용적이다. 관용표현은 그것의 주표제어와 무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성격상, 하나의 독립된 표제항으로 분할 배열하여 올려 주어야 한다. 상용구절은 핵심 명사류 밑에 재배열하는 것이 서로의 의미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도 효율적이지만, 관용구절은 구성 명사류와 관용의미 사이에서 관련성을 찾기가 어려우므로 독립된 표제항으로 따로 등재하여 분할 배열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미역국 먹다’를 의미상 아무런 관련도 없는 ‘미역국’ 밑에 재배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관용표현 사전에서의 배열 방법은 한글 자모순 배열과 주제별 분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글 자모순으로 배열하는 경우는 뒤에다 중심 어휘순(용언순/ 명사순) 배열을 해서 중심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관용구절을 제시해 주는 방식을 취해야 편리하다. 주제별로 배열하는

경우는 뒤에다 한글 자모순으로 배열된 전체 항목의 색인을 첨부하고, 해당 페이지를 알려 주어야 한다. 사전을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배열 방식을 다르게 하겠지만(글 쓰는 사람이나 번역하는 사람, 우리말을 배우는 외국인들에게는 주제별 분류 사전이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 두 유형의 사전을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관용표현의 표제항 배열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경계를 넘나드는 중간자 성격을 띠는 것들에 대한 처리이다. 합성어와 관용표현의 경계를 서로 넘나드는 관용구적 합성어와 관용절적 합성어는 조사 생략형과 조사 결합형을 모두 표제항으로 등재하되, <예 ㄱ>과 같이 후자에만 뜻풀이를 해 주고, 나머지는 찾아가 보기(⇒) 표시를 해 주면 된다. 또 속담문과 순수 관용표현의 경계에 있는 속담적 관용구나 관용절, 관용문 등은 속담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밝혀 주어야 한다. 속담에서 유래한 것들은 <예 ㄴ>과 같이 뜻풀이 앞의 유래항에다 어떤 속담에서 왔는지도 밝혀 주어야 한다. 경계상에 연계되어 있는 것들은 상관관계를 표시해 주어야 한다.

<예 ㄱ>

애(가) 타다 ㉠ 뜻풀이 /= 약속 시간까지 도착하지 못할까봐 「애가 났다」

애타다 「합성 동사」 ⇒ 애(가) 타다

<예 ㄴ>

오리발 ㉡ 「1」오리의 발. 「2」수영할 때 끼고 하는 오리발 모양의 수영 도구. 「3」(‘오리발을 내밀다’라는 관용구가 생략되어) 어떤 행동을 하고도 인한 척 잡아떼는 행동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또 「오리발이냐」?

오리발을 내밀다 ㉢ (‘닭 잡아먹고 오리발을 내밀다’라는 속담이 줄어들어) 뜻풀이 /= 그는 자기가 안한 것처럼 「오리발을 내밀었다」

일반사전의 미시 구조에서 관용구절이 갖추어야 할 기본 정보로는 뜻풀이 정보와 예문, 그리고 의미적 상관관계(유의.반의 관계)에 대한 정보, 형식상 경계 사이에서 넘나드는 부류들에 대한 연계성 제시 등을 들 수 있다. 사전은 총체적 정보를 요구하므로 이제까지 이루어 놓은 국어학 관련 모든 연구 결과가 자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첫째, 음운론적인 정보를 들면, 음장에 변화를 주어야 관용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들(예 : 놀고 있네/놀~고 있~네, 잘 논다/자~알 논다)에 대해서는 음운 정보가 필수적이다. 둘째, 형식 단위나 의미 특성이 비슷하여 관용구절의 경계에 존재하고 있는 부류들(다의어, 합성어, 연어, 상용구절, 수사표현들, 속담)에 대해서는 ‘일러두기’에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그들이 어떤 차이를 가져서 관용표현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고 제외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셋째, 관용구절의 의미는 축자의미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생성 유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뜻풀이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유연성이 어느 정도 느껴지는 것들은 어원 정보를 제공해 주면 된다. 어원 정보는 () 안에다 제공하고, 생성 유래에 대한 정보는 (()) 안에다 제공하는 식으로 구분해 준다. 넷째, 어휘·의미에 있어서 특수한 양상을 띠고 있는 은어적 관용구절은 <隱>으로, 속어적 관용구절은 <俗>으로, 전문어적 관용구절은 <專>으로 표시하여 일반

관용구절과의 차이를 구분해 주어야 한다. 다섯째, 뜻풀이는 실제 대화나 이론적인 것에 바탕을 둔 자료에서 의미를 추출해 내고, 여러 의미를 가진 관용구절은 예문을 제시하여 문맥에서의 의미 차이를 밝혀 주어야 한다. 여섯째, 풍부한 예문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일곱째, 유의적, 반의적 관계에 대한 정보를 <<類>>, <<反>>으로 표시하여 서로의 관련성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유의관계에 있는 것들은 그들 사이의 미세한 의미 차이도 밝혀 주어야 한다. 관련 항목에 대해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참고 표시(☞)를 해준다. 미시 구조의 틀과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제항 /음운 정보/ 「형식 단위」 ((유래 정보)) <俗/隱/專> ① 뜻풀이 {부차적 의미 특성} /= 예문 /\$ ② 뜻풀이 {부차적 의미 특성} /= 예문 /\$ ③ 뜻풀이 {부차적 의미 특성} /= 예문 /\$ <<類>> (유의 관계에 있는 것들 사이의 차이) <<反>> ☞ 기타 관련 표제항

미역국(을) 먹다 ㄹ ((미역이 미끌미끌한 데서 유래하여)) <俗> 시험에서 떨어지다 {조롱} /= 이번에도 대학 입시에서 「미역국을 먹고」 말았다/<<類>> 고배를 들다/ 마시다// 물을 먹다(포괄적).

바가지(를) 굶다 ㄹ ((예전에 콜레라를 퇴치하기 위해서 바가지를 시끄럽게 굶고 다녔다는 데서 유래하여)) 아내가 남편에게 잔소리하다 {해학}/= 술 마시고 늦게 귀가한 다음날 아침이면 으레 마누라 「바가지 굶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새끼를 치다 ㄹ ((예전에는 가축의 새끼를 쳐 가산을 늘린 데서 유래하여)) <俗> ① 이자를 늘리다/= 이 돈을 가지고 「새끼를 잘 치면」 내년까지 천만원을 만들 수 있을 거야/ <隱> ② 미팅에서 자기가 잘 되어 서로의 친구를 다시 소개시켜 준다. {해학} /= 이번에 미팅 나가서 잘 되면, 나한테도 「새끼 쳐 줘야」 해.

시치미(를) 떼다 /시치미~시침/ ㄹ ((예전에 매의 주인이 주소를 적어 매의 꼬리에다 시치미를 매어 두었는데, 이것을 떼어내고 자기 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모른 척 했다는 데서 유래하여)) 알고도 짐짓 모르는 체하다 {야유} /= 분명히 자기가 해 놓고도 안한 것처럼 「시치미를 떼는」 것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었다/<<類>> 오리발 내밀다(생성 배경의 차이)/ 입을 찢다(어떤 물질적인 이익을 가로챈 뒤).

3. 관용표현에 대한 최근 연구 현황

3.1. 국어의미론에서의 관용표현 연구

관용표현에 대한 국어학적인 연구는 범주 설정이나 유형 분류, 의미 특성, 통사적 제약, 관용표현과 경계선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구별 문제가 다루어졌고, 한국어와 외국어 관용표현의 대조 연구가 많아졌으며, 인지의미론적인 연구도 이루어졌다.

3.1.1 용어와 개념, 범주 문제

언어와 관용구절, 상용구절과 관용구절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속담까지 다 포괄적으로 관용표현에 넣어서 다룬 논문, 자료집, 사전 등이 많이 있어서 관용표현의 용어와 개념, 범주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나왔다.

박세영(2001)은 관용구의 판정 기준으로 '반의관계에 있는 쌍을 찾을 수 없음'을 새롭게 추가했다. 그러나 반의관계에 있는 관용구가 존재한다(가방끈이 짧다↔가방끈이 길다, 손을 떼다↔손을 잡다, 입이 가볍다↔입이 무겁다). 그리고 관용표현의 범위와 유형 및 범주적 정체성 확립에 대한 문제(민현식 2003, 박만규 2003), 한국어 관용어와 관용표현의 관계(황정아 2006)가 다루어졌다.

속담은 기존 연구나 사전에서 여전히 모호한 경계를 가진 범주로 존재해 왔기에 관용어와 속담의 관계성을 연구하였고(정은주 2005), 주영진(2001)은 속담이 관용어로 변해 가는 과정에 '속담 관용어'의 중간 단계를 두고 문법화 이론을 적용하였으며, 세종 속담 전자사전에 대한 연구에서는 속담과 관용구절 속담을 어휘적 관용표현과 구분하여 처리하는 기준으로 '논항 지배 여부'와 '시제 변이 여부'를 꼽았다. 그러나 속담이 문맥에 따라서 축자의미로 실현되기도 하고 한 문장 내에서 다시쓰기가 가능하다는 기준이나 교훈성과 풍자성을 가졌다는 기준, 형태 구조적으로 간결하고 운율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기준 등은 결정적인 준거라 될 수 없다고 했다(호정은·박만규 2005). 그 밖에 속담·사자성어를 활용한 관용표현 연구(최본 2011), 한국 한자어 관용표현의 유형 연구(모춘매 2006)도 있고, 오옥정(2012)은 '먹다'류 관용적 언어의 단어화 과정을 다루었다.

김문창(2003)에서도 한국어 관용표현 연구사를 정리하면서 언급했듯이 '관용표현' 개념론은 거의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으나 섬세한 면에서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실제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목록들을 살펴보았을 때 정확한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남아 있다. 여전히 관용표현의 하위 유형이 명쾌하게 나누어지지 못하고 있고, 예들의 분류도 혼선을 겪고 있다. 경계선 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인식과 구분도 정확하지 않다. 특히 'A+B=AB'와 'A+B=AB' 또는 A+B=AC' 즉 구성 단어 한쪽만 다의화를 겪은 유형들(눈[시선]이 많다, 눈[시력]이 나쁘다)을 언어에 넣기도 하고 관용구절에 넣기도 하여 논의하고 있다. 언어학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경계선 상에 중첩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처리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앞으로의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1.2 의미론적 접근

관용표현에 대한 의미론적 접근의 연구는 은유와 환유의 상호 작용성 연구(이수련 2006)를 비롯하여 다의와 연관된 것들로서 관용표현의 어휘의미 확대 양상과 유형(고아라 2011, 김서형 2013)이 있고, '눈'관용표현을 중심으로 구성요소의 다의성에 대한 연구(백석원 2012) 및 색채어 관용표현을 대상으로 한 의미 확장 양상 연구가 있다(장혜정 2008, Fan Qiqi 2018). 관용성의 의미 척도에 대한 연구(하진희 2006, 김억조 2011)도 있다.

관용표현에 대한 인지의미론적인 연구의 시작이 새로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심지연 2009) 특히 색채어 관용표현에 관심을 보여 문금현(2013)은 색채어의 다의화 과정과 비유적인 상징의미 형성 과정을 통해서 관용표현에 갖는 인지의미의 특징과 우리 민족의 색채 의식에 대한 긍정성과 부정성을 밝혔고, 심혜연(2020)은 색채 관용표현에서 '의미의 합성성'을 찾을 수 있다고 한 점이 새롭다. 위진경(2020)은 한국어와 스페인어의 색채어 관용표현에 나타나는 개념 은유와 환유 양상을 비교 분석하였다. 미각어 관련 고정표현에 나타난 다의화와 인지의미의 양상도 연구되었으며(문금현 2015), 친족어 관용표현의 개념화 양상 연구도 있다(김정아·송현주 2013).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개별 관용표현 의미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의 경향이 나타났는데 신체어 관련 관용표현을 다룬 것이 가장 많았다. 신체 전반을 다루기도 하고(정인남 2004), 신체어 중 빈도수가 높은 '눈, 손, 입, 귀, 코' 관련 관용표현을 중심으로 하기도 하였으며(박명아 2001), '머리'(박종갑 2009, 구현정 2011)나 '발' 관련 관용표현의 의미 확장을 연구하였다(황현숙 2003). 신체 내부인 감정표현 관련 관용표현도 많이 다루었는데(김향숙 2001, 고음 2009, 최석재 외 2011, 최석재 2012), 감정표현 중에서도 분노 감정관용표현에 대한 연구가 많았으며(정성미 2008), 특히 용은미(2000)는 관용의미가 단순히 어휘의미의 합성은 아니지만 분노 감정표현은 은유적으로 동기 유발되었기에 합성적인 면이 있고 의미 연상이나 예상이 쉬워 투명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그 밖에 동물 어휘 관련 관용표현에 대한 연구(변명선 2000, 한명주 2019), 의식주 관련 관용표현의 동기화 양상(송현주 2017)이나 '산'의 개념화 (조경순 2017), 지명 관용어(이윤제 2010), 방언 관용표현(이태영 2020) 연구가 있다.

관용표현에 대한 새로운 의미론적 접근은 그동안 관용표현의 대표적인 의미의 특성이라 했던 비합성성과 불투명성에 대한 반론들이다. 불투명성의 기준이 주관적인 경향이 있다는 지적과 관용표현도 의미가 투명하고 합성적인 것들이 상당수 있다는 논의가 제기된 점이 특징적이다.

관용표현 의미의 비합성성에 이의를 제기한 연구로 김진해(2003, 2010), 심지연(2009)이 있는데 김진해(2003)에서는 관용의미가 직설의미와 직접 관련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무관한 것도 아니어서 직설표현의 잔영이 남아 있다고 보고, 논항구조와 격틀의 문제, 상적 보조동사와의 결합 문제, 의성의태어의 수식 관계를 검토하여 이를 밝히고자 했다. 김진해(2010)에서는 의성어나 의태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고, 부분 수식의 가능성이나 수량화 가능성 등을 근거로 들면서 관용표현도 의미가 투명한 것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심지연(2009)은 인지의미론적 관점에서 보면 관용표현은 기본 개념어가 동기화되어 은유나 환유에 의해서 합성되었기에 의미의 합성성을 찾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관용표현에 대한 의미론적 접근은 관용표현 의미의 비합성성과 불투명성에 대한 이론(異論)이 제기되어 관용표현도 의미가 투명하고 합성적인 것들이 있다는 것이다. 인지의미론적인 접근도 같은 입장에서 의미가 투명하고 합성적인 관용표현이 상당수 있다는 논의가 새롭게 이루어졌다. 주로 색채어 관용표현에서 의미의 합성성을 찾고자 했는데 이는 각 언어에서 관용표

현과 색채어가 해당 문화권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언어표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인지의미론적 연구가 집중되었는데 문화적인 특징을 잘 반영해주는 다른 관용표현에 대해서도 앞으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의미의 비합성성과 불투명성 정도에 따른 유형 분류가 좀 더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3.1.3 통사론적 접근

관용표현에 대한 통사론적인 접근의 연구는 대부분 관용표현의 통사적 제약이 심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금현(1996)에서는 이러한 통사적 제약에도 관용표현의 유형에 따라서, 또는 통사적 기제에 따라서 제약 정도가 다르다고 하였다. 박진호(2003)도 관용표현 중에는 통사적 변형이 가능한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입이 무겁다’가 ‘무거운 입’으로 관계화의 변형이 가능한 것은 비유의 근거에서 축자의미의 투명성을 유추해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결합의 통사적 관습성을 가진 연어, 의미의 관습성을 가진 속어, 사용의 화용론적 관습성을 가진 화용론적 관용표현의 세 유형을 분류하였다. 그런데 상용구절이나 관용구절을 연어에 포함시켰는데 ‘비위가 상하다’를 연어에 포함시킨 이유는 ‘비위’가 투명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에 거슬리거나 아니꼽다]라는 관용의미를 투명하게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연어가 아닌 관용구절(속어)이다. 또한 ‘바가지 굵다, 바가지 씹우다, 바가지 쓰다’가 ‘바가지’로 쓰이거나 ‘오리발을 내밀다’가 ‘오리발’로 쓰이는 현상에 대해서 선행 연구처럼 구성 단어의 생략으로 보지 않고 이들 단어가 투명성을 띠게 되는 의미의 쓸림 현상에 의해서 속어가 연어로 변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후 통사적 분석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로 관용표현을 이루는 인과관계 접속 관형절 구성연구(배진영 2009), 관용표현의 의미 구조와 흉내말 변형 제약 연구(박동근 2010), 관용표현의 통사적 변형에 대한 시론(안소진 2012), 의존명사를 포함한 한국어 관용표현 연구(- 속어-연어 통사 분석 자료 구축 방안, 박민희 2019)가 있었으며, 채병열(2019)에서는 한국어 관용표현의 통사 분석 연구로 문법적 언어를 다루기도 했다.

관용표현에 대한 통사론적인 연구는 관용표현의 통사적 제약이 관용표현의 유형에 따라서 정도 차이를 보이고 통사적 기제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인다고 하면서 통사적 변형 가능성과 의미의 투명성 여부를 관련지었다. 통사적 변형이 가능하면 의미의 투명성을 가져서 의미 유추를 관망하게 되었다는 점이 새롭다. 앞으로 모든 통사적 기제(어순재배치, 삽입, 대치, 피동/능동화, 단형사동화, 시제 요소의 결합, 생략, 대용, 분열문 구성, 주제화, 복수화, 경어표현, 명령표현, 의문표현, 부정표현)를 적용하여 관용표현에 대한 통사적 제약 여부와 정도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3.1.4 화용론적 접근

관용표현은 화용적으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뒤늦게 시작되었다. 변이

양상을 중심으로 한 화용적 특징 연구(김선영 2014), 관용 문장을 중심으로 한 한국어 화행의 전략 연구(정종수 2019), 관용표현의 연상표현에 대한 연구(-‘그림의떡’의 경우, 단어·구와의 비교를 통한 고찰, 안소진 2019)가 있고, 세부적으로 접근한 연구로 한국어 담화표지 {그래}의 관용표현 기능 연구가 있다(김영진 2014).

관용표현의 사용 양상을 다룬 연구를 보면, TV 드라마 대본에 나오는 관용표현이 맥락상 유의관계에 있는 관용표현을 재수용하여 응결성을 보여준다고 하였고(이종철 2003), 이지혜(2013)는 광고매체에 나타난 관용표현을 대상으로 하였다.

3.1.5 다른 언어와의 대조 연구

다른 언어와의 대조 연구는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러시아어와의 대조 연구가 있으며 신체어 관련 관용표현을 대상으로 많이 하였다.

첫째,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 중국어와의 대조 연구를 보면, 김혜원(2006), 황미연(2006), 우몽뢰(2015), 유진(2012)에서는 전반적인 관용표현을 다루고 있고, 개별 어휘 관련 관용표현은 신체어 관련 관용표현 대조 연구가 가장 많다(마서 2007, 손예 2009, Zhuang Yu 2009, 천선영 2013, 천포웨이 2014, 평잉 2014, 좌호 2016). 신체의 구체적인 머리, 손, 발, 눈, 입 관련 관용표현 연구(왕지화 2009, 유진 2009, 장미령 2011, 장정 2012, 고상번 2013)와 감정표현 관용표현 연구(황단 2011, 교언림 2013, 송아려 2015, 장메이징 2017)가 많다.

기타 냉온(冷溫) 관련 표현에 대한 대조 분석(QIAO XIAN 2018, 이명아 2019)과 색채 관용표현(오설 2020, 주반 2020), 12생초 관용어(하정선 2008), 곤충 관련 관용표현(조원 2016)을 비교한 연구가 있다. 한·중 관용표현의 거짓친구(False Friends) 대조 연구(유환환 2016)도 있고, 문화적으로 접근하여 관용표현을 비교한 황정아(2008), 한·중 음식 관련 관용표현을 비교한 막효뢰(2010), 한·중 속담을 비교한 조천(2013)도 있다.

둘째, 일본어와의 대조 연구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전반적인 관용표현을 다룬 김근자(2005)가 있고, 개별 어휘 관련 관용표현 연구로는 신체어 관련 관용표현(최택호 2004, 이연니 2011), 감정표현 관련 관용표현(이주용 2016), 동물 관련 관용표현(김지연 2005), 색채 관련 관용표현(김춘호 2006) 연구가 있다. 한·중·일의 관용적 비유표현의 대조 연구도 있다(주유나 2012).

셋째, 몽골어와의 대조 연구도 마찬가지로 양상을 보인다. 신체 관련 관용구 대조 연구(영흐사를 2003), '눈' 관련 관용어 비교 연구(오강바야르 2016), 감정 관련 관용표현 연구(푸렙 어딩치맥 2008), 동물 관련 관용표현 연구(투즈생게 첸드야요시 2014) 등이다.

넷째, 러시아어권과의 대조 연구도 전반적인 관용표현의 대조 연구(누르갈리에바 아이굴 2008), 신체 관용표현 비교 연구(벨라로바 아이게림 2015), 감정 관련 관용표현 연구(나세르자노바 2016)가 있다.

다섯째, 동남아권과의 대조 연구를 보면,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관용표현 대조 연구는 신체 관련 관용표현에 대한 연구와 관용표현의 표현 양상을 문화 요소와 관련시킨 연구(맛띠다우

2012, 2016)가 있고, 베트남어와의 대조 연구(응웬 티 꾸잉 안 2013), 태국어와의 대조 연구(Simuang Kewalin 2016) 모두 신체, 감정 관련 관용표현에 대한 것이다.

인도-유럽어권과의 대조 연구도 신체, 감정 관련 관용표현이 많다. 변명선(2003)은 독일어와 한국어 신체어휘‘손’관용표현을 연구하였고, 조혜진(2013, 2017)은 한국어와 스페인어의 신체, 분노 관용표현을 대조 연구하였으며, 위진경(2020)은 스페인어의 색채어 관용표현과 비교 연구하였다. 자피로바 킬라나 디모바(2016)은 불가리아어의‘머리’관련 관용표현과 대조 연구이고, 메무나(2013)은 우르두어의 관용표현과 대조 연구하였다.

다른 언어와의 대조 연구는 공통적으로 신체어 관련 관용표현과 감정표현 관용표현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고, 그 밖에 색채어, 동물, 음식 관련 관용표현에 대한 연구도 많은데 앞으로는 특정 관용표현에서 벗어나 고루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3.2. 국어교육에서의 관용표현 연구

국어 교육적 측면에서의 관용표현을 다룬 연구는 1990년대에 이르러 시작되었는데 본격적인 논의는 문금현(1999)이다. 국어교과서 분석을 통해서 관용표현 학습 목록을 살펴 문제점을 지적하고 단계별 학습 내용을 제시하였다.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는 관용표현은 학습에 의해서 익혀진다고보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관습적으로 익혀지기 때문에 학교 국어교육에서는 큰 관심을 갖지 못했고, 광의의 관용표현인 속담 교육에 집중되어 있었다. 속담 중에서도 교훈적 속담이 학습 내용이 되었다. 관용표현이 가지고 있는 비속적인 성격 때문에 교육 대상으로 삼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서 어디까지를 학습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그리하여 이해 차원과 사용 차원을 나누어서 비속적인 관용표현은 이해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관용표현을 구어와 문어로 나누었을 때 문어 관용표현은 학습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조창규(2006)는 7차 교육 과정에 반영된 관용표현의 양상을 통해서 관용표현 교육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어교육에서의 관용표현 연구는 다음 네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국어 관용표현에 대한 교수-학습 방안 연구가 있다. 관용표현 용어 및 범주의 문제를 중심으로 국어과 관용표현 교육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연구(김세현 2016)를 들 수 있고, 지도 방안 연구를 포괄적으로 접근한 나성진(2008), 이명순(2013)이 있다. 세부적인 방안으로 관용어 의미의 투명성을 고려하여 교육용 관용어 목록을 연구하거나(-중학교 1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최수진 2013) 탐구학습을 통한 관용어 의미 지도를 연구하였다(이보람 2015). 인지학적인 관점에서 관용표현은 인간의 개념화 방식을 드러내기에 의미가 합성적이며 언어 사용자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 동기화되므로 한국인의 삶과 의식을 이해할 수 있으며, 개념화의 모형을 통한 관용표현 교수-학습 방안 및 외국어 관용표현과의 비교를 통한 학습을 제안하였다(송현주·최진아 2011). 메타언어 활동을 통한 지도 방안 연구(이주희 2009)와 교육 연극을 활용한 지도 방안 연구(황지성 2019)도 있다.

둘째, 초·중·고등학교 국어교육에서 교육 과정과 학습 단계별로 관용표현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다룬 연구가 많다. 초등학교 국어교육에서의 지도 방안 연구로는 이광주(2003), 이광순(2004)가 있고, 중·고등학교 지도 방안 연구로는 이윤정(2007), 박지훈(2011)이 있다.

셋째, 국어 교과서를 분석하여 관용표현의 교육 현황을 분석하고 지도 방안을 제안한 연구들이 있다.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분석한 연구로 심주연(2001), 박인순(2011)이 있고,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과 국어교과서를 중심으로 관용표현의 빈도와 교과 내용을 분석하였다(조창규 2006, 안혜리 2008, 이명진 2011).

넷째, 연구가 좀 더 세분화되어 임유종·이필영(2004)에서는 텍스트언어학과 언어교육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초·중·고등학생의 발화에 나타난 연결표현의 발달 단계를 연구하였는데 구절 형태의 관용적 연결표현과 문법적 연어에 대한 사용 양상을 포함하고 있다. 전문가 활동을 통한 관용표현 사용 능력 신장 방안을 연구하고(노채현 2004), 청각장애인의 관용어 이해 능력에 관한 연구도 있다(성소연 2008).

국어교육에서의 관용표현에 대한 연구는 관용표현이 개념화되는 방식들 즉 언어 사용자의 지각적, 경험적, 인지적, 의사소통적 동기에 의해서 관용의미가 형성되는 과정과 이것이 사용되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구체적인 학습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3. 한국어교육에서의 관용표현 교육 연구

한국어교육 관점에서의 관용표현 연구를 처음 시작한 문금현(1998)에서는 당시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의 현황을 살피고 한국어 교재의 문제점을 찾아 이를 해결하고자 했으며, 한국인의 사용빈도, 의미의 투명성 여부, 외국인의 인지도를 기준으로 학습 목록을 마련하여 이해용과 표현용을 나누어 학습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이후 전해영(2001)으로 이어졌고, 2005년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발간된 ‘한국어교육론’에서 지금까지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았다. 관용표현 교육의 문제점으로 한국어 교재에 출현한 관용표현 목록의 선정 기준이 일정하지 않은 점, 관용표현 제시란이나 의미, 다양한 예문 제시, 관용의미의 형성 과정에 대한 정보 제공이 없는 점을 들었고, 관용표현 목록 선정 및 학습 단계별로 중점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문금현 2005:91-92). 이후 이루어진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 연구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Luo Guangchun(2017)은 한국어교육학 관점에서 관용표현 연구사를 고찰하였다.

3.3.1 한국어 교재 개발 방안 연구

한국어 교재에 관용표현이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에 대한 교재 분석과 교재 개발 및 지도 방안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송혜원 2005, 김지혜 2006, 이화배 2013, 김몽·이충우·김지은 2015, 김몽 2016). 교재의 범주를 좁혀서 속담을 활용한 한국어 교재 개발이나(최권진 2008), 중국에서 발간된 한국어 교재를 대상으로 하고(Ma Jun 2013), 신체어 관련 관용표현을 중심

으로 한 교재 개발 방안을 연구하기도 하였다(소사 2015). 한국어 교육용 관용표현 목록 선정에 대한 연구도 있다(유경화 2011, 조혜인 2011).

3.3.2 관용표현 학습 방안 연구

한국어 관용표현의 교수-학습 방법 개선이나 학습 모형 등의 전반적인 지도 방안 연구로는 김현진(2007), 박소연(2008), 우선미(2008), 윤지훈(2008), 구효진(2011), 형재연(2011), 김화경(2012), 조수봉(2012), 왕춘위(2013), 김현진(2015), 박근희(2015), 이정관(2015), 까오페이(2016), 배유진(2016), 곡미여(2017), 최소영(2017), 김춘화(2021) 등이 있다. 다음은 유형별 지도 방안에 대한 연구들이다.

1) 개별 관용표현의 학습 방안 연구

개별 관용표현 중에서는 신체 관련 관용표현에 대한 학습 방안 연구로 왕방(2010), 공영(2011), 조영화(2011), 박진아(2018), 왕지국(2016), 김종옥(2018), 이은진, 권연진(2018)이 있고, 감정 관련 관용표현 학습 방안 연구로는 권순영(2005), 이민경(2011), 조유진(2018), 이론(2020)이 있다. 그 밖에 FAN QIQI(2018)는 색채어 관련 관용표현을 대상으로, 김동국·이상률(2015)은 동물 관련 관용표현을 중심으로, 김정남(2016)은 '돈' 관련 관용표현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개별 관용표현 학습에 대한 연구는 신체, 감정표현, 색채어 관련 관용표현에 집중되었다.

2) 접근 방식에 따른 연구

문법적인 접근으로는 조사, 어미, 관용표현을 중심으로 제2 언어로서의 한국어 표준 문법을 제시한 김정은·이소영(2001)이 있고, 의미론적인 접근은 반의관계에 의한 관용표현 교육 방안을 연구한 이경숙(2007), 유의관계를 활용한 신행근(2016), 인지언어학에 기반한 연구로 박근희(2018)가 있다. 작문 분석을 통한 관용표현 학습을 연구한 서수백(2017)과 수사 기법으로 접근하여 직유표현을 연구한 채부규(2008), 연지은(2010), 환유표현을 연구한 김옥(2012)가 있다. 비언어적 행위와 관련된 관용표현 연구로 조현용(2003), 정미숙(2008)이 있고, 한국 문화 이해도가 한국어 관용표현 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강원구(2014)가 있으며, 한국의 정 문화 교육 방안을 연구한 코다야 마유미(2018), 음식 문화 관련 관용표현을 연구한 소옥문(2020)이 있다.

3) 매체 활용 방식에 따른 연구

먼저 TV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육 방안 연구가 많았다. 드라마를 활용한 관용표현 교육 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많았고(장혜이메이 2014, 서수백 2016, 손혜진·임형옥·공하림 2018, 윤은미·우인혜 2017, 조동주 2018, 진청 2018), TV예능프로그램을 활용한 연구(홍기용 2020), 영화를 활용한 교육 연구(최지영 2012, 정송이 2019)도 있다. 인터넷 영상을

활용한 교육으로는 플립러닝을 활용한 연구(배인숙 2020), 웹툰을 활용한 연구(김고인 2021), 유튜브를 활용한 연구(신윤아 2021)가 있다. 문학작품이나 신문을 활용한 연구도 있다(정미숙 2008, 조진이 2015, 이현주 2013).

3.3.3 학습자를 기준으로 한 연구

학습자를 기준으로 한 연구는 언어권, 학습 단계, 학습 환경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1) 학습자의 언어권별 연구

학습자의 언어권별 연구는 중국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으며, 언어권에 상관없이 신체 관련, 감정표현 관련, 동물 관련, 색채어나 미각어 관련 관용표현, 문화와 음식 관련 관용표현을 공통적인 연구 주제로 삼았다.

먼저 중국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전반적인 연구로는 박용배(2006), Wang An qi(2008), 종선(2009), 신혜인(2010), 요금휘(2011), 소적(2012), 서환(2013), 소청(2013), 김은령(2014), 굴가혜(2017a, b), LI SHASHA(2016), 오성아(2017), 우여나(2018), 취자후이(2017)가 있는데 모두 학위논문들로 학문목적으로 한국에 유학 온 학습자들의 논문들이다. 관용표현의 수준별 학습 목록 선정 방법 및 제시 방안을 연구한 배규범(2010), 장정정(2010), 유해준·손경애(2012), Li Shun Fu(2011), Zhang Weixuan(2019)이 있고, 명사형이나 동사류 등 형식 단위를 좁혀서 다룬 연구도 있다(Zhang Wenyi 2013, Wang Yinchun 2017). Xu Wenbin(2021)은 한·중 관용표현의 번역 과정에서의 전략 사용과 관용표현의 다양한 실현 양상, 번역 내용에 대한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어휘의 유연성에 대한 교육 등을 제시하였다.

신체어와 감정표현 관련 관용표현 교육에 대한 연구로는 왕안기(2008), 왕월(2011), 장영(2012), Li Shun Fu(2011)가 있고, 동물 관련 관용표현 교육 연구로 호심(2012), 이춘우(2018)가 있으며, 색채어 관용표현 습득 양상 연구(송흠 2020), 미각 고정표현 교육 방안 연구(쉬야 2017)가 있다. 음식 관련 관용표현의 교육에 대해서는 백낙천·막효뢰(2010), 유언동(2012), 고명(2017)이 있으며, 관용표현을 통한 한국 문화 교육에 대해서는 황정혜(2010)가 있다. 중국어권 화자와 영어권 화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관용표현의 의미 투명도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한 연구도 있다(박셋별 2018).

일본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전반적인 연구로는 김애진(2009), 박미선(2011)이 있고, 학습 단계별 한국어 관용표현 선정 기준에 관한 연구로 사와다히로유키(2011)이 있으며, 신체 관련 관용표현의 교육 방안 연구(김명춘 2008, 이주용 2017)와 색채어 관용표현의 교육 방안 연구(유경숙 2012)가 있다.

동남아시아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관용표현 교육 방안 연구(응웬티탄타오 2020, 팜 응웬 넷 브이 2020, Nguyen Phuong Dung 2020, 드영타 이링 2021)가 있고,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교육 방안 연구(최문진 2014, 유파폰 2017), 미얀마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신체 관련 관용표현 교육 연구(Thida Oo Myat 2015)가 있다.

모든 언어권별로 신체 관련 관용표현 교육 연구는 공통적으로 이루어졌다. 영어권 학습자를 위한 '눈' 관용표현 습득 연구(김수정 2011, 김수정·유석훈 2011), 인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꾸마리네하 2017), 스페인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오택진 2018), 몽골어권 학습자를 위한 손발 관련 관용표현 교육(오가을 2017), 한국어·우즈베크어 대비를 활용한 한국어 신체 관용표현 교육(니조모바 굴도나 2020), 이집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신체 관용어 교육 연구(FAHMY YASMINE 2017)가 있다. 기타 터키인을 위한 연구(픽셀튀르코쥬 2003), 프랑스 학습자를 위한 관용표현 교육 연구(홍하영 2017)도 있다.

2) 학습자의 학습 단계별 연구

학습자의 학습 단계별 연구를 보면 관용표현의 교수 항목을 의미투명도와 사용빈도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수준별로 제시하기도 하고(임혜진 2007), 학습 단계별로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최혜령(2007), 중·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이룬(2020),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김은혜(2012), 이현주(2013), 온로로(2015)가 있다.

3) 학습자의 환경별 연구

학습자의 환경별 연구는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김남경 2011, 이보배 2011, 최인옥 2014, 윤미희 2020).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관용표현 학습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관용표현 의미가 가지고 있는 중의성, 비합성성, 불투명성의 의미 특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관용표현의 구성 어휘에 어려운 고유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문맥 속에서 관용의미를 분별해 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관용표현이 한국의 문화, 역사,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며 학습자의 모국어에 영향을 받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서 학습자의 학습 목적별로 필요한 관용표현에 대한 목록 마련과 학습 방안에 대한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

3.4. 사전학 관점에서의 관용표현 연구

사전학 관점에서의 연구는 관용표현에 대한 처리를 일반 사전과 관용어 사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가에 대한 것들이다. 이제는 주로 전자사전을 사용하게 되어 전자사전에서의 처리 방안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국어 관용표현에 대한 범위 및 항목 설정 등의 유형 분류가 제대로 되고 사전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들에 대한 사전에서의 처리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반 국어사전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용구절과 연어, 또는 상용구절에 대한 차이를 구분해 놓고 있지 않다. 관용구절로 처리해야 할 것을 주표제어의 예문예다 일반구절처럼 제시해 놓은 것이 있고, 현대국어 화자들에게 사용빈도가 높은 감정표현의 관용구절(기가 막히다/ 기를 쓰다/ 애를 쓰다)은 아예 부표제항으로 올라와 있지도 않다. 이는 표제항으로 올려 주어야 하고, 일반구절이나 상용구절

과도 구분해 주어야 한다. 둘째, 관용표현의 형식 단위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합성어로 완전히 굳어진 것들은 단어로 처리해도 무방하나, 구절 형태로 쓰이는 것들은 ㉠나 ㉡로 표시해 주어야 한다. 셋째, 합성어와 관용구절의 경계선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처리가 사전마다 다르다. 구절로 처리한 사전이 있는가 하면 합성어로 처리한 사전도 있다. 조사 생략 여부에 따라 형식상의 차이만을 가지는 것들이므로 뜻풀이는 한 쪽에만 하고 다른 쪽에서는 찾아가 보기(⇔) 표시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넷째, 속담이 관용구절로 처리되거나 관용구절이 속담으로 처리된 경우가 많다. 이것들도 ‘俗談’과 ‘慣’으로 구분을 해 주어야 한다. 다섯째, 관용표현 내에서도 어휘적 양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들은 <隱>, <俗>, <專>, <流> 등의 하위 표시를 해 주어야 한다. 전반적으로 광의의 관용표현과 협의의 관용표현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협의의 관용표현도 경계의 구분이 제대로 안 되어 상용구절이나 속담과 섞여 있는 것이 가장 큰 흠이라 하겠다.

최초의 관용어 전문사전인 『관용어사전』(박영준·최경봉 1996)의 가치는 속담과 순수 관용표현을 구분해 놓았다는 점이다. 다만 구성 단어 중 하나가 다의화된 상용구절이 관용구절과 구분되지 않고 섞여 있다는 것과 구성 단어의 어원 정보는 제시한 반면 관용의미를 예상하는 데에 필요한 생성 유래에 대한 정보는 빠졌다는 점이 아쉽다. 관용표현의 의미는 구성 단어들의 개별적인 의미와는 유연성이 적으므로 관용의미를 예상하는 데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구성 단어에 대한 어원 정보보다는 전체 관용표현의 생성 유래에 대한 정보가 더 필수적이다. 『우리말 관용어사전』(최경봉 2014)은 4,300여 개의 관용어를 의미에 따라 갈래지어 배열하고 뜻풀이와 용례를 붙였는데 상황 맥락에 따라 적절한 관용어를 선택해서 쓰고 싶은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사전이다. 실제 용례를 수집, 정리하고 이에 기초하여 기술하였는데 같은 부류에 속하면서 유의관계, 반의관계, 동음이의관계에 있는 관련 관용어를 구분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구성 단어의 원어 정보나 구성 단어의 뜻을 특별히 밝힐 필요가 있을 때, 해당 표현의 기원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용례 다음에 설명했다. 사용 맥락에 따른 의미 갈래를 감정 심리, 성격 태도, 동작 행위, 상태 가치, 문화 및 사회생활로 분류해 놓았다.

관용표현에 대한 초기 사전학적인 연구는 주로 거시구조적 측면에서는 등재 단위나 위치에 관한 것이고, 미시구조적 측면에서는 어떤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이었다. 강현화(1992)에서 속어표현에 대한 사전 처리 문제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문금현(1996)에서도 거시구조와 미시구조 차원에서의 처리 문제를 논했다. 이희자(2003)에서는 관용표현에 대한 논의가 사전학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관용구 사전학을 체계적으로 정립시켜 관용구가 의미적으로는 하나의 단어처럼 취급되므로 사전의 단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존 사전에 제시된 관용구의 위치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는데 표현사전에서의 관용구에만 초점을 맞추어 유의관계를 이루는 관용구를 처리하는 방법을 논하고 역으로 이해어휘 차원은 다루지 않았다. 남길임(2007)에서는 속담·관용표현·언어·패턴·상투표현·고빈도 자유표현을 부표제어의 범위에 넣어 처리하는 방안을 논하였다. 관용표현은 구성 명사 중 핵심 명사나 첫 번째 실질어 아래에 부표제어로 기술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용자의 편의

를 고려한다면 외국인을 위한 학습사전은 부표제어로 하는 범위가 넓어져야 하고, 모국어 학습자 사전은 부표제어 대신 용례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표제어로 신기도 한다고 하였다. 사용자 친화적 사전 편찬을 위한 고려 사항을 분석해 본 것에 의의가 있다.

한국어교육에 필요한 사전학적인 연구들이 시작되었는데(학습용 한국어 관용표현 사전 편찬에 대한 연구, 이희자·유현경·김한샘·천미애 2007) 주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연구로 중국어와 대응한 한중관용구사전(韓中慣用句辭典) 편찬을 위한 연구(도원영·왕보하 2009), 한국어교육용 관용표현 제시 방안 연구(-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유해준·손경애 2012),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 사전 편찬 연구(엄아려 2018)가 있다. 그 밖에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오관(五官) 감정 관용표현의 사전 정보 연구(-<표준국어대사전>, <관용어사전>, <고려대한국어대사전>-, 마수연 2016)와 관용표현과 어휘부, 그리고 문장의 형성을 다룬 황화상(2014)이 있다.

응용언어학적 관점에서 관용표현에 대한 연구는 말뭉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주로 사전편찬, 자연언어처리에 관심을 가졌으며, 관용표현의 범위를 폭넓게 잡은 것이 특징적이다. 앞으로의 연구 과제는 전자사전이나 말뭉치 자료에서 관용표현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3.5. 자연언어 처리에서의 관용표현 연구

3.5.1 자연언어 처리에서의 관용표현에 대한 인식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사전학, 말뭉치, 전자사전, 자연언어처리 등 국어정보학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언어를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언어 현상 전반에서 발견되는 중의성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언어처리 시스템의 성능은 중의성을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느냐로 평가될 수 있다. 관용표현은 기본적으로 중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언어 전산 처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문장을 정확하게 인식하거나 산출하는 것이며, 이러한 언어 정보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이나 그 실행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전자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형태소 분석, 구문 분석, 의미 해석 등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바로 관용표현들에 대한 정보라고 하겠다.

자연언어 처리 관점에서의 관용표현 연구를 보면, 김지영·권혁철(1992)에서 자연언어의 보편적인 현상인 합성명사의 의미 관계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현하고 이 과정에서 사용된 지식베이스 구축 기법을 소개하였다. 지식베이스는 합성명사(예: 도둑 고양이)의 의미 관계를 분석하는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명사 의미 분류 사전, 명사 간 결합 의미 관계 정의 사전, 관용어사전, 관용명사 사전으로 구성된다. 이는 기계 번역, 정보 검색 등의 자연언어처리 분야에서 의미 해석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런데 초창기 연구여서인지 예시로 제시한 것들이 관용어로 보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다.

1998년 시작된 21세기 세종계획 사업은 2007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말뭉치 구축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전자사전 개발에 100억 예산을 투입했으며, 한민족 언어 정보화, 우리말 정보화와 세계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우리말 표준화를 위한 전문용어 정비, 문자코드 표준화 사업을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21세기 세종계획 관용표현 전자사전은 어휘적 관용표현, 문법적 관용표현, 화용적 관용표현, 속담, 격언으로 나누어 다루어져 있다. 세종 속담 전자사전에 대한 연구로 호정은·박만규(2005)에서는 속담을 어휘적 관용표현과 구분하여 처리하고자 구별 기준으로 논항 지배 여부와 시제 변이 여부를 꼽았다. 속담사전의 목표는 컴퓨터가 언어 처리 과정에서 어떤 단어의 연쇄를 굳어진 하나의 속담 단위로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가 언어 처리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며, 속담의 형태·통사적 특징을 근거로 특정 연쇄를 속담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00년대 이르러 전산적 처리 관점에서 관용표현의 특성을 반영한 전산언어학적 알고리즘이 어떻게 고안되고 관용표현의 언어적 정보를 전자사전에 수록하고자 하는 전산언어학적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3.5.2 관용표현의 처리 기준 연구

1) 다어절 변환 단위의 설정

자연언어처리를 위한 관용표현 연구가 김한샘(2003)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관용표현의 처리를 위하여 다어절변환단위라는 단위를 설정하여 따로 처리함으로써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여기에는 속담이나 격언, 문법적·화용적 고정표현까지 포함된 광의의 관용표현에다 어휘적·문법적 언어 형식까지 다 포함되었다. 관용표현은 두 개 이상의 단계에서 주로 처리되는데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구문 분석에서 관용표현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주는 것이 처리의 핵심이다. 구문 분석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속어 인식기’가 작동해야 하는데 관용표현이 하나의 단위로 묶여 있지 않으면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고 적당한 대응 어구를 생성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 기계 번역의 방식은 규칙 기반(직접 변환, 간접 변환, 중간 언어, 패턴 기반 방식 등)과 말뭉치 기반(통계 기반 방식, 예제 기반 방식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한 가지 방식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여러 방식을 적용하여 시스템을 최적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후 관용표현에 대한 언어정보학적 연구를 한 박사학위논문이 나왔다(김한샘 2005).

말뭉치 언어학에서의 확장된 어휘 단위에 대한 연구는 남길임(2011)에서 시작하여 최준(2016)에서는 공기 분석과 N-GRAM 분석 방법에 의해서 모든 단어가 언어 사용자와 단어, 그리고 맥락의 누적된 만남에 의한 결과로서 그 의미적 기능을 획득한다는 말뭉치 언어학의 일반적인 가정을 증명하였다. 그런데 전형적인 관용표현은 언어와 달리 사용빈도가 낮아서 연구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제외하였다. 또한 어휘 풍요도 측정을 위한 관용표현의 빈도와 분포를 연구하기도 하고(안의정 2018), 한국어 어휘 교육을 위한 다단어 단위 연구도 있다(서희 2021).

2) 번역과 관련된 대조 연구

관용표현에 대한 번역의 문제를 빼놓을 수 없는데 각 언어권별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가장 많은 연구는 한·중 번역으로 최수진(2008), 최은정(2012), 홍예화(2018)가 있다. Xu Wenbin(2021)은 한·중 관용표현 번역 과정에 대한 번역 요소 모델을 제시하고 '사고구술법' 실험을 진행하여 정확하고 적절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관용표현 번역의 과정은 인지 단계(관용표현 형태, 통사적 고정성과 축자의미와 관용의미의 중의성 인지) -> 분석 단계(화용적 의미, 표현 효과, 문화의 특수성 분석) -> 전이 단계(관용표현에 대한 메타적 이해를 목표 언어로 전이시킴) -> 표현 단계(사용된 텍스트 유형에 맞는지 확인) -> 정당화 단계(검토)를 거친다고 하였다.

일본어 번역과 관련한 관용표현 대조 연구는 한일 기계번역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도가 있고(문경희 2001, 김보경 2003), 관용구의 영어 번역 연구(김한샘 2009)도 있다. 러시아어 번역 전략을 실증적으로 연구한 서유경(2011)은 Baker(1992)에서 관용표현의 번역 전략으로 제시한 의미와 형태가 유사한 관용구를 사용한 번역, 의미는 유사하지만 형태가 다른 관용구를 사용한 번역, 풀어쓰기 번역, 생략을 통한 번역 전략에다 직역의 방법을 추가하여 제시하였다. 다국어 어휘의미망에 한국어 관용표현을 연결하는 방법도 연구하였고(이동혁·오장근 2006), 관용어 번역에는 관용어에 함축된 문화적 요소를 중시해야 한다는 연구도 있다(김명순 2017).

3) 관용표현의 중의성 해결 문제

관용표현은 기본적으로 중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언어 처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김한샘(1999)에서는 관용구의 중의성 해소를 위해서 주요 판별기제로 격률, 논항자질, 조사 생략 여부, 수식 어구, 동사활용형 간 차이, 그리고 의미 빈도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서 정보 검색 및 기계 번역의 품질 향상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관용표현이 가지고 있는 직설의미(축자의미)와 관용의미의 사용 빈도를 비교해 보면, 자연언어적 처리 관점에서는 관용의미가 많이 사용된다고 보았고 인지의미론 관점에서는 직설의미가 많이 사용된다고 보았으나 관용표현마다 개별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러므로 자연언어처리 시스템에서는 첫째, 고빈도로 예상되는 한쪽 의미로 일방적인 처리를 하면 안 되고 두 의미 중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결합의 연속성(공고성)과 관용표현에 빈번하게 삽입되는 수식어구에 대한 정보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관용표현을 구성하는 문법형태소들의 교체, 생략, 제약 등에 관한 정보, 넷째 격률과 논항 정보, 다섯째 의미와 실제 용법과 관련된 화용 정보 등이 관용표현을 판별하는 데에 중요 역할을 하며, 마지막으로 다의적인 관용표현에 대한 인식도 반영해 주어야 한다.

가장 최근의 학위논문인 박서윤(2021)에서는 사전 훈련 언어 모델을 활용하여 관용표현을 분류하였다. 종전에 규칙 기반의 자연어 처리를 시도하던 시기에는 관용표현의 중의성 해소를 특징으로 작용하였으나, 딥러닝 기법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여 특징을 추출하게 되는 자연어 처리를 시도하게 되면서 인간이 관용표현의 특징을 별도로 입력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사전 훈련 언어 모델로 분산 표상 임베딩 모델과 문맥 기반 임베딩 모델을 활용, 비교하여 관용표

현을 분류하였는데 기존의 Type-based 접근법은 문맥 안에서 관용표현이 쓰였음을 반영하지 못했는데 이를 극복한 Token-based 접근법은 일반표현이 주변 문맥과 높은 응집성을 가지는 것에 반해 관용표현은 자기들끼리의 응집성은 강하지만 전체 문맥과의 응집성은 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중의성을 가진 관용표현 중 사용빈도가 높은 목록을 마련하고 국립국어원의 ‘모두의 말뭉치’(2020)를 바탕으로 관용표현인지 아닌지를 레이블링한 이진(binary) 분류 말뭉치인 ‘관용표현 레이블링 말뭉치’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의미의 중의성을 가지고 있는 관용표현이 축자의미로 쓰였는지 관용의미로 쓰였는지 사전(事前, pre-trained) 훈련 언어 모델을 통해 분류하여 표현의 중의성 해소를 시도하고 중의성 해소에 어떤 요소들이 기여하는지를 15개의 관용표현을 대상으로 실험하였다. 그리하여 분산 표상 임베딩 모델보다 문맥 기반 임베딩 모델에서 분류 태스크가 잘 수행되는 것을 통해서 관용표현과 일반표현의 중의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관용표현의 의미가 불투명할수록 축자의미와 관용의미 사이의 중의성은 벌어지는데 이는 불투명한 유형(예: 산통을 깨다)이 축자의미로 쓰일 가능성이 없는 반면 의미가 투명할수록(예: 국수를 먹다) 일반 표현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고 중의성도 짙어진다는 것을 밝혔다.

그 밖에 문법적 접근으로는 문법적 관용표현의 전산 처리(이동혁 2005)와 자연어 질의응답 시스템 DB 모델링을 위한 특정 분야 텍스트의 언어적 특징을 분석한 박진아(2007)이 있다. 이는 2006 FIFA 독일 월드컵 관련 한국어·불어 인터넷 신문 기사를 코퍼스로 선택하여 부분문법을 이용한 문형구조를 추출하였다.

자연언어처리에서 관용표현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 과제는 문장 내에서의 의미 파악을 정확하게 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관용표현은 중의성을 가지고 있는데 두 의미 표현이 겹쳐서는 구분되지 않는 동음이의적인 관계이고, 사용에 있어서 언어적 직관이 크게 작용하므로 자연어 처리 과정에서 기계가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형태소 분석 및 구문 분석을 시도하면 동음이의적 특성으로 인해 관용표현의 형태적 특성이 상실되는 문제가 생긴다. 또한 관용의미에 대한 사전 학습 없이 두 의미 표현을 분류할 경우 관용표현의 의미적 특성을 제대로 포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 내야 한다. 언어적 직관이 반영된 언어적 현상을 자연어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문어적 텍스트와 같은 정형적인 텍스트는 물론 구어적 텍스트처럼 비정형적인 텍스트에 대한 학습 역시 진행하는 것이 성능 향상에 유효하다. 분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베딩 종류로만 비교하지 말고 분류 레이어 자체의 튜닝 및 관용표현의 언어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중치 부여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실제 언어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기존 사전에서 포착하지 못한 다양한 관용표현의 의미를 찾아서 상세하게 기술해 주어야 하는데 언어학적인 정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통계적인 정보이다. 기존 자료들의 통계적인 데이터가 기계 처리의 중요한 잣대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4. 관용표현 연구의 과제와 전망

지금까지 관용표현에 대한 연구 현황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국어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연구가 정리된 것으로 파악되지만 실제로 관용표현 목록을 다룰 때에는 유형 분류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언어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아쉬운 면이 있다. 둘째, 관용의미의 비합성성과 불투명성, 중의성을 관용표현의 대표적인 의미 특성으로 알고 있지만 최근 인지의미론적인 해석을 통해서 관용의미가 합성적이고 투명한 관용표현도 있다는 이의 제기를 한 연구들이 눈에 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언어적 처리를 위해서는 의미의 비합성성과 불투명성에 대한 정도의 차이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관용표현 목록에 대한 세밀한 분류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의성은 축자의미와 관용의미 사이의 관계이지만 비합성성, 불투명성과도 연결이 되므로 문맥 내 중의성의 정도에 의해서도 관용표현의 유형을 나눌 수 있다. 중의성이 강하면 불투명성이 약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통사적 제약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 관용표현의 유형에 따라서 제약의 정도도 다르고 통사적 기제에 따라서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화용적으로도 다양한 변이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도 인식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관용표현에 대한 국어학적인 정보는 상당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고 정도성에 의해서 다양한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모든 세부 정보를 언어적 처리에 적용할 때 섬세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관용표현의 생성 과정에 나타난 다의화가 구성 전체에 나타나느냐, 부분에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형을 잘 구별하여 처리하고, 의미의 투명성 정도도 세분해야 하며, 통사적 제약 정도도 유형별, 통사 기제별로 세분을 잘 해야 이를 응용하고 활용하는 처리 과정도 쉽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적 관점에서 보면, 국어교육에서는 협의의 관용표현 중 문어적 관용표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광의의 관용표현 중 속담이나 격언 등 교육적 가치가 있는 유형에 대한 교육을 부각시키고 강조하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융통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에서의 관용표현 연구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는 관용표현 교육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용표현에 대한 국어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얻은 정보와 학습자의 언어권별 대조 연구 결과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관용표현과 관련된 여러 유형들(언어, 상용구절, 관용구절, 속담 등)을 구분하든지 아니면 합치든지 어떤 방법이 교육의 효율성을 가지는지를 판단하여 학습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여러 유형을 합쳐서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교육의 효율성을 위한 방안인 것이지 그 유형들이 동일한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구분은 해 주어야 한다.

사전학적 관점에서는 거시구조 측면에서 관용표현을 표제항이나 부표제항으로 배열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해야 하고, 미시구조 측면에서는 풍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전자사전에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이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야 하는 자연언어 처리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언어 현상을 자연어 처리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문맥에 대한 정보 반영이 필요하고, 실제 언어생활과 유사한 훈련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러한 데이터 구축을 위한 기초 작업

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는 관용의미와 축자의미 사이의 중의성을 잘 해결할 수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관용의미가 여러 개인 경우 그들 사이의 중의성을 해소하기 위한 다중 분류의 문제도 처리되어야 할 과제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여러 기준에 의해서 정도성의 차이를 가지고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관용표현에 대한 세부적인 분류와 이를 제대로 반영한 언어처리가 이루어졌을 때에 오류가 줄고 더 정확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제 관용표현에 대한 연구는 관용표현 자체에 대한 국어의미론적인 연구에서 나아가서 이에 대한 정보를 잘 활용하여 교육을 한다거나 번역을 하는 일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자연언어처리의 언어적 시스템을 잘 구축해 내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강원구(2014), 한국 문화 이해도가 한국어 관용표현 인지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위규(1990), 우리말 관용표현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고명(2017), 한·중 음식 관련 관용표현 대비와 교육 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고상변(2013), 한·중 '머리', '눈', '입' 관련 관용표현 비교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아라(2011), 관용표현의 어휘의미 확대양상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음(2009), '마음'을 표현하는 신체어 관용구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곡미여(2017),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관용구 교육 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공영(2011), 한국어 관용표현을 통한 개념 은유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감각기관 관용표현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픽셀튀르코쥬(2003), 언어,문화적 측면에서 한국어 교육 연구 - 터키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중심으로 -, 국어교육학연구, 국어교육학회, Vol.16 No.16.
- 교언림(2013), 한·중 관용표현의 비교 연구: 철정을 중심으로,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구현정(2011), 관용표현의 확장 기제: 신체어 '머리'를 중심으로, 담화와 인지 18-3, 담화인지언어학회.
- 구효진(2011), 한국어 관용표현 지도 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굴가혜(2017a),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관용표현 교육 방안, 한국어교육연구 6, 한국어교육연구학회.
- 굴가혜(2017b),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관용표현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출제된 표현들을 중심으로, 동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순영(2005), 한국어 감정관련 관용표현의 수업지도 방안,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고인(2021), 웹툰을 활용한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 방안 연구: 웹툰 <대학일기>를 활용하여,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근자(2005), 한·일 관용구 비교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남경(2011),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 방안,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동국·이상률(2015),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의 교육방안 연구: 동물명이 포함된 관용표현을 중심으로, 언어과학 22-1, 한국언어과학회.

김명춘(2008), 한국어 신체 관용표현의 교육 방안 연구: 일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부산외국어대 석사학위논문

김몽(2016), 한국어 교재의 관용표현 분석 연구, 가톨릭관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몽·이충우·김지은(2015), 한국어 교재분석을 통한 관용표현 교육 방안 연구, 교육과학 논문집 21,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김문창(2003), 한국어 관용표현 연구 요약, 한국어 의미학 13, 한국어의미학회.

김보경(2003), 번역에 있어서 한, 일, 영어의 관용표현 대조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서형(2013), 의미 확대와 관용표현의 유형, 어문논집 67, 민족어문학회.

김선영(2014), 한국어 관용표현의 화용적 특징 연구: 변이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11-3,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김세현(2016), 국어과 관용표현 교육 내용의 비판적 분석: 용어 및 범주의 문제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109, 한국국어교육학회.

김수정(2011), 영어권 학습자의 '눈' 관용표현 습득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수정·유석훈(2011), 영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눈' 관용표현 습득에 있어서의 모국어 전이 효과 연구, 언어정보 12, 고려대 언어정보연구소.

김애진(2009), 일본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관용어 교육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억조(2011), 국어 차원형용사를 포함한 관용표현의 의미 척도 연구, 어문학 113, 한국어문학회.

김영진(2014), 한국어 담화표지 {그래}의 관용표현 기능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옥(2012), 한국어 환유 표현 교육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은령(2014),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관용표현 이해 전략 분석과 교수 방안 연구, 부산외국어대 박사학위논문.

김은혜(2012), 연상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의미 교육 연구: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하대 석사학위논문.

김정남(2016), '돈' 관련 한국어 관용표현의 의미와 분포: 한국어 어휘 교육의 관점을 지향하며, 한국어와 문화 19, 숙명여대 한국어문화연구소.

김정아·송현주(2013), 친족어 관용표현의 개념화 양상, 언어과학연구 64, 언어과학연구회.

김정은·이소영(2001), 제2 언어로서의 한국어 표준 문법 -조사, 어미, 관용표현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19, 이중언어학회.

김종옥(2018), 신체어 '눈', '손'을 활용한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 방안,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종택(1971), 이디엄 연구, 어문학 25, 어문학회.

김지연(2005), 한·일 관용표현에 나타난 '개(견)'의 의미 특성 비교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지영·권혁철(1992), 합성명사의 의미 관계 분석 시스템을 위한 지식베이스 구축 기법, 한국 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9-2, 한국정보과학회.
- 김지혜(200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의 관용표현 연구, 대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진해(2003), 관용어의 직설의미와 관용의미의 관계 연구, 한국어 의미학 13, 한국어 의미학회.
- 김진해(2010a), 관용어 수식과 해석, 한국어의미학 32, 한국어의미학회.
- 김진해(2010b), 관용표현 연구의 새로운 쟁점, 한국어학 49, 한국어학회.
- 김춘호(2006), 한국어와 일본어의 색채표현 「녹·청」에 관한 대조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춘화(2021), 관용어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방안 考, 한국어교육연구 15-1, 한국어교육연구학회.
- 김한샘(1999), 현대 국어 관용구의 계량언어학적 연구, 연세대학교 국어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한샘(2003), 자연언어처리를 위한 관용표현 연구, 한국어의미학 13, 한국어의미학회.
- 김한샘(2005), 한국어 속어의 언어정보학적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한샘(2009), 한국어 관용구의 영어 번역 양상: 한영 병렬 말뭉치를 기반으로, 언어와 문화 5-3,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김향숙(2001), 한국어 감정표현 관용어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현진(2007), 한국어 관용표현의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 대한 연구, 대구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진(2015a),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육용 관용표현 연구: 주제 및 기능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진(2015b), 한국어 교육용 관용표현 연구, 한국어와 문화 17, 숙명여대 한국어문화연구소.
- 김혜원(2006), 중·한 관용표현 대조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화경(2012), 관용표현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까오펬이(2016),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 방안 연구,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꾸마리네하(2017), 인도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 지도방안 연구: 신체 관련 관용표현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나성진(2008), 국어 관용어와 그 지도방안 연구, 가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나세르자노바(2016),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신체 관용표현 대조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길임(2007), 부표제어의 범위와 유형: 속담·관용표현·언어·패턴·상투표현·자유표현의 기술, 한국사전학 9, 한국사전학회.
- 남길임(2011), 확장된 어휘 단위에 대한 연구 동향과 한국어의 기술, 한국사전학 18, 한국사전학회.

노채현(2004), 전문가 활동을 통한 관용표현 사용 능력 신장 방안,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누르갈리에바 아이굴(2008), 한국어와 러시아어 관용구의 비교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니조모바 굴도나(2020), 한국어·우즈베크어 대비를 활용한 한국어 신체 관용표현 교육 방안, 공주대 석사학위논문.

도원영·양보하(2009), 『한중관용구사전(韓中慣用句辭典)』편찬을 위한 연구, 한국사전학 13, 한국사전학회.

드엥타이링(2021), 베트남 내 대학의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관용표현을 활용한 문화 교육 방안,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마서(2007), 한·중 신체어 소재 관용표현 대조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막효뢰(2010), 한·중 음식 관련 관용표현 연구,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맛띠다우(2012),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신체 관련 관용표현 대조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맛띠다우(2016), 한국어와 미얀마어 관용표현의 표현 양상과 문화 요소 대조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매무나(2013),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와 우르두어의 관용표현 대조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묘춘매(2006), 한국 한자어 관용표현의 유형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문경희(2002), 한-일 기계 번역에서 다어절변환단위의 변환 방법, 포항공대 박사학위논문.

문금현(1996a), 국어 관용표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문금현(1996b), 관용표현의 생성과 소멸, 국어학 28, 국어학회.

문금현(1997), 신문에 나타난 관용표현의 특징, 국어국문학 120, 국어국문학회.

문금현(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관용표현의 교육, 이중언어학 15, 이중언어학회.

문금현(1999), 관용표현에 대한 국어교육학적 고찰, 선청어문 27,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문금현(2000), 구어적 관용표현의 특징, 언어 25-1, 한국언어학회.

문금현(2002), 한국어 어휘 교육을 위한 연어(連語) 학습 방안, 국어교육 109,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문금현(2005), 어휘 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 한국어교육론2, 한국문화사.

문금현(2013), 색채어 관련 관용표현에 나타난 인지의미 양상, 국어국문학 163, 국어국문학회.

문금현(2015), 미각어 관련 고정표현에 나타난 다의화와 인지의미의 양상, 새국어교육 102, 한국국어교육학회.

민현식(2003), 관용표현의 범위와 유형에 대한 재고, 한국어의미학 12, 한국어의미학회.

박근희(201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 방안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근희(2018),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인지언어학 기반 관용표현 교육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동근(2010), 관용표현의 의미 구조와 흉내말 변형 제약, *겨레어문학* 44, *겨레어문학회*.

박만규(2003), 관용표현의 범주적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의미론적 분석을 중심으로, *국어학* 41, *국어학회*.

박만규·이선웅·나윤희·이광호(2001), 21세기 세종계획 관용표현 전자사전 구축에 대하여, 제13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 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정보학회*.

박만규·이선웅·나윤희·이광호(2002), 21세기 세종계획 관용표현 전자사전 분과보고서.

박명아(2001), 국어 신체어 관련 관용표현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미선(2011), 일본인을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의 교육 방안,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민희(2019), 의존명사를 포함한 한국어 관용표현 연구: 숙어-연어 통사 분석 자료 구축 방안,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섯별(2018), 한국어 관용표현의 의미 투명도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중국어권 화자와 영어권 화자를 대상으로-, *언어사실과 관점* 44,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

박서윤(2021), 사전 훈련 언어 모델을 활용한 관용표현 분류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세영(2001), 국어 관용구 판정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소연(2008), 한국어 관용표현의 교수·학습 모형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영준·최경봉(1996), *관용어사전*, 태학사.

박영준·최경봉(2001), 관용어 사전의 실제와 개선 방안, *한국어학* 13, *한국어학회*.

박용배(2006), 한국어 관용표현의 교육 방법 연구: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인순(2011), *검인정 중1 국어교과서에 나타난 관용표현의 언어문화적 고찰*, *가톨릭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종갑(2009), 두부(頭部) 관련 관용표현 연구, *인문연구* 57,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박지훈(2011), 고등학교 국어 관용표현 지도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진아(2007), 자연어 질의응답 시스템 DB 모델링을 위한 특정 분야 텍스트의 언어적 특징 분석: 2006 FIFA 독일 월드컵 관련 한국어·불어 인터넷 신문 기사를 코퍼스로 선택하여 부분문법을 이용한 문형구조 추출,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진아(2018), 신체 관용표현을 통한 한국어 교육 방안,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진호(2003), 관용표현(慣用表現): 관용표현의 통사론과 의미론, *국어학* 41, *국어학회*.

배규범(2010), 중국 내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관용어 교육의 실상과 방향-목록 선정과 단계별 배치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1-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배유진(2016),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 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배인숙(2020), 플립러닝을 활용한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배진영(2009), 관용표현을 이루는 접속 관형절 구성: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사전학* 14, *한국사전학회*.

백낙천·막효뢰(2010), 한·중 음식 관련 관용표현의 특징 비교: 한국어교육적 접근을 위하여, *한*

국사상과 문학 53, 한국사상문화학회.

백석원(2012a), 관용표현 구성요소의 다의성, 한국사전학 19, 한국사전학회.

백석원(2012b), 국어 관용구와 다의어의 의미 관계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벨라로바 아이게림(2015), 한국어와 카자흐어의 관용어 대조 연구: 신체어휘 관용어에 나타나
는 감정표현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변명선(2000), 동물어휘소 관용표현의 의미분류에 관한 연구, 인문과학논집 22, 청주대 한국문
화연구소.

변명선(2003), 독일어와 한국어 신체어휘 「손」관용표현 연구, 인문과학논집 26, 청주대 한국문
화연구소.

사와다히로유키(2011), 학습 단계별 한국어 관용표현 선정 기준에 관한 연구-일본어 모어학습
자를 대상으로-, 국어교육학연구 42, 국어교육학회.

서수백(2016), 시트콤 자료를 활용한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 연구: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
을 대상으로, 인문논총 41, 경남대 인문과학연구소.

서수백(2017), 외국인 학습자 한국어 관용표현 작문 분석 연구, 한국말글학 34, 한국말글학
회.

서유경(2011), 한국어 관용표현의 러시아어 번역 전략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환(2013),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어 교육 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희(2021), 한국어 어휘 교육을 위한 다단어 단위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성소연(2008), 청각장애인의 관용어 이해 능력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소사(2015),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관용표현 교재 개발 방안 연구: 신체어 관련 관용표현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소옥문(2020), 한국 식문화 관련 관용표현 인식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소적(2012),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 연구,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소청(2013),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 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손예(2009), 한·중 신체어휘 중심의 관용표현 대비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손혜진·임형옥·공하림(2018), TV 드라마 대본을 통한 한국어 관용표현의 사용 맥락 고찰, 학
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지 18, 학습자 중심 교과 교육학회.

송아려(2015), 한·중 신체어의 감정표현 관용어 비교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현주(2017), 의식주 관련 한국어 관용표현의 동기화 양상, 한국어 의미학 58, 한국어의미학
회.

송현주·최진아(2011), 인지언어학에 기반을 둔 관용표현 교육 연구, 중등교육연구 59-3, 경북
대 중등교육연구소.

송혜원(2005), 한국어 교재의 관용표현 분석과 지도방안,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흙(2020),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색채어 관용표현 습득 양상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쉬야(2017),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미각 고정표현 교육방안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윤아(2021), 한국어 교육에서 유튜브 활용 블렌디드 교육 방안 연구: 관용표현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형근(2016), 관용표현의 유의 관계를 활용한 한국 언어문화 교육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신혜인(2010),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 및 교육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심재기(2003), 한국 문화와 관용표현, 한국어 의미학 13, 한국어의미학회.

심주연(2001),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관용표현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심지연(2005), 관용어 의미 연구사, 학위 논문의 국어 의미 연구 경향-연구사, 논문 목록-, 월 인.

심지연(2009), 국어 관용어의 인지의미론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심혜연(2020), 한국어 색채 관용표현의 인지의미론적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안소진(2012), 관용표현의 통사적 변형에 대한 시론, 언어와 언어학 56,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안소진(2019), 관용표현의 연상 표현에 대한 연구 -‘그림의떡’의 경우, 단어·구와의 비교를 통한 고찰-, 국어학 89, 국어학회.

안의정(2018), 어휘 풍요도 측정을 위한 관용표현의 빈도와 분포 연구, 언어사실과 관점 44,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

안혜리(2008), 관용표현 교육의 현황 분석 연구: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과 국어교과서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양가온(2014), 언어 학습 환경과 간접성 정도가 고정표현의 인식과 생산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엄아려(2018),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 사전 편찬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앵흐사를(2003), 한국어와 몽골어의 신체 관련 관용구 대조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연지은(2010), 한국어 교육을 위한 직유표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가을(2017), 몽골 학생을 위한 한국어 손발 관련 관용어 교육,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강바야르(2016), 한·몽 '눈' 관련 관용어 비교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설(2020), 한중 '푸르다' 류 색채어 대조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성아(2017),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관용표현 교육 방안 연구, 충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오영훈(2001), 언어표현에 나타난 의미의 처리과정, 독어학 3, Korean Society For German

Linguistics.

- 오옥정(2012), '먹다'류 관용적 언어의 단어화 과정,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인희(2021),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언어 교육 내용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태진(2018), 스페인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내용 연구: 신체 관련 관용표현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온로로(2015), TOPIK 고급수준에 나온 관용표현 연구, 호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왕방(2010), 신체 관련 관용표현의 교육 방안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왕안기(2008),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 연구: 신체어를 활용한 감정관용표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왕월(2011),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감정관련 관용표현 교육방법 연구: '사랑'과 '미움'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왕지국(2016), 한국어 관용표현의 학습법에 대하여 -얼굴과 관련된 표현을 중심으로, 한국(조선)어교육연구 11, 중국한국 조선어교육연구학회.
- 왕지화(2009), 한·중 신체어 관련 관용표현 대조 연구: 머리 부분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왕춘위(2013), 관용어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안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요금휘(2011),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용은미(2000), 국어 분노표현 관용어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우몽뢰(2015), 한·중 관용표현 대조 연구: 고빈도 한국어 구적 관용표현을 중심으로, 한국외대 석사학위논문.
- 우선미(2008),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용표현 교육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우여나(2018),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 방안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위진경(2020), 인지의미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와 스페인어의 색채어 비교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경숙(2012), 일본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색채어 관용표현의 교수·학습 방안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 유경화(2011), 한국어 관용표현 분석과 목록 선정 연구,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연동(2012),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의 음식 관용어 교육 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연희(2020), 한중 미각형용사 대조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진(2009), 한국어와 중국어의 '구부' 및 '두부' 관련 관용표현 대조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진(2012), 한·중 신체 관련 관용표현 대조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유파폰(2017), 태국인을 위한 한국어 관용어 교육방안 연구,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해준·손경애(2012), 한국어교육용 관용표현 제시 방안: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정보학 14-2, 한국어정보학회.

유환환(2016), 한·중 관용표현의 거짓친구(False Friends) 대조 연구, 대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미희(2020),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관용표현 교육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은미·우인혜(2017), 한국드라마를 활용한 한국 속담 교육 연구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서의 한국어 대사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110, 한국국어교육학회.

윤지훈(2008), 외국어로서 한국어 어휘 지도 방안: 관용표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응웬 티 꾸잉 안(2013), 한·베 감정적 신체 관용표현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응웬티탄타오(2020),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관용표현 의미 추론 전략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경숙(2007), 관용표현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반의현상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광순(2004), 초등 국어교육에서의 관용표현 지도 방안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광주(2003), 초등국어에서 관용표현 지도 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동혁(2005), 문법적 관용표현의 전산 처리, 한국어학 26, 한국어학회.

이동혁·오장근(2006), 다국어 어휘의미망에 한국어 관용표현을 연결하는 방법, 언어과학연구 36, 언어과학회.

이룬(2020), 한국어 감정 관련 관용표현의 교육 방안 연구: 중·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동신대 석사학위논문.

이명순(2013), 관용표현 교수-학습 방안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명아(2019), 한중 관용표현에 나타난 냉온(冷溫)표현 단어의 인지의미 분석, 한중인문학연구 65, 한중인문학회.

이명진(2011), 관용표현 교육에 대한 분석: 2007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이미희(2014), 고정표현을 활용한 어휘 교육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민경(2011), 한국어 감정 관련 표현의 교육 방안,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보람(2015), 탐구학습을 통한 관용어 의미지도,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보배(2011),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관용표현 교육 방안,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상섭 외(2001), 현대국어 관용어 사전 편찬의 연구, 1999년도 연세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한 연구보고서.

이수련(2006), 은유와 환유의 상호 작용성 연구: 관용표현을 중심으로, 한글 271, 한글학회.

이연니(2011), 한-일 신체어휘 관용어의 비교 연구, 선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윤정(2007), 국어 관용표현 지도 연구: 중·고등학교 지도 방안,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윤제(2010), 우리말 관용어 고찰: 지명 관용어를 중심으로, 수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은진·권연진(2018),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신체어 관용표현의 상호문화적 교육 방안 연구, 언어과학 25-1, 한국언어과학회.

이은희(2013), 한국어 금지표현 교육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정관(2015), 한국어 학습자의 관용표현 인식양상분석 및 지도방향,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종철(2001), 관용적 어휘소의 사용 양상과 지도 방법, 국어교육 104, 한국국어교육연구회.

이주용(2016), 한·일 양 언어의 신체어휘 관용표현 대조 연구: 감정·심리표현을 중심으로, 언어학연구 40, 한국중원언어학회.

이주용(2017), 한·일 신체어휘 관용표현 대조를 통한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주희(2009), 메타언어 활동을 통한 관용표현 지도 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지혜(2013), 광고매체에 나타난 관용표현의 의미와 그 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어와 문화 13, 숙명여대 한국어문화연구소.

이춘우(2018),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동물 관련 관용표현 교육 연구, 가톨릭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태영(2020), 일상적 관용표현 ‘호랭이 물어가네’의 용법과 의미 -전북 방언을 중심으로-, 어문론총 86, 한국문학언어학회.

이현주(2013),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관용표현 교육방안 연구: 신문 읽기를 중심으로,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이화배(2013), 한국어 교재 및 TOPIK에 실린 관용표현의 투명성 정도와 편찬 실태 연구,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이희자(2003), ‘관용표현’의 사전학적 연구-‘관용구 사전학’의 정립을 위하여 - 국어학 41, 국어학회.

이희자·유현경·김한샘·천미애(2007), 『학습용 한국어 관용표현 사전』편찬 연구, 한국사전학 9, 한국사전학회.

임근석(2002), 현대국어의 어휘적 연어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임근석(2005), 연어와 관용표현의 판별 기준에 대한 고찰, 우리말 연구 서른아홉 마당, 태학사.

임근석(2006), 한국어 연어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임근석(2008), 문법적 연어와 문법화의 관계, 국어학 51, 국어학회.

임혜진(2007), 학습자 수준별 관용표현 교수 항목에 대한 연구: 의미 투명도와 사용빈도를 바탕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자피로바 릴랴나 디모바(2016), 한국어와 불가리아어 '머리' 관련 관용표현 대조 연구, 경희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장결(2016), 한·중 색채어 비교를 통한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메이징(2017), '눈'과 '입' 관련 표현을 포함한 한·중 감정 관용표현 대비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미령(2011), 한국어와 중국어의 신체 관련 관용표현 비교 연구: '손'과 '발' 관련표현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영(2012), 중국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신체 관용표현의 교수 방안,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정(2012), 한국어와 중국어의 '손(手)' 및 '발(腳)' 관련 관용표현 대조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정정(2010),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관용표현 교육의 수준별 목록 선정 방법, 세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혜정(2008), 한국어 관용표현 속의 색채어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혜이메이(2014), 한국 드라마를 활용한 감정표현 관용어 교육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혜영(2001), 한국어 관용표현의 교육 방안, 한국어교육 1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정미숙(2008), 한국어문화교육에서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표현연구: 「뽀뽀」를 중심으로, 한국외대 석사학위논문

정성미(2008), 신체어 감정 관용표현의 서술어 의미 연구: 긴장과 분노 감정표현을 중심으로, 한국어의미학 27, 한국어 의미학회.

정송이(2019), 한국 영화에 나타난 교육용 관용표현 선정 및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은주(2005), 관용어와 속담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인남(2004), 신체관용표현의 개념적 은유 양상,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종수(2019), 한국어 화행의 전략 연구 - 관용 문장을 중심으로 -, 동아시아 문화연구 77,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조경순(2017), 관용표현에 나타난 '산'의 개념화 연구, 용봉논총 51, 전남대학교인문학연구소.

조동주(2018),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 방향-관용표현, 신조어, 속어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수봉(2012), 한국어 교육에서의 관용표현 지도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영화(2011),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관용표현 교육방안: 신체 내부 관련 관용표현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원(2016), 한중 곤충 관련 관용표현의 비교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유진(2018), 한국어 교육에서의 관용표현 교수 방안 연구: 감정표현을 중심으로, 동덕여대 석사학위논문.

조진이(2015), 문학작품을 활용한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 연구: 소설 『엄마를 부탁해』를 중심

으로,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창규(2006), 국어교과서의 관용표현에 대한 연구: 7차 국어교과서 관용표현의 빈도와 교과 내용 분석을 주로 하여, 배달말 38, 배달말학회.

조천(2013), 한·중 관용표현의 비교 연구 : 속담의 의미구조를 중심으로, 선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조현용(2003), 비언어적 행위 관련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 연구, 한국어교육 14-1,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조혜인(2011), 한국어 교육용 관용표현 목록 선정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혜진(2013), 스페인어와 한국어 분노 관용표현의 은유적 유형 분석, 이중언어학 53, 이중언어학회.

조혜진(2017), 한국어와 스페인어 신체어 관용표현의 거짓 짝 연구, 이중언어학 67, 이중언어학회.

종선(2009), 한·중 관용표현의 의미에 대한 서사적 접근: 한국어 교육과 관련하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좌호(2016) 한국어와 중국어의 신체 관련 관용표현에 대한 대조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주경미(2008), 20세기 초기 국어의 관용표현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주반(2020), 한·중 색채 관용표현의 대조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주영진(2001), 우리말 속담의 관용어되기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주유나(2012), 한·중·일의 관용적 비유표현 대조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진청(2018),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나타난 은유적 표현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채병열(2019), 한국어 관용표현의 통사 분석 연구: 문법 연어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채부규(2008),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직유표현 교육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천선영(2013), 한·중 신체 관련 관용표현의 비교 연구, 선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천포웨이(2014), 한·중 신체 어휘 관용어 비교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초은웅(1911), 『俚諺四叢』.

최경봉(1995), 국어사전에서의 관용적 표현의 처리 문제-관용어, 속담, 연어에 대한 처리를 중심으로-, 한남어문학 20, 한남어문학회.

최경봉(2014), 우리말 관용어사전, 일조각.

최권진(2008), 속담을 활용한 한국어교재 개발의 실제, 국어교육연구 2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최문진(2014), 태국인 초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언어문화 교육 방안,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본(2011), 속담·사자성어를 활용한 관용표현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석재(2012), 어휘의 부류와 감정표현 관용구의 의미, 한국어학 55, 한국어학회.

최석재·정연주·정경미·홍종선(2011), 구조에서 나타나는 감정표현 관용구의 의미, 한국어의미학 35, 한국어 의미학회.

최소영(2017), 외국인 학습자 대상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 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수진(2008), 중국어권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위한 중·한 번역 교육 방안 연구: 관용어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1, 한중인문학회.

최수진(2013), 관용어 의미의 투명성을 고려한 교육용 관용어 목록 연구: 중학교 1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은정(2012), 한중 문학 번역에서 문화적인 요소의 번역 문제(1): 관용표현을 중심으로, 중국 소설논총 37, 한국중국소설학회.

최인옥(2014),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 방안: 영상도식(ImageSchema) 은유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준(2015), 한국어의 확장된 어휘 단위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준(2016), 한국어의 확장된 어휘 단위의 층위 연구, 어문연구 87, 어문연구학회.

최지영(201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관용표현 지도 방안: 영화'식객-김치전쟁'을 중심으로, 고신대 석사학위논문

최택호(2004), 한일 양언어의 신체 어휘를 사용한 관용표현 연구,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혜령(2007), 초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 지도방안,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취자후이(2017),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관용표현 교육 방안 연구, 동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코다야 마유미(2018), 한국의 정문화 교육 방안 연구: 정문화 관련 언어표현을 중심으로, 부산외대 석사학위논문.

특즈셴게 첸드야요시(2014), 한국어와 몽골어의 동물 관련 관용표현 비교 연구,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팜 응웬 넷 브이(2020),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베 관용표현 대조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평잉(2014), 한국어 신체어휘 관용표현에 대한 중국어 대응표현 대조 연구,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푸렙 어딩치맥(2008), 한·몽 감정 관련 관용표현의 의미와 번역 연구: 신체어를 중심으로, 경기대 석사학위논문.

하정선(2008), 한·중 관용어 비교 연구: 12생초 관용어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하진희(2006), 우리말 관용표현의 관용성 척도 설정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명주(2019), 한국어 관용표현의 은유 양상 연구: 동물명이 포함된 관용표현을 중심으로, 안양대 석사학위논문.

형재연(201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 방안 연구: 주제 및 기능과의 연계성을 중

심으로,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호심(2012),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동물 비유표현 교육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호정은·박만규(2005), 세종 속담 전자사전에 대한 연구, 한국사전학 5, 한국사전학회.

홍기용(2020), TV예능프로그램을 활용한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방안 연구: SBS 예능프로그램 '런닝맨'을 대상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홍예화(2018), 중국어 관용어의 조선어번역 책략 및 교수 방안, 중국조선어문 218,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홍하영(2017), 프랑스어 학습자를 위한 관용어 교육 연구: A2 수준을 위한 관용어 목록 수립,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황단(2011), 한국어 '소원'의 뜻을 나타내는 관용표현과 중국어에서의 대응 형식: '-싶다' 관용표현을 중심으로, 송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황미연(2006), 한국어와 중국어의 관용표현 대조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황정아(2006), 한국어 관용어와 관용표현의 관계, 한국언어문화학 3-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황정아(2008), 한중 관용어의 표현 양상과 내포 문화 비교,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황정혜(2010), 한·중 관용표현을 통한 한국 문화 교육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황지성(2019), 교육연극을 활용한 관용표현 지도 방안 연구, 춘천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황현숙(2003), '발' 관계 관용표현의 의미 확장 연구, 인문학연구 30-2, 충남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황화상(2014), 관용표현과 어휘부, 그리고 문장의 형성, 한국어학 65, 한국어학회.

Burger, H.(2000), Phraseologie.(천미애 역, 성구론입문, 세기문화사).

Fahmy Yasmine(2017), 이집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신체 관용어 교육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Fan Qiqi(2018), 한국어 색채어가 포함된 관용표현 속에 색채어의 의미 확장 양상,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Li ShaSha(2016),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관용표현 교육 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Li Shun Fu(2011), 중국인 학습자 대상 한국어 관용표현의 단계별 목록 선정 방안 연구: 신체어 '손'과 '발'을 중심으로,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Luo Guangchun(2017), 한국어교육학에서의 관용표현 연구사 고찰,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Ma Jun(2013),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중 관용표현 대조 연구: 중국에서 발간된 한국어교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Mona Baker(1992), In other words: a coursebook on translation, 곽은주 외 역(2005), 말 바꾸기, 한국문화사.

- Nguyen Phuong Dung(2020),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베 관용어 대응 유형 분석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Qiao Xian(2018), 한국어와 중국어의 냉각 관련 표현 대조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Simuang Kewalin(2016), 한국어와 태국어의 신체 관용표현 대조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Thida Oo Myat(2015), 미얀마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신체 관련 관용표현 교육 연구, 외국어교육연구 29-3,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
- Wang An qi(2008),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Wang Yinchun(2017),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이동 동사의 관용표현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Xu Wenbin(2021), 한·중 관용표현 번역 과정에 대한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Zhang Weixuan(2019),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 목록 선정 연구: 한·중 동형 등의 관용표현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Zhang Wenyi(2013),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명사형 관용표현에 대한 이해도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Zhuang Yu(2009), 한국어와 중국어의 신체 관용표현에 대한 비교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의미-텍스트 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본 관용표현의 특성

임근석(국민대)

1. 서론

본고는 의미-텍스트 이론(Meaning-Text Theory, La Théorie Linguistique Sens-Texte)¹⁾에서 관용표현이 어떻게 정의되고 범주적 위치는 어떻게 설정되는지, 그 과정에서 관용표현만의 특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한국어 관용표현 연구를 심화할 바는 없는지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우선 다음과 같은 절차적인 설명이 우선되어야 할 듯하다. ① 본고의 관용표현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② 관용표현 연구는 왜 중요한가? ③ 의미-텍스트 이론은 무엇인가?

첫째, ‘관용표현’이라는 개념이 가리키는 외연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 언어학의 여타 주제들처럼, 이 분야에서도 개념어와 그 개념어가 포괄하는 범위에 대하여 연구자들마다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일단 본고에서는 “시험에 떨어지다”의 의미를 가지는 ‘미역국을 먹다’의 예처럼,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지고 일반적인 자유 결합의 구성과 달리 구성 요소들의 의미가 불투명한 것을 ‘관용표현’이라고 부르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흔히 영어의 idiom에 대응하고 국내에서는 속어라고도 불리는 것들이라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언어 단위 외에도 관용표현을 포괄하는 범주 그리고 관용표현과 인접한 범주에 대한 논의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다양한 언어적 특성에 대해서는 3절에서 살펴볼 예정이다.

둘째, 관용표현은 모든 언어에 존재하며, 모든 텍스트 장르에서 풍부하게 나타난다는 점에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언어학 내부적으로는 Mel’cuk(2013:129)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관용표현이 통사적으로는 규칙적이지만 generate될 수 없다는 점에서(syntaxiquement réguliers, ils ne peuvent pourtant pas être « générés »), 순수 형식 이론에 대한 피할 수 없는 커다란 도전이 되어 왔다.²⁾

셋째, 본고의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의미-텍스트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에 대한 소개가 필요한 데 이는 2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1) 의미-텍스트 이론은 주로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등으로 출간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영어와 프랑스어 논저만을 검토 대상으로 삼았음을 밝혀둔다. 원어를 밝힐 때, 영어와 프랑스어 순으로 제시하되 모호하지 않을 때는 영어만을 제시하기로 한다.

2) Mel’cuk은 다음과 같은 일화를 소개하며 관용표현이 가지는 가치는 평가한 바 있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약 50년 전에 고인이 된 David Hays가 저에게 관용표현이 무엇이라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있다. 내가 그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자, 그가 입에 물고 있던 커다란 시가를 꺼내 연기를 내뿜으며 <<관용 표현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촛스키를 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국내 학계에서 관용표현, 그리고 관용표현을 둘러싼 범주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고 그 외연을 어떻게 한정하고 있는지 대해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듯하다.

(1) 국내 선행 연구에서의 관용표현 정의 및 분류

심재기 (1986)	- 관용표현은 보통적이고 일상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의미나 어휘나 어구로부터 약간의 의미를 굴절시킨 것. - 어휘적 차원의 관용표현에는 속어, 은어, 비속어, 비유어, 금기어 등이 있고, 어구 및 문장차원의 관용표현에는 속담, 고사성어, 금기어, 길흉담, 해몽담, 격언, 금언, 잠언, 인사말 등이 있다. - 속어는 두 개 이상의 단어(혹은 어간형태소)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와 동일한 통사적 및 화용론적 기능을 수행하는 일군의 결합어휘를 지칭한다.
이희자 (1995)	- 속어란 ‘둘 이상의 어절이 습관적으로 결합하여 쓰이면서 이들 낱말의 의미의 합으로는 산출되지 않는 제삼의 의미를 지니는 구절들’을 일컫는 말로서, 의미상 더 이상 나눌 수 없이 어휘화된 어절 결합을 말한다. 그 구성 요소들의 개별적 의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그 특징이다.
문금현 (1996)	- 관용 표현은 광의의 관용표현과 협의의 관용 표현으로 나눌 수 있으며, 광의의 관용 표현이란 습관적으로 굳어져 쓰이는 익숙한 표현으로 협의의 관용 표현이 가져야 할 여러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관용적 의미를 가지고 습관적으로 쓰이는 표현을 말한다. - 관용어, 관용구, 관용절, 관용문(형식적 차원의 분류) - 불투명한 유형, 반불투명한 유형, 반투명한 유형(투명성 기준)
박진호 (2003)	- 관용표현이란, 필연적이지 않은, 관습적인 속성을 지니는 언어 표현을 말하는데, 이 관습성은 결합, 의미, 사용의 세 가지 측면에서 발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언어, 속어, 화용론적 관용표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김한샘 (2003)	- 관용표현은 두 개 이상의 구성 요소를 가지며 각 구성 요소 의미의 합으로 전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언어 표현.

(1)에 제시한 논저 외에도 관용표현 논의에서 중요하게 인용되는 논의들은 수없이 많은 듯하다. (1)은 관용표현 논의에서 비교적 자주 언급되면서도 본고의 논의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만을 일부 제시한 것임을 밝혀둔다. (1)에서 대체로 발견되는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³⁾

(2) ㄱ. 관용표현 외에도 속어, 관용어, 관용구 등 다양한 개념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대체로 이들 사이의 위계 관계를 상정하고 있다.

ㄴ. 관용표현의 판별 기준으로 형식적, 의미적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형식적 기준으로는 대체로 둘 이상의 단어나 구성 요소로 이루어졌음을 의미적 기준으로는 제3의

3) (2)에 제시한 논의가 모두 (3)의 특징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미라는 의미적 불투명성 기준을 가지고 있다.

ㄷ. 본고의 논의 대상으로 제시한 ‘미역국을 먹다’가 논자에 따라 관용표현, 관용구, 속어 등 다양한 용어로 제시되고 있다.

국내의 선행 연구자들이 관용표현의 개념 정립과 범주적 위계 관계(2ㄱ), 그리고 관용표현의 핵심적 속성이나 유형 분류의 기준을 확정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2ㄴ),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용어나 범주상의 통일된 시각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2ㄷ), 꼭 용어나 외연의 통일이 필수적일 필요는 없는 듯하다. 보다 중요한 것은, ‘미역국을 먹다’와 같은 대상들이 가지는 언어적 특성들을 얼마나 정확히 포착하고 엄격하게(rigorous)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점일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국내의 관용표현 연구의 성과에 더해 의미-텍스트 이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취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2절에서는 의미-텍스트 이론의 기본적 성격에 대해서 설명하고, 3절에서는 관용표현의 범주적 위치와 특성에 대해서 다각도로 살펴볼 것이다. 4절에서는 본고의 논의를 정리하며 의미-텍스트 이론적 한국어 관용표현 연구의 미래에 대해 언급하도록 하겠다.

2. 의미-텍스트 이론(Meaning-Text Theory)

그렇다면 본고는 관용표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왜 의미-텍스트 이론(Meaning-Text Theory)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인가? 이는 기본적으로 본고의 논의가 진행되면서 그 타당성과 유용성이 어느 정도 모습을 드러내야 하고, 후속되는 논의로 입증될 필요가 있는 사항이기는 하다. 그러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기에서는 의미-텍스트 이론이 한국에 어떻게 도입되었으며, 그 의미-텍스트 이론이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론적 토대는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의미-텍스트 이론은 1960년대 Mel'cuk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 제기된 언어 이론으로 {의미} ⇔ {텍스트} 대응 관계 즉, 의미-텍스트 모형을 설명하고 기술하기 위한 언어 이론이다.⁴⁾ 발표자가 알고 있는 바로는 1990년대 국내의 일부 프랑스어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의미-텍스트 이론과 그 이론에 바탕을 둔 설명-결합 사전(Dictionnaire Explicatif et Combinatoire)⁵⁾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며 Igor Mel'cuk, Alain Polguère, Jasmina Milićević 교수 등이 한국의 학술대회나 학술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의미-텍스트 이론이 소개되고 이 이론이 일부의 국어학자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된 바 있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관용표현의 경우에도 박만규(2003), 박진호(2003), 세종계획전자사전 관용표현사전 등에서 의

4) 의미-텍스트 이론을 다루고 있는 학자도 많고 동일한 학자라도 여러 논문에서 표현을 미세하게 달리하여 논하는 경우가 있다. 발표자가 판단하기에는 최신의 것이면서도 가장 세밀하게 그리고 종합적으로 다룬 것으로는 Mel'cuk(2012a, 2013a, 2015)의 Semantics I~III을 들 수 있을 듯하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도 의미-텍스트 이론에 대한 설명에서는 Mel'cuk(2012a, 2013a, 2015)의 것을 기본으로 하되, 간략한 설명을 위해 멜추크의 다른 논의나 다른 학자의 것도 일부 가져왔음을 밝혀둔다.

5) 설명-결합 사전은 의미-텍스트 이론을 반영한 사전으로 자세한 특징에 대해서는 이병근·박진호(2000) 참고.

미-텍스트 이론의 관점이 일부 반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 논의가 의미-텍스트 이론에만 초점을 맞춘 것도 아니었고, 2000년 초기 이후에 의미-텍스트 이론에 대한 관심도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잦아들면서 의미-텍스트 이론의 관점에서 한국어 관용표현을 논의한 논저를 찾아보기 어려워지게 되었다. 한편, 2000년대 초반 이후에도 의미-텍스트 이론은 꾸준히 정교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고, 국제적으로 그 출판물과 결과물의 양을 늘려오고 있다. 또한 뒤에서 살펴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텍스트 이론은 한국어 관용표현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실용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매우 효율적인 점이 있어 한국어 관용표현 연구에 기여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된다.

의미-텍스트 이론에 따르면, 화자와 청자 사이의 언어 소통 행위는 세 가지 주요 실체(entity) 즉, **의미**^{meaning}(화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언어적 내용), **텍스트**^{text}(화자가 의도하고 있는 심리적 언어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리적 언어 기호), 의미와 텍스트 사이의 **사상 mapping**을 포함한다. 의미-텍스트 이론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주요한 가정(postulate)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정1

자연 언어는 무한한 수의 의미(meaning) 집합과 무한한 수의 텍스트(text) 집합 사이의 다대다(many-to-many) 대응 관계를 명세하는 무한한 수의 규칙 집합으로 간주된다.

여기에서 의미(meaning)는 의사소통될 언어 내용을, 텍스트(text)는 그 길이의 길고 짧음과 상관없이 발화의 어떤 부분을 가리킨다. 의미와 텍스트가 다대다(many-to-many) 관계라는 것은 하나의 의미가 여러 텍스트에 의해 표현될 수도 있고(동의어), 하나의 텍스트가 여러 의미에 대응할 수도 있음을 가리킨다(동음어나 다의어).

가정2

의미-텍스트 대응 관계는 원어민 화자의 언어 활동을 모방하는(simulate) 형식적 장치인 의미-텍스트 모형(Meaning-Text Model)에 의해 기술되어야 한다.

의미-텍스트 모형은 주어진 의미 표상을 구현하는(implement) 모든 동의적 텍스트(즉, 환언 paraphrase)를 생성(synthesis)할⁶⁾ 수 있어야 하고, 반대로 주어진 텍스트로부터 모든 기저 의미 표상을 추출할(extract) 수 있어야 한다. 의미-텍스트 모형의 입력항(input)과 출력항(output)은 화자에게 접근 가능하지만(accessible), 그 입력항과 출력항을 연결하는 규칙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의미-텍스트 모형이 할 수 있는 일은 가능한 최대한 근사치로 그 의미-텍

6) synthesis의 번역어로 생성을 선택하였으나, generate/generative의 생성이 아님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Mel'cuk(2012a:121)에서 밝히고 있듯이, 의미-텍스트 모형은 결코 generative device가 아니고, 엄밀히 동등적인(equative) 혹은 번역의 속성을 가질 수 있는(translative)한 도구이다. 즉, 의미-텍스트 모형은 언어 L에 소속될 수 있는 모든 문법적 텍스트 그리고 L언어에만 존재하는 문법적인 텍스트를 generate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의미-텍스트 모형은 단순히 원어민 화자의 직관에 따라 어떤 의미표상(SemR)이 어떤 표층음운표상(SPhonR)에 어울리는지(match)에 대해 진술할 뿐이다.

스트 대응관계를 모방하는 것이다. 즉, 의미-텍스트 모형은 언어의 구조적 모형이라기보다는 기능적 모형이다.

마지막으로 의미-텍스트 모형은 의미와 텍스트의 중간 층위로 통사표상(SynR)과 형태표상(MorphR) 단계를 가정한다.

가정3

의미-텍스트 대응 관계를 표상하기 위해, 두 개의 중간적 표상 층위가 도입된다.

- 문장을 목표로 하는 통사표상(SynR)
- 단어형(wordform)을 목표로 하는 형태표상(MorphR)

의미 표상을 제외한 각 층위에는 심층 층위와 표층 층위로 나뉘는데, 전자는 의미(표현의 내용)를 지향하고, 후자는 텍스트(표현의 형식)를 지향한다. 그리하여 의미-텍스트 모형에는 총 7개의 층위가 가정된다(의미표상^{SemR[=Meaning]}, 심층통사표상^{DSyntR}, 표층통사표상^{SSyntR}, 심층형태표상^{DMorphR}, 표층형태표상^{SMorphR}, 심층음운표상^{DPhonR}, 표층음운표상^{SPhonR[=Text]}).

(2) 의미-텍스트 모형의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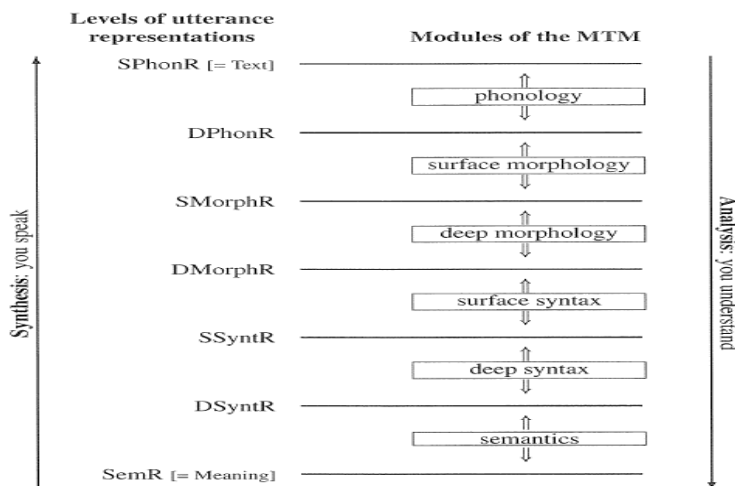


그림 (2)는 의미-텍스트 모형의 기본적인 구조를 보인 것이다. 의미-텍스트 이론은 (2)의 의미-텍스트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이론이다. 그림 (2)는 화자의 관점에서 의미가 어떻게 텍스트로 생성되는지에 대한 측면(Synthesis)과, 청자의 측면에서 텍스트가 어떻게 의미로 해석되는가에 대한 측면(Analysis)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즉, 전자는 그림 (2) 하단의 의미표상(SemR)에서 출발하여 그림 상단의 표층음운표상(SPhonR)으로의 생성 과정을, 후자는 그 반대 방향의 해석 과정을 보이고 있다. 논리적으로는 두 가지 방향의 접근이 모두 가능하지만, 의미-텍스트 이론에서는 자연어에서 화자가 청자보다 더 현저한 지위를 갖고 있고 언어학의 여러 층위에서도 화자의 현저성이 확인된다는 점을 중시하여 생성의 관점에 초점을 둔다. 화자는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알고 있고, 단지 순수하게 그 발화를 구성할 언어적 지

식만을 필요로 하는 반면, 청자는 발화를 이해하기 위해 순수한 언어적 지식 외에도 언어 외적 지식에 의존할 필요가 있다.⁷⁾ 따라서 의미-텍스트 모형에서는 어떤 표현 E가 언어 L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보다는 어떤 의미 M이 언어 L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더 관심을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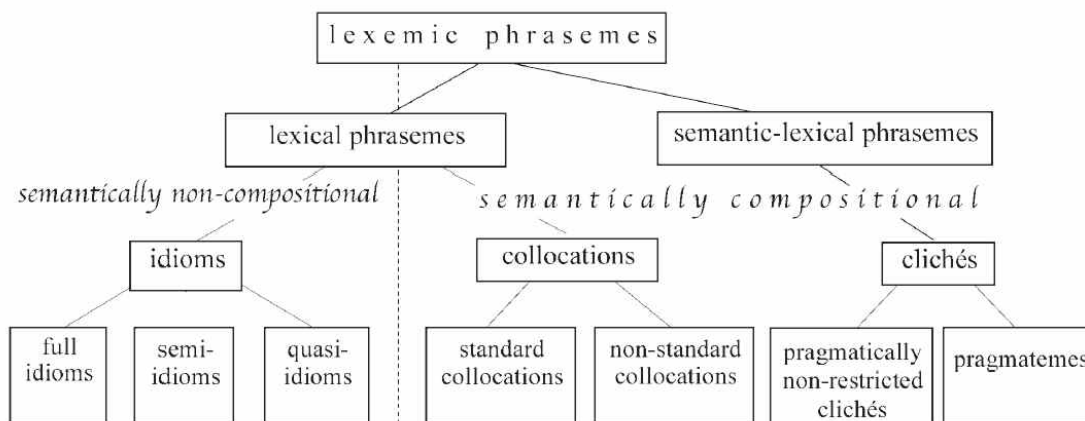
의미에서 텍스트로의 생성에 초점을 맞추는 의미-텍스트 이론적 접근법은 관용표현에 이해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관용표현의 의미 해석에 초점을 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관용표현의 생성에 관심을 갖는다. 다음 절에서는 의미-텍스트 이론에서 관용표현의 범주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3. 관용표현의 범주적 위치와 특성

3.1. 도입

의미-텍스트 이론에서 ‘미역국을 먹다’와 같은 관용표현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관용표현의 범주적 위치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어휘소 성구조(lexemic phraseme)의 분류(Mel’cuk 2015:332)



그림(3)은 멜추크의 의미-텍스트 이론에서 관용표현(idiom)의 범주적 위치를 확인하게 해주는 어휘소 성구조(lexemic phraseme)의 분류도이다. 관용표현이 어휘소 성구조(lexemic phraseme)⁸⁾ 아래 어휘적 성구조(lexical phraseme)의 하위 범주로 자리하고 있으며, 동일 층위에 연어(collocation)와 클리셰(cliché)가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휘소 성구조(lexemic phraseme)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미-텍스트 이론에서 상정하는 어휘소(lexeme), 성구조(phraseme)의 개념을

7) 화자의 현저한 지위에 자세한 논의는 Mel’cuk(2012a) 122~152 참고할 것.

8) phraseme은 논자에 따라 숙어소, 관용표현, 성구조 등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phraseme을 성구조, phraseology를 성구론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idiom을 관용표현이나 숙어라고 번역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반영한 것이다.

확인하고 성구소의 정의와 판별에 동원되는 몇 가지 개념과 기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둘째, 어휘적 성구소와 의미-어휘적 성구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한다. 셋째, 관용표현의 범주적 특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면서도 연어(collocation), 클리셰(cliché), 화용소(pragmateme)와는 관용표현이 정의나 판별의 측면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넷째, 관용표현의 하위 유형별 차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top-down의 방식을 이용하여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3.2. 성구소(phrase)

의미-텍스트 이론에서는 어휘부(lexicon)에서 기술되는 기본 단위를 **어휘 요소**(lexical unit, lexie)라 한다. 이를 설명결합사전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어휘 요소는 하나의 잘 정의된 사전학적 어의(sense, acception)를 가지는 표제항이다. 어휘 요소에는 하나의 단어로 구성된 **어휘소**(lexeme, lexème)와 다단어 형식의 **관용표현**(idiom)이 있다.⁹⁾ 관용표현은 대표적인 성구소(phrase, phrasème) 중 하나이다. 성구소가 무엇인지는 아래에서 천천히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다음의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주목하여 보자. 하나는 의미-텍스트 이론에서 어휘부나 사전학의 기본 단위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의 어의(sense) 즉, 어휘 요소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여러 의미를 가지는 다의어 ‘머리’가 어휘론이나 사전학의 기본 단위가 아니라, 다의어 ‘머리’가 가지는 각각의 어의 즉, 의미-텍스트 이론의 용어로는 어휘소인 ‘머리①’, ‘머리②’…… 등이 기본 단위가 된다. 다른 하나는, ‘미역국을 먹다’와 같은 관용표현이 하나의 어휘 요소로서 ‘머리①’과 대등하게 처리된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기존 사전학이나 사전편찬학에서 단어의 다의를 기술하거나 관용표현을 부표제항처럼 다루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단어가 아닌 어휘 요소 즉, 어휘소와 관용표현이 표제항의 단위가 된다는 것으로 이것이 설명결합사전의 큰 특징 중 하나이다.

위에서 ‘미역국을 먹다’를 성구소의 예로 제시하였는데, 사실 성구소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합성성(compositionality)의 원리, ‘성구화된다는 것(be phraseologized)’의 개념을 살펴본 후, 성구소의 정의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합성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흔히 합성성은 의미적 측면에서만 다루어지는데, 맥축의 논의에서는 세 가지 차원에서 합성성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5) 합성성의 원리(Mel’cuk 2012a:27-28, 2015:294-295)

- 언어 기호 **A**¹⁰⁾와 언어 기호 **B**로 구성된 복합 언어 기호 **AB**는 **AB = A ⊕ B**일 때에만 합성적이라고 일컬어진다.

9) Mel’cuk & Polguère(1995)에서는 어휘 요소(lexical unit, lexème)의 두 번째 유형을 phrasème이라고 하고, Mel’cuk(2012a) 그리고 그 이후의 논저들에서는 idiom이라고 하고 있다. 성구소 중 관용표현은 어휘소처럼 어휘부나 설명결합사전에서 독립된 표제항으로 처리되지만, 연어와 클리셰(화용소 포함)는 그 핵(base)의 표제항에서 기술된다는 점을 좀 더 명시적으로 밝힌 것으로 이해된다. 본고는 최신의 논의를 따른다. 다만 의미-텍스트 생성 방향을 간명하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어휘소, 관용표현, 연어, 클리셰를 동일 선상에 놓고 이해하는 것이 더 명료할 때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3.5.에서 관련된 논의를 추가하기로 한다.

- $AB = A \oplus B$ 는 복합 언어 기호 AB 가 언어 기호 A 와 언어 기호 B 의 규칙적 연합(regular union)이라는 뜻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을 만족시켜야 한다.

$$\textcircled{1} \langle AB \rangle = \langle A \rangle \oplus \langle B \rangle = \langle A \oplus B \rangle$$

$$\textcircled{2} /AB/ = /A/ \oplus /B/ = /A \oplus B/$$

$$\textcircled{3} \sum_{AB} = \sum_A \oplus \sum_B = \sum_{A \oplus B}$$

여기에서 규칙적이라는 것은 충분히 일반적인 규칙에 의해 수행된다는 뜻이고, $\oplus$ 는 언어적 연합 작용¹¹⁾을 표상한다. 그리하여 합성적인 복합 기호 AB 의 기의는 그 구성 요소인 언어 기호 A 와 언어 기호 B 로부터 언어 L 의 규칙에 의해 만들어진다(①). 기표와 통사적 특성 역시 마찬가지이다(각각 ②, ③). 예를 들어, 복합 언어 기호 **가을 하늘**은 개별 기호 **가을**과 개별 기호 **하늘**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의의 측면에서 $\langle \text{가을} \rangle \oplus \langle \text{하늘} \rangle = \langle \text{가을 하늘} \rangle$ 을 포착해 낼 수 있고, 기표의 측면에서도 $/\text{가을}/ \oplus / \text{하늘}/ = / \text{가을 하늘} /$ 을 얻을 수 있으며, **가을**과 **하늘**의 통사속성을 무엇으로 보든지 간에 둘의 결합에서 일반적인 연합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언어 기호 **가을 하늘**은 합성적(compositional)이다.

위에서 제시한 기의, 기표, 통사속성의 기준에 따라 합성성이 지켜지지 않는 유형도 크게 세 가지로 묶어 볼 수 있다. 간략한 논의를 위해 기표와 기의의 비합성성을 논의할 때에는 통사속성(syntactics)에 대한 언급은 생략하도록 한다.

첫째, 기표의 측면에서 합성성을 지키지는 못하지만 기의에 측면에서는 비합성적인 경우가 있다. 보충법적 쓰임이 대표적인데, 영어의 **am**을 살펴보기로 한다.

(6) am의 비합성성

$$\text{am} \neq \text{be-} \langle \text{be} \rangle \oplus -\emptyset_{\text{IND,PRES}} \oplus -\emptyset_{\text{1SG}}$$

(6)은 $\langle \text{be} \rangle$ 의미를 가지는 언어기호 **be-**가 IND,PRES 의미를 가지는 영형식의 언어 기호 그리고 1SG의 의미를 가지는 영형식의 언어기호와 연합할 때 비합성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다. 비록 기의의 측면에서 보면, $\langle \text{be} \rangle \text{ IND, PRES, I, SG} = \langle \text{be} \rangle \oplus \text{IND, PRES} \oplus \text{1, SG}$ 처럼 분석할 수 있어서 합성성을 지키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기표의 측면에서 보면, $/\text{æm}/ \neq / \text{bi}/ \oplus / \emptyset/ \oplus / \emptyset/$ 에서 보듯이 합성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영어 **am**은 기의의

10) 의미-텍스트 이론에서는 언어 기호 **s**를 $\mathbf{s} = \langle 's', /s/; \sum_s \rangle$ 의 3항(triplet)으로 표시한다. 여기에서 's'는 기의(signified)이고, /s/는 기표(signifier) 그리고 $\sum_s$ 는 기표와 기의 쌍이 가지는 통사속성(syntactics)이다. 통사속성은 언어기호의 구성성분으로, 해당 언어기호의 기의나 기표로 결정되지 않는 다른 기호들과의 공기제약(restriction of cooccurrence)을 명시한다. 어휘 요소 L 의 통사속성은 품사, 가산명사와 물질명사의 구분, 복수 변이형, 지배 패턴, 동의어, 반의어, conversive, 어휘함수 등의 정보를 담는다.

한국어 텍스트에서 작은따옴표 자주 그리고 다양한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기에 이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 > 기호를 작은따옴표 대신에 사용하기로 한다. 언어기호는 굵은 글씨체로 표시하기로 한다. 언어 표현은 작은 따옴표나 큰따옴표를 사용하기로 한다.

11) $\oplus$ 는 합성성을 정의하기 위해 도입된 언어적 연합 기호이다. $\oplus$ 는 수학의 덧셈을 연상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더 복잡한 정도성을 포함하고 있다. $\oplus$ 은 매우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연산으로서, 단어형, 구, 절, 문장을 형성하기 위해 언어 기호의 구성성분을 통합함으로써(unite) 언어 L 의 언어 기호들 통합하는 연산이다.

측면에서는 합성성을 지키나 기표의 측면에서는 합성성을 지키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국어 높임 표현에서 보충법적으로 사용되는 **자시**-를 (6)의 방식으로 최대한 간략화하여 제시한다면, **자시**- $\neq$ **먹**- <먹-> $\oplus$ **-시**-_{HON} 로 표시됨으로써 기의의 측면에서는 <먹-> _{HON} = <먹-> $\oplus$ _{HON}으로 분석되어 합성성을 지키나, 기표의 측면에서는 /자시/ $\neq$ /먹/ $\oplus$ /시/가 되어 합성성을 지키지 못함을 알 수 있다.¹²⁾

둘째, 기표의 측면에서는 합성성을 지키나 기의의 측면에서 합성성이 유지되지 못하는 예로 합성어(compound)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한다.¹³⁾ 예를 들어, <대학살>의 의미를 가지는 합성어인 **bloodbath**는 기표의 측면에서 **blood**와 **bath**의 언어적 연합을 지키고 있어 기표적 합성성은 지키고 있으나, <대학살> $\neq$ <피> $\oplus$ <목욕>에서 보듯이 구성 성분 의미의 언어적 연합으로 <대학살>이라는 의미를 규칙적으로 표상해 낼 수 없다. 따라서 기의적 측면에서 비합성적이다. 국어에서 융합합성어라고 부르는 **세월**, **산하**와 같은 예들 역시 동일하다. 본고의 논의 대상인 관용표현 역시 이 유형에 해당한다. <낙방하->의 의미를 가지는 **미역국을 먹**-은 기표의 차원에서 /미역국을 먹/ = /미역국/ $\oplus$ /을/ $\oplus$ /먹/으로 합성성을 유지하나, 기의의 측면에서는 <낙방하-> $\neq$ <미역국> $\oplus$ <먹->으로 분석된다.¹⁴⁾ 즉, <미역국>이나 <먹->으로부터 <낙방하->의 의미를 규칙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점에서 비합성적이다.

마지막으로, 통사속성(syntactics)의 측면에서 합성성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Mel'cuk(2015:342)에서는 이러한 유형을 조합적 성구소(combinatorial phraseme)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이 유형에 해당 하는 예는 매우 드물기는 한데, 기표나 기의의 합성성을 지키면서도 통사속성의 합성성을 지키지 못하는 예로 프랑스어에서 <정말 대단한>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성구소 UN/UNE DE CES를 살펴보기로 한다. 영어로 옮기면 one of these에 해당하는데, these가 복수형인 것을 생각하면 규칙적인 언어적 연합을 따를 경우, 피수식 명사도 복수형이 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어에서 “이거 정말 대단한 말이구나!”라고 할 때, *C'est un de ces cheval_{SG}*이라고 하지, *C'est un de ces chevaux_{PL}*라고 하지 않는다. 즉, ces 뒤에 단수형 명사가 오는 것이다. 기표나 기의의 측면에서는 합성성을 지키고 있으나,¹⁵⁾ 통사속성에서는 합성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어에서 기표나 기의의 합성성을 지키지만 통사속성의 합성성을 지키지 못하는 성구소로 무엇이 있을 수 있을지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¹⁶⁾ 다만 의미적 합성성을 지키지 못하면서 통사속성의 합성성을 지키지 못하는 예로는 **밤낮**과 같은 예를 들 수 있을 듯하다. **밤**과 **낮**이 명사인데 **밤낮**으로 결합한 후에는 부사로 기능하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2) 한국어 분석의 경우 가독성을 위해 분석 부분에 밑줄을 제공하였다.

13) 뒤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지만, 성구소를 논의함에 있어 그 대상을 단어와 단어의 결합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14) 의미-텍스트 이론의 틀 내에서 한국어의 조사나 어미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는 커다란 주제 중 하나일 수 있으나, 본고와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아 한국어 기표나 기의 표시 방식에서 조사나 어미는 임의적으로 처리하였음을 밝혀둔다.

15) Mel'cuk(2015:343)에서는 UN/UNE DE CES를 기의에서도 합성성을 지키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프랑스어 모국어 화자라 하더라도 합성성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을 듯하다.

16) **달밤**, **높푸르**-와 같은 비통사적 합성어가 그러한 후보로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입장을 유보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기존의 여타 논의처럼 합성성은 성구소를 규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림(4)에서 보듯이, 우리가 언어라고 부르는 것들, 그리고 속담, 격언, 화용소 등을 포함하는 클리셰는 합성성을 가지고 있다. 일례로, 언어 **make a mistake**나 **결정을 하-**는 기의, 기표, 통사속성의 측면에서 합성성을 유지한다.¹⁷⁾ 이런 측면에서 ‘성구화되었다(be paraphrased)’라고 하는 개념에는 다른 측면의 기본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의미-텍스트 이론에서는 비제약성(non-restricted)이라는 기준을 성구소 판별의 필수적인 기준으로 그리고 규칙성(regular)을 보조적인 기준으로 이용한다. 이를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비제약적(Non-restricted)

- 다단위(multi-unit) 표현 E는, 주어진 초기 표상(개념표상¹⁸⁾이나 의미표상)에 대해 E의 모든 구성 성분이 서로 독립적으로 선택될 때, 비제약적이라도 일컬어진다.

비제약성은 간단히 말해 선택의 자유(freedom of selection)를 가리킨다. 복합 표현 E의 모든 구성 성분이 비제약적으로 선택되는 것, 달리 말해 자유롭게 선택되는 것이 비제약적(non-restricted)인 것이다. 즉, ‘비제약적’이라는 말은, E의 모든 구성 성분이 E의 적격성(well-formedness)이나 관용성(idiomacity)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의미적으로 어느 정도 등가적인 언어 단위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비제약성 기준은 어휘요소의 기의를 가리키는 의미소(semanteme)¹⁹⁾와 어휘요소(lexical unit)의 선택에 적용하여 설명될 수 있다. 의미소는 주어진 개념표상(ConceptR)을 구성하기 위해 화자에 의해 선택되고, 어휘요소는 주어진 의미표상(SemR)에 대한 발화의 심층통사표상(DSyntR)을 구성하기 위해 화자에 의해 선택된다. 만약 어떤 표현 E가 비제약적이라면 E를 구성하기 위한 선택 규칙 R_i는 의무적이지 않아서, 화자는 R_i 대신에 R_j를 적용하여 등가적인 표현 E'으로 E를 대체할 수 있다. 즉, 두 개의 의미표상이 동일한 개념표상에 일치한다면 그 둘은 등가적이고, 두 개의 심층통사표상이 동일한 의미표상에 일치한다면 이 둘 역시 등가적이다. 예를 들어, “이 사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편찬되었다.”와 같은 문장의 기의와 기표는 비제약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문장은 어떤 언어외적 상황에서도 “이 사전을 만드는 데 많은 일손이 들어갔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사전은 많은 편찬자들의 수고로움에 빚지고 있다.” 등의 문장을 통해 등가적으로 그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문장들은 성구소가 아니다.

성구소는 이 ‘비제약성 기준’을 충족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관용적 의미를 가지는

17) 설명 위의 예들의 합성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결정을 내리-**나 **욕을 먹-**과 같은 언어 구성은 최소한 기의의 측면에서 합성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언어에 대한 논의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18) 개념표상(Conceptual Representation)은 언어외적 세상엔 대한 표상으로 언어 표현의 지시물에 대한 표상을 가리킨다. 개념-의미 모형(Concept-Meaning Model)의 출력항이면서, 동시에 의미 표상(SemR)의 입력항이 된다. 즉, 그림 (2)에서 SemR의 입력 정보이다.

19) 의미소는 정격의 어휘요소(full lexical unit)의 기의를 가리킨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나, 논의의 간략화를 위한 ‘정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미역국을 먹다’에서 ‘미역국’은 등가적인 어휘소인 ‘감곽탕’으로 대체될 수 없고, ‘먹다’ 역시 ‘식사하다’로 대체될 수 없다. 이는 해석의 측면에서 검토한 것이데, 생성의 측면에서 ‘미역국의 먹다’의 의미를 <응시한 시험에서 충분한 점수를 얻지 못하여 시험 통과를 통해 바랐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다>로 상정하더라도 등가적인 어휘소를 선정하여 대체 관계를 논할 수 없다.²⁰⁾ 아래의 예는 편의상 해석의 측면에서만 등가적 대체 관계를 검토해 볼 것인데 역시 비제약성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어 ‘결론을 내리다’에서 ‘내리다’가 등가적 표현인 ‘하강시키다’로 대체될 수도 없다. 클리셰인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를 “낮말은 마우스가 듣고 밤말은 조류가 듣는다.”로 대체할 수도 없다. 화용소인 ‘주차 금지’ 역시 등가적인 표현으로 대체될 수 없다. ‘주차 금지’가 길거리 교통 표지판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 ‘주차 금지’를 ‘주차 불용, 주차 금기, 주차하지 마, 차를 여기에 세우지 마’와 같은 등가적인 표현으로 대체할 수 없다. 따라서 위에서 다룬 ‘미역국을 먹다’, ‘결론을 내리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주차 금지’와 같은 예들은 성구소임이 확실하다.

다음으로 규칙성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규칙적(Regular) - 다단위(multi-unit) 표현 E는, E의 구성성분들이 언어 L의 오직 일반적인 조합 규칙(즉, 문법)에 의해서 조합될 때에만, 규칙적이라 일컬어진다.

여기서 ‘규칙적(regular)’, ‘규칙적으로 구성된다’는 개념은 화자에 의해 선택된 언어 단위들이 조합 규칙 즉, 문법에 맞추어진다는(geared to) 뜻이다. 즉, 이것은 언어 활동의 결합 축(syntagmatic axis)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앞서 논의한 합성성 역시 언어 기호의 규칙적 조합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합성성 역시 이러한 ‘규칙성’의 개념 하에서 논의될 수 있고, 합성성을 지키는지 여부 즉, 규칙성 여부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유형을 상정하게 되는 것이다. 즉, 의미적 합성성 여부는 어휘적 성구소(lexical phraseme)를 하위 유형을 구분하는데 사용되고, 형식적 합성성 여부는 보충법적 단위에 대한 설명력을 제공하고, 조합적 합성성 여부는 조합 성구소의 특성을 보여준다.

3.3. 형태/어휘소/구성(morphological/lexemic/constructional) 성구소

그림 (3)에서 보이고 있는 것처럼 관용표현은 어휘소 성구소(lexemic phraseme)의 한 하위 유형이다. ‘어휘소 성구소’라는 용어에서 ‘어휘소의(lexemic)’이라고 하는 것은 둘 이상의 어휘소(lexeme)로 구성된 통사적 구(phrase)를 가리킨다. 따라서 ‘어휘소 성구소’는 구 형식의 성구소를 지칭한다. 본고 논의의 출발적 예시로 논의되고 있는 **미역국을 먹-**은 **미역국**이라는 어휘소와 **먹-**이라는 어휘소로 이루어진 통사적 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구소로서의 정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어휘소 성구소가 된다. **결정을 하-**와 같은 연어나 **낮말은 쥐가 듣고 밤**

20) 대체성에 대한 해석 방향의 검토와 생성 방향의 검토는 3.5.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말은 새가 듣는다는 것과 같은 클리셰, 주차 금지와 같은 화용소 역시 통사적 구이면서 성구소이므로 어휘소 성구소 범주에 속한다.

멜축에 따르면, 성구소라는 개념은 비자립 구(non-free phrases)뿐만 아니라 비자립 단어형(wordform) 안의 형태들의 성구적 조합에까지 확장될 필요가 있다.²¹⁾ 단어형 즉, 형태론의 층위에서 동일 유형의 성구소가 통사 층위처럼, 형태 관용표현, 형태 연어, 형태 클리셰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류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가리키는 ‘두꺼비집’은 ‘섬여집’이나 ‘두꺼비하우스’로 대체될 수 없으며, “피의자나 피고인을 변호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변호인’은 ‘변호자’나 ‘변호가’로 대체될 수 없으며, 도서관 열람식의 안내 표지판으로 사용되는 ‘정숙’(靜肅)은 ‘적숙’(寂肅)이나 ‘정엄’(靜嚴)으로 대체될 수 없다. 그런데, ‘두꺼비집’, ‘변호인’, ‘정숙’은 모두 형태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형이므로 이를 형태 성구소라 할 수 있는 것이다.²²⁾

동일한 방법론으로 멜축은 구성 성구소도 성구소의 한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Mel’cuk 1987, 2015:338-340).

구성 성구소(constructional phraseme)

구성 성구소는 성구화된 표층통사 구성(surface-syntactic construction) 즉, 의존 수형도(dependency tree)로, 그 절점(node)이 어휘소 변형이나 구조적 단어(structural words)로 표시된다(labeled). 전체적으로 그 구성은 특정한 기의, 운율, 통사속성을 갖는다.²³⁾

먼저, Mel’cuk(2015:339)에서 제시하고 있는 러시아어의 구성 성구소의 예를 살펴보기로 하자.

(7) $\neg$. $X_{NOM} | U Y_{GEN} | \dot{P}_{FUT}$! lit. ‘X at Y will P!’

ㄴ. <만약 X가 P하면, Y가 X를 심하게 혼내줄 것이다>

ㄷ. Ty u menja počitaeš’ ètu knigu!

ㄹ. You_{SG} at me will.read this book!

ㅁ. “만약 네가 이 책을 나한테 읽으면 내가 너를 혼내 줄 거야.”

(8) $\neg$. $X_{NOM} U Y_{GEN} \dot{P}_{FUT}$! lit. ‘X at Y will P!’

ㄴ. <만약 X가 하고 있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 Y가 X를 P하게 함으로써 혼내줄 것이다>

ㄷ. Ty u menja počitaeš’ ètu knigu!

21) 형태 성구소에 대해서는 Beck & Mel’čuk(2011) 참고.

22) 관용표현, 연어, 화용소를 다루는 절에서 검토되어야 할 터이지만, ‘두꺼비집’은 의미적 합성성을 지키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형태 관용표현이라 할 수 있고, ‘변호인’은 합성성을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 형태 연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도서관 열람실에서 ‘정숙’은 특별한 언어외적 상황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형태 화용소라 할 수 있다.

23) 구성 성구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Mel’cuk(1987) 참고.

ㄹ. You_{SG} at me will.read this book!

ㄱ. “(만약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 이 책 읽게 해서 혼내 줄 거야.”

(7ㄱ, 8ㄱ)은 러시아어 구성 성구소의 한 예로, 어휘소가 놓이는 X, Y, P의 변향과 U(“at”)라는 구조적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 X논항에는 주격 명사가, Y논항에는 속격명사, P자리에는 미래시제형 동사가 온다. (7ㄱ, 8ㄱ)의 통사적 구조와 통사속성은 동일하다. 그러나 (7ㄱ, 8ㄱ)의 운율적 특성은 좀 다른데, (7ㄱ)은 휴지(‘|’ 표시)가 각 어휘 변향 사이에 놓이고, X와 Y논항은 상승 억양을 P는 하강 억양을 갖는다. 그에 반해 (8)은 어휘 변향 사이에 휴지가 없고 발화 초기의 상승 상태에서 발화 종료의 하강 상태로 억양이 낮아진다. (7ㄷ, 8ㄷ)은 두 상이한 구성 성구소의 구체적인 예이며, (8ㄱ)은 한국어로 그 의미를 번역해 본 것이다. (7-8)은 특정한 구성(construction)의 구성성분들이 쪼개어지거나 등가적인 구조적 단어로 대체될 수 없다는 점에서 성구소의 특성을 보여준다.²⁴⁾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7)과 유사한 한국어 구성 성구소로 ‘X #Y_{DAT} #P-기만 해’ 같은 예를 생각해 볼 수 있을 듯하다. 예를 들어, “네가 그 노래를 부르면 나한테 혼난다”라는 의미로 ‘너 나한테 그 노래 부르기만 해’가 쓰일 때는 X, Y, P 사이에 휴지가 들어가고, X와 Y논항이 상승 억양이고 문말에는 하강 후 짧은 상승하는 억양이 있는 듯하다. 그리고 X, Y, P에 다른 어휘소가 들어가 다양한 용례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애는 애다’와 같은 구성 역시 그러한 속성을 보여주는 듯하다.

3.4. 관용표현, 연어, 클리셰, 화용소

그림(4)의 어휘소 성구소(lexemic phraseme)는 다시 어휘적(lexical) 성구소와 의미-어휘적(semantic-lexical)성구소로 구분된다. 이는 성구소가 가지는 선택의 제약성을 두 가지 유형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하나는, 개념표상(ConceptR)에 대해 화자가 의미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는 있으나, 대응하는 어휘소의 선택에 제약이 있는 경우인데, 이를 어휘적 성구소라 한다. 어휘적 성구소에는 관용표현, 연어가 이에 속한다. 다른 하나는, 개념표상에 대해 화자가 그 의미나 어휘소(lexeme) 어느 것도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고 제약적인 경우인데, 이를 의미-어휘적 성구소라 한다. 클리셰가 여기에 포함된다. 즉, 속어소의 구성성분을 선택함에 있어 개념표상이 관여되면 의미-어휘적 성구소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휘적 성구소이다.

본고의 논의 대상이면서 어휘적 성구소의 가장 대표적인 부류인 관용표현부터 살펴본 후, 어휘적 성구소의 두 번째 부류인 연어와 의미-어휘 성구소인 클리셰 그리고 클리셰 중에서도 매우 독특한 특성을 가지는 화용소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관용표현

어휘적 성구소의 대표적인 부류인 관용표현(idiom)은 자유 구(free phrase)와 최대한 대조

24) 구성 성분들의 의미적 합성성을 유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성 관용표현이라 할 수 있다.

적인 모습을 보인다. 3.2.에서 다룬 비제약성, 규칙성과 관련하여, 관용표현은 제약적이고 비 규칙적이지만, 자유 구는 비제약적이며 규칙적인 특성을 보인다.

의미-텍스트 이론에서는 관용표현을 다른 성구조의 하위 부류와 구분할 때 의미 중심축 (semantic pivot)이라는 보조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선 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의미의 중심축(semantic pivot)

<A>와 로 구분될 수 있는 의미(meaning) <S>가 있다고 할 때 즉, $\langle S \rangle = \langle A \rangle \oplus \langle B \rangle$ 인 경우를 상정해 보자. 이때, 의미 <A>는, B(**A**)일 경우에만(iff), 의미 <S>의 의미의 중심축이라고 일컬어진다.²⁵⁾

의미 'S'의 일부인 'B'는 'A'를 자신의 논항으로 가지는 서술어(혹은 서술어 형상)이다.²⁶⁾ 예를 들어, '자동차를 운전하다'라는 구에서 서술어는 '운전하다'이고 '자동차'는 논항이므로, '운전하다(**자동차**)'로 표시되므로 의미의 중심축은 '자동차'이다.

이제 관용표현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관용표현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관용표현(idiom)

$\langle C \rangle \neq \langle A \rangle \oplus \langle B \rangle$ 인, 의미적으로 비합성적인 화용소 $AB = \langle \langle C \rangle; /AB/; \Sigma_{AB} \rangle$ 는 관용표현이라고 일컬어진다.

관용표현 AB 의 기의 $\langle C \rangle$ 는 다음의 조건이 주어지면 구성성분 A 와 B 의 어떤 기의 $\langle \sigma_i \rangle$ 라도 포함할 수 있다. ① 이 기의 $\langle \sigma_i \rangle$ 가 AB 의 의미의 중심축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② $\langle C \rangle$ 가 이러한 기의들로부터 완전히 그리고 합성적으로 구성되지 않아야 한다. 달리 말해, 관용표현 AB 의 기의 $\langle C \rangle$ 는 화자에 자유롭게 선택되지만(즉, AB 가 대응하는 개념표상에 의존적이지 않음.), 그 표현 즉, 기표는 자유롭게 선택되지 않고 완전히 그 기의에 의존적이다.

관용표현은 의미의 중심축의 특성과 관련하여 세 하위 유형으로 다시 구분될 수 있다.

관용표현 AB 에 대해,

정관용표현(full idiom) : $\langle C \rangle \supset \langle A \rangle$ and $\langle C \rangle \supset \langle B \rangle$

준관용표현(semi-idiom) : $\langle C \rangle \supset \langle A \rangle$ and $\langle C \rangle \supset \langle B \rangle$ 이고, $\langle A \rangle$ 가 $\langle C \rangle$ 의 의미의 중심축이 아님.

의사관용표현(quasi-idiom) : $\langle C \rangle = \langle A \rangle \oplus \langle B \rangle \oplus \langle D \rangle \mid \langle D \rangle \not\subset \langle A \oplus B \rangle$ 이고,

$\langle C \rangle$ 의 의미의 중심축이 $\langle D \rangle$ 의 원소임: $\langle d \rangle \in \langle D \rangle$

정관용표현(full idiom) 혹은 강한 관용표현(strong idiom)이라고 하는 부류는 그 기의 $\langle C \rangle$ 가 A 의 기의도, B 의 기의도 포함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정관용표현은 의미적으로

25) 의미의 중심축이 되는 구성성분을 음영 처리하였다.

26) 어휘적 서술어뿐 아니라 접속사나 양화사와 같은 논리적 서술어도 포괄하는 개념임.

불투명하다(semanticly not transparent). 이 부류는 속하는 관용표현으로 ‘미역국을 먹다’, ‘파리를 날리다’, ‘비행기를 태우다’, ‘가방끈이 길다’ 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역국을 먹다’의 경우 그 기의를 <시험에 떨어지다>로 상정할 수 있을 터인데, <시험에 떨어지다>는 <미역국>이나 <먹->의 기의를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관용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류에 속하는 것들을 심리적(psychological) 측면에서 투명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경우 이 부류의 관용표현이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비행기를 태우다’나 ‘가방끈이 길다’의 경우 화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심리적 투명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의미-텍스트 이론의 접근법에서는 성구소가 생성의 측면에서 고려된다는 점이다. 즉, 관용표현의 특정한 의미를 추정해 낼 수 있는지, 이러한 의미를 왜 가지게 되는지 등은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화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투명성을 가지는 ‘비행기를 태우다’ 역시 <남을 지나치게 칭찬하거나 높이 추어올려 주다>라는 관용표현의 의미가 각 구성성분의 기의 <비행기>나 <태우->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관용표현의 부류에 소속된다.

준관용표현(semi-idiom)이라고 하는 부류는 그 기의 <C>가 <A>는 포함하지만 는 포함하지 않으며, <A>가 <C>의 의미의 중심축이 아니다. 준관용표현은 의미적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투명하다. 준관용표현의 예로는 Mel’cuk(2012b:38)에서는 ‘private eye’ <private detective>(사설탐정), ‘sea anemone’(말미잘) <predatory polyp living in the sea>²⁷⁾, Rus. mozolit’ glaza’ <be too often or for too long before Y’s eyes>(lit. <make corns on Y’s eyes>)를 제시하고 있다. 즉, ‘private eye’를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private detective>라는 의미 <C> <private>이라는 의미 <A>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 표현의 의미의 중심축은 “private(eye)”와 같은 서술어 논항 구조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의미의 중심축은 ‘eye’이므로, 결과적으로 준관용표현 부류로 판단된다. 국어의 경우 어휘소 성구소의 차원에서는 이런 예를 찾기 쉽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형태론적 성구소의 층위에서는 ‘땅개’ <땅에서 근무하는 병사>와 같은 예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즉, 기의 <C>인 <땅에서 근무하는 병사>가 기의 <땅>을 포함하지만, 의미의 중심축이 <땅>이 아닌 사람이므로 역시 준관용표현에 해당한다.

의사-관용표현(quasi-idiom) 혹은 약한 관용표현(weak idiom)이라고 하는 부류는 그 기의 <C>가 두 구성성분 어휘소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예견되지 않는 <D>를 추가적으로 포함한다. 그런데 <D>는 <A ⊕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게다가 <A>나 어느 것도 AB의 기의 의미의 중심축이 아니고 <D>의 한 요소인 <d>가 의미의 중심축이다. 의사-관용표현은 의미적으로 매우 투명하여, 연어나 클리셰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영어의 ‘start a family’, ‘bacon and eggs’, ‘shopping center’, ‘seat belt’, 한국어의 ‘젓을 주다’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중 ‘start a family’의 의미의 중심축을 분석해 보면, < [conceive the

27) 비술어성 명사로 이루어진 관용표현 구성에서 의미의 중심축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맥락의 일련의 논의에서 제시되지 않고 있는 듯하다. 다만 기의 속에 포착되는 서술어를 통해 논항 자리에 오는 의미를 의미의 중심축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의미의 중심축이 관용표현 생성에서 가지는 특성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깊은 검토가 필요할 듯싶다.

first child with one's spouse, thereby] starting a [full-fledge] family>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중 <conceive the first child with one's spouse>이 의미의 중심축이 되는데, 그 이유는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서술어가 되기 때문이다. “진정한 가족 시작하기(배우자와 첫 아이를 가지기)”와 같은 분석을 상정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어 ‘젓을 주다’의 의문의 여지 없이 분석이 깔끔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분석이 가능하리라 본다. <아기 Y의 입 속으로 젓을 넣어 줌으로써 아기에게 음식물을 먹이다>의 의미를 상정할 수 있는 ‘젓을 주다’는 <C>인 <아기 Y의 입 속으로 젓을 넣어 줌으로써 아기에게 음식물을 먹이다>가 <A>인 <젓>과 인 <주다>를 포함하고, 추가적으로 <음식물>이라는 기의도 포함한다. 그런데 이 표현은 “<아기 Y의 입 속으로 젓을 넣어 줌으로써 아기에게 먹이다>”가 서술어 기능을 하고 “<음식물>”이 논항의 기능을 함으로써 <음식물>이 의미의 중심축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고의 주요한 논의 대상은 아니지만 관용표현과의 범주적 차이를 연어, 클리셰 그리고 클리셰의 특별한 부류인 화용소에 대해서도 비교의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연어(collocation)

합성적 성구소의 주요한 두 유형은 연어와 클리셰이다. 연어는 성구소의 두 구성성분 중 하나만이 제약적이지만, 클리셰는 성구소의 모든 구성성분이 제약적이다. Mel'cuk(2015)에서는 연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연어의 정의

합성적 성구소인 AB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만, 어휘요소 A의 연어라고 일컬어진다.

1. 어휘요소 A는 화자에 의해 비제약적으로(즉, B와는 상관없이) 기의 <A>를 위해 선택되어 진다.
2. 어휘요소 B는 제약적으로 선택된 것으로, 기의 를 위해 선택되거나 A의 함수(function)이다.
3. AB의 기의는 A의 기의를 의미 축(semantic pivot)으로 포함한다. 'AB' = 'A ⊕ B'

연어 AB의 의미는 필수적으로 두 개의 의미적 구성성분을 포함한다. 이중, 연어핵 A는 연어 AB의 의미를 위해 화자가 자유롭게 선택한 것이고, 연어변 B는 A의 함수로서 제약적으로 선택된 것이다. ‘결론을 내리다’, ‘전화를 걸다’, ‘눈부신 발전’, ‘침묵이 흐르다’와 같은 예들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의미-텍스트 이론에서 고안한 어휘함수(lexical function)에 의해 그 관계가 기술될 수 있다.²⁸⁾

위 정의에서 3으로 제시한 조건은 연어를 준관용표현과 구분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조건이다. Mel'cuk(2015:323)에서는 영어의 ‘lone wolf’를 <man who prefers to do things alone> 분석하여 준관용표현으로 처리하고 있다. lone이 해당 기의 구에서 의미의 중심축이 아니라 man이 중심축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A wolf howls’는 <a wolf produces an extended, loud, high-pitched sound with his voice>로 분석하여 WOLF의 연어 구성으로

28) Mel'cuk et al.(1995), 이병근·박진호(2000), Mel'cuk(2015) 등 참고.

처리하고 있다. ‘wolf’가 의미의 중심축이기 때문이다.

[3] 클리셰(cliché)

클리셰는 그 기의와 기표가 모두 합성적인 격언(saying), 속담(proverb), 명언(well-know quotation), 정형화된 어구(speech formula) 등을 포함한다. 클리셰는 기성(ready-made) 의미에 대한 기성(ready-made) 표현이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표현이 동일한 효과로 대신 사용될 수 없다. 달리 말하면, 클리셰 AB는 그 의미의 선택에서도 제약적이고 어휘 표현의 선택에 있어서도 제약적이다. 연어와 달리 2항적이기보다는 훨씬 더 많은 구성성분들이 동원된다.

예를 들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한 개를 보면 열 개를 안다’, ‘하나를 바라보면 열을 이해한다’와 같은 대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성구소이다. 구성성분의 연합이 합성적이므로 관용표현이 아니고, 연어와 달리 이항 관계를 구성하고 있지도 않고 구성성분 모두가 제약적으로 선택되어지고 있어서 클리셰로 분석해 낼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할 점은 기존에 우리가 속담, 격언들로 불러왔던 모든 예들이 모두 클리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가재는 게 편”이라는 속담의 경우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대로 <모양이나 형편이 서로 비슷하고 인연이 있는 것끼리 서로 잘 어울리고, 사정을 보아주며 감싸 주기 쉬움> 정도의 기의로 포착해 줄 수 있는데, 의미적으로 비합성적이다. 따라서 관용표현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4] 화용소

클리셰는 사용되는 언어외적 사태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류의 성구소를 화용소(pragmateme)라 한다. 앞서 제시한 ‘주차 금지’가 대표적인 예로, 길거리의 교통 표지판으로서 <이곳에 주차하면 안 된다>의 공식적 경고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표현은 ‘주차 금지’만이 가능하다. 세종전자사전 관용표현 사전에서도 뭇축의 이 화용소 개념을 받아들여 340개 정도의 화용소를 기술하고 있다. 몇 가지 예만 들어보면, ‘공사중’, ‘국기에 대하여 경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3.5. 생성 과정에서의 관용표현의 특성

여기에서는 그림 (2)에서 제시한 의미-텍스트 모형에서 어떻게 관용표현이 생성(synthesis)되는지를 간략히 보이고, 관용표현이 어휘소와는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그리고 성구소의 한 부류인 관용표현이 다른 성구소들과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몇 가지 특징적인 점들 위주로 논의하기로 한다. 가령 관용표현 ‘미역국을 먹다’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그림 (2)에서 의미-텍스트 생성 단계를 다시 간단히 아래와 같이 보기로 한다.

(9) 의미에서 텍스트로의 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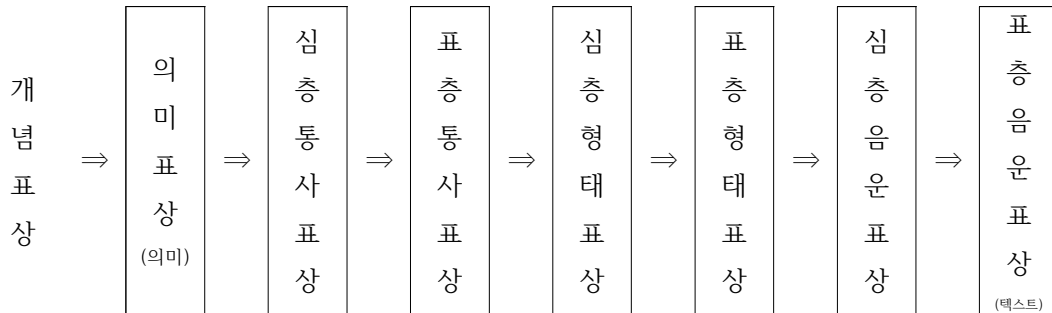


그림 (9)에는 그림 (2)와 달리 왼쪽에 개념표상(ConceptR) 층위를 추가하였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의미-텍스트 모형 외부에 있어서 의미-텍스트 접근법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화자가 자신의 머릿속에서 표상되는 세상사의 사태를 언어적 의미로 표상하게 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발화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논의의 진행을 위해 다음의 상황을 가정해 보자. 친구 관계인 영희와 수진이는 가까운 친구인 철수가 2019년 운전면허 시험에서 50점을 맞았고 합격점수 60점이 되지 못하여 불합격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철수가 2020년 시험에서 또 55점을 맞고 시험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영희가 알게 되었고 이를 수진이에게 알려주는 상황이다.²⁹⁾ 이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개념표상이다. 이 개념표상은 화자의 머릿속에서 의미표상으로 전이(transition)되는데, 가능한(possible) 의미 표상의 수가 상당히 많을 수 있다. 편의상 의미-텍스트 이론의 복잡한 기술 형식을 따르지 않고 몇 가지 가능한 의미표상(SemR)을 아래에 제시해 본다.

(10) ㄱ. [2020년 철수는 운전면허시험에서 떨어졌다.]

ㄴ. [2020년 철수는 운전면허시험의 합격점수에서 5점이 부족한 점수를 받았다.]

ㄷ. [2020년 철수는 운전면허시험에서 2019년 시험보다 5점 더 받았다.]

ㄹ. [2020년 철수는 2019년 운전면허시험보다 10% 성적 향상을 보였다.]

ㅁ. [2019년과 2020년 철수가 운전면허시험에서 받은 점수의 총점은 105점이다.]

.....

(10)은 화자의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이 다양한 의미표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중 (10ㄱ)과 같은 의미표상을 화자가 발화하기 원한다고 가정해 보자. 의미-텍스트 이론에서는 의미표상의 의미구조를 표상하는 정교한 방식을 제공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이 또한 단순화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10ㄱ)의 경우 이미 언어 기호를 이용하여 그 의미를 기술하고 있는데, 실상은 선택 가능한 어떤 언어 기호들 중에 어떤 것을 이용하여 기술한 것인가는 본

29)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의미-텍스트 이론에서 추가적으로 상정하는 의미-소통 구조(Semantic-Communicative Structure)나, 수사 구조(Rhetorical Structure), 지시 구조(Referential Structure)는 배제하고 논의하기로 한다.

고가 임의적으로 선택한 것일 뿐이다. 예를 들어 ‘시험에 떨어졌다’라는 표현 대신에 ‘낙방했다’, ‘미역국을 먹었다’를 쓸 수도 있을 것이고, ‘떨어졌다’ 대신에 ‘탈락했다’ 혹은 다소의 의미 차이를 인정한다면 ‘불합격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의미-텍스트 이론에서는 의미표상의 절점(node)에 의미소가 오는 것으로 기술하는데, 의미소는 정격의 어휘요소(full lexical units)인 어휘소와 관용표현의 기의이다. 관용표현의 사전학적 속성들은 분리되어 관용표현의 구성성분들 중 어느 것과 관련될 수 없다는 점에서, 설명결합사전에서 어휘소처럼 하나의 표제항으로 처리되고, 그 사전학적 정보가 자세히 기술된다. 이러한 이유로 어휘요소로 본다. 따라서 어휘소가 술어와 논항으로 대분되듯이 관용표현 역시 그러한 구분이 유효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지배도식을 포함한 각종 사전적 정보가 설명결합사전에서 기술되어야 한다. 세종전자사전 관용표현사전에는 이러한 구분이 미시구조에 반영되어 있다.³⁰⁾

이에 반해, 연어는 의미적으로 합성적이고, 연어핵이 자신의 내적 모두 속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연어가 연어핵의 표제항 영역 안에서 기술된다. ‘주차 금지’와 같은 화용소 역시 연어처럼 합성적이므로 설명결합사전에서 하나의 표제항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자동차’와 ‘주차하다’ 표제항 밑에 ‘행정당국이 표통표지판으로서 주차를 금지하는 것을 알린다’는 것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다시 ‘미역국을 먹다’와 관련된 의미표상으로 돌아와서, (10ㄱ)에 대응하는 의미구조를 어떻게 표상할 것이다. 의미-텍스트 이론은 Wierzbicka적인 의미 원소(semantic primitives)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미 분해와 의미소를 이용한 의미 감축을 통해 의미구조를 망(network) 형식으로 표상한다. 그리하여 (10ㄱ)의 의미구조를 거칠지만 좀 단순한 방식으로 표현해 보자면, <철수가 운전면허 시험을 보았고, 그 운전면허 시험의 결과가 시험 통과 점수에 이르지 못해, 운전면허 획득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표상할 수 있을 듯하다. 명제적 의미만을 고려할 때, 위 기의처럼 발화할 수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못하다. 여러 개의 의미소를 묶어서 그러한 의미소의 묶음 즉, 의미 형상(semantic configuration)을 만들고 그 의미 형상을 대응하는 의미소 즉, 어휘 요소를 절점에 표상하게 된다.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시험을 보고, 시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다>로 이루어진 의미 형상이다. 화자는 이 의미 형상을 심층통사표상으로 전이하면서 ‘낙방하다’와 같은 어휘소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미역국을 먹다’와 같은 정관용표현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시험에 떨어지다’와 같은 의사관용표현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³¹⁾

심층통사표상의 심층통사구조에서 적절한 어휘요소로 관용표현이 선택되면 그 이후의 전이과정 즉, 표층통사표상부터 표층음운표상까지는 일반적인 어휘소와 크게 다른 점이 없어서 이

30) 다만 최근의 딥러닝에서 관용표현의 사전학적 정보를 추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는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31) 화자가 어휘소를 선택할지, 관용표현을 선택할지, 아니면 연어를 선택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점이 있을 수 있다. 정보구조의 차원에서 더 적절한 방식이 선택될 수도 있고, 화자가 더 현저하다고 판단하는 의미소가 텍스트에 표상되도록 하는 데 적절한 어휘요소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며, 문체와 같은 수사적(rhetoric) 구조를 고려하여 선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선택의 동인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자세히 다룰 기회를 기약해 본다.

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본고에서 ‘시험에 떨어지다’를 의사관용표현으로 처리하였는데, 타당한 것일까?

‘시험에 떨어지다’의 범주를 확인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이 존재하는 듯하다. 첫째는 이 표현을 분석의 관점에서 그 정체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의 연구들이 대체로 이러한 태도를 취한다. 아마도 연어라고 주장하실 듯하다. 다른 하나는 의미-텍스트 이론처럼 생성의 관점에서 분석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의사관용표현에 해당하는 듯하다. 두 가지 관점 중 하나만이 옳은 것은 아닐 터인데, 각각 어떤 측면에서 그러한지는 발표회장에서 구두로 말씀드리고자 한다.

4. 결론

[의의]

- MTT라는 커다란 언어 이론 체계 내에서 성구소와 그 하위 범주들을 매우 정밀하게 정의하고 있음.
- 관용표현의 범주적 위치가 철저하게(rigorously)하게 논의되었음.
- 관용표현의 대상이 구 단위보다 크거나 작을 수도 있음을 논하고 있음.
- 합성성을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함으로써 합성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도록 도움을 줌.
- 어휘소와 관용표현은 어휘요소의 자격을 가지나 연어와 클리셰는 그러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함.
- 관용표현과 연어의 특성을 기술함에 있어 의미의 축이라는 도입하여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
- 의미가 텍스트로 생성되는 과정에서 관용표현이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세분화하여 설명하고 있음.
- 생성의 관점에서 어휘소, 연어, 관용표현의 차이를 포착하게 해줌.

[앞으로의 연구]

- 관용표현의 하위 유형별, 성구소 하위 유형별 구체적인 의미표상, 심층통사표상을 의미 망을 이용하여 심층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자연어처리 분야에서 의미-텍스트 이론의 관점에서 한국어 관용표현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의미-텍스트 이론의 틀 안에서, 관용표현 내부의 어휘소들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
- 관용표현의 다의어화, 연어화 과정, 의미의 쏠림
- 화용소의 목록이 세종전자사전 관용표현사전에 340개 항목이 등재되어 있는데, 목록도 좀 더 확충하고 기술 내용도 보강하여 한국어교육, 자연어처리 등 관련 분야에 활용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김진해(2010), 관용표현 연구의 새로운 쟁점, 한국어학 49.
- 김한샘(2003), 차연언어처리를 위한 관용표현 연구, 한국어 의미학 13.
- 김한샘(2011), 『한국어 속어 연구』, 한국문화사
- 문금현(1997), 신문에 나타난 관용표현의 특징, 국어국문학 120.
- 문금현(1999), 『국어의 관용표현 연구』, 태학사.
- 박만규(2003), 관용표현의 범주적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의미론적 분석을 중심으로, 국어학 41.
- 박진호(2003), 관용표현의 통사론과 의미론, 국어학 41.
- 이병근·박진호(2000), 결합설명 사전의 어휘 기술 방법론, 인문논총 43,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이희자(1995), 현대 국어 관용구의 결합 관계 고찰, 대동문화연구 30.
- 이희자(2003), ‘관용표현’의 사전학적 연구 - ‘관용구 사전학’의 정립을 위하여 -
- 임근석(2006), 한국어 연어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최경봉(1992), 국어 관용어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 최형용(2016), 한국어 형태론, 역락.
- 한정한(2010), 관용구의 문법범주, 어문논문 61.
- Beck, D. & Mel'čuk, I. (2011), Morphological phrasemes and Totonacan verbal morphology, Linguistics 49(1).
- Mel'čuk, I. (1987). Un affixe dérivationnel et un phrasème syntaxique du russe moderne.
- Mel'čuk, I. (2012a), *Semantics - From meaning to text*,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Mel'čuk, I. (2012b), Phraseology in the Language, in the Dictionary, and in the Computer. In: K. Kuiper, ed., *Yearbook of Phraseology*, 31-56.
- Mel'čuk, I. (2013a), *Semantics - From meaning to text volume 2*,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Mel'čuk, I. (2013b), Tout ce que nous voulions savoir sur phrasèmes, mais ... Cahiers de lexicologie, n°1 (n° 102), 129-149.
- Mel'čuk, I. (2015), *Semantics - From meaning to tex. volume 3*,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MEL'ČUK, Igor (1995) Phrasemes in Language and Phraseology in Linguistics. In M. Everaert,
- Mel'čuk, I. et al.(1995), *Introduction à la Lexicologie Explicative et Combinatoire*, Editions Duculot.
- Miličević(2006), A Short Guide to the Meaning-Text Linguistic Theory, 한국사전학 8.

“의미-텍스트 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본 관용표현의 특성”에 대한 토론문

도재학(경기대)

의미-텍스트 이론의 기본 체계에 관한 설명을 바탕으로, 어휘적 성구소의 체계에 대해 (그리고 나아가 형태적 성구소와 구성적 성구소를 포함한 전체 성구소의 체계에 대해) 논의하면서 ‘관용표현(idiom)’의 체계 내 위치와 특징, 그리고 하위 유형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루어 주셨습니다. 의미-텍스트 이론에 문외한인 제가 토론할 자격이 있는지 싶어 스스로 겸연쩍고, 쉬운 예를 통해 상세하게 설명을 베풀어 주셔서 큰 틀에서 말씀드릴 만한 것은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생각을 해 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발표자 선생님과 학회에 감사드립니다.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추가적인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1. 의미-텍스트 이론에서의 기본 단위

3.2절 내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의미-텍스트 이론에서 어휘부나 사전학의 기본 단위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의 어의(sense)”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즉, 단어라는 형식 단위가 아닌 의미 단위를 기본 단위로 삼는다는 것이 참신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의미 단위’를 판정하는 기준, 즉 사전의 표제어가 될 수 있는, 단일한 의미 단위를 확인하고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미역국을 먹다’가 《(시험에) 낙방하다》는 의미를 표상한다고 할 때, 이 단일성이 결국은 ‘낙방하다’라는 기존 단어의 의미에 기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리해 보자면, 어떤 기존 어떤 ‘단어’의 《의미》를 보고, ‘단어’에 의해 담보되는 《의미》의 단일성에 기대어, 그 《의미》를 기본 단위로 삼는 방식인 것 같은데요.. (맞나요? ^^:::)

의미에서 텍스트로의 생성에 초점을 맞추는 의미-텍스트 이론은 곧 표현론적 접근법의 일환으로 이해됩니다. 여기서, 연구의 출발점이 되는 ‘의미’의 식별, 다른 ‘의미’와의 구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 성구소(phrase)의 정체(?)와 언어 단위

3.3절 내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성구소의 유형을 ①형태적(morphological)인 것, ②어휘적(lexemic)인 것, ③구성적(constructional)인 것 세 가지로 나누고 사례를 들어주셨는데요. 이들을 달리 표현하면 ①은 구성 성분이 형태소인 복합 형식, ②는 구성 성분이 단어인 복합 형식, ③은 구체적인 언어 형식이 미명세된, 자리(slot)들의 복합 형식,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보통 ①은 형태론에서 단어형성부의 소관으로 다루고, ②와 ③은 통사론에서 단어들의 제약적인 결합 양상과 의미적 특성을 논의할 때 다루어서, 언어 층위를 구별하는 것

같은데요. (특히 ③에 대해서는 구성문법 논의에서 많이 주목을 했던 것 같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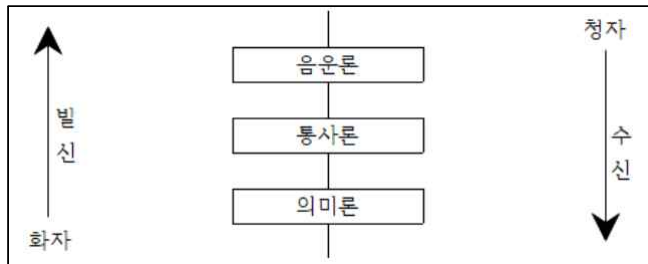
그렇다면 성구론은 형태론과 통사론의 구분/경계보다는 ‘복합적인 언어 형식(또는 표현)’이라는 공통점에 중심을 두고 일관되게 논의하고자 하는 연구 분야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입장과 용어론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겨나는데요. (영어의 ‘-eme’에 대응되는) ‘-소’를 복합 형식인 ‘성구’에 붙이는 것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소(素)’(< ‘요소(要素)’를 사전적 의미에 따라 “그 이상 더 간단하게 나눌 수 없는 성분”, 좀 더 느슨하게 ‘기본적인 성분’으로 이해할 때, ‘성구’와는 의미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성구소’라는 표현을 통해, ‘복합적인 언어 형식이긴 한데 기본적인 것(더 안 나뉘지는 것)’을 연상하는 것이 제게는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성구소의 하위 유형들은 결국, ‘형태적 성구소 = 단어’, ‘어휘적 성구소 = 흔히 구(그 이상의 단위도 가능)’, ‘구성적 성구소 = 미명세된 (추상적) 구성’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성구소’에 포함되는 하위 유형이 언어 단위로서는 차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생각합니다. 표현이 조금 과격한 느낌도 있기는 하지만, ‘성구소’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복합적이라는 특성을 공통점을 우선 인식하여 ‘성구소’로 묶고, 하위 유형을 언어 단위로 나누는 것, 즉 언어 단위로서 먼저 구별하지 않는 것의 장점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3. (2) 의미-텍스트 모형의 개념도 및 (9) 의미에서 텍스트로의 전이

(2)와 (9)의 표상을 보면서, 이보다는 조금 덜 상세하지만 비슷한 것들이 몇 가지 연상되었습니다.

첫째는, 화청자간 의사소통의 과정으로 분류하는 언어학의 하위 분야



둘째는, 변형생성문법에서 상징하는 언어 생성의 과정과 언어 층위

셋째는, 어휘개념구조 - 논항구조 - 통사구조 등 서로 다른 층위의 구조를 상징하고 그 연결 관계와 규칙을 논의하는 개념의미론이나 논항구조론 등의 논의, 등입니다.

이렇게 무언가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른 언어 층위(혹은 구조) 사이의 관계를 다룬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들과는 구별되는 ‘의미-텍스트 이론’의 특징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언어학이 결국은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언어 현상을 해명하면서 의사소통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학문 분야라고 보면, 약간씩 다르다고는 하지만 결국 엇비슷한 이야기를 하겠거니 하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넘길 수 있는 문제 같기도 합니다.)

4. 간단한 질문 몇 가지

4.1. 기의적 측면에서의 합성성

(5)의 하단에서는, ‘가을하늘’이 기표, 기의, 통사속성의 세 측면에서 모두 합성적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복합어에서 확인되는 ‘+α’의 의미(소위 부가 의미)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왔는데(정한대로 2014 등), ‘가을하늘’이 의미적으로도 합성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발표자 선생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가을하늘’을 보고서 ①《가을철의 하늘》, ②《가을철에 볼 수 있는 하늘》, ③《높고 푸른 하늘》 정도의 의미를 연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①은 합성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한편으로는 ‘하늘’에 대한 ‘가을’의 수식의 (기능적) 의미는 별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②는 ‘~에 볼 수 있는’이라는 것이 비합성적인 요소인 것 같고, 특히 ③은 ②의 전형적이고 인상적인 모습(장면)으로부터 환유적으로 연상되는 것 같습니다. (가을철에도 비는 올 수 있고 그때의 하늘은 높고 푸르지 않으니깐요.)

합성어를 대등합성어, 종속합성어, 융합합성어로 나눌 때, ‘밤낮’(《언제나》의 의미)처럼 융합합성어의 경우만 비합성적이라고 보는 처리 방식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유형의 합성어는 의미적으로 합성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4.2. 구성적 성구조의 한국어 예 ‘X #Y_{DAT} #P-기만 해’ 관련

어휘 요소가 미명세된 구성이 그 자체의 의미, 즉 구성적 의미를 가지는 대표적인 경우는 구성문법 논의에서 자주 거론되는 아래와 같은 영어의 몇 가지 구문구성인 것 같습니다.

이항타동구문	X CAUSES Y to RECEIVE Z	Subj V Obj Obj ₂
		Pat faxed Bill the letter
사역이동구문	X CAUSES Y to MOVE Z	Subj V Obj Obl
		He sneezed the napkin off the table
결과구문	X CAUSES Y to BECOME Z	Subj V Obj Xcomp
		She kissed him unconscious.

(Goldberg 1995: 3)

그런데 위의 사례들과는 달리 한국어의 ‘X #Y_{DAT} #P-기만 해’에서 감지되는 경고 또는 위협의 의미는 구성적 의미라기보다는 함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번 걸리기만 해봐! 가만 안 놔둔다.’ 같은 발화에서 선행 문장이 조건절로 해석되는 경우를 이의종(2014)에서는 명령조건 구문이라는 명명으로 다룬 바 있습니다. 아무튼 위의 표현에서 선행문장은 조건절로서 해석되는 것까지가 ‘의미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구문적 속어와 관용표현

최종원(서울대)

1. 서론

한국어의 관용표현에 관한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어휘적 관용표현을 중심으로 다루어 오다가³²⁾, 소위 문법적 관용표현에 대해서도 논의를 베푸는 식의 경향을 보여 왔다. 관용표현의 정의³³⁾만을 고려하자면 그에 부합할 수 있는 언어 현상이 다양할 수 있는데, 관용표현에 대한 논의는 대개 어휘론 내지 의미론의 영역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박진호 2003: 374), 보다 다양한 유형의 관용표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늦게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그간 한국어의 관용표현 관련 논의에서 깊게 논의되지 못한 여러 관용표현 중, 이른바 구문적 속어(constructional idiom)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구문적 속어는 경우에 따라 속어적 구문(idiomatization)으로도 불리는데, 주요한 정의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구문적 속어에 대한 정의³⁴⁾

가. Jakendoff (1990: 221)

관용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특수한 통사적 형식

나. Booij(2002: 320)

구문적 속어란, 구문에 의해 (부분 또는 그 전체가) 비합성적 의미를 부여받는 통사적 구성이며, 전통적인 속어(idioms)와는 달리, 일부분만 고정됨.

다. Taylor(2015: 464)

표현 구성의 패턴(생산성, 도식성의 정도는 다양)인데, 통사, 의미, 화용, 그리고 음운적 속성 까지도 보편적이든 언어특정적이든, 일반적인 원리에서 파생될 수 없는 것.

라. Corpus Pastor, G.(2021: 2)

구문 전체의 의미는 비합성적임. 통사적 구성의 일부분은 채워져 있지만, 일부분은 비어 있음.

주지하듯이 위와 같은 정의에 해당하는 언어 현상은 기존에 문법적 관용표현/언어, 통사적 관용표현/언어와 같은 용어로 불리어 왔다. 그런데 문법적 관용표현 부류로 주로 다루어진 현

32) 특별히 ‘어휘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주로 어휘적 관용표현에 속하는 구성들을 대상으로 삼아왔다(문금현 1996, 박만규 2003 등).

33) 둘 이상의 구성요소가 결합체를 이루면서 내용적으로 의미가 특수화되어 있고, 형식적으로 구성 방식이 고정되어 있는 결합관계(임지룡 2021: 173)라는 전통적인 정의를 따른다.

34) 이들의 피정의항은 모두 constructional idiom이다.

상들은 주요 문법 기능을 얻게 된 일부 우연적 구성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그러나 특정 문법 기능을 얻게 된 이들 못지않게, ‘특수한 통사적 구성’의 관용표현, 즉 구문적 속어는 정상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꽤 유용하게 쓰이고,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난다. 또한 여타의 관용표현들처럼 어떤 언어에서든지, 그 언어의 표현 체계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범주적으로는 뚜렷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다양한 의미-화용 정보들을 특정 형식을 통해 전달할 수 있다는 점, 그 중요성에 비하여 많은 연구가 축적되지 못하였다는 점, 그에 따라 탐색할 만한 구성 표현과 특성이 많이 있다는 점 등을 생각해봐도 관용표현의 연속선상에서 다룰 만하다고 생각된다.

한편으로는 용어와 관련해서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주요 문법 기능을 얻게 된 우연적 구성은 이제 문법적 관용표현/언어로 불리기보다, 해당 문법 기능을 나타내는 표지(조사 상당 구성, 시제 표지 등)로 불릴 만큼 문법화가 진전된 편이다. 이들과 달리 본 발표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현상들은, 통사적 구성이지만 문법 기능 표시를 전담하거나 분담한다기보다, 특정 상황에서 특이한(idiosyncratic)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그 본질이라 할 수 있다.

문법적 관용표현 등의 용어는 관용표현의 구성요소의 성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구문적 속어는 이들이 관습적으로 어떤 특수 형식을 취하여, 특히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에 더 초점을 둔 표현이라 생각된다. 또 다른 한편, 종래 ‘특수 구문’이라는 용어도 잘 사용되어 왔다. 다만 ‘특수’라는 단어가 가지는 여러 함의³⁵⁾를 고려한다면, 특수 구문이라는 용어는 보다 포괄적인 여러 언어 현상에 적용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서 본 발표에서는 ‘구문적 속어’라는 용어가 통사적 구문 단위를 나타내면서도 관용적 용법으로 쓰이는 현상의 본질을 잘 나타낼 수 있다고 보아, ‘구문적 속어’로 해당 현상을 지칭하도록 하겠다.

관용표현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점진적으로 사전학³⁶⁾이나 한국어교육 등의 실용 분야에서도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근본적으로는 한국어의 문법 기술을 풍부하게 함과 동시에 실제 언어 현실이 어떠한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보통, 구문적 속어 부류는 주변적이고 특이한 현상으로만 취급받아 왔고, 범주적인 부분도 분명히 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언어생활 내에서의 이들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단지 특이하고 풍부한 표현력을 가지고 있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을 해서, 문법 체계에서 적합한 위치를 확정해 주는 것이 언어학자의 한 역할일 것이다.

Foolen(2004: 83)은 이러한 ‘주변적(marginal)’이라고 여겨지는 구문들은 우리에게 언어에 대한 많은 것들을 가르쳐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문적 속어와 같은 특수한 현상을 통해 어떠한 것들을 알 수 있는지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취하는 기본적인 입장은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이러한 입장에서 구문적 속어와 관련된 개념, 구문문법에서 제안한 유형과 한국어의 관련 현상들의 대응, 구문적

35) ‘일반’에 대비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리킬 수 있을 것이다.

36) 실제로 용법이 특이해서 국어사전에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여 정밀하게 기술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예컨대 이동혁(2008: 47)에서는 ‘X-으면 Y-을수록’ 구문을 논의하면서 여러 사전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였는데, 십수 년이 지난 현재도 사전 기술은 여전한 듯하다.

숙어의 형성과 앞으로의 탐구 과제에 제시함으로써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2. 구문적 숙어와 관련 개념

관용표현의 정의를 좀 느슨하게 적용하자면, 관용적 의미를 가지고 습관적으로 쓰이는 표현 전반을 아우를 수 있고, 좀 더 좁게 보자면 의미·수사적 조건을 기준으로 그 범위를 어느 정도 한정 지을 수 있다.³⁷⁾ 이 같은 정의 자체에만 주목하더라도, 관용표현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언어표현은 광범위하다. 이처럼 관습화된 언어 표현들은 어느 정도의 정도성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표현들을 아울러 정형표현(Formulaic expressions)이라 하기도 한다. 정형표현은 구성이 미리 결정되어 있는 단어나 다른 의미 단위의 연속적이거나 비연속적인 배열로, 언어 문법으로 생성되거나 분석되기보다는 저장되어 있던 전체가 사용되는 순간에 기억으로부터 인출(retrieved)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Wray & Perkins 2000:1). 정형표현의 하위 유형들도 연속체를 이루고 있는데, 김진웅(2019: 327-328)에서 Kecskes(2015)의 표를 바탕으로 한국어 표현들을 추가한 것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정형표현의 연속체(김진웅 2019: 328)

유형 예	문법단위	고정의미 단위	동사구	상투적 표현	상황종속 발화	숙어
영어	going to, have to	as a matter of fact, suffice it to say	put up with, get along with	not bad, you know	welcome abroad, help yourself	kick the bucket, spill the beans
한국어	-을 것이다, -을 할 수 있다	같은 경우에는, -르 수 있기 때문	해당사례 없음	아시다시피, 괜찮습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안전벨트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시치미를 떼다

김진웅(2019:324, 331)에서는 정형성이 구문과 정형표현을 아우르는 기제이며, 정형표현과 같이 형식과 기능의 경계를 넘나드는 현상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표 1>의 연속체는 기존 관용표현에서 화용론적 관용표현(박진호 2003: 364)를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기존 관용표현 논의에서의 구분과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³⁸⁾ 그러나 다양한 관습적 언어표현에 대해 각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37) 상세한 기준 및 분류는 문금현(1996: 18-19) 참조.

38) 보다 다양한 정형표현의 사례는 최준·송현주·남길임(2010)을 참고할 수 있다. 최준·송현주·남길임(2010)의 용어는 '정형화된 표현'인데, <표 1>과 같은 부류뿐 아니라, 담화 차원까지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정형표현을 탐색하고 형태·통사·담화 기능적 특성을 분석한 성과이다.

문법적 관용표현류는 어휘적 관용표현에 비하여 뒤늦게 관심을 받게 된 부류인데,³⁹⁾ 그 범주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왔다. 이들을 연어 범주로 구분하는 입장도 하고, 관용표현의 일종으로 분류하는 입장도 있다.⁴⁰⁾ 문법적 관용표현은 통사적 관용표현, 문법적 연어, constructional idiom 등의 용어로도 사용되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2) 가. 김한샘(2003: 50) - 문법적 관용표현

ㄱ. -는 바람에, -ㄴ 체하다, -와 더불어, -로 미루어, -을 위해 등

나. 박진호(2003: 374-375) - 문법적 관용표현

ㄱ. V-을 수 있다, V-을 것이다, V-면 V-을수록, V-기만 해 봐라

ㄴ. 어디 안 V-고 배기나 보자, V-기가 무섭게 등⁴¹⁾

다. 이희자(1994), 이희자 외(2007: 101) - 통사적 연어, 형태적 연어

ㄱ. 설마 ~ ㄹ까, 모름지기 ~ ㄹ 것이다.

ㄴ. -에 대한, -ㄴ가 보다, -ㄴ 김에, -ㄹ 바에 등

라. 이동혁(2007) - 문법적 관용표현

-에 대하여, -으로 말미암아, -과 더불어, -는 바람에, -기 때문에, -ㄹ 수 있다, -ㄹ 줄 알다, -거나 말거나, -기에 망정이지

그간의 문법적 관용표현 논의에서는 대체로 (2)와 같은 부류를 제시해 왔다.⁴²⁾ 전술하였듯이 대체로 조사, 어미, 시제, 양태, 부사어 등의 문법적 기능을 얻게 된 관용표현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2나)에서와 같이 특정 어감과 명제를 함께 나타내게 된 문장 형식의 일부 관용표현도 눈에 띈다. 관습화된 형식과 기능의 결합쌍이라는 차원에서는 모두 관용표현의 일원으로 다룰 만하다는 인식에서 함께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전자에 해당하는 부류는, 문법 범주나 문법화에 대한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져 왔다.⁴³⁾

한편, (2나)에서 ‘V-기만 해 봐라’, ‘어디 안 V-고 배기나 보자’ 등은 어떤 요소가 문법화된 것도 아니고, 특별한 문법적 기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이들은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운 의미, 화용 정보를 품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부류들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드문 편인데, 그간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안소진(2012: 181)에서 ‘~았/었/ㄸ다 하

39) 이동혁(2007: 263-264), 박형진(2009: 41)에서 그러한 언급을 하고 있다. 이동혁(2007: 263-264)에서는 이들에 대해 “특별한 연어 범주로 설정하여 이에 대한 특성을 자세히 기술한 논의는 드물다”라고 기술하였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큰 관심을 갖고 접근한 부류들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40) 이희자(1995), 김진해(2000)에서는 이들이 ‘관용의미’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어서 관용표현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반면 홍재성 연구책임(2003: 446-447)에서는 “상호 필수 공기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주어진 문법적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말의 일반 통사 결합규칙에 의해 가능한 여타 결합이 아닌 특정한 형태소들 사이의 결합으로 고정되어 있는 부류”이기 때문에 관용표현의 일종으로 보았다(이동혁 2007: 264 재인용).

41) 문법 요소들만으로 이루어진 구성과 어휘 요소와 문법 요소를 모두 포함한 구성 중 일부 빈 자리가 있는 구성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42) 한편 관용표현, 연어, 공기 관계, 호응 관계 등의 세밀한 구분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상이하다. 본 발표문에서는 논지 전개상 그러한 구분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다루지 않는다.

43) 대체로 내부 구조 또는 분포적 특성에 따른 유형 분류가 이루어져 왔다(도재학 2014: 264-265). 문법적 특징을 고찰한 연구들에서도 문법 기능보다는 하위 범주 간의 기준 확립이나 구성요소의 성격, 선택 제약 등에 치중한 경향을 보인다.

면 ~이다(예: 컸다 하면 흠련이다, 나갔다 하면 한 나절이다, 먹었다 하면 10분이다)', 박철우(2019: 347)에서 '-에게 땅 짚고 헤엄치기다(부분적 관용 구문), ~을 건 또 뭐 있어(이유없음-불평 구문)'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논문들은 이 현상들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⁴⁴⁾

이 같은 구문은 일찍이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활발하게 다루어져 왔다.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고정된 형태-의미의 결합쌍을 표현 문형(expressive sentence pattern)으로 제시하여 교육 현장에서 활용한다. 표현 문형이란 구체적인 어휘를 포함하는 개별적인 문형, 표현 의도나 기능 등을 중시하는 개별적 문형(석주연 2005: 182-183, 하신영 2019: 123)이다. 즉 어느 정도 형태적 고정성을 갖추었으면서도 화자의 어떤 의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기능이 있는 덩어리 표현(chunks)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당장 실용적인 의사소통능력을 기르는 것이 최우선인 한국어 교육 측면에서는 유용하게 적용되어 왔다.

결국 정형표현이든, 문법적 관용표현이든, 표현문형이든, 유사한 대상들을 각자의 사정에 맞게 다루어 왔다. 정형표현의 경우, 의미적으로 관용적이지 않고 문법적으로도 높은 생산성, 분리 가능성을 보이는 표현이라 할지라도, 빈도의 기준에서 고빈도로 나타날 경우, 이들은 해당 텍스트 장르에서 유의미한 기능을 하는 표현(최준·송현주·남길임 2010: 167)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문법적 관용표현은 관용표현 중에서도 문법적 요소들만으로 이루어진 구성들을 주로 다루어 왔고, 자연히 그들이 얻게 된 문법 기능이나 범주에 대한 논의에 집중되어 왔다. 표현문형은 외국어 학습자에 대한 교육적 관점에 의한 개념이라는 차이가 있다.

3. 구문문법과 구문적 속어

기본적으로 관용표현은 구문문법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구문문법에서는 문법 단위로서 구문 개념을 제시한다. 구문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아래와 같은 견해는 일치한다.⁴⁵⁾

(3) 가. 관습적인 상징단위(conventional symbolic unit⁴⁶⁾) (Langacker 1987: 57-63),

나. 의미에 대해 기여하거나, 그것을 포함하는 구조를 사용하는 데 있어, 언어적으로 관습화된 모든 것과 함께 언어에서 하나 이상의 관습적 기능이 할당된 모든 통사적 패턴을 의미 (Fillmore 1988: 36)

44) 안소진(2012)는 통사적 변형이 일어나는 관용표현들의 어휘부 저장 방식에 대해 논의하면서, 위에서 든 '형식이 완전히 고정되지는 않는' 단위의 저장 방식도 언급하였다. 이 같은 표현들이 화자들의 지식체계에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탐구도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 한편 박철우(2019: 348)에서 구문의 단어들에 완전히 고정된 경우나 부분적으로 고정된 경우들도 하나의 구문으로 화자의 머릿속사전에 들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기술을 참고할 수 있다. 이때 사전이란 어휘부와 통사부의 망상조직을 가리킨 것이라 덧붙였다.

45) 구문문법 이론의 출현과 흐름, 구문문법가들의 다양한 견해에 대해서는 Croft(2007), 김진웅(2019: 313-324), 정주리·정연주(2019), 전후민(2021: 36-51) 등에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 본 발표에서는 구문문법에 대한 상세한 소개는 생략하기로 한다.

46) Langacker의 상징단위란, 형식과 의미의 결합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다. 형식과 기능의 관습적인 결합쌍

형식과 의미 또는 담화 기능의 학습된 결합쌍

특정한 의사소통 기능과 특정한 형식 자질 각각의 결합쌍 (Goldberg 2006: 3-9)

관습화된 형식과 의미의 결합쌍이라는 구문의 개념은, 통사·의미(화용)적으로 불규칙한 관용 표현을 설명하기 용이하다.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사정에서 구문문법은 Fillmore 등(1988)의 관용표현에 대한 연구에서 기원한다. 특수한 구문인 관용표현 분석 논의에서 출발한 구문문법은 언어의 특수한 현상과 일반적인 현상에 대한 연구는 모두 핵심적인 언어 현상에 대한 연구이며, 특수한 현상과 일반적인 현상은 큰 관련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Kay&Fillmore 1999: 30)

3.1. 구문 단위별 유형

구문문법에서는 구문을 단위로 설정하여 단위별로 유형을 설정하였다. 논의의 편의상 Goldberg(2009: 94)를 한국어 자료로 재정리한 전후민(2021: 48)의 표를 제시한다.

<표 2> 크기와 복잡성 면에서 다양한 ‘한국어’ 구문의 예들(전후민 2021: 48)

구문 유형	예
(문법) 형태소	문법 형태소(조사, 어미, 접사)
단어(자립 형태소)	체언, 용언, 수식언, 독립언
복합어	합성어(예. 논밭, 한두)
복합어(부분적으로 채워진)	파생어(예. [N-개], [N-스럽])
관용어(채워진)	예.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미역국을 먹-
관용어(부분적으로 채워진)	예. 어디 안 V-고 배기나 보자. V-가 무섭게
문장형 구문(‘커녕’ 구문)	[[X]](은/는)[커녕] [Y]](예. 밥은커녕 죽도 못 먹었다.
문장형 구문(피동 구문)	Subj (Obl) (Obj) VP. (예. 쥐가 고양이에게 잡혔다)

구문 유형은 연구자들 간의 약간의 차이가 있다. 형태소까지 구문으로 보는 경우(Goldberg 2006⁴⁷⁾), 이중 목적어 구문이나 피동 구문보다 더 도식성(schematic)이 높은 일반 통사 구문([SUB VERB PHRASE])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⁴⁸⁾ 이처럼 구문문법에서는 다양한 형태·통사 단위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근래 들어 한국어학에서 ‘(특수한) X 구문’, ‘X의 특수한 쓰임/용법’ 등의 제목으로 관련 연구들이 차츰 축적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들이 대체로 구문문법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해당 구문의 의미와 용법, 분포, 유형 등의 전반적인 언어적 특징을 기술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많은 연구에서 다루어 온 현상은 다음과 같다. 명칭은 각 연구에서 사용한 것을 그대로 쓰기로 한다.

47) Goldberg(2009)에서는 형태소를 제외하였다.

48) 王寅(2011: 364-365)에서는 변향을 많이 가진 복합 구조일수록 추상적 도식성이 높다고 하여, [SUB VERB PHRASE]와 복합 구조를 피동 구문 부류들보다 도식성이 좀 더 높은 일반 통사 구문으로 보았다. 박철우(2019)도 이 같은 관점에서 한국어의 문법 기술 모형을 상정하였다. 모형에 대해서는 박철우(2019: 346-347) 참조.

(4) ‘X-으면 Y-을수록’(이동혁 2008), ‘보다’ 구성(김진희·김강희 2012), ‘-기는’ 구문(구현정 2012), ‘커녕’ 구문(전후민 2013), 명령 조건 구문(이의종 2014), ‘연결어미+하다’ 구성(한명주 2014), 동일 연결어미 반복 구성(한명주 2015), 반복구성(이수연 2016), ‘X-게 하다’ 구문(이호승 2017), ‘-고 자시고’류 어미 반복 구성(조미희 2017), 반복 구문(진관초 2018), ‘~려면 ~어야 하-’ 구문(최종원·박진호 2019), 반복 구문 ‘V-느라고/노라고 V’(진관초 2020), ‘-을까 보-’ 구성(박혜진 2020), ‘-기에는’ 구문(정연주 2021), ‘-기보다’, ‘-라기보다’ 구문(정연주·김현주 2021), ‘~이고 ~이고’ 구문(백인영 2021), ‘-다는 것이/것을’ 구문(이준희 2021) 등

이들은 구문의 구성요소만으로는 어떠한 의미/기능을 갖는지 분명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에 따라 언어의 주변적이고 특수한 현상에 관심을 갖는 구문문법으로 현상 파악에 주력하고자 하는 연구들이다. 이들은 대체로 위 <표 2>에서 ‘부분적으로 채워진 관용어’부터 ‘문장형 구문’의 범위에 이르는 현상이면, 이러한 현상에 대해 많은 주목을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김진웅(2019: 324)에는 구문 연구들 중에는 구문문법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 구문 연구들이 있는데, 많은 수의 사용 기반(usage-based) 연구가 여기에 해당하고, 한국어 구문 연구의 대다수가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4)와 같은 연구들에서도 구문문법을 표명하지 않더라도, 실제 쓰임을 면밀히 관찰하여 용법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 같은 연구의 동향은 해당 구문, 또는 구문적 숙어들이 갖는 범주적 불안정성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들 대부분은 기원이 되는 舊 구문에서 파생된 것이다. 그에 따라 일정 부분은 기원 구문의 문법 요소가 가진 의미/기능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舊 구문과 新 구문은 그 특성이 연속적이면서도 일정 부분에서는 구분될 것인데, 新 구문은 어떠한 의미(화용)로 쓰이는 것인지, 어떠한 문법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지, 꼭 집어 말할 수 있을 만큼 구체성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특정한 범주로 언중들의 지식 체계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특이성을 포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같이 자리한 언어 지식은 실제로 사용한 바(token)를 바탕으로 한 구문 유형(type)이다. 따라서 다른 언어 현상도 그렇지만, 위와 같이 특히 그 지위 및 특성을 분명히 할 수 없는 구문적 숙어의 형식과 표상을 연구하려면, 구체적인 운용 상황을 상세히 탐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용 기반 접근 방식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3.2. 단어-통사-의미 중심의 유형

Fillmore et al.(1988: 506-510)에서는 숙어적 표현(idiomatic expression)들을 단어 선택, 통사 배열, 의미 해석 측면에서 분류하였다. 다음은 Wulff(2013: 276)에서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⁴⁹⁾

<표 3> 규칙적인 통사적 표현과 비교한 속어의 유형(Wulff 2013: 276)

	Lexis	Syntax	Semantics
unfamiliar pieces unfamiliarily arranged	irregular	irregular	irregular
familiar pieces unfamiliarily arranged	regular	irregular	irregular
familiar pieces familiarily arranged	regular	regular	irregular
regular syntactic expressions	regular	regular	regular

이들 유형은 어휘, 통사, 의미 차원에서 정규적인지, 비정규적(특수한)인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모든 관련 요소가 정규적인 경우는 정규적인 통사적 표현이 된다. Fillmore et al.(1988: 506-510)에서는 각 유형에 해당되는 영어의 관용표현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해당 예는 실질적 관용표현(substantive idioms)과 형식적 관용표현(formal idioms)을 구분하였다.

(5) 가. 낯선 요소가 낯설게 배열

kith and kin일가친척, with might and main전력을 다하여; the X-er the Y-er~하면 할 수록 더욱 ~하다

나. 익숙한 요소가 낯설게 배열

all of sudden갑자기, in point of fact사실은; nth cousin m times removed다양한 사촌 관계 표현

다. 익숙한 요소가 익숙하게 배열

pull someone's leg~를 놀리다, tickle the ivories피아노를 치다; now watch me drop it; Who's gonna make me?, Am I invisible?, When did I say you could do that? 등의 수사·의문문 부류

낯선 요소라 하는 것은 그 요소가 현재 해당 관용표현 내에서만 쓰인다는 것이다. 공식적으로는 더 생산적으로 쓰이지 않고, 해당 관용표현에 한하여 고정되어 있는 부류를 말한다. 낯설게 배열된다는 것은, 그 배열 및 결합 양상이 불규칙적임을 의미하며, (다)와 같이 익숙한 요소가 익숙하게 배열된 경우는 어휘나 문법의 쓰임은 규칙에 벗어나지 않지만, 의미 해석이 특수한 경우이다.

한편 Evans & Green(2006: 647)에서는 위의 유형에 ‘낯선 요소가 익숙하게 배열된 유형’을 추가하였다. 그에 대한 예로, ‘take umbrage at불쾌하게 여기다’, ‘in cahoots with~와 공모하여’, ‘by dint of~의 힘으로/~에 의해’, ‘wend one's way나아가다’을 들었다. 이들 관

49) 정주라·정연주(2019:355~356)에서 재인용.

용표현에 쓰인 ‘umbrage, cahoots, dint, wend’라는 형태 자체는 해당 관용표현에만 쓰인다. 예컨대 ‘umbrage’는 단어형성 차원에서 인식 가능한 부분이 있고(명사형 단어형성 관련), ‘cahoots’는 그것이 복수형임을 알 수 있으며(복수 표지), ‘wend’는 동일한 맥락에서 다른 익숙한 표현과 분포를 비교하여 품사를 부여할 수 있다. Fillmore et al(1988: 506)에서 정의한 낯선 요소⁵⁰⁾들에 비한다면, 이들 또한 낯선 어휘지만 품사, 결합 양상, 굴절 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익숙한 배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래는 王寅(2011: 184-185)에서 이상 논의된 유형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4> 관용표현의 유형

	단어 선택	통사 배열	의미 해석	예
I	-	-	-	the X-er, the Y-er
II	-	+	-	take umbrage at, kith and kin
III	+	-	-	all of sudden, nth cousin m times removed
IV	+	+	-	pull X’s leg, tickle the ivories
V	+	+	+	

위 <표 4>에서 ‘+’는 규칙적/정규적임을, ‘-’는 불규칙적/비정규적임을 의미한다. Fillmore et al.(1988)이 분류한 것은 제 I, III, IV 유형이고, 그에 Evans & Green(2006)이 추가한 것은 제 II 유형이다. 따라서 제 II 유형은 Fillmore et al.(1988)의 관점에서는 제 I 유형에 속한다. 제 I, II 유형의 차이점은 통사 배열의 규칙성/불규칙성인데, 결국 Fillmore et al.(1988)는 조금 느슨하게, ‘이들은 대체로 해당 관용표현 외에는 잘 쓰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듯하다. 반면 Evans & Green(2006)은 ‘해당 관용표현에만 쓰인다’와 ‘주로 관용표현에만 쓰이긴 하지만, 사용상 약간의 유연성을 보이는 것’을 구분한 것이 아닌가 한다. 다만 이러한 세밀한 유형화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는 불분명한 듯하다. 특히 ‘낯선 단어’, ‘불규칙하거나 비정규적인 단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하다. 예컨대 ‘the X-er, the Y-er’의 ‘the’는 언어에 관심이 깊은 사람이거나, 언어학자 정도만 그 기원을 알아서 ‘낯선 단어’로 규정할 수 있지, 일반 언중들은 어디까지나 이에 대해 글자 그대로 정관사 ‘the’라고 생각할 것이다. 기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 표현은 제 III 유형에 속하게 된다.

제 III 유형은 정규적인 단어들이 통사적으로는 불규칙적으로 배열되어, 특수한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소략한 <표 4>의 예 외에 다른 예를 추가하자면, 이른바 Mad Magazine 문장을 예로 들 수 있다. 전형적인 예로 많이 다루어지는 ‘What, me worry?’와 같은 문장은 일종의 의혹 구문(incredulity construction)으로, 부가적인 의미 역시 ‘경이로움, 반문, 의혹’ 등을 나타낸다고 기술되어 왔다. Lambrecht(1990)은 이 구문의 불규칙성에 대해 논의하였고, 그에 따르면 이 구문은 ‘TOP[NP[+acc][...], PredP[+inf][...]](S[...])]’라는 형식으로, 해당 의미를 표현한다.

50) Fillmore et al(1988:506)에서는 낯선 요소들은 필연적으로 낯설게 배열된다고 주장하였다. 어떤 요소들이 그 자체가 익숙하지 않거나 독특하다면, 더 큰 패턴에서 그 요소들이 배열되는 어떤 표준 원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Fillmore et al(1988)의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제Ⅳ유형은 정규적인 단어들이 정규적인 통사 배열로 나타나면서도, 그 의미는 특수하게 해석되는 경우이다. 많은 수의 관용표현이 이 유형에 속할 것이다(전후민 2021: 44). 이 유형은 일반적인 구문이 어떻게 다의성을 갖게 되어 분화/변화되어 가는지에 대한 통찰을 다양하게 제공해 줄 가능성이 커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한다.⁵¹⁾ 제Ⅴ유형은 일반적인 통사 구성이다.

3.2.1. 한국어의 사례

이 절에서는 <표 4>와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한국어의 전형적 사례를 들고, 어떠한 측면에서 그러한지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3.2.1.1. 제Ⅰ유형

제Ⅰ유형은 해당 관용표현 외에는 잘 쓰이지 않은 단어가 비정규적 통사 배열을 보이면서도 의미 해석이 특수한 경우이다. 기본적으로 낮선 단어를 가진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한국어의 해당 유형의 예로 ‘커녕’ 구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후민(2013)에서 상세히 다룬 바 있듯, ‘커녕’ 구문은 부정문과 긍정문 모두에서 나타나며, 긍정문으로 쓰일 때에도 ‘커녕’의 후행문 명제에 의해 선행어 명제가 부정된다는 특이성을 가진다.

(6) 가. 금메달은커녕 동메달도 따지 못했다. (전후민 2013: 414)

나. 상커녕 벌을 받았다. (전후민 2013: 407)

(6가)는 ‘금메달도 따지 못하고 동메달도 따지 못하였음’을 의미하고, (6나)는 ‘상은 못 받고 오히려 벌을 받았다’는 뜻을 나타낸다. (6가)와 같이 선행부⁵²⁾ 명제와 후행부 명제가 동시에 부정될 때에는 후행부에 부정어가 반드시 나타난다. 그러나 후행부에 부정어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선행부의 명제만이 부정의 대상이 된다. 전후민(2013)은 이러한 사실들은 ‘커녕’이라는 단위 하나만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의미이며, 이것이 ‘커녕’ 구문이 가진 의미적 속성을 잘 보여주는 사실이라 하였다. ‘커녕’은 오로지 이 같은 구문에서만 나타나는데, Fillmore et al.(1988: 506)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낮선 요소가 낮설게 배열되는 한국어의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3.2.1.2. 제Ⅱ유형

제Ⅱ유형은 낮선 단어들이 규칙적인 통사 배열을 보이면서도, 그 의미가 특수한 경우이다. 전술하였듯 잘 쓰이지 않는 단어들이 특히 구문적 속어로 쓰이는 경우는 관찰하기 어렵다. 의존명사 ‘둥’으로 나타나는 구문이 이에 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vans & Green(2006: 647)에서 제시한 이 유형의 예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한국어의 사례로, ‘둥’을 들고자 한다.

51) 모어 화자의 입장에서 일반적인 구문의 쓰임과 구분하기 어려운 유형도 이에 속할 것이다.

52) 선·후행하는 형식 단위로 선·후행어, 선·후행절, 선·후행문 등의 용어로 구별할 수 있겠으나, 본 발표문에서는 ‘커녕’에 선·후행하는 성분을 포괄한다는 차원에서 선행부, 후행부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의존명사 ‘둥’은 아래와 같은 구문에서만 사용된다.⁵³⁾

(7) 가. 얼굴을 본 둥 만 둥 그냥 지나간다.

나.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수저를 내려놓는다.

다. 이야기를 할 둥 말 둥 망설인다.

(8) 가. 그는 방이 춥다는 둥 건조하다는 둥 불만이 많았다.

나. 그는 생선이 싱싱하냐는 둥 비싸게 산 것은 아니냐는 둥 트집을 잡았다.

다. 이것을 하라는 둥 저것을 하라는 둥 말이 많다.

라. 민원인 앞에서 히히덕거리지 말고 유난스럽게 자기가 어땠다는 둥 자랑도 하지 말라고 하세요.

(9) 가. V-은/는/르 둥 만/마는/말 둥: 어떤 행위를 하는/할 듯하지만, 제대로 하지 않음. 대체로 불만의 뉘앙스가 있음.

나. S-다는/라는/냐는/자는 둥, (S-다는/라는/냐는/자는 둥): 이렇다거니 저렇다거니 하며 말이 많음을 나타내는 말.

‘둥’의 사전 기술과 실제 쓰임에서 관찰되는 바를 정리하면 (9)와 같다. (7)과 같은 용법은 하나의 덩어리 표현(chunks)으로 볼 수 있는데, 선행행하는 ‘둥’ 구성 중 하나라도 생략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8) 또한 비슷한데, 이 경우는 ‘둥’ 구성 하나만으로도 마찬가지로 의미를 나타낼 수는 있으나, 대체로 두 개의 피인용문이 나열되는 경우가 다수인 듯하다. 이들의 보다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하려면 전체 구문이 쓰이는 맥락을 살펴야 한다. 가령 (7)은 ‘V 행위를 함 - 하지 않음’을 나열하지만, 전체적으로는 ‘V 행위를 하긴 하였으나, 화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해석을 갖고, 그에 더하여 그것이 화자 입장에서는 못마땅하다는 정도의 의미를 나타낸다. (8) 또한 나열한 피인용문 외에도 피인용문 화자가 한 이야기가 더 있다는 해석을 갖는데, 그것이 화자 입장에서는 못마땅함을 나타낸다.⁵⁴⁾

‘둥’의 이러한 특수성은 일부 반복 구성 구문이 보이는 경향과도 일치하는 점이 있다. 접속조사, 연결어미, 종결어미, 의존명사 구성 등이 반복 구성을 이룰 때, 그 해석이 단순히 언어적으로 나열된 개체나 사태를 나타내는 데에 그치지 않고 부가적인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사실은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한명주 2014, 백인영 2021). 그리고 그 부가적인 의미란, 바로 특정 구성요소의 의미보다 전체 구문의 용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적 특수성과 ‘둥’이 (7), (8)의 관용표현에만 나타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단어는 아니며, 그 분포환경으로써 언중들에게 어느 정도 의존명사라는 범주적 인식을 줄 수도 있다. 그리고

53) ‘둥’의 변천을 상세히 다룬 정혜선(2019)에 따르면 ‘둥’은 중세국어에서 관형사형 어미와 결합하여, 의존명사 구성과 어미로 쓰여 왔다. 의존명사 ‘둥’ 구성은 모문 동사의 부사어/보어로서의 용법이 현대국어로까지 이어지고, 간접 인용의 용법은 현대국어로 들어서 나타나 계속 유지되고 있다. 반면 연결어미, 내포문/모문의 종결어미로서의 용법은 각기 발생 시기는 차이가 있지만 근대국어 때에 이르러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한다. 결국 여러 용법 중 (7)과 같이 어느 정도 고정된 형태로서의 구문이 남아있고, (8)과 같이 비교적 근래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피인용문이 오게 된 구문, 두 가지가 남아있게 된 것이다.

54) ‘듯’도 유사하게 사용될 수 있을 듯하나, 뉘앙스의 차이가 느껴진다.

그에 따라 규칙적인 통사 배열을 보이는 유형이라 판단하였다.

3.2.1.3. 제Ⅲ유형

제Ⅲ유형은 익숙한 단어가 통사적으로 불규칙적으로 배열되면서도 의미가 특수한 경우이다. 이 유형에 대해서는 화자의 의도와 관련하여 특수한 의미를 나타내는 몇 가지 구문을 사례로 제시하고자 한다. ‘-ㄴ/는다(고) -ㄴ/는다(고) 하는 것이’와 ‘-다는 게/걸’ 구문⁵⁵⁾을 들 수 있다. 그 전형적인 쓰임은 다음과 같다.

(10) 가. 선생님 댁을 한번 방문한다 한다 하는 것이 한번도 못했어요. 백봉자(2006: 432)

나. 답장을 쓴다 쓴다 하는 것이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백봉자(2006: 432)

(11) 가. 작성 완료를 누른다는 게.. 취소를 눌러버렸네요.

나. 콩국수에 설탕을 넣는다는 걸 소금을 넣었다. 이준희(2021: 175)

이 구문들은 기본적으로 ‘것’절에 주격조사나 대격조사가 결합한 형태인데, 특정 맥락에서는 주어/목적어로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⁵⁶⁾ 통사적으로 주격, 대격 구성으로 볼 수 없고, 그에 따라 ‘-다는 것/걸’과 후행부가 통사적으로 비정규적 배열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구문의 특수한 의미에 대해 잠깐 살펴보자. ‘-ㄴ/는다(고) -ㄴ/는다(고) 하는 것이’ 구문은 주어가 어떤 행위를 하고자 마음먹은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10가)의 경우는 후행부에 행위를 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그대로 나타나지만, (10나)의 경우는 그러한 내용이 없음에도, 동일한 해석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특수한 쓰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11)의 경우, 선행부의 ‘것’ 절에는 주어/화자가 애초에 의도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한 행위/사태가 나타나고, 후행부의 내용은 실제 일어난 행위/사태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즉 ‘내가 어떤 행위를 하려고 했는데, 모종의 이유로 그 행위를 하지 못하였을 때’에 특화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이들 구문의 실례(constructs)에서는 ‘것’절의 선행부와 후행부 사이에 의도한 행위가 왜 실현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선행부만 나타나더라도 구문 전체의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용적 용법을 확인할 수 있다.

3.2.1.4. 제Ⅳ유형

Ⅳ 유형은 어휘적 관용표현을 포함한 대다수의 관용표현이 속하는 유형이다. 대부분 일반적인 구문이 어떤 계기로 다의성을 가지게 된 것이 이 유형에 포함될 수 있다. 때문에 구문에

55) 본 발표문에서 이 구문에 대한 논의는 최종원(2021:2~13)을 토대로 하며, 본 발표문의 관점에 맞게 수정하였다.

56) 백봉자(2006)는 한국어 문법 사전인데, 한국어 교육 차원에서 구문의 의미와 문법적 특성 등을 간결하게 제시하였다(백봉자 2006: 89 참조). 한편 이준희(2021)는 이 구문이 연결어미적 양상을 가진다고 보고, 그 기능에 대해 상세히 논의하였다.

따라서 기존 구문과의 구별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와 관련해서 최근의 연구 성과 중 하나인 정연주·김현주(2021)에서 다룬 ‘-기에는’ 구문을 들 수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기에는’ 구문이 부적절 사태에 대한 이유를 나타내는 용법으로 쓰이는 경우를 주목하였다. 구문의 유형과 의미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2) 기준에 따른 판단의 ‘-기에는(는)’ 구문

제1유형 - 기준에 근거하여 대상의 적합/부적합 판단.

① 이 집은 다섯 명이 살기에(는) 좋다 / 나쁘다.

제2유형 - 기준에 근거하여 대상의 속성이나 상태를 판단.

① 이 집은 다섯 명이 살기에 넓다 / 넓어서 좋다.

② 이 집은 다섯 명이 살기엔 넓다 / ??넓어서 좋다.

제3유형 - 누군가의 관점을 기준으로 하여 사태를 판단.

① 제가 보기에(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13) 부적절 사태에 대한 이유 제시의 ‘-기에는’ 구문

① 가슴기를 안 쓰기에는 비염이 심하다.

의미: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태와 그 이유 제시.

(12)와 같은 용법의 세 유형 간에도 후행 서술어 제약, ‘-기에는’ 절의 필수성과 후행 서술어와의 관계, 보조사 ‘는’의 결합 등의 통사적인 특성이 구분된다. 이 논문에서 주목하는 (13)과 같은 유형의 경우, ‘-기에는’ 절에 드러난 사태가 부적절하다는 의미는 문면에서 존재하지 않다는 점에서 특수하다. 이 용법은 (12)의 제2유형이 쓰이는 한 맥락에서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즉 기준에 근거하여 대상의 속성이나 상태가 어떠한지 판단할 때, 보조사 ‘는’은 후행절이 부정적인 의미를 지닐 때 쓰이는 경향이 있고, 그 경우 긍정적 함축을 가지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12)의 제2유형 ②). 그에 따라 부정적 맥락이라는 추론을 하게 되고, 이러한 맥락에서 부적절 사태에 대한 이유 제시의 ‘-기에는’ 구문이 발달하였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처럼 舊 구문의 일반적인 용법 중 하나가 어떤 맥락에서 특수한 의미를 얻게 될 때, 그리고 단순히 구성요소의 의미만으로 그러한 의미가 도출된 것이 아니라, 맥락의 도움으로 구문 전체의 의미라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가 이 유형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런데 모어 화자들은 관습적으로 해당 용법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특이성을 바로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

3.2.2. 유형의 연속성에 대하여

유형과 유형 간에도, 한 유형에 속하는 구문적 속어 간에도 어느 정도의 연속성과 정도성이

있다. 어쩌면 지금까지 여러 방식으로 제시한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현상이 있을지도 모른다. 앞서 제V유형은 단어-통사-의미 모두 정규성을 가진 일반적인 통사 구문이 속할 수 있는 유형이라 하였다. 그런데 단어-통사-의미 모두 정규성을 가지긴 하였지만, 어느 정도 통사적으로 고착화(entrenchment)되어 있고, 전형적인 관용표현으로 보기에는 의미의 불규칙성이 그렇게 뚜렷해 보이지 않는 중간적 성격의 현상도 눈에 띈다.

부사 ‘가뜩이나’가 그러한 현상의 일례라 생각된다. ‘가뜩이나’의 사전적 정의는 ‘그러지 않아도 매우’, ‘그렇지 않아도 매우’, ‘(힘에 겹거나 어려운 형편인데) 그 위에 또. 그렇지 않아도’ 정도로 기술되어 있다.⁵⁷⁾ 그러나 이 같은 사전 기술은 ‘가뜩이나’의 구체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불충분해 보인다.

(14) 가.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이 상황에 꼭 규제 법안을 추진해야 하나요.

가’. [가뜩이나 A -ㄴ/는데, B]

나. 가뜩이나 우울한 얼굴에 빗금치고 다니니까 더 못 봐 주겠잖아.

나’. [가뜩이나 A ㄴ/는 NP, B]

‘가뜩이나’의 실례 조사에서 위와 같은 전형을 발견할 수 있다. 위를 통해 우리는 ‘가뜩이나’는 기본적으로 어떤 좋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부정적인 상황이 더해짐을 나타낸다는 맥락에서 주로 사용된다는 점, 그리고 주로 ‘-ㄴ/는데’나 ‘-ㄴ/는 NP’와 함께 나타나, 옆친 데 덮친 격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가뜩이나’로 문장을 만들어보려고만 해도 쉽게 확인될 수 있고, 실례를 통해서도 입증될 수 있는 것이다. 최종원(2016: 34)에 의하면 준구어 말뭉치에서 추출한 ‘가뜩이나’의 용례 529개 중, (14가’)의 패턴은 335개(63.3%), (14나’)의 패턴은 178개(33.6%)로 나타난다.⁵⁸⁾ 단순 통계에 그친 것이지만, ‘가뜩이나’의 통사적 패턴을 확인하는 데에는 충분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시사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더라도 ‘가뜩이나’가 꼭 특정 통사적 패턴으로 나타날 이유는 없는 듯하다.⁵⁹⁾ ‘그렇지 않아도 매우’ 정도의 표현이 쓰이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쓰이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볼 수 있다.

(15) 가. 몇몇 기사에서도 자꾸 그런 쪽으로만 접근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매우 속상해요.

가’. ?몇몇 기사에서도 자꾸 그런 쪽으로만 접근을 해서 가뜩이나 속상해요.

나. 그렇지 않아도 매우 많이 지쳐있을 터였다.

나’. ?가뜩이나 많이 지쳐있을 터였다.

57) 각각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연세한국어사전》의 기술이다.

58) 그 외에 ‘가뜩이나 ~ 구면’과 같은 예가 극소수 나타났다.

59) 의미상 특정 문법요소와 공기하는 부사도 있다. ‘만약에 ~ 라면’, ‘왜냐하면 ~ 기 때문이다’, ‘설령 ~ ㄴ지라도’ 등과 같은 소위 호응 부사류가 그러한데, 이들은 의미적인 요인에 의하여 공기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라, ‘가뜩이나’와 사정이 다르다. 물론 ‘가뜩이나’도 ‘옆친 데 덮친 격’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하여, ‘-ㄴ/는데’나 관형사형 어미를 사용하는 것이 용이할 수는 있다. ‘옆친’ 사태는 이미 일어난 사태이므로 배경절에 나타나거나, 관계절의 수식을 받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이 필수적이지는 않으며, 유의 표현 ‘안 그래도’의 경우는 ‘가뜩이나’와 같은 양상을 보이지는 않는다.

다. 경쟁 상황이 그렇지 않아도 매우 안 좋아요.

다. ?경쟁 상황이 가뜩이나 안 좋아요.

(15나', 다')의 수용성에는 이견이 있을지 모르나, 적어도 선호되는 패턴은 아니라는 점에는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안 그래도'라는 부사적 표현도 '엮친 데 덮친 격'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데, '가뜩이나'와는 달리 그 통사적 결합 관계는 자유로운 편이다. 이상의 정보들이 '가뜩이나'라는 어휘 내항에 모두 들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오히려 언어사용자의 머릿속에 '가뜩이나'가 일련의 정보와 함께 덩어리 표현(chunks)으로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유형에 대해 그 의미가 일반적이지만은 않다고 본다면, 제Ⅳ유형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일반 통사 구성 중에서도 고정성을 갖는 한 유형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를 어떤 유형에 소속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현재로서는 크게 중요한 논점이 아니다. 거듭 언급했듯 관습화된 언어 표현들은 어느 정도의 정도성을 가지고 있고, 고정성 차원에서는 모두 정형 표현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무리한 분류를 시도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여러 기준에 따른 유형들과 실제 언어 현실과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존 유형과 성격을 달리하는 여러 언어 현상들이 관찰될 여지는 충분하며, 또 어휘 요소도 조건이 갖추어지면 변화하듯이, 구문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⁶⁰⁾

4. 구문적 속어의 형성: 관습화를 통한 구문 형성의 일례

구문적 속어와 같은 특수한 언어 현상의 특성을 상세히 기술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가능하다면 한층 더 나아가 이러한 현상의 동기에 대한 설명까지 시도해볼 수 있다. 물론 모든 현상에 대해 타당하거나 사실에 근접한 설명을 해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어휘적 관용표현은 예컨대 '시치미를 떼다, 퇴짜를 놓다'와 같이 구성 어휘요소가 사전 등을 통해 전해 내려온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재 관용적 의미로 쓰이는 원인을 알아차릴 수 있다. 그런데 구문적 속어의 경우, 구성에 있어 문법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타의 관용표현과 사정이 완전히 같을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다양한 (공시적·통시적)실례들을 분석하거나 언어유형론적 관점에서 단서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

구문적 속어와 관련된 현상의 발생을 고찰한 여러 연구들에서는 일반적인 언어 변화의 계기 중 하나인 함축·추론적 의미의 관습화로 현상을 규명해내는 경우가 많다. 전술한 바 있듯이 한 구문적 속어의 기원이 되는 구문은 본래 그 구문의 구성요소의 의미기능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쓰여 왔을 것이다. 그러다가 특정 맥락에서 특수하게 해석되는 일이 빈번해지고, 그 과

60) 범주적 불확정성을 보이는 구문들은 한 언어에서 적지 않은데, 그러한 구문을 무리하게 어느 한 범주에 소속시키려고 하기보다는 그 자체의 특성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그 특성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기술하는 것이 언어 현실을 드러내는 데 더 유용할 수 있다(정주리·정연주 2019:370).

정에서 어떤 구문은 구성요소 성분의 성격이 한정되거나, 확장되기도 한다. 그리고 언중들이 그 구문을 그렇게 쓰는 것이 나름의 효용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해당 쓰임을 범주화(categorize)하고 이것은 점차 언중들에게 고착되어 인식 속에 표상된다. 이 같은 기존 구문에서의 변화 기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구문문법 관련 연구에서 제시되었다(Goldberg 2006, Bybee 2006, 이의종 2014, 정주리·정연주 2019, 정연주·김현주 2021 등).

맥락에 따라 특정 문법 형식의 본래 의미가 열어진다거나, 의미가 특정 방향으로 확장된다거나, 구문 내 내부 슬롯에 들어갈 수 있는 요소의 범위가 확장·축소되는 등 문장 내부의 변화를 통해 구문이 형성될 수도 있지만, 다소 특이한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잠깐 다루었던 의도 사태의 비실현을 나타내는 ‘-다는 게/걸’ 구문이 그 예이다. 이 구문은 다양한 패턴의 표본 표상이 관찰된다. 요컨대, 이들은 일련의 사태 연쇄 패턴에서 특정 부분이 빈번하게 생략되기도 하는데, 여러 패턴이 생명력을 가지고 생산성 있게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16) ‘-다는 게/걸’의 패턴

가. [의도 사태 - 의도 사태의 비실현 원인 - 비의도적 결과 사태]

① 작성 완료를 누른다는 게.. 마우스 감이 안 좋아 취소를 눌러버렸네요.

② 예구구.. 아까 낮에 드린다는 걸 친구가 와서 이제서야 드리네요.

나. [의도 사태 - 의도 사태의 비실현 원인]

① 자다가 전화를 받아서 부가서비스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게 깜빡했습니다.

② 아 죄송합니다. 노크한다는 걸 깜박했네요.⁶¹⁾

다. [의도 사태 - 비의도적 결과 사태]

① 근데 결정적으로 고춧가루를 넣는다는 게 그만 후추가루를 넣고 말았다.

② 찌개에 간장 넣는다는 걸 까나리 액젓 넣었나봐요.

라. [의도 사태]

① 아니 나는, 어머니가 괜히 나중에 아시고 더 난리 치실까 봐.. 미리 던지시.. 귀찮해 드린다는 게 그만..

② 미안해요. 나오기 전에 불 끄는 걸..

실례를 통해 이 구문의 기원에 대해 추정해 보자면, 애초에 의도한 사태가 의도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의도 사태 - 의도 사태가 비실현된 원인 또는 결과 사태가 실현된 원인 - 의도한 사태 대신 일어난 사태] 정도의 일련의 사태가 부호화되었을 것이다. 이때 이 사태들이 주로 어떤 언어 형식으로 부호화되어 왔는지는 특정하기 어렵다. 각각이 문장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언어로 어떻게든 표현하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효용성이 꽤 높아 빈번하게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61) 특히 ‘-다는 걸’의 경우, 후행하는 서술어가 ‘깜빡하다’ 류의 타동사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구문은 일반적인 구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다만, 숙어적 의미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어떤 실례들이 개입되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일련의 사태 중 뉴스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은 생략되고, 높은 부분은 잘 생략되지 않는다는 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위 네 가지 유형 중에서도 [의도 사태] 부분은 반드시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⁶²⁾ 이러한 특징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설명 가능하다. 어떤 의도한 일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 일과 관련된 상대에게 원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음을 설명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낄 때가 있다. 그에 따라 [의도 사태 - 의도 사태가 비 실현된 원인 또는 결과 사태가 실현된 원인 - 의도한 사태 대신 일어난 사태]와 같은 사태의 연쇄를 부호화하다가, 구문의 뉴스가치가 낮은 부분은 차츰 생략하게 되고(16나~라), 생략된 상태에서의 사용 빈도가 높아지면서 결국 구문 형식의 감소(reduction)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16)의 여러 유형의 실례 또한 골고루 빈번하게 사용됨으로써, 생산성을 가지고 활발하게 사용되어 온 것이다.⁶³⁾

이 같은 패턴의 사건 연쇄는 꽤 예전부터 사용되어 온 것으로 관찰된다. 구어적 표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주로 한글편지를 바탕으로 관련 현상을 조사하였다.

(17) 감영 편지는 벌써 내 그리 초 잡아 노코 도로 아니 보내노라 훈 거시 갓던가 시브외 《은진송씨 송준길가 한글 간찰 57》 (1739년)

(감영의 편지는 벌써 내 그렇게 초안을 잡아 놓고 도로 보내지 않겠다고 한 것이 갓던가 싶네.)

(18) 강해서 온 조기는 보내노라 훈 거시 사람이 두 번 오디 아니 와시니 닛고 아니 가져 온 동 중간의 일흔가 고이 헐다 《은진 송씨 송규렴가 한글 간찰 <先札> 9, 60-61면》(1699년)

(강화에서 온 조기는 보내겠다고 한 것이 사람이 두 번 왔는데 (조기가) 오지 않았으니 (그 사람이) 닛고 가져 오지 않은 것인지 중간에 잃어 버렸는지 이상하다.)

(19) 대단 연고 업시 간 일 다행 깃브며 관속인 갈 제 편지헐엇더니 보냐 종이나 벌써 보내자 훈 거시 일이 되들 아녀 겨요 겨요 이제야 브리며 그 스이 직괴 오죽하며 더위 오시 절박함 듀야 브리오지 못홀다 《신창맹씨 「자손보전」 23-24》 (1774년 이전)

(큰 연고 없이 간 일 다행하고 기쁘며 관속인(官屬人) 갈 때 편지하었는데 보았느냐 종이나 벌써 보내자고 한 것이 일이 되지 아니하여 겨우 겨우 이제야 부리며 그 사이 객고가 오죽하며 더위 옷이 절박함을 주야로 버리지 못하겠다.)

(20) 경성 본택으로 급히 올너오난 길에 배을 타고 속히 온다는 것이, 모르고 수적에 배에 올너서 오다가 여러 도적놈에게 이 곤경을 당하는 터이라. <녀장군전 고향자본>

(경성 본택으로 급히 올라오는 길에 배를 타고 속히 온다는 것이, 모르고 수적의 배에 올라서 오다가 여러 도적놈에게 이 곤경을 당하는 터이다)

이 예들은 모두 주어가 어떤 의도로 무언가를 했는데, 그 의도대로 일이 잘 되지 않았거나 (18~20), 궁금해하는(17) 맥락에서 ‘V-L/는다는 게’나 유사한 구성으로 나타내었음을 확인할

62) 언중들은 위 구문에서 [의도 사태] 부분에 해당하는 형식만 접하더라도, 전체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문 전체의 맥락 의미가 [의도 사태] 부분에 흡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63) 이 표현은 구어에서 주로 쓰이는 것은 이 같은 사정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수 있다. 본 발표문은 의도 사태 비실현의 ‘-다는 게/걸’ 구문의 기원이 위와 같은 현상이었을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유사한 맥락에서 유사한 구성으로 표현하는 일은 예로부터 일반적이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사실을 통해 자연스럽게 구어를 중심으로 이 구문이 관습화되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이 같은 사례를 통해, 비슷해 보이는 관습화도 현상마다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기타 탐구 과제

구문적 속어를 다룬 대다수의 연구는, 우선 해당 구문의 속성을 자세히 기술할 필요에 의하여 출발하였기 때문에 해석론적 관점에 입각한 연구가 대다수이다((4) 참조). 구문의 속성을 자세히 기술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작업이지만, 의미/개념으로부터 기호로 나아가는 표현론적(onomasiological) 접근법도 필요하다. 이런 접근법은 한국어 교육과 같은 실용적인 분야에서 더 유용할 수 있다.

이르테면, 백인영(2021)에서는 ‘~이고 ~이고’를 구문적 해석을 요하는 하나의 덩어리 표현(chunks)으로 다루었다. ‘-이고’의 출현을 살펴보면, ‘-이고’가 유사한 범주 내 구성원들을 단순히 이어주는 데에 그치지 않고 부가적인 의미를 더하게 된다. 이는 접속조사마다 약간씩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가령 ‘연습이다 레슨이다 시간이 하나도 없다’에서는 ‘연습을 하고 레슨을 하느라’ 정도의 의미를, ‘연습이고 레슨이고 시간이 하나도 없다’에서는 ‘연습도 레슨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도의 의미를 간단히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구문은 한국어 담화에서 화자가 범주 내 구성원들 간 큰 구별 없이 어떤 범주를 논의하고자 할 때 문장 구성에 도입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백인영(2021: 144)나아가 이 같은 범주뿐 아니라 [A이다 B이다], [A이니, B이니] 등, 같은 [A-co, B-co] 유형에 속하는 구문들과 구문가족으로 파악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나아가 이 같은 현상이 언어보편적인 것인지 살펴보는 것도 연구 작업이 될 수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복수의 대상/사태를 나열할 때, 실제의 대상/사태 일체를 빠짐없이 언어로 표현(나열)할 수 있는 경우보다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예컨대 2, 3개의 대상, 사태라면 빠짐없이 언어로 표현(나열)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지만, 그 이상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그것을 요구하는 상황도 흔치 않다. 따라서 접속 구문이 실제 접속된 대상/사태 이상의 부가적인 관련 대상까지 포괄하는 것은 보편적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관점에서 어떤 표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고 ~이고’ 구문은 조건별로 자유 선택 의미(동일성 함축), 양화 의미의 제약부 한정, 전칭 해석, 양보 해석 등의 다양한 구분을 포착해내었듯, 해당 구문에 대한 상세한 고찰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⁶⁴⁾

앞서 제시한 ‘-다는 게/-다는 걸’을 포함한, ‘V1 다고 V1’와 같은 현상들은 의도와 관련된

64) 이런 표현은 대체로 부정적인 의미 운율(semantic prosody)을 가지는 듯하다. 역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특수한 쓰임을 가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주어의 의도 행위 - 실제 결과 사태]를 나타낼 때, 기존에 의도를 나타내는 문법 구성은 ‘-려고 했는데, -고자 했는데’ 정도가 있다. 기존 구성이 있는데도, 인용 형식을 취한 ‘-다는 것’을 이용한 구문에서 숙어적 쓰임이 확장된 것은 특이하다고 할 만하다.⁶⁵⁾ 나아가 ‘V1 다고 V1’⁶⁶⁾ 구문도 마찬가지이다.

(21) 가. 난 먹는다고 먹었어.

나. 열심히 쓴다고 썼는데, 망했어.

이 구문은 (21)과 같이 어떤 결과 사태가 마땅찮을 때, 화자가 본래는 어떤 사태를 의도하였음/시도하였음을 나타낼 때 특화된 구문이다. 의도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다는 게/걸’과 유사하지만, 또 다른 상황에서 쓰이는 구문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어쨌든, 두 구문 모두 어떤 결과 사태가 자신이 생각한 사태가 아닐 때, 본래 자신의 의도가 어떠하였음을 나타내는 데에 특화된 구문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언중들이 이 같은 의중을 전달하기 위해 기존 문법 요소를 조합한 표현보다 좀 더 효과적이라 판단한 것이, 이 구문의 생산성에 기여했을 것이다.

논리적으로 가능한 다양한 의미들이 있고, 실제 언어 사용에 있어 범주화된 의미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령 ‘A’라는 개념 의미가 있다고 치고, 논리적으로 ‘A-1, A-2, A-3, A-4’의 가능한 경우의 하위 의미 집합이 있다고 하자. 그리고 이를 나타내는 구문 [C]가 있는데, 모종의 의미로 구문에 다의성이 생겼다고 하자. 그런데 다의성을 관찰해보니, 그 의미는 ‘A-3’의 의미와 관련된 의미, 즉 ‘A-3’ 정도의 의미임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다른 하위 의미에 비하여 ‘A-3’이라는 의미가 이 언어의 언중들에게 효용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구문이 다의성을 가질 때 특히 어떤 의미 쪽으로 방향성을 얻는지도 장기적인 연구 과제라 생각된다.

6. 결론

본 발표에서는 구문적 숙어와 관련 개념들, 구문문법적 관점에서의 유형 분류와 한국어의 사례, 또 한국어 구문적 숙어의 형성, 기타 탐구 과제라는 내용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짧고 얇게나마 이러한 현상들이 알려주는 언어의 여러 측면에 대한 이해를 얻고자 하였다.

관습적이라는 말 자체는 단순히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이지만, 왜 관습적으로 사용되는지 또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다. 이를 규명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탐구 과제일 것이다. 본 발표문에서는 어느 관용표현과 마찬가지로 구문적 숙어 또한 언어

65) 기본적으로 인용 형식은 소망, 의도, 목적 등의 다의성을 가지기 쉽다는 사실(Aikhenvald 2009: 388-389)을 고려한다면, 이들이 의도와 관련된 구문을 형성한다는 점 자체는 그렇게 특별한 것은 아니다.

66) 이 구문은 선·후행하는 동사가 동일한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해당 용법의 실례를 관찰해보면, 그것은 엄격한 제약은 아니고 다소 느슨한 제약이라 생각된다.

에 대해 여러 가지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관용표현이라 생각한다. 최근 들어 이러한 현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다양한 관점과 해석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구현정(2012), '-기는' 구문의 문법화, 담화와 인지 19-3, 1-28.
- 김진웅(2019), 구문 개념의 정립을 위한 시론, 국어학 89, 313-336.
- 김진해(2000), 언어 연구, 한국문화사.
- 김진희·김강희(2012), '보다' 구성의 가정 의미기능 연구 - '-아 봐', '-았어 봐', '-았단 봐'를 중심으로, 시학과 언어학 23, 81-109.
- 김한샘(2003), 자연언어처리를 위한 관용표현 연구, 한국어 의미학 13, 43-67.
- 도재학(2014), 우연적 구성의 개념과 유형에 대하여, 국어학 71, 국어학회, 259-304.
- 문금현(1996), 국어의 관용표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만규(2003), 관용표현의 범주적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 의미론적 분석을 중심으로, 국어학 41, 307-353.
- 박진호(2003), 관용표현의 통사론과 의미론, 국어학 41, 361-380.
- 박철우(2019), 구문과 정보-국어 문법에서의 정보구조의 위상 검토, 국어학 89, 337-383.
- 박형진(2009), '문법적 언어'에 대한 고찰,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0-1, 41-57.
- 박혜진(2020), '-을까 보-' 구성의 통사와 의미, 한국어 의미학 67, 25-51.
- 백봉자(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사전, 도서출판하우.
- 백인영(2021), '~이고 ~이고' 구문의 형식과 의미, 한국어 의미학 72, 123-147.
- 석주연(2005),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형 교육의 방향에 대한 일고찰, 반교어문 16-1, 169-194.
- 안소진(2012), 관용표현의 통사적 변형에 대한 시론, 언어와 언어학 56, 165-184.
- 이동혁(2007), 한국어 관용 표현의 정보화와 전산 처리, 역락.
- 이동혁(2008), 'X-으면 Y-을수록' 구문에 대하여, 국어학 51, 29-56.
- 이수연(2016), 한국어 반복구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의종(2014), 명령 조건 구문의 언어유형론적 연구, 언어와 정보사회 23, 215-254.
- 이호승(2017), 'X-게 하다' 사동구성과 구성문법적 접근, 언어학연구 42, 71-92.
- 이준희(2021), '-다는 것을/것이' 구문의 연결어미적 양상과 기능, 한국어학 92, 155-197.
- 이희자(1994), 현대 국어 관용구의 결합 관계 고찰, 제 6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 처리 논문 발표 대회 발표 논문집, 333-352.
- 이희자·유현경·김한샘·천미애(2007), 『학습용 한국어 관용 표현 사전』 편찬 연구, 한국사전학 9, 99-122.
- 임지룡(2021), 의미탐구의 인지언어학적 새 지평, 한국문화사.
- 전후민(2013), '커녕' 구문의 위계적 틀, 국어학 68, 405-443.
- 전후민(2021), 한국어 보조사 구문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연주(2021), ‘-기보다’ 구문과 ‘-다/라기보다’ 구문의 특성, *우리말글* 88, 61-91.
- 정연주·김현주(2021), 두 종류의 “-기에는” 구문에 대하여, *영주어문* 49, 35-65.
- 정주리·정연주(2019), 「구문문법」, 『한국어 의미 탐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343-373.
- 정혜선(2019), 의존명사 ‘둥’의 변천과 문법 기능 변화, *한민족어문학* 83, 133-157.
- 조미희(2017), “-고 자시고”류 어미 반복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어학* 76, 213-241.
- 진관초(2019), 한국어 반복 구문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진관초(2020), 반복 구문 ‘V-느라고/노라고 V’에 대한 고찰, *문법 교육* 39, 165-202.
- 최종원(2016), 긴밀한 절 공기를 형성하는 부사적 표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종원·박진호(2019),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를 나타내는 ‘~려면 ~어야 하-’ 구문, *언어와 정보사회* 38, 303-334.
- 최준·송현주·남길임(2010), 한국어의 정형화된 표현 연구, *담화와인지* 17-2, 163-190.
- 하신영(2019), ‘-는지 알다/모르다’ 관련 한국어 교육용 표현 문형의 설정에 대한 제안,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20-1, 121-144.
- 한명주(2014), ‘연결어미+하다’ 구성의 문법적 특징, *언어와 정보 사회* 21, 189-224.
- 한명주(2015), 동일 연결어미 반복 구성의 문법범주와 의미, *언어와 정보 사회* 24, 159-190.
- 王寅(2011), 构成语法研究(上卷) [理论思索], (박원기 , 전기정 , 김영민 역(2022), *구문문법 연구: 이론편, 역락*.)
- Aikhenvald, A. Y.(2012), “The essence of mirativity”, *Linguistic Typology* 16(3), 435-486.
- Booij, G., (2002), Constructional idioms, morphology, and the Dutch lexicon. *J. Ger. Linguist.* 14 (2), 301-329
- Bybee, J.(2006), “From usage to grammar: The mind's response to repetition,” *Language* 82(4), 711-733.
- Corpas Pastor, G.(2021), Constructional idioms of ‘insanity’ in English and Spanish: A corpus-based study, *Lingua* 254, 1-20.
- Croft, W.(2007), Construction Grammar, In Geeraerts, D. & Cuyckens, H.(eds.), *The Oxford Handbook of Cognitive Linguistics* , Oxford University Press, 463-508.
- Evans, Vyvyan, and Melanie Green(2006), *Cognitive linguistics: An introduction*, Edinburgh, UK: Edinburgh University Press.
- Fillmore, C. J., Kay, P. & O'Connor, M. K.(1988), Regularity and Idiomaticity in Grammatical Constructions: The Case of Let Alone, *Language* 64-3, 501-538.
- Foolen, Ad. (2004), Expressive Binominal NPs in Germanic and Romance Languages, In Radden, Günter & Klaus-Uwe Panther (eds). *Studies in Linguistic Motivation (Cognitive Linguistics Research 28)*, Berlin: Mouton de Gruyter.
- Goldberg, A. E.(1995), *Constructions: A Construction Grammar Approach to Argument Structure*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손영숙·정주리 역(2004), 『구문

문법』, 한국문화사.)

Goldberg, A.(2006), *Constructions at work: The nature of generalization in langu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Goldberg, A. E.(2009), *The nature of generalization in language*, *Cognitive Linguistics* 20-1, 93-127.

Jackendoff, Ray S. (1990), *Semantic Structures*. MIT Press.

Lambrecht, K. (1990), “What, me worry?”—‘Mad Magazine’ sentences revisited.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16: 215-28.

Langacker, Ronald W. (1987).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 1, *Theoretical prerequisite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Taylor, John R., 2015. *Cognitive linguistics*. In: Allan, K. (Ed.), *Routledge Handbook of Linguistics*.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pp. 455-469.

Wray, A, & Perkins, M. R.(2000), *The functions of formulaic language: An integrated model*. *Language and Communication* 20, 1-28.

“구문적 속어와 관용표현”에 대한 토론문

전후민(연세대학교 박사후연구원)

이 논문에서는 ‘-다는 게/결’ 구문과 같이 형식이 일부 고정되어 있고 의미가 고착화되어 있는 것들을 이른바 ‘구문적 속어’라 하고 이에 대한 개념과 유형, 이와 관련된 연구 과제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도 밝혀 주신바 이러한 종류의 구문 혹은 표현들은 범주를 확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 그간 학계에서 큰 관심을 기울여 오지 않았는데, 선생님의 논문이 이와 관련한 연구들을 더욱 촉발시킬 수 있는 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논제에 대해 토론해 보았으면 합니다.

논문에서 다루어 주신 예들에 대한 의미 분석에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무엇으로 부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다는 게/결’이 포함된 문장(이하 ‘-다는 게/결’문)이 특정한 패턴을 가지고 특수한 의미를 띤다고 할 때 이것을 관용어(혹은 관용 표현)(이하 ‘관용어’로 통일) 쪽에서 다룰 때와 구문 문법 쪽에서 다룰 때의 범주나 지위가 같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을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관용어 쪽에서 다룬다고 했을 때, ‘-다는 게/결’문은 어휘적인 의미를 지녔다고 할 수도 없고 문법적인 의미를 지녔다고 할 수도 없어서 어휘적/문법적 카테고리 안에서는 마땅히 부를 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통사적 관용어로 부르기도 애매한 것이 어휘적/문법적 관용어의 구분은 어디까지나 의미를 중심으로 한 것이므로 통사적 의미(?)의 개념이 서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용어는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다는 게/결’문을 구문 문법에서 다룬다면, 당연히 이것은 ‘-다는 게/결’ 구문이 됩니다. 즉, 구문 문법적 관점에서 이것을 ‘-다는 게/결’ 구문으로 부르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문’이라는 용어를 ‘관용어’와 결합시키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구문적 관용어(논문의 용어로는 ‘구문적 속어’)'가 각 이론 틀에서 어떤 방식으로 쓰일 수 있을지 나누어서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적/문법적 관용어 구분은 둘 다 어떤 관용어가 단어나 형태소 차원의 의미를 나타낼 때 어느 쪽 의미에 대응되느냐에 따른 구분 방식이므로 ‘-다는 게/결’문처럼 좀 더 큰 단위의 의미를 칭하기 위해 ‘구문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괜찮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관용어에 단어형 관용어(어휘적/문법적 관용어)와 구문형 관용어(혹은 문장형 관용어)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반면, ‘구문적 관용어’라는 명칭이 구문 문법적인 관점으로 해석될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문 문법에서의 ‘구문’은 사실상 형식과 의미가 연결되어 있지만 하다면 모든 것이 다 구문이 되기 때문에 구문적인 관용어와 구문적이지 않은 관용어의 구분이 존재할 수 없어 ‘구문적 관용어’라는 말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논의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관용어 관점과 구문 문법 관점을 분리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만, 구문 문법은 관용어로부터 태동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런 점에서 관용어를 분석함에 있어 구문 문법의 이론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발표자께서 시도하신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이라고 판단됩니다). 형식과 의미가 불일치하는 현상의 전형을 보여 주는 관용어는 형식과 의미의 쌍이라는 구문의 정의를 낳게 되었고, 이러한 정의에 따라 관용어보다 작은 형식(단어 및 형태소)과 그보다 큰 형식(문장)이 전부 구문으로 분석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문적 관점의 가장 큰 장점은 문법 단위의 크기가 넓어지면서 빈자리(slot)가 있는 것들까지도 문법 단위로 취급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구문 중에는 형식적으로 모든 요소가 채워진 것이 있는가 하면 일부 요소만 채워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분은 사각지대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모든 구문을 깔끔하게 양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관용어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서 형식적으로 모든 요소가 채워진 관용어와 일부만 채워진 관용어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 틀 안에서는 ‘-다는 게/걸’ 문은 일부만 채워진 관용어가 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논문에서 제시해 주신 ‘(1) 구문적 속어에 대한 정의’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Jakendoff(1990)을 제외한 나머지 정의들을 통해 “일부분만 고정됨”(1ㄱ), “도식성”(1ㄴ), “일부분은 채워져 있지만 일부분은 비어 있음”(1ㄷ)과 같은 특성이 구문적 관용어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때의 ‘constructional’은 한국어로는 ‘구성적’으로 번역하는 편이 나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construction’은 영어로는 구분되지 않으나 전술했다시피 개념상 구문 문법의 ‘구문’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구성적 관용어와 대가 되는 짝, 즉 모든 요소가 채워진 관용어는 Croft처럼 ‘실질적 관용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예 Croft처럼 ‘도식적(schematic)/실질적(substantiv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관용어를 분류하는 기준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나 구문 문법적 관점에서 관용어 역시 형식과 의미의 짝이라는 정의를 가진다고 했을 때 결국 형식적 기준과 의미적 기준을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분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표 43> 형식적 기준과 의미적 기준에 따른 관용어 분류

		형식	
		실질적	도식적
의미	단어형	단어형 실질 관용어	단어형 도식 관용어
	문장형	문장형 실질 관용어	문장형 도식 관용어

단어형 실질 관용어는 어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존의 관용어들 대부분이 속하게 될 것이고 문장형 실질 관용어에는 속담이 포함될 수 있을 듯합니다. 단어형 도식 관용어에는 이른바 우연적 구성에 해당하는 문법적 관용어들이 속할 수 있을 것 같고, 문장형 도식 관용어에는 ‘-다는 게/걸’ 구문이나 ‘커녕’ 구문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당연히 한 가능성일 뿐이고 이러한 시도의 타당성이나 유용성에 대해서는 발표자께서 더 잘 판단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구문 문법적 관점이 관용어 분석에 이점이 있

다는 점이 논문을 통해서 충분히 논증되었고 흥미로운 사례들도 많이 발굴해 주셔서 구문 문법에 관심을 두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재미있게 논문을 읽었습니다. 논문을 따라가면서 저 역시 어떤 용어가 더 적합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어서 그 과정을 함께 나누어 보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발표자 선생님의 고견을 청해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어 교육을 위한 관용 표현 연구

유해준(상지대)

1. 서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육을 위해 연구된 관용 표현 연구들을 살피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살핀 연구 대상은 1997년대부터 2021년까지 발표된 한국어 교육에서 다루어진 한국어 관용 표현 관련 연구였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구 논문을 기준으로 ‘한국어 교육 관용 표현’이란 용어로 검색한 결과 616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이렇게 추출된 학술논문 124편과 학위논문 492편의 연구 논문들 중에서 한국어 교육 관용 표현과 관련 있는 연구들로 학술논문 34편, 학위논문 119편을 분류하였다. 분류를 하기 위해 논문의 목차와 초록, 그리고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연구 내용을 살피었다.

2. 관용 표현의 개념

관용 표현은 개념 정의는 연구자들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연구 주제가 되는 한국어 관용 표현에 대해 먼저 연구 범위를 정리하고자 관용 표현 개념을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준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관용어와 관용 표현은 유사어로 처리되어 있지 않다. 관용어는 ‘관용구(慣用句)’, ‘성어2(成語)’(1), ‘속어(熟語)’(1), ‘익은말’, ‘이디엄(idiom)’, ‘익은이은말’이 유의어로 연결되어 있다.

<표 1> 표준국어대사전 관용어 관련 유의어

표제어	내용
관용어(慣用語)	관용적으로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특정한 뜻을 나타내는 언어 형태
관용구(慣用句)	관용적으로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특정한 뜻을 나타내는 언어 형태
속어(熟語)	두 개 이상의 낱말이 모여서 하나의 뜻을 이루는 말
성어(成語)	관용적으로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특정한 뜻을 나타내는 언어 형태
익은말	관용적으로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특정한 뜻을 생성한 어구
익은이은말	관용적으로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특정한 뜻을 생성한 어구
이디엄(idiom)	둘 이상의 단어들이 연결되어 그 단어들이 가지는 제 뜻 이외의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말

표준국어대사전에 ‘익은말’과 ‘익은이은말’은 ‘관용구’, ‘관용어’, ‘성어’, ‘속어’가 유의어로

연결되어 있지만 ‘이디엄’은 유의어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한다는 부분은 모두 동일하지만 ‘관용어’, ‘관용구’, ‘성어’, ‘속어’, ‘익은말’, ‘익은이은말’은 특정한 뜻 또는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는 언어 형태로 정의된 반면 ‘이디엄’은 제 뜻 이외의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단어가 가진 뜻 이외의 의미가 형성되어야만 ‘이디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유의어로 연결은 되어 있지 않지만 ‘관용 표현’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관용 표현’은 ‘관용적 표현’만을 유의어로 두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제어	내용
관용 표현 [慣用表現]	둘 이상의 단어가 고정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낸 경우, 그 단어 구성을 이르는 말.
관용적 표현 [慣用的表現]	둘 이상의 단어가 고정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낸 경우, 그 단어 구성을 이르는 말.

영어의 ‘idiom’이 한국어 ‘관용 표현’과 같은 범주를 담고 있는 용어라고 하기에는 속담이나 원어민이 자주 사용하는 특정한 용어까지 담고 있기에 표준국어대사전의 ‘이디엄’에 대한 정의 외에도 영어 ‘idiom’의 범주까지 고려한다면 그 영역이 한국어 ‘관용 표현’보다 더 넓기에 유의어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사전적 정의를 살피어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관용 표현’을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내용 안에서 개념을 정하여 살피고자 한다.

이상의 사전적 의미를 종합해 보면, ‘관용 표현’은 ‘통사적으로 둘 이상의 구성 요소가 결합되어 구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성, 관습성 특징을 가지면서 제3의 의미를 가진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용 표현 개념 안에 속하는 연구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관용 표현 연구를 살피고자 한다.

3. 한국어 교육 관용 표현 관련 연구 정리

학술연구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한국어 교육 관련 관용 표현 연구를 검색하면 124편의 학술 논문이 검색된다. 이 연구 안에서 한국어 교육 관용 표현 연구와 직접 연관성이 없거나 적다고 판단되는 논문들을 제외하였다. 제외된 논문들은 교육과는 관계가 없는 국어학 관점에서의 관용어, 익은말, 관용 표현 연구,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 국어 교육에서의 관용 표현 연구, 대조 언어 연구,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문법 항목을 연구하기 위한 문법적 관용 표현 연구, 어휘 교육 연구에 관용 표현 용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기술만 들어간 연구, 의미에 대한 고려 없이 결합만을 고려한 언어 교육 연구, 교재 연구 안에서 어휘 차원에서만 관용 표현을 언급한 연구, 속담 관련 연구, 통번역 연구들을 제외하였다. 이런 관련 연구를 제외한 본 연구에서 살필 학술논문은 124편 중 34편이다.

<표 2> 한국어 교육 관용 표현 관련 학술논문 현황

1998	2001	2003	2006	2009	2010	2011	2012	2013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	1	1	1	1	2	1	1	1	4	3	3	2	1	6	5
총 34편															

학위논문 정리도 학술논문과 마찬가지로 교육 내용이 없는 국어학 관점에서의 관용어, 관용 표현 연구, 국어 교육에서의 관용 표현 연구, 교육 관련 내용이 없는 언어학 기반의 대조언어 연구,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문법 항목을 연구하기 위한 문법적 관용 표현 연구, 어휘 교육 연구에 관용 표현 용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기술만 들어간 연구, 의미에 대한 고려 없이 결합만을 고려한 언어 교육 연구, 교재 연구 안에서 어휘 교육으로 관용 표현을 언급만 한 연구, 속담 관련 연구, 통번역 연구들을 제외하였다. 이런 관련 연구를 제외한 본 연구에서 실행 학위논문은 482편 중 119편이다. 이 중 석사학위논문은 108편, 박사학위논문은 11편이다.

<표3> 한국어 교육 관용 표현 관련 학위논문 현황

	1997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20	2021
석사	1	1	2	2	4	5	3	6	15	9	11	3	6	5	13	8	9	5
박사								1			1	1	1	3	3	1		
총 119편																		

34편의 학술논문 연구 주제들을 보면 아래와 같다.

<표 4> 한국어 교육 관용 표현 관련 학술논문

년	학술논문 연구 주제
1998	• 문금현(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관용표현의 교육, 이중언어학 15-1, 이중언어학회.
2001	• 전해영(2001), 한국어 관용표현의 교육 방안, 한국어 교육 1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3	• 조현용(2003), 비언어적 행위 관련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 연구, 한국어 교육 14-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6	• 황미연(2006),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을 위한 관용표현 대조 연구,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 10-1, 비교문화연구소.
2009	• 박용배(2009),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중 관용표현 비교, 2009년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한중인문학회.
2010	• 배규범(2010), 중국 내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관용어 교육의 실상과 방향 -목록 선정과 단계별 배치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21-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백낙천, 莫曉蕾(2010), 한·중 음식 관련 관용표현의 특징 비교-한국어교육적 접근을 위하여-, 한국사상과 문화 53, 한국사상문화학회.
2011	• 사와다히로유키(2011), 학습 단계별 한국어 관용표현 선정 기준에 관한 연구 -일본어 모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국어교육학연구 42, 국어교육학회.
2012	• 유해준, 손경애(2012), 한국어교육용 관용 표현 제시 방안 :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정보학 14-2, 한국어정보학회.
2013	• 김은령(2013), 대조 유형별 한국어 관용표현에 대한 이해도 및 이해 전략 연구 : 중국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국어문화교육 7-2, 한국어문화교육학회.

2015	• 김현진(2015), 한국어 교육용 관용 표현 연구, 한국어와 문화 17,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 맏따따우(2015), 미얀마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신체 관련 관용표현 교육 연구, 외국어교육연구 29-3,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 • 김몽, 이충우, 김지은(2015), 한국어 교재분석을 통한 관용표현 교육 방안 연구, 교육과학 논문집 21,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 김동국, 이상률(2015),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의 교육방안 연구 - 동물명이 포함된 관용표현을 중심으로 -/ 한국언어과학회 2015 언어과학 22-1
2016	• 김정남(2016), "돈" 관련 한국어 관용 표현의 의미와 분포 -한국어 어휘 교육의 관점을 지향하며-, 한국어와 문화 19,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 왕지국(2016), 한국어 관용표현의 학습법에 대하여 -얼굴과 관련된 표현을 중심으로, 한국(조선)어교육연구 11,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 • 서수백(2016), 시트콤 자료를 활용한 한국어 관용 표현 교육 연구-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을 대상으로-, 人文論叢 41,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 屈佳慧(2017),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관용표현 교육 방안, 한국어교육연구 6, 한국어교육연구학회. • 정동준(2017)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의 관용 표현 문항 출제 필요성 연구-신체관용구를 중심으로-, 2017년 한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어교육학회. • 서수백(2017), 외국인 학습자 한국어 관용표현 작문 분석 연구, 한국말글학 34, 한국말글학회.
2018	• 이은진, 권연진(2018),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신체어 관용 표현의 상호문화적 교육 방안 연구, 언어과학 25-1, 한국언어과학회. • 손혜진, 임형옥, 공하림(2018) TV 드라마 대본을 통한 한국어 관용표현의 사용 맥락 고찰,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7,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9	• 김몽, 이영경(2019),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에 대한 제언, 比較文化研究 54,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20	• 김효신(2020), 매체를 활용한 한국어 관용 표현 교육 방안 연구/ 2020년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공하림, 손혜진(2020), 문화 리터러시 관점에서 본 한국어 관용 표현 교육에 관한 고찰 : 교재 분석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2-5, 한국문화융합학회. • 송대현(2020),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드라마 <도깨비> 속 관용표현 교육 방안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4-5,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 김정아, 티피왓 앙쿨(2020), 동물명 관용표현의 의미 교육 연구 : 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문화와 융합 42-11, 한국문화융합학회. • 崔洪烈(2020), 여성결혼이민자의 관용표현 교육에 대한 일고찰, 語文論集 83, 중앙어문학회. • 정유남, 최창원(2020),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감정 관용 표현의 교수 학습, 語文論集 82, 중앙어문학회.
2021	• 김춘화(2021), 관용어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방안 考 : 중국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연구 15, 한국어교육연구학회. • 김몽, 이영경(2021), 한-중 번역을 활용한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을 위한 시론, 우리말글 91, 우리말글학회 • 박현정 (2021) 상호텍스트성 듣기 활동에 의한 한국어 관용어 교육/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2021 한국어와 문화 Vol.29 No.- • 왕흥범(2021), 한국어 학습자의 신체 관용어 이해 및 표현 지식 연구 -중국어권 학습자를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17-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모홍월(2021),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상호문화적 교수-학습 모형 연구-관용표현을 활용하여-, 한중인문학연구 73, 한중인문학회.

위 학술논문들의 연구 주제를 논문들의 초록에 제시된 키워드 위주로 연구 주제를 분류하면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표 5> 한국어 교육 관용 표현 관련 학술논문 연구 주제

연구 주제	교수 방법 연구			교육 내용 연구			
	관용 표현 교수 방법	언 어 권 별 교수 방법	매체 활용 교수 방법	교재 분석 및 개발	한국어능력 시험 문항 분석	학습자 작 문 분석	목록 선정 및 등급화
논문 수	9	10	4	2	1	1	7

학술논문을 보면 전체적으로 교수 방법에 대한 논문들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초기에는 관용 표현 자체에 대한 한국어 교육 교수 방법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면 후에는 언어권별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수 방법을 논의하는 연구들이 많이 나타났다. 초기 연구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한국어 영상 매체를 활용한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시트콤, 드라마를 활용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119편의 학위논문 연구 주제들을 보면 아래와 같다.

<표 6> 한국어 교육 관용 표현 관련 학위논문

년	학위논문 연구 주제
1997	• 유덕자(1997),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관용어 교육,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Honda, Tomokuni(2004), 일본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 지도 연구 : 신체 관련 관용표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송혜원(2005), 한국어 교재의 관용표현 분석과 지도 방안,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순영(2005), 한국어 감정관련 관용표현의 수업지도 방안,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박용배(2006), 한국어 관용표현의 교육 방법 연구 :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Zhu, Cuiying(2006), 한국어 관용적 비유표현 교육 연구 :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이경숙(2007), 관용표현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반의현상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혜령(2007), 초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 지도방안,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진(2007), 한국어 관용표현의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 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혜진(2007) 학습자 수준별 관용표현 교수항목에 대한 연구 : 의미투명도와 사용빈도를 바탕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명춘(2008), 한국어 신체 관용표현의 교육 방안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Wang, An qi(2008),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 연구 : 신체어를 활용한 감정 관용표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지훈(2008), 외국어로서 한국어 어휘 지도 방안 : 관용표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우선미(2008),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용표현 교육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소연(2008), 한국어 관용표현의 교수·학습 모형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종선(2009), 한·중 관용표현의 의미에 대한 서사적 접근 : 한국어교육과 관련하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애진(2009), 일본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관용어 교육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비소성(2009), 中國人을 위한 韓國語 慣用語의 教育 方案에 관한 研究,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신혜인(2010),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 및 교육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정혜(2010), 한·중 관용표현을 통한 한국 문화 교육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정정(2010),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관용표현 교육의 수준별 목록 선정 방법, 대불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왕방(2010), 신체 관련 관용 표현의 교육 방안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경(2010), 외국어로서 한국어 관용어 교육 연구, 대불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재춘(2010), 관용구를 활용한 한국어 문화 교육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양금(2010), 대조를 통한 한국어 관용어 교육 연구 : 영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왕월(2011),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감정관련 관용표현 교육방법 연구 : '사랑'과 '미움'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2011), 관용표현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 방안 연구 : 여성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혜인(2011), 한국어 교육용 관용표현 목록 선정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공영(2011), 韓國語 慣用表現을 통한 概念 隱喻 教育 方案에 관한 研究 : 感覺器官 慣用表現 中心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남경(2011),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 방안,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요금휘(2011),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 표현 교육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영화(2011),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관용 표현 교육방안 : 신체 내부 관련 관용 표현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형재연(201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관용 표현 교육 방안 연구 : 주제 및 기능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미선(2011), 일본인을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의 교육 방안,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보배(2011),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관용표현 교육 방안,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구효진(2011), 한국어 관용표현 지도 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순복(2011), 중국인 학습자 대상 한국어 관용표현의 단계별 목록 선정 방안 연구 : 신체어 '손'과 '발'을 중심으로,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인(2011), 관용적 표현을 통한 언어문화 통합 교육 : 스페인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경화(2011), 한국어 관용표현 분석과 목록 선정 연구,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미연(2011),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어 목록 선정과 학습 지도 방안 연구 :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조수봉(2012), 한국어 교육에서의 관용 표현 지도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화경(2012), 관용표현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소적(2012),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영(2012), 중국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신체 관용 표현의 교수 방안,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지영(201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관용표현 지도 방안 : 영화 '식객-김치전쟁'을 중심으로, 고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언동(2012), 中國人 學習者를 위한 韓國語의 飲食 慣用語 教育 方案 研究,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경숙(2012), 일본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색채어 관용 표현의 교수·학습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뢰(2012),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어 교육 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은정(2012), 관용어로 배우는 한국어 감정표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소천(2013),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 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MA, JUN(2013),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중 관용표현 대조 연구 : 중국에서 발간된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2013),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관용표현 교육방안 연구 : 신문 읽기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이진(2013),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용 관용표현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ZHANG, WENYI(2013),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명사형 관용표현에 대한 이해도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Jin, Huiying(2013),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관용 표현 이해도 및 이해전략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화배(2013), 한국어 교재 및 TOPIK에 실린 관용표현의 투명성 정도와 편찬 실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환(2013),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어 교육 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남식 바트바야르(2013), 한·몽 머리 부위 관용어 대조 연구 : 한국어 교육적 측면에서,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혜원(2013),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 목록 선정 연구 : 주제 및 기능 범주의 분류를 중심으로,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은미(2013), 한국어 관용구의 이해도 분석과 교육 방안 연구 :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예지(2013),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관용어 학습 교재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최인옥(2014),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 방안 : 영상도식(Image Schema) 은유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문진(2014), 태국인 초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언어문화 교육 방안 : '마음' 관련 관용 표현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선희(2014), 개념적 혼성 이론을 활용한 한국어 관용어 교육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령(2014),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관용표현 이해 전략 분석과 교수 방안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김현진(2015),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육용 관용표현 연구 : 주제 및 기능과의 연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근희(201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 방안 연구 : 인지언어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진이(2015), 문학작품을 활용한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연구 : 소설『엄마를 부탁해』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DACHI, Noriko(2015),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 대상 신체어휘 관용구 교육방안 : '가슴'과 '눈'이 들어가는 표현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란(2015),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 표현의 교재 구성 연구 : 한 · 중 관용 표현의 번역을 바탕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정관(2015), 한국어 학습자의 관용표현 인식양상분석 및 지도방향,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소사(2015),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관용 표현 교재 개발 방안 연구 : 신체어 관련 관용 표현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LI, SHASHA(2016),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관용 표현 교육 방안 연구 : 한·중 비교양상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유진(2016), 한국어 관용 표현 교육 방안 연구 : 신체 관련 관용 표현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까오편이(2016), 한국어 관용 표현 교육 방안 연구 : 중국 학습자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맛띠다우(2016), 한국어와 미얀마어 관용표현의 표현 양상과 문화 요소 대조 연구 : 교육용 관용표현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진명(2016), 한국어 교재의 관용표현 분석 연구, 가톨릭관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형근(2016), 관용 표현의 유의 관계를 활용한 한국 언어문화 교육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현정(2016), 중·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관용어 사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재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신원(2016), 일본인 학습자 대상 관용어 이해 교육 방안 : 문학 작품『창가의 토토』를 활용하여,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최자후이(2017),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관용표현 교육 방안 연구 :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출제된 표현들을 중심으로, 동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소영(2017), 외국인 학습자 대상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 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Ning, Ma(2017),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감정표현 관용어 교육 방안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주용(2017), 韓·日 身體語彙 慣用表現 對照를 통한 韓國語 教育 方案 研究 : 日本人 韓國語 學習者를 對象으로,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Wang, Yinchen(2017),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이동 동사의 관용 표현 교육 연구 : '가다', '들다', '나다'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성아(2017),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관용표현 교육 방안 연구,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아리(2017), SIOP 모델을 활용한 한국어 신체 관용 표현 교육 방안 연구 : 영어권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가오밍(2017), 한·중 음식 관련 관용표현 대비와 교육 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Kumari, Neha(2017), 인도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 지도방안 연구 : 신체 관련 관용표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애(2017),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색채 관용어 교육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가을(2017), 몽골 학생을 위한 한국어 손발 관련 관용어 교육,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FAHMY YASMINE(2017), 이집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신체 관용어 교육 연구 : 머리 부위 관용어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현지(2017), 관용어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칸팅유파편(2017), 태국인을 위한 한국어 관용어 교육방안 연구,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릴리엔탈아나스타시아(2017), 러시아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머리 관련 관용어 연구, 한국교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곡미여(2017),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관용구 교육 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오태진(2018), 스페인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내용 연구 : 신체 관련 관용표현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근희(2018),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인지언어학 기반 관용표현 교육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우여나(2018),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 방안 연구 : 문화의 특성에 대한 이해 차이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유진(2018), 한국어 교육에서의 관용 표현 교수 방안 : 감정 표현을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진아(2018), 신체 관용표현을 통한 한국어 교육 방안,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춘우(2018),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동물 관련 관용표현 교육 연구 : 한국어 교재분석을 바탕으로, 가톨릭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종옥(2018), 신체어 '눈', '손'을 활용한 한국어 관용 표현 교육 방안,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영(2018), 그림 자료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과 효과 연구 : 불투명한 의미의 관용 표현을 중심으로, 경희사이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지란(2018), 중국 출판 한국어 중급 교재의 관용어 제시 현황과 교재 구성 방안 : 한국 출판 교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 이은영(2019), 한국어 교육을 위한 관용 표현 지도 방안 연구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를 활용하여,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송이(2019), 한국 영화에 나타난 교육용 관용 표현 선정 및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Zhang Weixuan(2019),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 목록 선정 연구 : 한·중 동형동의 관용표현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기원(2019),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한 한국어 관용어 교육 방안 :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

	로,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Undral(2019), 몽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신체 관용구 교육 방안 연구 : 눈, 코, 입을 중심으로, 남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선옥(2019), 한국어 학습자의 관용 표현 사용 실태 연구 : 구어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 강예슬(2020), 영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색채 관용 표현 교육 방안,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니조모바 굴도나(2019), 한국어·우즈베크 대비를 활용한 한국어 신체 관용표현 교육 방안 : '머리'와 '손'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기용(2020), TV예능프로그램을 활용한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방안 연구 : SBS 예능프로그램 '런닝맨'을 대상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인숙(2020), 플립러닝을 활용한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룬(2020), 한국어 감정 관련 관용표현의 교육 방안 연구 : 중·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동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서우(2020),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신체어 관용표현 교육 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응웬티탄타오(2020),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관용표현 의미 추론 전략 연구 : 문맥 활용 및 학습 환경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영서(2020), 어휘 학습 전략 기반 한국어 관용어 교육 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서(2020), 중·고급 학습자를 위한 신체 관용표현 학습 교재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 드영타이링(2021), 베트남 내 대학의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관용표현을 활용한 문화 교육 방안,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윤아(2021), 한국어 교육에서 유튜브 활용 블렌디드 교육 방안 연구 : -관용표현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고은(2021), 웹툰을 활용한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 방안 연구 : 웹툰 <대학일기>를 활용하여,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응엔티투트영(2021),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관용표현 교육 방안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미연 쑤나(2021), 캄보디아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어 교육방안 연구 -신체 관용어를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위 학위논문들의 연구 주제를 논문들의 초록에 제시된 키워드 위주로 연구 주제를 분류하면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표 7> 한국어 교육 관용 표현 관련 학위논문 연구 주제

연구 주제	교수 방법 연구				교육 내용 연구			
	관용 표현 교수 방법	언어권 별 교수 방법	학습자 별 교수 방법	매체 활용 교수 방법	교재 분석 및 개발	한국어 능력시험 문항 분석	학습자 분석	목록 선정 및 등급화
논문 수	39	47	6	6	5	1	7	8

학위논문들은 교수 방법에 있어서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관용 표현 자체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나타났다. 물론 그 연구들은 처음 분류를 하면서 교육 내용이나 교육 방법이 언급된 논문들만 분류했기에 연구 전반부에 분석한 관용 표현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법에 대해서는 모두 연구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중국어권 학습자, 일본어권 학습자 등 언어권별로 교수 방법

을 연구한 논문들이 많이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 수가 늘면서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연구자가 모국어와 한국어를 비교하며 관용 표현 관련 한국어 교육 연구를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관련 연구들은 언어문화 교육과도 연결이 되어 관용 표현의 특징을 한국어 교육과 연결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대상 관용 표현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들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화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교육에 활용되는 매체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드라마, 영화 등의 영상 매체부터, 신문, 문학작품 등의 인쇄 매체까지 다양하게 교육 연구 자료로 이용이 되고 있다. 교재 분석도 언어권별 학습자를 고려한 해외 현지 출판 교재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보인다. 그리고 학습자 분석도 언어권별 학습자의 관용 표현 인식에 대한 부분이 많은 것을 보면 이 또한 외국인 유학생 연구자의 연구 성과가 많은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관용 표현 목록 선정도 한국어 교재, 한국어능력시험, 국립국어원 말뭉치, 시나리오 대본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등급화를 하는 기준도 다양화되어 언어권, 학습 목적 등을 고려하고 있는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4. 한국어 교육 관용 표현 연구의 쟁점

본 연구에서 분류한 학술논문 34편과 학위논문 119편의 연구 내용들을 토대로 한국어 교육 관용 표현 연구에서 쟁점이 있는 연구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4.1 관용 표현의 연구 범주 설정

‘관용 표현’의 범주는 좁게는 어휘 차원으로 볼 수 있지만 학자에 따라 넓게는 문장 차원까지도 본다. ‘관용 표현’의 범주 역시 개념의 다양성처럼 학자들마다 다르게 관련 대상을 포함시키고 있다. 먼저 기존 학자들이 정한 ‘관용 표현’의 범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연구자들의 관용 표현 개념 정의

학자	관용 표현 정의
심재기(1986) ⁶⁷⁾	속어, 은어, 비속어, 비유어, 금기어 등을 어휘적 차원의 관용 표현, 속담, 고사성어, 금기담, 길흉담, 격언, 금언, 잠언, 수수께끼, 인사말 등을 어구 및 문장차원의 관용 표현으로 나누었다.
양영희(1995) ⁶⁸⁾	관용 표현을 결속언어, 속담, 속어로 한정시켰다.
최경봉(1995) ⁶⁹⁾	관용어, 속담, 연어 등은 공히 상황의존성, 사회성, 역사성 등의 특징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어 관용표현이라는 용어로 사용한다고 하였다.
민현식(2003) ⁷⁰⁾	관용 표현을 크게 ①전래(=통시적) 관용 표현과 ②유행(=공시적) 관용 표현으로 나누도록 한다. 관용 표현의 단위를 ①고사성어, ②유행어처럼 단어 차원에서 ③관용어구(속어)처럼 구 차원, ④수수께끼, ⑤속담, 표어처럼 문장 차원, ⑥설화(고전 설화, 현대 유행담)처럼 이야기(텍스트, 말글) 차원까지 포괄하였다.
박진호(2003) ⁷¹⁾	속어(idiom) 또는 속어 표현(idiomatic expression), 연어(collocation), 화용적 관용 표현은 모두 관용 표현의 부분집합이 된다고 하였다.

신혜인(2010) ⁷²⁾	관용 표현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달리 속담, 고사성어는 인용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제외하지만 속담 중 일부 ‘개밥의 도토리, 그림의 떡, 꿀 먹은 벙어리, 우물 안 개구리, 제 눈에 안경’ 등과 같은 체언형 관용 표현은 관용 표현의 범주에 포함시키며, 특정 집단에서 쓰이는 은어, 비속어, 유행어는 관용 표현에서 제외한다고 하였다.
유해준·손경애(2012) ⁷³⁾	관용 표현 중에서도 속담과 관용 표현은 이 둘의 경계를 정확하게 구분 짓기가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 경계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있어 속담은 풍자성, 비유성, 교훈성을 갖는 반면 관용 표현은 직설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속담을 관용 표현에서 제외시켰다.

이처럼 지금까지 관용 표현의 개념은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하나의 통일된 개념으로 정의가 되고 있지는 않다. 담고 있는 내용 범주 역시 속담, 연어, 비유적 표현, 인사 표현 등을 포함하는 학자들도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살피는 한국어 교육 관련 관용 표현 연구는 연어와 관용 표현을 명확하게 구분한 연구들이다. 그 둘의 경계를 나누지 않은 연구들은 어휘 교육 또는 한국어 패턴 교육으로 연어에 해당하는 ‘모자를 쓰다’, ‘시계를 차다’ 등과 관용 표현에 해당하는 ‘손이 크다’, ‘발이 넓다’ 등을 함께 연구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이런 연구의 관점은 둘 이상의 단어가 모여 자주 공기하거나 결속되어 구를 이루는 대상이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한 논의들이다. 본 연구에서 살핀 연구 대상에서는 이런 연구들을 제외하였다. 그러나 관용 표현 안에 속담을 포함하여 연구하는 내용들도 있어 이 부분은 학자들의 이견이 있는 부분으로 연구 내용 분류에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한국어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우물 안 개구리’의 경우 관용 표현 교육 안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도 있고 뺀 연구도 있다. 한국어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위 논의들이 모두 필요한 논의들이기에 연구자의 연구 관점이 필요한 부분이다.

4.2 관용 표현 목록 선정 방법

관용 표현 목록을 선정하는 기준들도 여러 논의들이 있다. 크게 보면 빈도를 고려하여 한국어 교육 관용 표현 목록을 선정한 연구와 학습자를 고려한 한국어 교육 관용 표현 목록을 선정한 경우가 있다.

빈도	① 한국어 교재에 출현 빈도가 높은 관용 표현 목록 선정 ②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출현 빈도가 높은 관용 표현 목록 선정 ③ 한국인이 자주 사용하는 관용 표현 목록 선정
학습자	④ 언어권에 따른 대조 분석을 토대로 관용 표현 목록 선정

67) 심재기(1986), pp.27-54.

68) 양영희(1995), p.186.

69) 최경봉(1995), pp.265-266.

70) 민현식(2003), p.19.

71) 박진호(2003), p.365.

72) 신혜인(2010), p.10.

73) 유해준·손경애(2012), pp.69-87.

⑤ 학습 대상에 따른 관용 표현 목록 선정
⑥ 학습 목적에 따른 관용 표현 목록 선정

초기에는 한국어 교재와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기준으로 출현 빈도가 높은 관용 표현을 한국어 교육용 관용 표현 목록으로 연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그 자체가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관용 표현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화자들을 대상으로 구축한 말뭉치 안에서 관용 표현을 추출하는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준구어에 해당하는 영화 시나리오나 특정 상황을 고려한 말뭉치를 따로 만들어 그 안에서 자주 사용되는 관용 표현 목록을 추출하는 연구들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관용 표현 목록이 문화 교육과 관련되면서 학습자를 고려한 상호문화주의 관점에서 관용 표현 목록을 구성하는 연구들도 나오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관용 표현에 해당하는 관용어 목록만 검색해도 3887개가 검색된다. 이 중에서 어떤 내용이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용 관용 표현 목록이 될 수 있는가는 사용 빈도, 학습 목적, 학습 대상 등이 고민이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 성과가 아직은 부족하기에 관련 연구 성과들이 더 나오길 기대한다.

4.3 관용 표현 목록의 등급화

한국어 교육용 관용 표현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질 내용이 숙달도에 따른 교육용 관용 표현 위계화일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등급화 기준	연구의 예
① 빈도	교재에서 빈도가 낮으면 초급, 빈도가 높으면 고급 한국어능력시험에서 빈도가 낮으면 초급, 빈도가 높으면 고급 말뭉치 등에서 빈도가 낮으면 초급, 빈도가 높으면 고급
② 대조언어	두 언어의 관용 표현이 형태와 의미가 동일한 경우: 초급 두 언어의 관용 표현이 형태가 동일하지 않지만 같은 의미의 어휘가 있는 경우: 중급 두 언어의 관용 표현이 형태가 동일하지만 의미가 다른 경우: 고급
③ 개별 어휘의 등급	그림의 떡 예) 그림(초급)+ 떡(초급) = 초급
④ 의미의 투명성	반투명 - 초급, 중급 예) 입만 살다 불투명 - 고급 예) 국수를 먹다

이처럼 한국어 교육용 관용 표현을 선정하고 등급에 따라 배열하기 위한 연구들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출현 또는 인용의 사용 빈도와 범주를 고려한 연구들이 초기 연구였다면 언어권별 학습자를 고려한 연구로 그리고 관용 표현 자체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고려한 연구들로 연구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육 안에서 다루어진 관용 표현 연구 내용들을 살피었다. 한국어 교육에서 다루어진 관용 표현 연구 경향을 보면 초기에는 어휘 교육 성격으로 관용 표현 목록 선정, 관용 표현 목록의 등급화, 관용 표현에 대한 교재 분석 및 관용 표현 활용 교재 개발 등이 다루어졌고 최근에는 관용 표현의 은유적 성격이나 화용적 성격을 고려한 언어문화 교육 차원에서 연구들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교육 내용 자체에 대한 연구에서 학습자 변인을 고려한 연구들로 연구 내용이 다양해지면서 나온 연구 성과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 다루어진 관용 표현 연구 내용들을 좁은 범주로 설정하여 살피었다. 관용 표현에 대한 학자들의 개념 정의가 다른 부분이 있기에 포괄적인 연구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외한 연구 성과들도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 그 부분들을 모두 살피지는 못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육 관용 표현 연구의 흐름을 살핀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참고문헌⁷⁴⁾

- 강위규(1990), 「관용 표현의 개념과 성립 요건」, 『한글』209호, 한글학회. p.141-162.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김남경(2011),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 방안」,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문창(1974), 韓國慣用語의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정(2007),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 『이중언어학』 33, 이중언어학회, pp.423-446.
- 김선정·강현자(2006), 「한국어 관용어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및 단원 제시」, 『이중언어학』 제32호, 이중언어학회, pp.35-56.
- 묘춘매(2006), 「한국 한자어 관용표현의 유형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금현(1996), 「국어의 관용 표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금현(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관용표현의 교육」, 『이중언어학』15호, 이중언어학회, pp.207-233.
- 민현식(2003), 「관용 표현의 범위와 유형에 대한 재고」, 『한국어 의미학』12호, 한국어 의미학회. p.18-19.
- 박선옥 외(2010), 「자녀 교육 능력 향상을 위한 여성결혼이민자 특별 교육프로그램 설계」, 『인문과학연구』 26호,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551-574.

74) 본문에 목록으로 제시한 한국어 교육 관용 표현 논문들을 지면의 한계로 모두 참고문헌에 다시 제시하지는 않았음.

박소연(2008), 「한국어 관용표현의 교수·학습 모형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사모토 마리(2002),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어 교육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소천(2013),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 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혜원(2005), 「한국어 교재의 관용표현 분석과 지도 방안」,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혜인(2010),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 및 교육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심재기(1986), 「한국어 관용표현의 화용론적 연구」, 『관악어문연구』 제11호, 서울대학교. pp.27-54.

안경화(1987), 「한국어 속어의 유형에 대한 분석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영희(1995), 「관용표현의 의미 구현 양상」, 『국어학』26호, 국어학회. pp.171-200.

오성아(2017),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관용표현 교육 방안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요금휘(2011),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 표현 교육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경화(2011), 「한국어 관용표현 분석과 목록선정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덕자(1997),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관용어 교육」,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해준·손경애(2012), 「한국어교육용 관용 표현 제시 방안 :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정보학』14권2호, 한국어정보학회. pp.69-87.

윤민희(2020),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관용표현 교육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지훈(2008), 「외국어로서 한국어 어휘 지도 방안 : 관용표현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 남(2010), 「신체 관련 관용 표현의 교육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보배(2011),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관용표현 교육 방안」,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영숙(1992), 「신체 관용어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의 활용」,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17권1호,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pp.95-117.

전혜영(2001), 「한국어 관용표현의 교육 방안」, 『한국어 교육』 12권2호, 국제 한국어 교육학회, pp.181-199.

최경봉(1995), 「국어 사전에서의 관용적 표현의 처리문제 - 관용어, 속담, 연어에 대한 처리를 중심으로 -」, 『한남어문학』20집, 한남어문학회. pp.265-286.

취자후이(2017),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관용표현 교육 방안 연구 :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출제된 표현들을 중심으로」, 동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주승(200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관용어 교육 연구」, 강릉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어교육을 위한 관용표현 연구”에 대한 토론문

손다정(서울여대)

한국어 교육에서 관용 표현은 중요한 교육 내용의 하나입니다. 관용 표현이 언어 지식으로 학습자들의 언어 기술(skill)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을 위한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한국어 교육을 위한 관용 표현 연구의 동향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주요 쟁점까지 확인한 이 연구의 가치가 높습니다. 이 연구가 앞으로의 연구뿐만 아니라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이 연구를 위해서는 ‘분석’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현재 연구에서는 학위 논문에 대해서는 연도별 논문 수 분석, 학위/연도별 논문 수 분석, 내용별 논문 수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술지 논문에 대해서는 연도별 논문 수 분석과 내용별 논문 수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내용별 분석에서는 분석 대상 연구를 교수 방법과 교육 내용으로 나누어 분류하였습니다. 한국어 교육에서 언어 지식을 연구 대상으로 할 때는 일반적으로 교육 내용과 방법 등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가’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가’의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지를 살핀 연구를 교육 내용 연구로, ‘이/가’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를 살핀 연구를 교육 방법 연구로 봅니다. 그런데 현재 연구에서는 ‘교육 내용’에는 ‘교재 분석 및 개발, 한국어능력시험 문항 분석, 학습자作文 분석, 목록 선정 및 등급화’를 포함하였고 ‘교수 방법’에는 ‘관용 표현 교수 방법, 언어권별 교수 방법, 매체 활용 교수 방법’ 연구를 포함하였습니다. 교재 분석을 통해 교재별로 많이 제시되는 관용 표현을 추출해 교육 내용으로 포함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면 교육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재를 분석해 교재 구성 등을 포함해 교재 개발 논의까지 진행된 연구라면 교육 내용 연구로 분류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 연구에서 이와 같은 분석이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분류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을 더 상세히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 등으로 틀을 유지하면서 색채 관용 표현, 신체 관용 표현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교육 내용’ 연구로 분류하고 실제 교육 방안을 논의한 연구는 ‘교육 방법’ 등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할 때 국어학 등의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의미 있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육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도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언어권별 교수 방법’과 ‘학습자별 교수 방법’로 분류하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언어

권별'은 학습자의 제1언어별로 나누어 본 연구를, '학습자별'은 여성결혼이민자 등 특정 학습자나 특수 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포함한 것으로 보입니다. 분류의 결과는 적절해 보이지만 '언어권별'과 '학습자별' 용어의 적절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숙달도별'로 관용 표현 교육 방안을 연구한 연구도 분석 대상 중 하나인데(예: 최혜령(2007). 초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 표현 지도 방안.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등) 이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이유도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현재 분석 결과를 보면 중복 분류되거나 분석 결과에서 배제된 연구는 한 편도 없는 것 같습니다. 분석 결과의 총합이 분석 대상 논문 수와 동일합니다. '이재춘(2010). 관용구를 활용한 한국어 문화 교육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은 현재 분석 결과 중 어디에 포함되었을까요?

주지하다시피 관용 표현은 단순한 언어 지식으로서만이 아니라 문화 교육의 도구가 된다는 점에서도 한국어 교육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석 대상이 된 연구 목록에서도 문화와 관련한 연구가 보입니다. 이를 포함해 이 연구의 분석이 좀 더 의미 있는 분석이 되기 위해서 분석 틀을 새롭게 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연구 동향 분석 연구에서는 분석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발표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연구자의 의미 있는 해석이 많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더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 쟁점을 잘 정리해 주셔서 앞으로 진행될 관련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신 방향성을 참고해 좀 더 활발하고 본격적인 연구가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토론자로서의 역량이 부족해 적절하지 않은 질문을 던진 부분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용표현의 사전 처리 방향

김혜령(고려대)

1. 서론

본고는 국어사전의 관용표현의 사전 처리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 그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어사전은 언어 자료의 보고로, 한국어의 다양한 언어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수집·수집 정리되어 있다. 다양한 관용표현은 우리말 사용에 있어 중요한 자료이다. 관용표현은 비유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복합적인 언어 자료로서 별도의 뜻풀이나 그 사용례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언어 사용자들이 그 쓰임을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말을 다루는 사전에서도 관용표현은 주요한 자료로 포함되어 있다.¹⁾

그런데 사전의 대표격인 국어사전에서 관용표현은 상대적으로 그 동안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고 하기는 어렵다. 국어사전에서 일차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은 물론 단어의 의미와 용법, 용례이다. 관용표현은 단어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단위이며, 대부분이 표제어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2어절 이상의 관용어나 속담 등의 관용표현은 국어사전에서 부표제어로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어사전 외에 속담사전, 관용어사전 등의 사전에서 관용표현을 다루고 있으나, 이런 유형의 사전들은 해당 관용표현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그의 용법이나 기타 사용 정보 등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²⁾

언어 사용, 표현과 이해의 측면에서 단어의 활용과 의미를 파악하는 것만큼이나, 관용표현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 이를 고려한다면 이전보다 사전에서 관용표현을 더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용표현이 사회·문화적 배경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므로, 사전의 사용자를 고려하였을 때 이에 대한 정보를 제시할 방법을 고려해야

1) 관용표현을 다루고 있는 사전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국어사전과 관용표현 사전이 그것이다. 국어사전은 국어 지식을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따라서 다양한 관용표현 역시 사전 자료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국어사전에서 다루는 관용표현은 일반적으로 ‘부표제어’ 형식으로 처리된다. 국어사전 외에도 관용표현만을 다룬 사전도 다수 존재한다. 이들은 ‘관용어 사전’, ‘속담 사전’ 등의 이름으로 출간되는데, 이들은 다양한 관용표현을 모아 이들의 뜻풀이를 제시하는 유형의 사전이다.

2) 그간 관용표현에 대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관용표현의 사전 처리에 대한 연구로는 최경봉(1995), 박영준·최경봉(2001), 이희자(2003), 안의정·황은하(2021) 등을 들 수 있다. 최경봉(1995)은 사전에서 다룰 관용표현의 범위와, 표제어와 뜻풀이의 처리에 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박영준·최경봉(2001)에서는 <관용어사전>을 중심으로 관용어 사전의 편찬 실례를 다루었다. 이희자(2003)은 ‘관용구 사전학’의 개념을 제시하고, 관용표현을 사전에서 처리할 때의 문제점과 그 방향에 대해 다루었다. 안의정·황은하(2021)에서는 기존의 사전에서 다루었던 부표제어들의 확장뿐 아니라, 구어 표현 사전과 같은 특수한 사전을 편찬하기 위해서 필요한 표제항, 즉 다양한 관용 표현들을 확보해야 한다고 논의하였다.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국어사전에서 관용표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현재의 처리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는 사전에 실제 언어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을 찾는 일이 될 것이다. 특히 현재의 사전 이용 환경, 즉 종이로 출간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웹을 기반으로 하는 사전의 환경을 고려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본고에서 논의할 관용표현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 다루고, 3장에서는 관용표현의 현재 사전 처리 양상에 대해 분석한 후, 4장에서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2. 관용표현의 개념과 범위

관용표현은 비유적인 의미를 갖고 굳어진 표현들로 국어 연구에서 관용어, 관용구, 관용표현 등 다양한 명칭으로 표현된다.³⁾ 국어사전이나 분야별 사전에서는 관용표현이라는 명칭보다는 관용어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한다. 이때 말하는 관용어는 두 어절 이상의 복합적인 표현이 하나의 구성 성분으로 기능하게 된 표현들을 말하는데, 이 가운데 속담은 제외한 표현들을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용표현에는 넓게 보았을 때에는 관용표현의 범주에 관용어, 속담, 연어, 다의어, 속어 등 다양한 표현들이 포함된다.⁴⁾ 이 가운데 다의어, 속어 등은 사전에서 주 표제어의 일부로 다루어진다. 아래는 표제어 ‘먹다’의 경우로, 주 표제어 뜻풀이 가운데 뇌물 수수와 관련한 속어의 예를 확인할 수 있다.

(1) 먹다

⑧ (속되게) 뇌물을 받아 가지다. ㉠ 뇌물을 먹다.

(1)은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먹다’의 뜻풀이의 일부이다. 뇌물을 받는다는 의미의 ‘먹다’는 관용표현의 하나이지만, 이들은 위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사전 처리의 측면에서는 주표제어의 일부로 처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주표제어의 다의로 문법 정보, 뜻풀이, 용례 등이 적극적으로 제시된다.

반면, 언어 복합체로서의 관용어나 연어, 속담 등은 표제어의 지위, 문법 정보의 제공, 뜻풀

3) 최경봉(1993)에서는 관용어를 구성 낱말의 뜻과는 별개의 뜻을 가진 어휘 복합체가 문장 내에서 하나의 구성 성분으로 기능하는 언어 단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희자 외(2007)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습관적인 말의 사용에서 야기된 어절들의 의미·통사·형태적인 결합 관계에 있는 어휘들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희자 외(2007)에서는 관용표현을 크게 속어와 연어로 나누고, 연어는 다시 의미적 연어, 통사적 연어 1, 2, 형태적 연어로 나누고 있다. 그 외에도 백석원(2012)에서는 관용표현을 “관습적으로 사용되어 구성요소의 기본의미나 전이의미의 합성으로는 그 의미를 추론하기 어려운 구절 단위의 언어표현”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관용표현의 특성은 형식적으로 보았을 때 어휘 복합체이며, 의미적으로 이러한 어휘 복합체가 하나의 의미 단위로 기능하고, 의미적 불투명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최경봉(1995)에서는 이 표현들이 상황의존적이면서 사회·역사적 산물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방법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사전 처리의 관점에서 관용어와 연어는 관용어로 함께 다루어지고, 속담은 별도로 다루어진다.

이를 고려한다면 사전 처리에서 보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언어 복합체의 성격을 갖고 있는 관용어, 연어, 속담 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처럼 주 표제어의 직접적인 뜻풀이로 처리되는 단어의 다의 형태인 속어나 은어의 예는 제외하고, 사전에서 부표제어로 처리하고 있는 관용어와 속담을 대상으로 하여 그 처리 양상에 대해서 살펴기로 한다.

3. 사전의 관용표현 처리 양상

먼저 사전에서의 관용표현 처리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아래는 <표준>과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이하 <고려대>)에서 제시하고 있는 ‘먹다’의 부표제어, 즉 관용어나 연어, 속담의 일부이다.⁵⁾

(2) 국어사전에서 제시한 ‘먹다’의 부표제어

사전	<표준>	<고려대>
관용어	먹고 닳다 너무 비슷하게 닳다. ♣그들 둘은 정말 먹고 닳았다. 먹고 들어가다 어떤 일을 할 때 이로운 점을 미리 얻고서 관계하다. ♣부모님의 유산으로 사업을 시작하니 내가 너보다는 한 수 먹고 들어가는 셈이지. 먹고 떨어지다 어떤 일에서 노력하지 않고도 확실한 이득이나 성과가 있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적어도 천만 원은 먹고 떨어질 수 있을 거야.	먹고 들어가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유리한 점을 미리 차지하고 관여하다. ♣바둑에서 흑을 쥐는 사람은 다섯 집 반을 먹고 들어가는 것이다. 먹고 떨어지다 (사람이 이익을) 어떤 일에 크게 노력함이 없이 얻다. ♣성수는 가만히 놀기만 했음에도 상당한 이익을 먹고 떨어졌다.
속담	먹고도 굶어 죽는다 욕심이 많은 사람을 이르는 말. 먹고 싶은 것도 많겠다 좀 안답시고 나서는 경우를 핀잔하는 말. 먹고 자는 식충이도 복을 타고났다 모든 사람의 운명은 날 때부터 타고난 것임을 이르는 말.	먹다가 보니 개떡(수제비)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뜻밖에 보잘것없는 것이어서 실망함을 이르는 말. ♣먹다가 보니 개떡이라고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몇 번 만났는데 알고 보니 나랑 잘 맞지도 않고 성격도 이상한 것 같더라. 먹다 남은 죽은 오래 못 간다

5) <표준>은 국립국어원에서 편찬·관리하여 언어생활의 규범이 되는 사전이고, <고려대>는 가장 최근에 편찬된 국어 대사전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대사전이 웹을 통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언중들의 접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아 예시로 삼았다.

	먹고 죽자 해도 없다 몹시 귀하여 아무리 구하려 하여도 없다는 말.	본래부터 탐탁하지 않은 물건은 남아도 쓸 만한 것이 못 된다는 말. 먹다 죽은 대장부나 발같이하다 죽은 소나 호의호식하던 사람이나 죽도록 일만 하고 고생하던 사람이나 죽음에 이르러서는 차이가 없다는 말. 먹던 떡도 아니고 보던 곳도 아니다 어떤 것이 익숙한 것이 아님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

(2)는 ‘먹다’의 부표제어 부분 중 일부를 가져온 것이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부표제어에는 이른바 관용어와 속담이 포함되는데, 이들의 정보는 주표제어에 비해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다. 부표제어로서 관용표현이 제시되고, 그에 대한 뜻풀이, 그리고 제한적으로 용례를 제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먹다’에 포함된 관용어는 모두 서술어로 사용될 수 있는, 이른바 용언형 관용구이다. 즉 이들은 용언과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각 사전에서 동사인 ‘먹다’의 뜻풀이를 하고 있는 예를 보자.

(3) 가. <표준> 「…을」 ①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배 속에 들여보낸다. ㉠밥을 먹다. ② 담배나 아편 따위를 피우다. ㉡담배를 먹다.

나. <고려대> ①(사람이나 짐승이 음식물을) 입으로 씹거나 하여 뱃속으로 들여보낸다. ㉠고기를 먹다 ② (사람이나 짐승이 끼니를) 식사로 때우다. ㉡아침을 먹다

(3)에서 용언의 뜻풀이는 문형이나 의미역 정보, 뜻풀이, 용례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표준>과 <고려대>는 관용어의 경우에는 표제어와 뜻풀이 외에도 용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때 <표준>은 뜻풀이와 용례만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고려대>의 경우 용언형 관용어에 의미역까지 제시되어 있다.

속담의 경우에는 관용어와도 사정이 다르다. <표준>과 <고려대>에서 모두 표제어와 뜻풀이만이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고, 몇몇 속담에만 제한적으로 용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어사전의 이러한 관용표현 처리는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보여준다. 가장 먼저 고려해 볼 것은 관용표현을 부표제어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부표제어는 해당 주표제어와의 형태적, 의미적 연관성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하게 되는 처리 방법이다. <표준>의 경우 부표제어로 ‘-하다’, ‘-되다’ 형의 파생어를 예로 들고 있다. 본고에서 살피고 있는 관용표현들의 경우에도, 주표제어와의 관계를 밝혀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먹고 들어간다’와 같은 경우, ‘먹다’나 ‘들어가다’와 같은 표제어의 의미를 기초로 하여야 이해할 수 있다.

현재 사전의 부표제어 배열 방식은 관용표현의 첫 어절에 해당하는 주표제어의 부표제어로 배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종이에 출간되는 사전인 경우에는 이것이 합리적인 배

열 방식일 수 있다. 종이책으로 출간된 사전의 이용자는 기본적인 표제어 배열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을 것이다. 자모 배열 순서에 따라 표제어를 훑어볼 때, ‘먹고 들어가다’는 ‘먹다’의 인근에 배열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런 배열을 통해 ‘먹고 들어가다’와 ‘먹다’의 관계도 파악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관용표현을 부표제어로 제시하는 방식은 사전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방식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사전 이용자 종이로 출간된 사전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웹 기반으로 검색하는 형태로 사전을 이용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웹 사전에서는 이용자가 ‘먹고 들어가다’라는 표현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먹다’를 굳이 검색하지 않을 것이다. ‘먹고 들어가다’ 혹은 ‘먹고 들어가지’ 등의 활용 형태를 바로 검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웹 검색을 기본으로 하는 사전들 중 일부에서도 이런 형태의 관용표현을 직접 검색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이 사실이다.

(4) ‘먹고 들어가다’에 대한 웹 사전 검색 결과

가. <표준>의 검색 결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먹고 들어가다 찾기 자세히 찾기 확대하기 축소하기 인쇄하기 내 단어장 "먹고 들어가다"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나. ‘네이버’의 사전 검색 결과	 어학사전 먹고 들어가다 국어사전 속담·관용구 1-5 / 56건 [관용구] 먹고 들어가다 <표제어: 먹다²> [구] 어떤 일을 할 때 미로운 점을 미리 알고서 관계하다.

(4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먹고 들어가다’는 사전 검색을 서비스하는 포털에서는 기본 형태를 활용하여 바로 검색이 가능하다. 반면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표준>의 웹 사전에서는 검색이 불가능하다.⁶⁾ (4나)와 같이 직접 검색이 가능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으나, 사전 검색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4가)와 같은 사이트에서 직접 검색과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웹 사전이 보편화된 상황에서는 관용표현을 부표제어 형태로 제시하고, 일차적인 검색이 어렵도록 해 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부표제어의 처리는 사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으나, 웹 사전에서는 이것이 이용자의 편의를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먹고 들어가다’의 의미를 알기 위해 ‘먹다’를 별도 검색하고, 여기에서 다시 관용어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은 사전에 대한 이용자의 깊은 이해

6) 물론 <표준> 웹 사전에서 ‘자세히찾기’를 활용하면 속담이나 관용어의 검색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 ‘먹고 들어가다’와 같은 형태를 바로 검색하는 것은 어렵다.

가 없으면 알기 어려운 일이다. 기존에 종이로 출간된 형태의 사전에서는 인쇄된 표제어들을 한꺼번에 보는 일이 가능했고, 따라서 ‘먹고 들어가다’를 찾는 과정에서 ‘먹다’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주표제어와 부표제어의 관계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용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웹을 기반으로 한 사전의 경우에는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을 직접 검색해야 하므로, ‘먹고 들어가다’가 검색 가능한 별도의 단위로 처리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찾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된다.

또한 관용표현의 특성, 구성 요소의 의미 합으로는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 또한 사회·역사적 배경에 의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관용표현의 사전 처리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문장으로서 용례를 보여주는 것뿐 아니라 어떤 상황에 이 표현이 적절하게 사용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즉 국어사전 주표제어의 경우 문법정보, 의미역, 화용 정보⁷⁾ 등을 폭넓게 포함하는데, 관용표현의 경우에도 이러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2)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현재의 국어사전들에서는 관용표현의 경우 보다 자세한 부가 정보나 용례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전을 통해 접하게 되는 많은 관용표현들이 한국어 사용자들에게 낯선 표현이라는 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2)에서 제시된 속담의 경우, 대부분의 속담에 용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사전 편찬의 과정에서 실제 사용례를 중심으로 용례를 제시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상당수의 속담은 용례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실제로 속담 가운데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은 일부 속담에 한하고, 사전에 수록된 상당수의 속담은 유의미한 빈도를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⁸⁾ 따라서 현대적으로 그 쓰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표현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속담의 경우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오랜 시간에 걸쳐 압축되어 굳어진 표현인 만큼, 이전에는 활발하게 사용되었으나 현대에 이르러 그 실제적인 쓰임을 찾기 어려운 속담도 많이 섞여 있다. 관용표현이 형태·의미적으로 굳은 표현, 그리고 관습적인 의미를 갖게 된 표현을 말하지만, 국어사전에서는 대단히 보수적으로 관용표현을 선정하여 실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사전에 반드시 현대적으로 사용례가 확인된 속담만을 실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사전은 다양한 언어 정보를 수집하여 제시하며, 여기에는 다양한 옛말이나 이전에 사용하던 용어 등도 폭넓게 포함된다. 다만 이렇게 사용자들에게 실제로는 낯선, 이전에 사용되었을 법한 표현들은 다수 포함되어 있는 반면, 비교적 최근에 더 익숙하게 사용되는 새로운 표현들은 포함되지 않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⁹⁾ 그간 관용표현을 다룬 선행연구에서 관용어나 속담의 변

7) 남길임(2007)에서는 담화 참여자, 담화 상황, 담화 기능, 사회·문화적 양상 등을 사전의 화용 정보로 표현하였다. 안의정·이종희(2008), 도원영(2008) 등에서는 이를 ‘사용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안의정·이종희(2008)에서는 사용역을 어휘 사용에 관한 용법 중 특히 사회적인 상황과 관련된 정보로, 도원영(2008)에서는 다양한 사회 계층이나 집단에 따라 구별해서 사용하는 언어 변이형으로 정의하고 있다.

8) 물론 정용진(1993)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속담의 용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정용진(1993)의 경우 주로 문학작품에서 사용된 속담의 용례를 제시하고 있다. 현대 사전의 편찬에서 사용되는 말뭉치에는 물론 문학작품도 포함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언어 자료를 망라하고 있는데 문학작품을 제외한 다른 실제로 많은 말뭉치에서 속담의 용례를 찾기 어렵다.

9) 안의정·황은하(2021)에서는 구어에서 보다 활발하게 사용되는 확장형 관용표현은 기존의 사전에 선정되지 못하는

이형이 많다는 점이 논의되었는데,¹⁰⁾ 이러한 형태들은 사전 편찬의 과정에서 크게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관용표현들이 환경 의존적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해당 표현들이 사용되는 환경에 따라 다양한 변이형을 보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이형들을 사전에 포함시킬 것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익숙하게 사용되는 ‘땅을 치고 후회했다’라는 표현의 경우, ‘땅을 치다’, 혹은 ‘땅을 치고 후회하다’는 사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땅을 칠 노릇’으로만 수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전에 수록하는 관용표현이 보수적으로 선정되며, 최근의 실제 사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2)에서 관용어로 제시된 ‘먹고 떨어지다’의 경우, <고려대>의 경우에는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와 용법으로 사용될 때의 의미를 다의로 넣었으나 <표준>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의 언어 사용자들에게 더 익숙할 법한 새로운 관용표현들은 신어 자료집, 혹은 신어 사전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사전이용자들이 실제로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바로 알기 어렵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4. 관용표현의 사전 처리 방향

3장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4장에서는 관용표현의 처리 방향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크게 표제어와 뜻풀이로 나누어 살펴인데, 현재 많은 사전이 웹 사전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웹 사전에서의 처리를 기본으로 하여 논의할 것이다.

4.1. 표제어 선정

먼저 표제어의 선정과 관련된 문제이다. 국어사전의 경우 관용표현은 부표제어로 처리된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것처럼, 웹 사전 환경에서는 관용표현을 부표제어로 처리하는 효용이 이전만큼 크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관용표현 자체가 주표제어와 동일한 지위의 표제어로 처리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본다.¹¹⁾

또한 사전에 수록할 관용표현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새로운 관용표현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는데, 물론 이러한 표현들을 모두 사전에 실을 수 없다. 그러나 의미가 관습적으로 굳어지고 그 쓰임이 많은 표현들이, 최근에 생겨났다거나 구어적 표현이라는 이유로 사전의 표제어 선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서는 곤란하다. 이에 더불어, 기존의 관용표현에서 확장·변형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안의정·황은하(2021)에서는 구어 확장 어휘 단위 표제어가 기존의 사전에 많이 누락된 원인은 기존 사전의 부표제어 수록의 관행에 있다고 보면서,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내용을 지적하였다. 첫째는 말뭉치의 낮은 대표성에서 기인한 경우, 둘째는 통속어를 배제하고자 하는, 전통적인 사전 편찬의 관행, 셋째는 사전의 전통적인 거시 구조에 관한 것 등이다.

10) 이는 관용표현의 전반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이다. 권경일(2010), 노명희(2015, 2016), 김혜령(2016) 등의 연구에서 관용표현들이 다양하게 변형되어 사용됨을 보였다.

11) 관용표현 사전의 경우에는 관용표현들이 모두 표제어로 처리되므로 국어사전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처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국어사전이 웹 기반으로 서비스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된 형태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용언형 관용구의 경우에는 용언의 일반적인 활용 양상을 따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형태가 모두 선정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속담 등의 표현에서 분명히 다른 의미를 갖고 사용되는 변이형, 단축형 등을 표제어로 삼을 필요는 있다.

(5) 가. 공든 탑이 무너지랴

나. 공든 탑

(5나)는 (5가)에서 온 것이 분명하지만, (5가)와 (5나)가 서로 다른 맥락에서 사용되는 것은 분명하다. (5가)는 노력이 허사가 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거나, 실제로 문제가 생기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되지만, (5나)는 반대의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5가)뿐 아니라 (5나) 역시도 사전에서 다루어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의미나 사용 맥락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외에도, 언중들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변이 형태가 있다면 이를 사전에 등재할 수 있다. 앞서 예로 들었던 ‘땅을 치다’의 경우가 그러하다.

(6) 가. 땅을 칠 노릇

나. 땅을 치다

현재 국어사전에서는 (6가)만을 부표제어로 올리고 있지만, (6나) 형태로도 그 사용례를 충분히 찾아볼 수 있으므로, 이를 표제어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구어에서, 그리고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표현들 역시 표제어로 삼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멍 때리다(아무 생각없이 멍하니 있다)’, ‘양창 깨지다(혼이 나다)’ 등과 같은 표현 역시 표제어로 삼을 수 있다.¹²⁾

4.2. 뜻풀이부의 처리

4.2.1. 뜻풀이 및 용례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뜻풀이와 관련된 부분이다. 뜻풀이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은 다양한데, 이것은 관용표현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른 성격을 갖는다. 예를 들어 용언형 관용구와 속담은 그 각각이 요구하는 부가 정보나, 뜻풀이 형태에서 차이를 보인다.

(7) 가. 새빨간 거짓말

나. 먹고 들어가다

다. 공든 탑이 무너지랴

12) 이러한 관용표현들은 기존의 국어사전에는 실리지 않았고, 사용자 참여형 사전에 일부 실려 있다. 다만 예로 제시한 관용표현들은 구어, 혹은 비격식체에서 사용되므로 이에 관한 정보를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7가)는 의미 풀이 과정에서 활용 정보, 형태 정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차적으로 ‘새빨간 거짓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만 고민해도 좋을 것이다. (7가)와 같은 예는 사용 형태에 변이 정도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용언형 관용구처럼 활용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반면 (7나)의 경우는 이것이 용언형 관용구이기 때문에, 활용 정보에 관한 정보를 줄 필요가 있다. (7다)는 (7나)보다는 (7가)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여기에는 별도의 정보가 더 필요하다. (7다)의 경우 속담의 축자적인 의미와 그 비유적 의미가 구분되므로, 이들을 모두 제시해 주는 것이 이용자에게 더 유용할 것이다.

(8) 가. 새빨간 거짓말

뻔히 드러날 만큼 터무니없는 거짓말.

나. 먹고 들어가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이로운 점을 미리 얻고서 관계하다.

다. 공든 탑이 무너지랴

공들여 쌓은 탑은 무너지질 리 없다는 뜻으로,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한 일은 그 결과가 반드시 헛되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물론 현재 사전들의 뜻풀이에서 이러한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고려대>의 경우 (8나)와 같이 문형 정보를 제시하고 있으며, (8다)의 경우 속담을 다루고 있는 많은 사전들이 이러한 풀이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풀이 방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관용표현의 유형별로 뜻풀이 방식을 통일하되, (8나)와 같은 유형의 관용표현에는 활용과 관련한 문형, 의미역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용례이다. 현재 사전에서 관용표현에는 용례가 제한적으로 실려 있다. 특히 속담과 같은 경우에는 그 용례를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관용표현의 실제 용법을 이용자에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는 뜻풀이 외에도 용례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 실제로 관용표현만을 다룬 사전들에서는 각 관용표현 표제어에 대해 용례를 충실히 제시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9) 가난이 제 격이라.

“…숫대장이들고 가난이 제각이라 없어 그렇지 알 건 다알고 있소. 더 이상 간섭 말고 댁네들 가는 길에 돌이 차이 지나 마슈.” 김주영⑤(객주)

<한국의 속담 용례 사전>(정종진 1993)

(9)는 속담사전의 하나로, 속담의 용례 수집에 집중하고 있는 특수사전이다. 이러한 예를 보면 반드시 속담과 같은 관용표현의 용례를 찾을 수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물론 모든 관용표현에 모두 용례를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것이다. 용례를 찾기 어려운 경우라면 현재적

쓰임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사용 시기와 관련된 정보를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¹³⁾

4.2.2. 화용 정보

관용표현은 비유적 의미가 강하고, 사회·역사적인 맥락에 의존적인 표현이다. 따라서 관용표현의 이해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사전에서 다루는 관용표현의 정보 안에도 이를 반영하여야 할 텐데, 현재 국어사전에서는 이를 다루지 않고 있다.¹⁴⁾

일반적으로 국어사전에 포함되는 화용 정보는 사용 계층, 분야, 지역, 시대, 문체, 문화적 배경 등의 언어 외적인 환경에 관한 정보이다. 권경일(2004)에서는 화자의 태도(긍정, 부정, 중립), 화자의 의도, 문체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용법 정보를 설명해야 한다고 하였다. 남길임(2007)에서는 화용 정보의 유형을 담화 참여자, 담화 상황, 담화 기능, 사회·문화적 사용 등의 네 가지로 나누어 보고 있다. 화용 정보는 이 외에도 많은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선행 연구를 고려하여 본다면 화용 정보는 크게 담화 참여자에 대한 정보와 상황에 대한 정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0) 가. 뉘통수를 치다, 새빨간 거짓말

나. 공든 탑이 무너지랴

(10가)는 해당 표현을 사용한 화자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으며, (10나)는 화자의 믿음이나 염원 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화자, 즉 담화 참여자와 관련된 화용 정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보는 뜻풀이에서 부연 설명으로 이를 표시해 줄 수 있다. 화용 정보들은 모두를 일일이 품사, 발음처럼 미시 구조의 항목으로 확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화자의 태도, 의도, 감정 등은 명확히 분류하거나 이름 붙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뜻풀이에서 부가 설명으로 제시하는 것이 보다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13) 이 부분은 화용 정보의 표시에서 처리할 수 있다.

14) 국어사전 가운데 <고려대>는 일러두기에 ‘사용 영역’ 정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 <고려대>의 ‘사용 영역’ 정보

가. 용언 표제어가 사용되는 언어 외적인 환경에 대한 정보는 제약 정보 뒤 ‘[]’ 안에 제시하였다.

나. 용언이 특정한 계층이나 분야, 시대, 문체 등에 한정되어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 영역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였다.

대가다 {벧사람들의 은어로} / 죽다 {경기나 놀이 따위에서} / 세초하다 {조선 시대에} / 뜨다2 {속된 말로}

용언 외의 표제어는 뜻풀이 내용 안에 해당 정보를 포함하였다. <표준>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따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러한 내용을 뜻풀이에 포함시키고 있다.

(11) 가. **뒤통수를 치다**

(사람이) 예상치 못한 공격을 가하거나 배신하다. 예상치 못한 상황을 속되게 표현한 말이다.

나. **공든 탑이 무너지라**

공들여 쌓은 탑은 무너질 리 없다는 뜻으로,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한 일은 그 결과가 반드시 헛되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노력의 결과에 대한 화자의 믿음을 드러낼 때 사용한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상황에 대한 것이다. 앞서 예시로 든 ‘먹고 떨어지다’와 같은 표현은 문어보다는 구어에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다’와 같은 표현은 구어보다는 문어에서 더 자연스럽게 사용될 것이다. 이는 (12가)와 같이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용표현 가운데 일부 속담과 같이 현대적인 쓰임을 찾기 어려운 경우, 즉 용례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 시기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12나)와 같은 형태로 기술할 수 있다.

(12) 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다**

(사람이) 사형을 당하여 죽다. 주로 문어에서 사용된다.

나. **먹기는 파발이 먹고 뛰기는 역마가 뛴다**

먹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뜻으로, 이전에 정작 애쓴 사람은 대가를 받지 못하고 편히 있던 사람이 그 대가를 받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던 말.

(12나)는 속담의 하나인데, 이 속담은 현대의 용례를 찾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용례를 제시하기 어려우며, 이것이 주로 이전에 사용되었던 관용표현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즉, 뜻풀이에 ‘이전에’, 혹은 ‘예전에’ 등의 표현을 넣는 방식으로 사용 시기에 관한 정보를 주는 것이다.

4.2.3. 관련어

관용표현을 부표제어가 아니라 주표제어로 처리한다고 해도, 이전에 주표제어로 처리하던 표제어와의 관계를 표시해 주는 것은 여전히 필요한 일이다. 본고에서 논의한 것처럼 관용표현 전체를 주표제어와 같은 지위로 처리한다면, 이전에는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던 관용표현과 주표제어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의미 기술 과정에서 이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 관용표현 자체가 표제어인 관용어사전 가운데 이러한 기술 방식을 취한 사전을 찾아볼 수 있다.

(13) <관용어사전>(박영준·최경봉 1996)의 기술

시치미(를) 떼다 판청부리다, 모르는 체하다 ※시치미: 매의 주인이 주소를 적어 매 꼬리 위의 털 속에다 매어 둔 네모진 뿔. 매를 훔친 사람이 이 시치미를 떼어 내고 자기 매인 것처럼 행세하는 데에서 유래함.

미주알 고주알 이것저것 모두 속속들이. 자세히 캐어 묻는 모양을 이르는 말이다. ※ 미주알: 똥구멍을 이루는 창자의 끝부분.

뿔(이) 나다 화난 상태가 되다. ¶“그것 좀 눌렀다고 속 좁게 뿔이 나기는.” “제 옷을 사주지 않는다고 동생은 뿔이 잔뜩 나 있다.” <유>뿔이 솟다.

(13)의 예에서 관용표현의 관련어들을 제시한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시치미, 미주알’ 등은 부가 정보로, ‘뿔이 솟다’는 유의어인 관련어로 표시한 것이다. 여기에서 ‘시치미를 떼다’, ‘미주알 고주알’에 대해 ‘시치미’나 ‘미주알’의 의미를 밝혀주는 것은 해당 관용 표현의 의미 파악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국어사전의 관용표현 뜻풀이에서도 이러한 정보를 함께 밝혀줄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정보는 표제어인 관용표현에 대한 ‘관련어’로 표시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웹 사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관련어는 링크를 통해 긴밀한 관계를 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웹 기반 사전에서는 표제어나 뜻풀이의 주요 단어, 관련어 등을 링크를 통해 연결해 주고 있다. 따라서 ‘미주알 고주알’과 ‘미주알’의 관계 역시 참고 관계 링크를 통해 표시해 줄 수 있다.

(14) 가. **미주알 고주알** … <참고>미주알

나. **미주알** … <참고>미주알 고주알

특히 관용표현의 변이형태들이 표제어로 선정될 경우, 변이된 형태들은 변이 이전의 형태와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원 형태와 축약형 관계라면 기존의 사전에서 처리한 것과 같이 원어-약어 관계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미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면, 이들을 유의 관계나 원어-약어 관계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들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참고어로 처리하여 ‘공든 탑이 무너지랴’라는 속담과 ‘공든 탑’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15) 가. **공든 탑이 무너지랴**

공들여 쌓은 탑은 무너지리 없다는 뜻으로,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한 일은 그 결과가 반드시 헛되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참고> 공든 탑

나. **공든 탑**

공들여 쌓은 탑이라는 뜻으로, 노력을 기울여 얻은 결과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참고> 공든 탑이 무너지랴

이러한 링크는 국어사전이라면 이전의 주표제어와 부표제어 사이의 연관성을 드러내는 장치가 될 것이다. 관용표현 사전의 경우에는 관련어 표시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서로 의미적·형태적으로 연관 관계에 있는 표현들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적극적인 관련어 표시 및 링크를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참고문헌

- 강현화(1992). “속어표현의 사전처리 문제에 관하여.” 『연세어문학』 24. 173-183.
-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편저(200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국립국어연구원 편저(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권경일(2004). “관용구의 어법 설명에 관하여.” 『한국사전학』 4. 323-348.
- 권경일(2010). “관용구의 변이형과 사전의 표제어 설정에 대한 연구.” 『한국사전학』 15. 102-127.
- 김문창(2013). “한국어 관용표현 연구 약사.” 『한국어의미학』 13. 13-22.
- 김선영(2014). “한국어 관용표현의 화용적 특징 연구 - 변이 양상을 중심으로 -.” 『한국언어문화학』 11-3. 23-46.
- 김혜령(2016). “속담 기반 표현의 특성.” 『한국어 의미학』 54. 203-229.
- 남길임(2007). “부표제어의 범위와 유형 - 속담·관용표현·언어·패턴·상투표현·자유표현의 기술 - .” 『한국사전학』 9. 143-161.
- 남길임(2007). “사전텍스트의 화용정보 유형 연구”, 텍스트언어학 23. 69-94.
- 노명희(2015). “‘دت’ 속담류의 변이형과 의미.” 『반교어문연구』 39. 333-366.
- 노명희(2016). “속담의 구성적 특징과 변이 양상.” 『국어학』 80. 109-139.
- 노용균(2002). 『한국어 기본 속어사전』 한국문화사.
- 도원영 외(2011). 『고려대 한국어대사전과 사전학』 지식과교양.
- 도원영(2008). “국어사전 표제어의 사용역 정보에 대한 고찰.” 『우리어문연구』 30. 33-57.
- 문금현(1999). 『국어의 관용 표현 연구』 태학사.
- 민지원(2021). 국어사전의 화용 정보 현황에 대한 비판적 고찰. 언어사실과 관점 52. 205-240.
- 박규병(2013). 『한국어 관용어 사전』 문예림.
- 박영준 최경봉(2001). “관용어 사전의 실제와 개선 방안.” 『한국어학』 13. 239-260.
- 박영준(1993). “국어 관용어 사전 편찬을 위하여.” 『우리어문연구』 6·7. 43-65.

- 박영준·최경봉(1996). 『관용어사전』 태학사.
- 백석원(2012). “관용표현 구성요소의 다의성 - ‘눈’ 관용표현을 중심으로 -.” 『한국사전학』 19. 59-90.
- 송현주 (2015). “관용 표현의 인지언어학적 접근.” 『국제언어문학』 31. 71-95
- 안의정(2015). “한국어 표현 사전 편찬의 현황과 전망.” 『한국사전학』 25. 162-182.
- 안의정·이종희(2008). “국어사전의 사용역 정보에 관한 연구.” 『어문론총』(한국문학언어학회) 48. 27-60.
- 안의정·황은하(2021). “사전에 없는 구어 확장 어휘 단위 표제어의 수집과 기술.” 『한국사전학』 38. 41-66.
- 원영섭(2003). 『우리속담사전』 세창미디어.
- 이동혁(2007). 『한국어 관용 표현의 정보화와 전산 처리』 역락.
- 이희자(2003). “‘관용표현’의 사전학적 연구: ‘관용구 사전학’의 정립을 위하여.” 『국어학』 41. 385-404.
- 이희자·유현경·김한샘·천미애(2007). “학습용 한국어 관용 표현 사전 편찬 연구.” 『한국사전학』 9. 99-122
- 임동권(2004). 『속담사전』 민속원.
- 정용진(1993). 『한국의 속담 용례사전』 태학사.
- 정용진(2006). 『한국의 속담 대사전』 태학사.
- 조평환, 이종호(2006). 『우리말 속담사전』 파미르.
- 최경봉(1992). “국어 관용어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경봉(1995). “국어 사전에서의 관용적 표현의 처리문제 - 관용어, 속담, 연어에 대한 처리를 중심으로 -” 『한남어문학』 20. 265-286.
- 최경봉(2008). “특수사전 편찬의 현황과 과제.” 『우리어문연구』 30. 59-86.
- 최경봉(2014). 『(의미 따라 갈래지은) 우리말 관용어 사전』 일조각.

“관용표현의 사전 처리 방향”에 대한 토론편

정유남(중앙대 인문콘텐츠연구소)

본 발표문은 국어사전에서 관용표현의 사전 처리 양상을 고찰하고 현재 국어대사전의 관용표현 처리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관용표현이 웹 사전 기반에는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지 실제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사전학적으로 의의가 있습니다. 언어 현실을 사전에 반영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관용표현의 여러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선생님의 견해에 동의하는 바이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웹 기반 사전의 개념과 범위

발표문에서 제시한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한국어대사전’은 종이사전을 목적으로 출간되었고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웹 검색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웹 기반 사전은 ‘우리말샘’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말샘’은 어휘 복합체 및 관용구·속담을 표제어로 두고 있습니다. 발표문에서 예로 제시한 ‘먹고 떨어지다’의 형태로 검색이 가능하며, 관용표현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인 ‘먹고’와 ‘떨어지다’로 검색해도 속담·관용구로 나타납니다. ‘우리말샘’에서는 속담과 관용구의 검색 편의를 위해 정보 항목이 아닌 표제어로 신고 있는 것입니다. 발표자 선생님께서는 웹 기반 사전은 종이 사전이 웹에서 검색이 되는 형태를 포함하시는 것이지요? 웹 기반 사전의 범위에 대해 선생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검색결과

우리말샘

먹고 떨어지다

찾아보기

자세히 보기

어휘 0

속담·관용구 1

뜻풀이 0

용례 0

먹고 떨어지다

이(가) 포함된 찾기 결과

전문가 검색 정보

참여자 제안 정보

먹고 떨어지다

* 먹고 떨어지다 '001', 어떤 일에서 노력하지 않고도 확실한 이득이나 성과가 있다.

숙담·관용구 선택

전제(1)

관용구(1)

내가 선택한 단어

내가 선택한 용례

우리말샘

먹고

찾아보기

어휘 12

속담·관용구 5

뜻풀이 818

용례 1,483

먹고

이(가) 포함된 찾기 결과

전문가 검색 정보

참여자 제안 정보

먹고

* 먹고 '001', 너무 비슷하게 닮다.

먹고 들어간다

* 먹고 들어간다 '001', 어떤 일을 할 때 이로운 점을 미리 알고서 관계하다.

먹고 떨어지다

* 먹고 떨어지다 '001', 어떤 일에서 노력하지 않고도 확실한 이득이나 성과가 있다.

등으로 먹고 배로 먹는다

* 등으로 먹고 배로 먹는다 '001', 「복한어」 이모저모로 다 이익을 한다.

숙담·관용구 선택

전제(128)

속담(123)

관용구(5)

내가 선택한 단어

내가 선택한 용례

단어장 추가

전체 삭제

의견 제시

국립중앙도서관

2. 관용표현 변이형의 처리 방안

발표문 6쪽에서 예시로 든 관용표현의 변이형 처리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미시구조를 보여 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 ‘실제 사용 관용표현을 사전에 적극적 반영’이라는 논의에 동의합니다. 다만, 웹 기반 사전에서 어떻게 미시구조를 제시할 수 있을까요? ‘땅을 칠 노릇’, ‘땅을 치다’, ‘땅을 치고 후회하다’와 조사 생략형 ‘땅 칠 노릇’, 줄어든 말 ‘땅 치고 후회’와 같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래 스크린 샷은 ‘우리말샘’의 경우입니다. ‘시치미 떼다’에서 조사 생략이 가능하며 ‘떼다[따다]’가 교체 가능하다는 의미인데요. 다양한 변이형을 어디까지, 어떠한 형태(구조)로 제시할지 ‘관용표현의 미시구조’에 대한 선생님의 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시치미(를) 떼다[따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001」 자기가 하고도 하지 아니한 체하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체하다. <동의 관용구> ‘시침(을) 떼다[따다]’

- ▶ 나는 손까지 저으며 강하게 부인했다. 원장이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시치미를 떼면** 그것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었다. <윤후명, 별보다 멀리>
- ▶ 그때 **시치미** 똑 **떼고** 오리발만 내밀던 녀석의 소행머리를 생각하니 속에서 다시 열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이었다. <윤홍길, 완장>
- ▶ 모른 척 돌아앉아 담배만 빨고 있었다. 자꾸만 그쪽으로 눈이 가려는 것을 억지로 돌아앉아 **시치미를 따고** 있었다. <송기숙, 자랏골의 비>

3. 언어 지식 및 백과사전적 지식에 대한 제시 방안

관용표현과 관련된 언어 지식 및 백과사전적 지식에 대하여 뜻풀이 및 용례, 화용 정보, 관련어로 제시한 미시구조 가운데 어디에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는 ‘문화사’, ‘관용표현사’와 같은 새로운 항목을 주어야 할지요? 가령, 관용표현 ‘미주알고주알’, ‘시치미를 떼다’ 등과 같은 언어 지식 정보를 축자적 의미로 풀이할 수 있고 어원 정보로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의 경우는 축자적 의미로 풀이하거나 어원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어 차용(明らかな(아끼라까))-분명히, 赤(아까)-완전히/전혀)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원 또는 백과사전적 지식을 제시해야 할지, 제시한다면 어떠한 정보로 주어야 할지 웹 기반 사전에서 제시할 수 있는 처리 방안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데이터 기반 관용표현 연구

김한샘(연세대)

1. 머리말

관용 표현은 의미적 고정성을 가진 어휘의 결합체이다. 관용 표현은 언어 단위에 따라 관용어, 관용구, 관용절 등으로 구분되기도 하고 결합 강도와 중의성, 문화적 배경에 근거해 언어, 익은말, 속어, 익힘말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전통적인 관용 표현 연구는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 등의 전형적인 언어학의 관점에서 규칙으로 기술하기 힘든 관용 표현의 특성을 밝히는 데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주로 기존 사전이나 논문에서 언급된 관용 표현 자체, 혹은 인위적으로 생산한 연구자 작성 용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관용 표현에 대한 연구에서 연구 대상에 대한 용어의 선택은 곧 연구 대상의 개념과 범위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졌다. 그러나 언어 단위, 결합 강도, 중의성 등의 요소를 기준으로 관용 표현의 외연을 명확히 경계 짓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관용 표현, 관용구, 관용어, 속어 등의 용어가 구분 없이 혼용되는 현상이 지속되었고, 상대적으로 구성 요소의 인접성이 낮고 의미 합성성이 높은 언어는 분리되어 논의되었다.

1990년대 이후 말뭉치를 활용한 언어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관용 표현 연구에도 관용 표현의 실질적 사용 양상을 분석하는 방법론이 도입되었다. 실질적인 언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성과를 포함한 한국어 관용 표현의 연구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학술 정보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한 결과 관용 표현 연구의 연구 주제를 거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네트워크 분석 과정에서 연구의 실재를 정성적으로 분석한 결과 실제 언어 사용 데이터인 말뭉치를 기반으로 한 연구를 통해 관용 표현 연구의 세부 주제가 확장되고 응용 분야와의 접목이 활발해졌음이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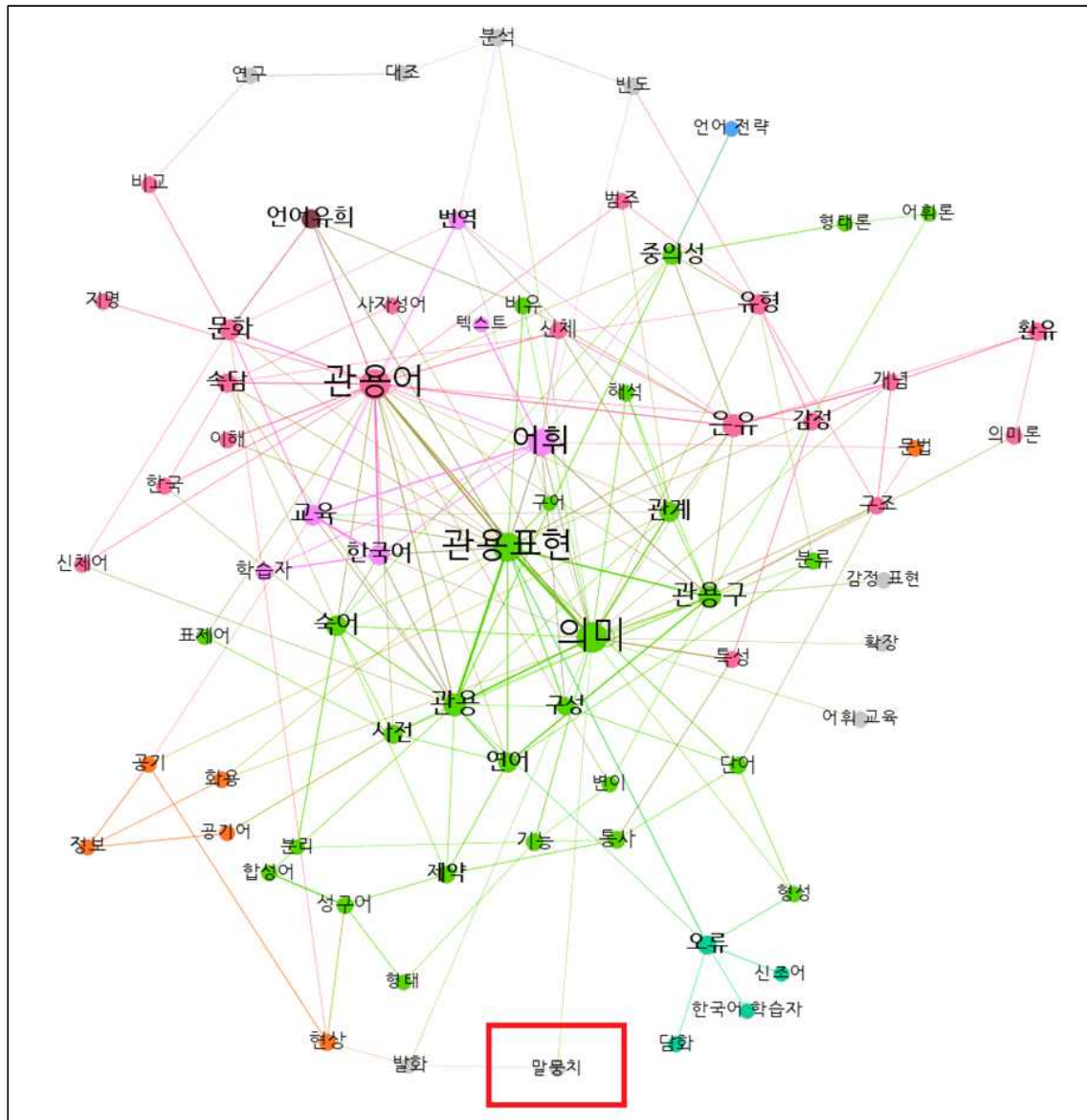
관용 표현 연구의 응용 분야 중 하나인 자연어 처리에서는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언어학에서의 주요 주제인 중의성에 주목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중의성을 가지는 언어 표현의 추출과 중의성 해소 등은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도 흥미로운 주제였으며 다운스트림 태스크 중 기계 번역 분야에서 특히 관용 표현의 처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언어학 분야의 용어 외에도 복합 단위(CU; Compound Unit), MWE(Multi Word Expression), 다어절 변환 단위(MWTU: Multi-Word Translation Unit) 등의 용어가 연구 대상을 규정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복합 단위에 대한 연구인 정한민(1999), 다어절 변환 단위에 대한 연구인 문경희(2002) 이후 한동안 국내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관용 표현 자체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는 기계 번역 방법론의 발전과 관련이 있다. 개별 표현의 항목과 의미 등 사전적 정보보다 대규모 말뭉치에서의 통계적 정보와 머신러닝 기법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기계 번역을 비롯한 자연어 처리의 흐름이 이동하였기 때문이다. 정체되었던 관용 표현의 중의성 해소 연구는 딥러닝의 등장으로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관용 표현 주석 말뭉치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발표는 학술 정보 데이터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다양한 말뭉치 기반 관용 표현 연구의 실제와 응용 분야를 확인하고, 최근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한 자연어 처리 분야의 관용 표현 연구 사례를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학술 정보 데이터 기반 관용 표현 연구 분석

관용 표현 관련 한국어 연구의 현황을 거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한국 학술지 인용 색인 KCI를 기준으로 2002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20년간의 관용 표현 관련 연구를 살펴보았다. ‘관용 표현’, ‘관용구’, ‘관용어’, ‘숙어’를 제목이나 핵심어로 포함하는 학술지 게재 논문을 검색한 결과 총 536편의 논문이 나왔고, 이중 한국어와 외국어의 비교·대조 연구를 포함해 한국어와 관련한 논문을 추리니 총 310편이 되었다. 이 논문들을 대상으로 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하였다. 관용 표현을 다룬 논문의 핵심어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최근 20년간 관용 표현 연구 논문 핵심어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

네트워크 분석은 핵심어를 중심으로 동시 출현 빈도를 계산하여 핵심어 간 연관성 및 문서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관용표현 논문에 대해 동시에 출현하는 단어의 쌍을 추출하고, 단어 쌍을 네트워크화하여 분석함으로써 핵심어로부터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분석을 위한 도구로는 데이터 시각화 프로그램인 Gephi 0.9.2를 사용하였다. Gephi는 핵심어를 표상하는 노드(node) 간의 관계를 엣지(edge)로 시각화하여 제시하며, 중심성을 기반으로 노드의 중요성을 측정하여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각 노드로 표상된 핵심어의 크기는 중요도를 의미하고, 색으로 표시된 군집은 주제 영역의 관계성을 의미한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군집된 결과를 살펴보면 군집별로 유의미한 주제 분포 양상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용어의 면에서는 관용표현이 가장 우세한 가운데 관용어가 관용표현에 버금가게 비중

을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관용구, 속어, 연어, 속담의 순으로 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관용 표현 중 속담은 연구 대상을 가리키는 용어 중 가장 비중은 작지만 문화, 지명, 한국, 이해 등의 핵심어와 관계를 맺으며 독립된 군집을 이루고 있다. 관용 표현의 생성 기제 및 동기와 관련한 은유, 환유, 감정이 의미론이라는 연구 분야 핵심어와 함께 이룬 군집과 한국어 학습자, 오류, 담화, 신조어 등이 이루는 한국어 교육 관련 군집도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유의미하다.

이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는 관용 표현 연구를 위한 실제 데이터로서의 말뭉치도 네트워크 분석 결과에서 별도의 노드로 자리매김하였다. 말뭉치와 같은 색으로 표현된 ‘연구, 대조, 분석, 빈도, 의미, 발화’ 등의 핵심어는 말뭉치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연구 분야와 말뭉치 분석의 주제와 방법, 말뭉치의 유형 등의 관점에서 ‘말뭉치’와 연관성을 보인다.

관용 표현 관련 연구 중 ‘말뭉치’를 활용한 논문을 정성적으로 살펴보니 연구 주제와 연구 대상의 시기, 연구 및 응용 분야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말뭉치의 생성 시기는 20세기 초부터 현대까지이며, 형태, 문법, 어휘, 의미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말뭉치 데이터의 유형도 언어의 면에서 단일 언어 말뭉치만 분석한 것과 병렬 말뭉치를 분석한 것이 모두 존재했고, 매체 레지스터의 면에서는 문어 말뭉치, 구어 말뭉치, 준구어 말뭉치가 모두 활용되었다. 연구 분야 또한 인지언어학, 대조언어학, 언어 교육, 자연어 처리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어서 말뭉치 기반 관용 표현 연구 중 관용 표현의 중의성 해소의 일환으로 관용 표현의 자동 분류를 시도한 연구 사례를 주석 말뭉치 구축과 실험 결과를 포함하여 소개한다.

3. 관용 표현 주석 말뭉치의 구축과 가공

관용 표현과 일반 표현을 자동적으로 분류하는 실험을 위한 ‘관용 표현 주석 말뭉치’는 김한샘(2011)의 ‘속어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제시된 중의성을 가진 관용 표현들을 대상으로 구축되었다. 관용표현 주석 말뭉치는 속어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항목 중 ‘체언+용언’ 형식을 갖춘 빈도 15위 내의 표현을 대상으로 구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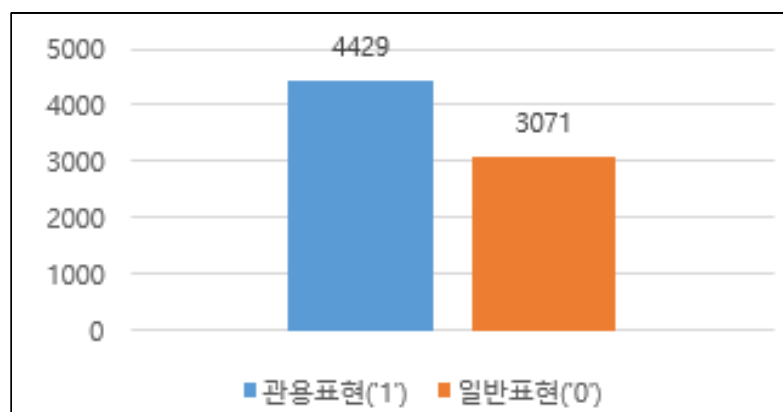
자리를 잡다, 말을 듣다, 말이 되다, 문을 열다, 가슴 아프다, 열을 받다, 길을 가다, 길을 건다, 눈에 띄다, 문을 닫다, 못을 박다, 뿌리를 내리다, 몸에 배다, 막을 내리다, 꿈을 꾸다

각 표현별로 500건의 용례를 선정하여 총 7500건의 용례로 구성하였는데, 각 항목별로 일반표현, 관용표현 사용 빈도와 비율, 순위를 보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관용표현 별 예문 500건 중 일반표현 및 관용표현 빈도와 사용 비율·순위

	표현	길이 제한 시 빈도	관용표현 으로 쓰인 빈도	일반표현 으로 쓰인 빈도	관용표현 사용 비율(%)	관용표현 사용 비율 순위
1	자리를 잡다	7,012	340/500	160/500	68.0 %	7위
2	말을 듣다	25,757	41/500	459/500	0.82 %	15위
3	말이 되다	3,507	423/500	77/500	84.6 %	5위
4	문을 열다	13,364	43/500	457/500	0.86 %	14위
5	가슴이 아프다	2,958	491/500	9/500	98.2 %	1위
6	열을 받다	1,011	461/500	39/500	92.2 %	4위
7	길을 가다	4,923	258/500	242/500	51.6 %	9위
8	길을 건다	3,158	239/500	261/500	47.8 %	10위
9	눈에 띄다	8,950	234/500	266/500	46.8 %	11위
10	문을 닫다	5,079	129/500	371/500	25.8 %	12위
11	못을 박다	1,338	318/500	182/500	63.6 %	8위
12	뿌리를 내리다	716	379/500	121/500	75.8 %	6위
13	몸에 배다	936	482/500	18/500	96.4 %	2위
14	막을 내리다	875	464/500	36/500	92.8 %	3위
15	꿈을 꾸다	4,920	127/500	373/500	25.4 %	13위
총계		84,504	4429/7500	3071/7500	59.05%	-

관용 표현 주석 말뭉치는 관용표현으로 쓰인 경우를 '1', 일반표현으로 쓰인 경우를 '0'으로 주석하였으며, 학습과 테스트를 위해 각 6000건, 1500건으로 나누어 실험에 사용하였다. 주석 결과 관용적 의미로 쓰인 용례와 일반 표현으로 쓰인 용례의 분포는 그림 2와 같았다.



<그림 2> 관용 표현 주석 말뭉치의 의미 분포

관용 표현을 하나의 단위로 인식하기 위해서 구축된 관용 표현 주석 말뭉치를 가공하였다. 기본적으로는 어절과 형태소를 토큰으로 하여 임베딩한 결과를 학습에 사용하였으며, 임베딩

을 위해 학습에 사용된 말뭉치를 세 가지 방식으로 전처리하였다. 데이터 정교도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 문장을 확인하면서 수동으로 전처리하였다.

첫 번째 임베딩 데이터는 표현 부분에 아무런 가공을 가하지 않고 문맥에 나타난 표현의 표면형(surface form)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두 번째 임베딩 데이터는 ‘Idiom Principle’을 적용한 단순 단일 토큰 임베딩으로써, 표현에 포함된 어절을 기본형 고정 없이 단순히 ‘_’로 연결하여 단일 토큰으로 인식되도록 한 데이터이다. 세 번째 임베딩 데이터는 표현을 ‘_’로 이은 것을 stemming하여 기본형으로 고정한 것으로, stemming은 체언의 경우 격조사 복원, 용언의 경우 활용형을 모두 기본형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즉 어절의 경우 ‘체언+격조사_용언 기본형’, 형태소의 경우 ‘체언_격조사_용언 기본형’을 하나의 토큰으로 인식하도록 만든 stemming 단일 토큰 임베딩 데이터이다. 표면형, 단일 토큰, 스템밍 방식으로 구축한 데이터의 예를 보이면 다음 그림 3과 같다.

	document	label	expression
11	나 열 받게 하지 마. 안 그럼 중간 소음 확실하게 보장해줄 거니까. 사냥개도 키우...	1	열을_받다
12	그래 가지고 평소에 티비 보면서 갑수 선생님 보면서 열 받다가도 아 그 때 김갑수...	1	열을_받다
13	만에 하나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나의 길을 간 거라고 생각하고 곳곳이 살아줘. ...	1	길을_가다
14	이런 사람은 잘 눈에 띄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남의 꿈무니만 쫓아가는 것처럼 보인...	0	눈에_띄다
15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도순이 고개를 돌려보니, 창가 쪽 조용한 자리에 여럿이...	0	자리를_잡다
16	벼르고 벼르면 싸움이 이번에도 싱겁게 막을 내리려는 셈인지 이때 마침 큰딸 오희(五...	1	막을_내리다

	document	label	expression
11	나 열_받게 하지 마. 안 그럼 중간 소음 확실하게 보장해줄 거니까. 사냥개도 키우...	1	열을_받다
12	그래 가지고 평소에 티비 보면서 갑수 선생님 보면서 열_받다가도 아 그 때 김갑수 ...	1	열을_받다
13	만에 하나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나의 길을_가다 거라고 생각하고 곳곳이 살아줘. ...	1	길을_가다
14	이런 사람은 잘 눈에_띄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남의 꿈무니만 쫓아가는 것처럼 보인...	0	눈에_띄다
15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도순이 고개를 돌려보니, 창가 쪽 조용한 자리에 여럿이...	0	자리를_잡다
16	벼르고 벼르면 싸움이 이번에도 싱겁게 막을_내리려는 셈인지 이때 마침 큰딸 오희(五...	1	막을_내리다

	document	label	expression
11	나 열을_받다 하지 마. 안 그럼 중간 소음 확실하게 보장해줄 거니까. 사냥개도 키...	1	열을_받다
12	그래 가지고 평소에 티비 보면서 갑수 선생님 보면서 열을_받다 아 그 때 김갑수 ...	1	열을_받다
13	만에 하나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나의 길을_가다 거라고 생각하고 곳곳이 살아줘....	1	길을_가다
14	이런 사람은 잘 눈에_띄다 않는다. 어떻게 보면 남의 꿈무니만 쫓아가는 것처럼 보인...	0	눈에_띄다
15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도순이 고개를 돌려보니, 창가 쪽 조용한 자리에 여럿이...	0	자리를_잡다
16	벼르고 벼르면 싸움이 이번에도 싱겁게 막을_내리다 셈인지 이때 마침 큰딸 오희(五姬...	1	막을_내리다

<그림 3> 관용 표현 주석 말뭉치 가공의 예

Train과 test를 위한 말뭉치 역시 사전 학습 말뭉치와 마찬가지로 어절과 형태소로 토큰화 이징 후, 세 가지 방식으로 수동 전처리를 하여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는 총 6종이다.

4. 관용 표현 자동 분류 실험

국외 연구 중 관용표현과 일반표현 간의 분류를 수행한 연구로는 Peng & Feldman.(2016), Ehren et al.(2020), Kurfali, M., & Östling, R. (2020), Madabushi et al.(2021) 등이 있다.

Peng & Feldman.(2016)는 Word2Vec으로 얻은 단어 벡터를 활용해 관용표현과 일반표현의 벡터와 주변 문장(local context)의 단어 벡터를 내적(inner product)하고, 각 표현이 나타난 문맥의 공분산 행렬(scatter matrix)을 구하여 관용표현과 일반표현 간의 구분을 시도한 연구이다. 이에 대한 전제로 일반표현으로 쓰인 경우의 주변 단어 분포(distribution)와 관용표현으로 쓰인 경우의 분포와 차이를 상정하였다. 실험 결과 일반표현으로 쓰인 경우의 내적이 관용표현보다 컸으며, 이에 따라 공분산 행렬도 서로 다른 양상을 띄었다.

Ehren et al.(2020)에서는 동사구 관용표현(VID: Verbal Idiom)에 대해 단어 임베딩 모델인 Word2Vec과 fastText, 그리고 문장 임베딩인 ELMo를 사용하여 일반표현과 관용표현 간의 중의성 해소를 시도하였다. 실험을 위해 4분지로 주석된 관용표현 주석 말뭉치 COLF-VID를 사용하였으며, 레이블 LITERAL, IDIOMATIC, UNDECIDABLE, BOTH로 주석되었다. 분류 태스크를 수행한 결과, 문맥(context)에 대한 정보가 반영된 임베딩을 생성하는 ELMo의 분류 성능이 가장 뛰어났다.

Kurfali, M., & Östling, R. (2020)에서는 문맥이 반영된 임베딩을 생성하는 BERT를 사용해 PIE(Potentially Idiomatic Expression)를 관용표현과 일반표현으로 분류하는 태스크를 수행하였다. 분류를 위해 일반표현은 compositional, 관용표현은 non-compositional한 표상(representation)를 가지고 있음을 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PIE 분류는 단어 중의성 해소(WSD: Word Sense Disambiguation) 태스크와 결을 같이한다. 실험 결과, 지도 학습 태스크로 수행한 경우의 성능이 비지도 학습으로 수행한 것보다 분류 성능이 좋았으며, BERT의 문맥을 반영한 임베딩이 중의성 해소에 확실히 기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Madabushi et al.(2021)에서는 MWE(Multi Word Expression) 중 관용성이 높은 표현들에 대해 일반표현인지 관용표현인지를 분류하는 태스크를 수행하였다. 수행 시 관용표현에 Idiom Principle을 적용하여 하나의 토큰으로 표상하였으며, 기존 사전 훈련 모델인 BERT, XL-Net, RoBERTa를 사용하였다. 또한 수행에 있어 zero-shot, one-shot, few-shot 학습을 도입함으로써 언어자원이 불충분한 조건에서 관용표현과 일반표현이 어떻게 분류되는지를 관찰하였다. 관찰 결과 아직 zero-shot 학습은 미흡하나, one-shot, few-shot의 성능이 보장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zero-shot 학습에서 문맥을 추가로 학습하였을 경우 성능이 높아져, 관용표현과 일반표현의 분류에 있어 문맥이 주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표현이 단일 토큰으로 취급되었을 경우 분류 성능이 개선되어, Idiom Principle이 관용표현 분류에 어느 정도 유효한 영향이 있음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한국어를 대상으로 한 관용 표현 자동 분류 연구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으나, 3장에서 구축한 관용 표현 주석 말뭉치를 활용하여 실험한 결과 한국어 관용표현에 대한 자동 분류의 가

능성을 확인하였다. 실험은 사전 학습된 임베딩 모델 Word2Vec, fastText에 3장에서 소개된 가공된 말뭉치를 추가 학습시킨 후 분류 태스크 수행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사전 학습 임베딩은 2017년 공개된 Word2Vec, fastText 임베딩을 사용하였다.¹⁾ 이 임베딩은 Word2Vec과 fastText를 약 339,000,000어절의 학습 말뭉치로 학습시켜 얻은 결과이며, 사전 크기(vocabulary size)는 30,186이다. 사전 학습 임베딩을 Word2Vec과 fastText에 주입 후, 추가 학습을 위해 관용표현 레이블링 말뭉치를 어절, 형태소로 토큰나이징 후, 각 토큰나이징 결과 별로 ‘표면형 말뭉치’, ‘단순 단일 토큰 말뭉치’, 그리고 ‘stemming 단일 토큰 말뭉치(stemming)’를 생성하였다. 추가 학습에 사용된 파라미터는 Word2Vec의 경우 Skip-gram으로 window 5, 300차원, 5 epochs이다. 또한 fastText도 Word2Vec과 동일하게 window 5, 300차원, 5 epochs로 훈련을 진행하였다.

Word2Vec과 fastText로 수행하는 분류 태스크의 분류 레이어로는 bi-LSTM을 사용하였으며 메모리 셀 수는 512로 설정하였다. 분류 태스크 수행 시 활성화 함수로는 sigmoid 함수를 사용하였으며, 하이퍼파라미터는 배치 사이즈 16, 10 epochs, Adam optimizer, 학습률 0.001(1e-3)로 설정하였다. 훈련 중 validation은 0.2의 비율로 이루어졌다.

<표 2> 실험에 사용된 분류 레이어 하이퍼파라미터

	하이퍼파라미터 설정값
Optimizer	Adam
학습률	1e-3
배치 사이즈	16
Epochs	10
Validation rate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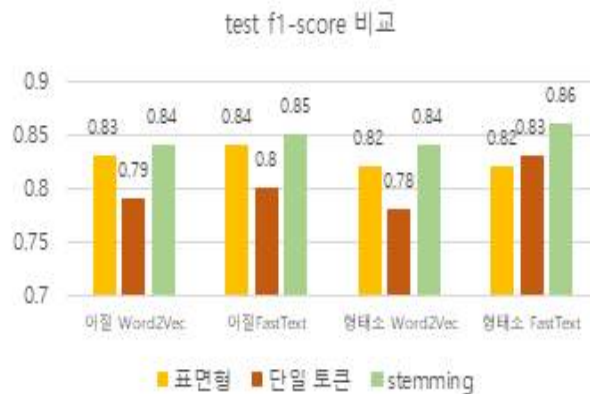
분류 태스크 수행은 임베딩에 상응하는 가공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수행 결과 전체 분류 성능은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났다.

<표 3> 실험 test 분류 성능

어절	Test 성능	표면형	단일 토큰	Stemming
Word2Vec	accuracy	0.8	0.75	0.81
	presicion	0.8	0.77	0.83
	recall	0.88	0.82	0.85
	f1-score	0.83	0.79	0.84
fastText	accuracy	0.82	0.75	0.82
	presicion	0.78	0.74	0.83

1) <https://github.com/Kyubyong/wordvectors>

	recall	0.90	0.88	0.87
	f1-score	0.84	0.8	0.85
형태소	Test 성능	표면형	단일 토큰	Stemming
Word2Vec	accuracy	0.81	0.74	0.82
	presicion	0.86	0.75	0.86
	recall	0.81	0.83	0.82
	f1-score	0.83	0.78	0.84
fastText	accuracy	0.8	0.8	0.84
	presicion	0.84	0.82	0.87
	recall	0.81	0.86	0.85
	f1-score	0.82	0.83	0.86



<그림 4> test f1-score 비교

실험 결과, Word2Vec과 fastText 모두 어절, 형태소 토큰 실험에서 단순 단일 토큰의 성능이 가장 낮았으며, 전반적으로 stemming을 한 단일 토큰의 accuracy 및 f1-score가 표면형, 단순 단일 토큰 임베딩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어절 토큰보다 형태소 토큰을 기반으로 실험을 진행했을 때 분류 성능이 향상되었으며, Word2Vec보다 fastText의 분류 성능이 좋았다. Zampieri et al.(2019)에서는 형태론적 특성을 띤 프랑스 어, 바스크 어에 대해 Word2Vec과 fastText를 사용하여 Multi Word Expression 분류 태스크를 수행하였는데, fastText의 분류 성능이 Word2Vec에 비해 앞선 바가 있다. 이는 형태론적 특징이 강하게 드러나는 언어에 대해 Word2Vec보다 fastText가 강건한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에서도 어절 토큰보다 형태소 토큰의 분류 성능이 앞서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교착어에 속하는 한국어 특성 상 실험에서도 형태론적 특징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형태론적 특성에 강건함을 보이는 fastText의 성능이 Word2Vec에 앞섰다.

가장 높은 accuracy와 f1-score를 기록한 실험은 형태소 stemming 임베딩을 사용한 fastText로 accuracy 0.84, f1-score 0.86을 기록하였다. 같은 단일 토큰이라도 용언을

stemming하여 단일 토큰화한 임베딩이 곡용·활용형을 고정하지 않았던 단순 단일 토큰의 임베딩보다 분류 성능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한국어의 교착어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단일 토큰의 경우 체언의 곡용형이나 용언의 활용형이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표현에 대한 매 토큰들이 서로 다른 벡터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곧 표현 ‘말을 듣다’의 곡용·활용형인 ‘말을_듣고(어절 토큰)’, ‘말_을_듣고(형태소 토큰)’, ‘말을_듣다’, ‘말_을_듣다’, ‘말을_들어서’, ‘말_을_들어서’, ‘말_들어’가 모두 다른 토큰으로 취급됨으로써 분류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반면 stemming을 진행한 경우 위의 곡용·활용형이 모두 ‘말을_듣다(어절 토큰)’ 혹은 ‘말_을_듣다(형태소 토큰)’란 기본형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기본형의 벡터와 주변 문맥 간 벡터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히 표상될 수 있다.

Word2Vec, fastText의 결과는 관용표현 중의성 해소에 있어 관용표현이 단일 토큰으로 취급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두 실험의 stemming 결과로 미루어 보아, 관용표현과 같은 단어 이상의 표현들을 인간의 언어적 직관과 마찬가지로 단일 토큰으로 처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

5. 맺음말

학술 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용 표현 연구를 거시적으로 조망하고 이중 말뭉치를 활용한 연구를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통해 관용 표현 연구의 주제와 관점, 분야를 파악할 수 있었고 말뭉치 활용 연구가 폭넓게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말뭉치 활용 관용 표현 연구 영역 중 한동안 정체되어 있었던 관용표현의 자동 분류 태스크와 관련하여 실험을 위한 말뭉치 데이터를 구축하고 실험한 결과를 공유하였다.

관용표현과 일반 표현의 중의성 해소를 위해 ‘Idiom Principle’을 적용하여 어절 단위, 형태소 단위 말뭉치에 대해 다양한 층위(표면형, 단일 토큰, stemming)의 임베딩을 생성하여 사전 학습 임베딩 및 분류 태스크 실험을 수행한 결과 자동 분류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언어 단위 면에서 봤을 때 어절 토큰보다 형태소 토큰을 기반으로 했을 때 분류 성능이 높았는데, 한국어 관용 표현을 처리할 때 형태소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실험에서 stemming 단일 토큰을 적용했을 때의 정확도와 f1점수가 다른 경우들에 비해 높게 나온 것은 언어 사용자의 인지 단위에 맞추어 자연어 처리 과정에서도 관용 표현을 하나의 단위로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현재진행형이다. 단어 기반 임베딩인 Word2Vec과 fastText을 사용한 실험에 이어, 문맥 표상(Contextual representation)을 기반으로 하는 ELMo, Context2Vec, BERT 등을 활용한 실험을 준비 중이다. 관용 표현의 종수와 말뭉치의 규모를 확대하여 실험한 결과가 분류 태스크를 더 훌륭하게 수행할 것이라 기대한다. 한국어 관용 표현 탐지와 분류 실험을 통해 문맥이 반영된 임베딩의 성능이 단어 기반 임베딩보다 우수하다는 기존 실험 결과가 언어 보편적인 것인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형석, 양장훈(2020), Word2Vec 및 fastText 임베딩 모델의 성능 비교.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21(7), 1335-1343.
- 공하림, 손혜진(2021), 언어문화 리터러시 관점에서의 한국어 관용 표현 양상 분석 - 한국어 모어 화자의 구어 말뭉치 분석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3(2), 383-400.
- 김한샘(2003), 자연언어처리를 위한 관용표현 연구. 한국어 의미학, 13, 43-67.
- 김한샘(2011), 한국어 속어 연구, 한국문화사
- 남길임(2021), 구 단위 한국어 사전의 기술과 형태론적 쟁점. 한말연구, 61, 105-135.
- 문금현(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의미 교육의 현황과 전망. 한국어 의미학, 16, 143-177.
- 박서운(2021), 사전 훈련 언어 모델을 활용한 관용표현 분류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박서운, 강예지, 강혜린, 장연지, 김한샘(2020), 워드 임베딩을 활용한 관용표현 인식 연구.
한국정보과학회 언어공학연구회:학술대회논문집(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548-553.
- 박서운, 강예지, 강혜린, 장연지, 김한샘(2021), 관용표현 중의성 해소를 위한 다층위 임베딩 연구. 한국정보과학회 언어공학연구회:학술대회논문집(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167-172.
- 백이연(2018), ‘기/氣’ 관련 관용구의 한일 대조연구. 日語日文學研究 106(1), 83-99.
- 서상규(2002), 한국어 정보처리와 언어정보, 국어학 39집, 321-354.
- 송대현(2020),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드라마 <도깨비> 속 관용표현 교육 방안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4(5), 181-191.
- 송현주(2017), 의식주 관련 한국어 관용 표현의 동기화 양상. 한국어 의미학, 58, 185-209.
- 오재혁(2016), 20세기 초 구어 말뭉치에 나타난 국어의 문법적 특징. 한국어학, 71, 23-47.
- 유현경(2001), 개별어 사전 편찬 : 한국어 관용구 사전의 편찬에 대한 연구 -문형 정보와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언어사실과 관점, 11(2), 221-242.
- 이다빈, 최성필(2019), 대용량 텍스트 자원을 활용한 한국어 형태소 임베딩의 모델별 성능 비교 분석. 정보과학회 논문지 46(5), 413-418.
- 이희자(2003), ‘관용표현’의 사전학적 연구. 국어학, 41, 385-420.
- 조용림, 백낙천(2019), 언간에 나타난 관용적 표현 양상. 국제언어문학회, 43, 91-123.
- 최지훈(2008), ‘대학생 대화 말뭉치’에 나타난 한국어 관용구의 인지의미론적 연구.
언어와언어학, 43, 147-175.
- 한송화, 강현화(2004), 언어를 이용한 어휘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교육, 15(3), 293-316.
- 황정아(2006), 한국어 관용어와 관용표현의 관계. 한국언어문화학, 3(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71-290.

Afsaneh Fazly, Paul Cook, Suzanne Stevenson(2009), Unsupervised Type and Token

- Identification of Idiomatic Expressions. *Computational Linguistics*, 35, 61-103.
- Afsaneh Fazly, Suzanne Stevenson(2006), Automatically Constructing a Lexicon of Verb Phrase Idiomatic Combinations. 11st Conference of the European Chapter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337-344.
- Agnes Tutin, Emmanuelle Esperanca-Rodier(2019), The Difficult Identification of Multiword Expressions: From Decision Criteria to Annotated Corpora. *Computational and Corpus-Based Phraseology*, 404-416.
- Caroline Sporleder and Linlin Li(2009), Unsupervised Recognition of Literal and Non-Literal Use of Idiomatic Expressions. Proceedings of the 12th Conference of the European Chapter of the ACL, 754-762.
- Fan Bu and Xiaoyan Zhu, Ming Li(2010), Measuring the Non-compositionality of Multiword Expressions. Proceedings of the 2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ational Linguistics, 116-124.
- Hessel Haagsma, Malvina Nissim, Johan Bos(2018), The Other Side of the Coin: Unsupervised Disambiguation of Potentially Idiomatic Expressions by Contrasting Senses. Proceedings of the Joint Workshop on Linguistic Annotation, Multiword Expressions and Constructions, 178-184.
- Ivan A. Sag et al.(2002), Multiword Expression: A Pain in the Neck for NLP.
- Jerry Liu et al.,(2020), Metaphor Detection Using Contextual Word Embeddings From Transformers. Proceedings of Second Workshop on Figurative Language Processing, 250-255.
- Jing Peng and Anna Feldman(2016), Experiments in Idiom Recognition. Proceedings of COLING 2016, the 2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ational Linguistics: Technical Papers, 2752-2761.
- Jing Peng and Anna Feldman(2017), Automatic idiom Recognition with Word Embeddings.
- Jing Peng and Anna Feldman, Ekaterina Vylomova(2014), Classifying Idiomatic and Literal Expressions Using Topic Models and Intensity of Emotions. Proceedings of the 2014 Conference on Empirical Methods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2019-2027.
- Jing Peng, Anna Feldman, Hamza Jazmati(2015), Classifying Idiomatic and Literal Expressions Using Vector Space Representations. Proceedings of Recent Advances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RANLP), 507-511.
- Kurfali, Murathan, and Robert Östling(2020), Disambiguation of Potentially Idiomatic Expressions with Contextual Embeddings. Joint Workshop on Multiword

Expressions and Electronic Lexicons.

- Madabushi, H. T., Gow-Smith, E., Scarton, C., & Villavicencio, A. (2021), AStitchInLanguageModels: Dataset and Methods for the Exploration of Idiomaticity in Pre-Trained Language Models. arXiv preprint arXiv:2109.04413.
- Navnita Nandakumar, Timothy Baldwin, Bahar Salehi(2019), How Well Do Embedding Models Capture Non-compositionality? A View from Multiword Expressions, Proceeding of the 3rd Workshop on Evaluation Vector Space Representations for NLP, 27-34.
- Nicolas Zampieri, Carlos Ramish, Geraldine Damnati(2019), The Impact of Word Representations on Sequential Neural MWE Identification. Proceedings of the Joint Workshop on Multiword Expressions and WordNet, 169-175
- Paul Cook and Afsaneh Fazly and Suzanne Stevenson(2007), Pulling their Weight: Exploiting Syntactic Forms for the Automatic Identification of Idiomatic Expressions in Context. Proceedings of the Workshop on A Broader Perspective on Multiword Expressions, 41-48.
- Rafael Ehren(2017), Literal or idiomatic? Identifying the reading of single occurrences of German multiword expressions using word embeddings.
- Rafael Ehren et al.(2020), Supervised Disambiguation of German Verbal Idioms with a BiLSTM Architecture. Proceedings of the Second Workshop on Figurative Language Processing, 211-220.
- Reyhaneh hashempour, Aline Villavicencio(2020), Leveraging Contextual Embeddings and Idiom Principle for Detecting Idiomaticity in Potentially Idiomatic Expressions Proceedings of the Workshop on Cognitive Aspects of the Lexicon, 72-80.
- Sinclair, J.,(1991), Corpus, Concordance, Colloc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데이터 기반 관용표현 연구”에 대한 토론문

송상헌(고려대 언어학과)